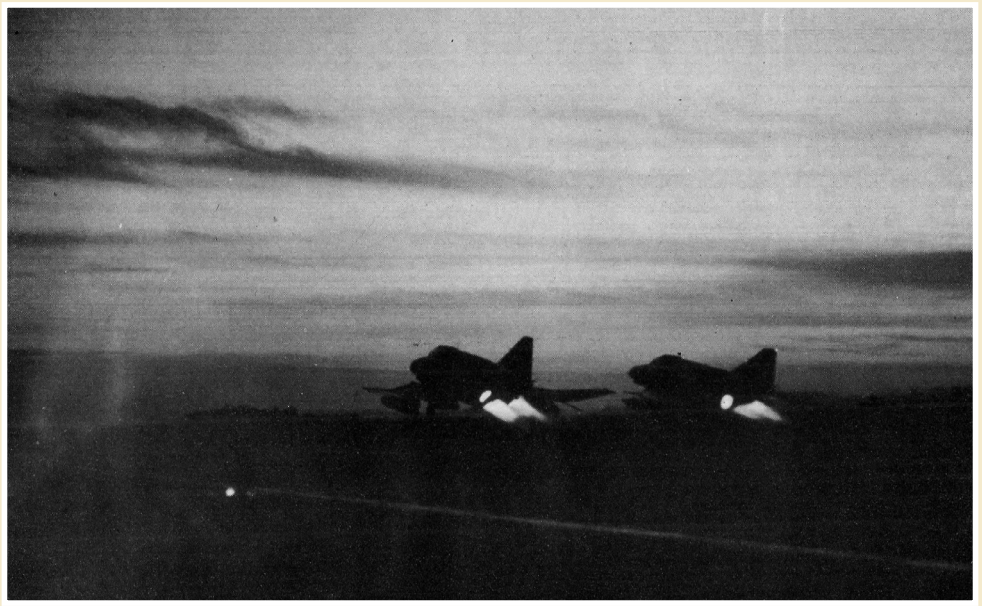
# 공군

1986년 제 1 호
〈통권 196 호〉

空 軍 本 部

# 찬란한 병인(丙寅) 새아침
# 솟아라, 공군(空軍)

초전필승, 대지를 박차고 솟아오른다.



철저한 경계근무

참모총장 및 지휘관참모 새해 아침 국립묘지 잠배('86. 1. 1)

공군 지휘관회의 개최(공군본부 '85. 12. 5)

승공작전 시상식(3579부대, '85. 11. 28)

신문 편집국장단 접견(공군본부 '85. 11. 16)

목 차(目 次)


권두언(卷頭言) ····· 정훈감(政訓監) 이은봉(李殷鳳) (1)
'86년(年)은 필승대비태세(必勝對備態勢) 확립(確立)의 해 ····· (4)
'86 국제경제전망(国際経済展望)과 우리의 대응(対応) ····· 정상일(鄭相逸) (7)
주변 정세(情勢)와 남북대화(南北對話) ····· 나창주(羅昌柱) (14)
보호주의무역경제(保護主義貿易経済)와 우리의 대응(対応) ····· 이성덕(李聖德) (21)
수치예보(数値予報)에 대(対)하여 ····· 오문영(吳文泳) (29)
바람직한 지휘관리(指揮管理) ····· 장상용 (41)
군(軍) 조직(組織) 의사결정(意思決定)에 참여이론(參與理論) ····· 김성곤 (49)
단전호흡(丹田呼吸) ····· 주우성(朱禹聖) (59)
수필(隨筆) 잃어버린 것들 ····· 이희열 (72)
체험과 소재 ····· 문종진 (76)
시(詩) 이 아침의 하늘을 ····· 임관영 (78)
특별기획(特別企劃) 공산주의 이론(共産主義 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현황(現況)과 개선책(改善策)에 관(関)한 연구(研究) ····· 중위 윤태순 (79)

특별기획(特別企劃) : 신 좌경사상비판(新 左傾思想批判)
종속이론(従屬理論)과 우리의 현실 ····· 전상배 (106)
종속이론의 허구성과 우리의 자세 ····· 정재원 (113)
유로 코뮤니즘의 본질과 우리의 자세 ····· 서휘석 (122)

우상(偶像)의 도시(都市) 평양(平壤) ····· 이상우 (128)
북한주민들의 불행한 가정생활 ····· 장한철 (152)
지휘(指揮) 성공사례(成功事例) ····· 하무웅 (161)
2000년(年)을 위(為)한 「프랑스」 ····· 김윤암(金允岩) (181)
미국(美國)의 차기전투기(次期戰鬪機) 개발계획(開發計劃) ····· 이건순(李建淳) 역(訳) (197)
실전(実戦)에 있어서 전자공학(電子工学) ····· 윤종수 역(訳) (208)
교통법규를 알자 ····· 편집실 (215)
컴퓨터와 SAGE 시스템 ····· 정한철 (220)
세계(世界)의 국가(國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윤덕현(尹德鉉) (225)



# 공 군

통권 제 196 호

1986년 제 1 호


참모총장통솔방침
參謀總長統率方針

정병강군(精兵强軍)이 되자

필승의 정신전력
必勝의 精神戰力

필승의 기술, 기량
必勝의 技術, 技倆

필승의 지휘, 관리
必勝의 指揮, 管理


공군본부
(空軍本部)


권두언(卷頭言)

## 병영(兵営)은 국민정신교육(国民精神教育)의 도장(道場)


정훈감(政訓監) 공군대령(空軍大領)
이 은 봉(李殷鳳)


병인년(丙寅年) 새해가 밝았다.

위대(偉大)한 자연(自然)의 순환질서(循環秩序)가 모두 그러하듯이 인간사(人間事) 또한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장(場)에 도전하는 각오와 희망찬 결의로 새해를 맞았다.

소망(所望)의 태양(太陽)은 솟구쳐, 보이지 않는 적(敵)을 응시(凝視)하는 병사(兵士)의 어깨에도 벽고지 험한 바위 위의 돔(Dome)에도, 끝없이 비상(飛翔)하고픈 항공기의 은익(銀翼)에도 병영(兵営)의 어느 곳이나 눈부신 축복의 빛이 내린다.

새해는 결코 안이(安易)한 길보다 발전(発展)과 개척을 위한 험난(険難)한 길을 택(択)하고 시련(試錬)과 역경(逆境)을 당해서 도망(逃亡)치는 비겁자가 아니라 부딪쳐 극복(克服)하는 승리자(勝利者)가 될 것임을 우리 장병 모두 다짐하는 엄숙한 시작(始作)이기도 하다.지난 해에는 남북대화의 진전(進展)으로 온 국민(国民)이 통일(統一)에 대한 일시적(一時的) 흥분과 기대를 갖기도 했었다. 적십자회담(赤十字会談)을 통하여 남북이산가족(南北離散家族)의 재회(再会)가 있었고 경제(経済) 및 체육교류회담(体育交流会談) 등도 있었지만 북괴(北傀)의 일시적인 대화(対話) 재개(再開)는 우리의 대적(対敵) 경계심(警戒心)을 약화(弱化)시키고 헛점을 발견하여 무력도발(武力挑発)의 결정적 시기를 포착하려는 술책(術策)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남북대화(南北対話)가 진행(進行)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産集団)은 남침(南侵)을 위한 군비증강(軍備増強)과 전쟁준비(戦争準備)에 광분(狂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国際社会)에서 대남비방(対南誹謗)을 그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친소(親蘇) 밀착(密着)에 의한 최신에 공격용 무기와 핵기술(核技術)의 도입(導入)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가중(加重)시킴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경각심(警覚心)과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高潮)시키고 있다. 이는 올 가을 서울에서 개최(開催)되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방해 저지시키는 한편 더욱 벌어지는 남북 간의 국력(国力) 격차(隔差)에 초조함을 나타내고 있는 북괴(北傀)의 무모(無謀)한 무력도발(武力挑発)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단적(端的)으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군(軍)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完璧)한 대적(対敵) 필승(必勝)의 경계태세와 함께 정신전력(精神戦力)의 강화(強化)로 반드시 싸워 이기는 불퇴전(不退戦)의 의지(意志)를 확고히 해야 하겠다. '86년을 '필승(必勝) 대비태세(対備態勢) 확립(確立)의 해'로 참모총장님께서 신년사(新年辞)를 통해 정하신 것도 '86년(年)이 갖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強調)하신 것인만큼 우리는 당면목표(当面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배전(倍前)의 분발(奮発),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모름지기 보이지 않는 안쪽의 골격(骨格)이 튼튼한 집이 겉만 화려(華麗)한 누각(樓閣)보다 든든하게 오래도록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한 진리(真理)인 것처럼 병영(兵営)이 건전(健全)한 국민정신(国民精神) 교육(教育)의 도장(道場)으로써 구 기능을 다하고 장병(将兵)들이 국민정신(国民精神) 형성(形成)에 선도적(先導的) 역할(役割)을 다할 때 우리 사회(社会)와 국가(国家)는 튼튼한 반석(盤石) 위에 올려진다는 것을 재삼 명심해야 하겠다.이제 병인년(丙寅年)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조국과 겨레에 바쳐' 완벽(完璧)한 영공수호(領空守護)의 불사신(不死神)이 되어야 할 우리 장병들의 사명(使命)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첫째, 주인의식(主人意識)으로 무장(武装)된 진취적(進取的) 기상(気像)을 가져야 하겠다.

한때는 병영(兵営)에서도 '잘 해야 본전(本銭)'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매사(毎事) 소극적(消極的)이고 방관자적(傍観者的) 자세로 무사안일(無事安逸)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하게 전개해 온 의식개혁(意識改革)을 통해 사명감(使命感)을 배양(培養)한 만큼, 모든 임무가 '나와 가족 그리고 군(軍)과 국가(国家)의 발전에 직결(直結)되며 나는 모든 일의 주체(主体)로서 나의 임무(任務)에 최선을 다한다'는 주인의식(主人意識)을 갖고 드높은 긍지(矜持)와 보람으로 임무에 더욱 매진(邁進)해야 하겠다.

둘째, 업무(業務)에 전문성(専門性)과 능률(能率)을 증가(増加)해야 하겠다.

군(軍)의 업무(業務)가 언뜻 보아 단순한 것 같지만 나 하나의 업무(業務) 자체(自体)가 국민(国民)의 생존(生存)과 직결되므로 고도(高度)의 전문성(専門性)이 요구되고 있다.



근자(近者)의 중동전쟁(中東戦争)과 영국(英国)-아르헨티나 간(間)의 전쟁사례(戦争事例)에서도 보았듯이 고도(高度)의 창의력(創意力)과 전문성(専門性), 그리고 적극적이며 굳건하게 단결된 정예군대(精鋭軍隊)는 수적(数的) 우위(優位)의 적(敵)도 효율적(效率的)으로 격파(撃破)하고 완벽한 승리(勝利)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맡겨진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分析)해 보고 가장 합리적(合理的)이며 능률적(能率的)으로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창의적(創意的) 노력(努力)을 다해 전문가적(専門家的) 능력을 발휘(發揮)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 근검(勤倹) 절약(節約)을 생활화(生活化)해야 하겠다.

군(軍)은 가장 큰 소비집단(消費集団)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군(軍)은 "절약(節約)은 제(第)2의 생산(生産)"이라는 목표(目標) 아래 최대(最大)의 질적(質約)과 재투자(再投資)를 통하여 전력증강(戦力増強) 및 국가경제(国家経済) 발전(発展)에 선도적(先導的) 역할(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달성한 국민소득(国民所得) 2천불시대(千弗時代)는 지속성장(持続成長)의 갈림길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銘心)하고 2000년대(年代)의 선진조국영광(先進祖国栄光)을 위해 근검절약(勤倹節約)을 생활화(生活化)하는 슬기를 발휘하여 지속적(持続的)인 국력신장(国力伸張)의 터전을 굳건히 하는 밀알이 되어야 하겠다.

이 나라의 주인(主人)이 되어 태어난 우리! 이 강산(江山)의 은혜를 받아 함께 자라 온 우리 장병들은 그간의 봉사(奉仕)와 희생(犠牲)의 나날들이 헛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병인년(丙寅年) 올해도 모든 열정(熱情)을 다 바쳐 조국(祖国)의 영광(栄光)과 공군(空軍)의 발전(発展)을 위해 힘차게 진군(進軍)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다.

# '86년(年)은
# 필승대비태세(必勝對備態勢)
# 확립(確立)의 해

## - '86 공군운영목표(空軍運營目標) 해설(解說) -

### 초전필승(初戰必勝)을 위한 완벽(完璧)한 대비태세(対備態勢) 확립(確立)

그간 우리는 정치(政治), 경제(経済), 사회(社会), 외교(外交), 국방(国防)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적으로, 또 질적(質的)으로 괄목할 만큼 성장(成長)을 이룩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숱한 어려움과 많은 변화(変化)를 경험해야 했고 값비싼 대가(代価)를 치른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나라 안밖의 변화가 도전(桃戰)의 물결은 보다 거세질 것으로 내다 보인다. 때문에 이를 극복(克服)하고 평화(平和)와 정의(正義), 그리고 통일(統一)과 번영(繁栄)의 시대(時代)를 앞당기는데 우리 국민 모두의 비상(非常)한 노력이 새삼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가 주시(注視)해야 할 것은 소련(蘇联)·북괴(北傀) 간의 밀착경향(密着傾向)과 북괴(北傀)의 군사동향(軍事動向)인 바, 소련의 최신예(最新鋭) 미그 23기 50대 제공(提供), 북괴(北傀)의 대소(対蘇) 공군기지개방(空軍基地開放), 소련의 SA 3미사일 30기 대북괴제공(対北傀提供), 원자력발전소(原子力発電所) 건설(建設) 지원에 이어 북괴(北傀) 포병(砲兵) 1개군단(個軍団)을 바로 휴전선(休戰線) 전방(前方)에 배치하는 등의 상황은 우리의 안보(安保)를 절대적(絶対的)으로 위협하는 노골적인 도발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더 무모(無謀)한 도발(挑発)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 때, 속전속결(速戰速決)이라는 그들의 침략전술을 간파하고 어떠한 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함이 시급한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 군(軍)은 주·야간 및 정규·비정규전을 막론하고 어떠한 우발적인 기습상황에서도 초전필승(初戰必勝)을 거둘 수 있도록 신예(新鋭) 전투기(戰闘機)의 조기(早期) 전력화(戰力化)와 더불어 각 분야별로 최고의 경계태세 유지(維持)를 위한 효율적(效率的)인 전력운영(戰力運営)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예산개혁(豫算改革) 및 효율적(效率的)인 자원관리(資源管理)를 통한 경제적(経済的)인 군(軍) 운영체제(運営体制)의 정착(定着)

북괴(北傀)는 날로 신장(伸張)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발전(経済発展)에 불안 초조한 나머지 조기남침(早期南侵)을 위한 무력증강(武力増強)에 광분(狂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도 북괴의 남침(南侵)에 대한 대비책(対備策)으로 전력증강(戰力増強)을 위한 투자비(投資費)의 조기확보(早期確保)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히 국방비(国防費)를 증액(増額)하거나 FMS차관(借款)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존(依存)할 수 없는 것은 대내외적(対内外的)으로 어려운 경제현실(経済現実)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선진국(先進国)의 대열(隊列)에 발돋움하려는 범국가적(汎国家的)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때, 국민경제(国民経済)의 부담(負擔)을 가중(加重)시킬 수 없는 형편이므로, 현재 주어진 국방예산(国防予算)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자원관리(資源管理)와 운영유지비(運営維持費)의 절감(節減) 그리고 각종 계획의 합리적인 조정(調整)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절약된 예산으로 투자비(投資費)를 창출(創出)하며 아울러 현존전력(現存戰力)을 극대화(極大化)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군(軍)의 당면과제(当面課題)일 것이다.

따라서 작년(昨年)부터 채택해 온 국방관리회계제도(国防管理会計制度)와 함께 올해부터는 단위부대(単位部隊) 책임관리제도(責任管理制度)를 전부대(全部隊)에 확대 실시하여 예산(予算)의 효율적인 사용과 과학적(科学的)인 군수관리체제(軍需管理体制)를 정립(定立)하고자 본격적인 예산개혁작업(予算改革作業)을 실시하는 노력에 모든 요원(要員)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実践意志)가 필요할 것이다.

### 필승(必勝)의 지휘관리(指揮管理)와 군기강(軍紀綱) 쇄신(刷新)으로 정병강군(精兵強軍)의 육성(育成)

전쟁(戰争) 수행능력(遂行能力)의 향상(向上)을 위한 과학(科学)과 기술(技術)의 놀라운 발전(発展)에도 불구(不拘)하고 군사작전(軍事作戰)에 있어서의 성과를 거두고 전승(戰勝)의 주체(主体)가 되는 것은 역시 인간(人間), 즉 군인(軍人)이다.

소수(少数)이지만 정예화(精鋭化)된 군(軍)은 강력(強力)한 무장(武装)과 숫적인 우위(優位)에 있는 대군(大軍)이라도 능히 격파(撃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軍)은 올 한 해도 정병강군(精兵強軍)의 육성(育成)을 통하여 초전필승(初戰必勝)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정신전력(精神戰力)은 확고(確固)한 국가관(国家観)과 사명감(使命感)을 바탕으로 싸워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信念)이 보태질 때 배가(倍加)되는 것이다.

외적(外的)으로 보아 엄정한 군기강(軍紀綱) 하(下)에 씩씩한 기상(気像)으로 뭉쳐진 군(軍)은 어떠한 적(敵)과 마주쳐도 능(能)히 격파(撃破)할 것이며, 내적(内的)으로 명랑한 병영생활을 영위(営為)하는 장병(将兵)들은 고된 훈련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전우애(戦友愛)를 발휘(發揮)함으로써 더욱 강(強)한 군대(軍隊)의 모범(模範)을 이룰 것이다.

각급(各級) 지휘관(指揮官)은 소속(所属) 장병(将兵)들이 정예공군(精鋭空軍)으로서 소임완수(所任完遂)에 최선(最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휘관리(指揮管理)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며 앞으로 장병(将兵)들은 선진의식함양(先進意識涵養)의 선봉(先鋒)에 선 모범이 될 수 있고, 병영(兵営)은 국민정신교육(国民精神教育)의 도장(道場)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 '86 국제경제전망(國際経済展望)과 우리의 대응(対応)

정 상 일(鄭相逸)
〈공군대학(空軍大学) 교수(教授)〉

– 목 차 (目 次) –

• '86 한국(韓國) 경제적(経済的) 의미(意味)
• 국제경제(國際経済)의 전망(展望)
• 우리의 대응(対応)

## • '86 한국(韓國)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

'86 새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経済的)으로 제(第)5차(次) 경제사회발전(経済社会発展) 5개년계획(個年計劃)을 마무리짓는 해인 동시에 Asia 지역(地域)의 대제전(大祭典)인 Asian Game을 개최(開催)하는 해이다.

국가적(国家的)으로는 경제적(経済的) 안정추구(安定追求)를 목표(目標)로 한 5·5계획(計劃)의 성공적(成功的) 수행(遂行)과 Asian Game 운영(運営)의 경험(経験)을 축적(蓄積)하고 이 경험(経験)은 우리의 국력(国力)을 전세계(全世界)에 부각시킬 '88세계(世界) Olympic 수행(遂行)의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라는 점(点)에서 그 중요성(重要性)을 가름할 수가 있고, 국방부(国防部)로서는 계획예산제도(計劃予算制度)(P.P.B.S.)의 발전적(発展的) 개념(概念)인 국방자원관리제도(国防資源管理制度) (P.P.B.E.E.S)를 도입(導入)·정착(定着)하기 위하여 '83년(年)부터 전군적(全軍的)으로 연구(研究)·노력(努力)한 결과(結果) '86년(年)엔 이 제도(制度)를 전면적(全面的)으로 시행(施行)할 수 있게 됨에, 우리의 국방자원(国防資源)을 보다 생산적(生産的)으로 운용(運用)하는 국방자원관리(国防資源管理)의 새로운 시대(時代)로 돌입하는 해가 될 것이며, 공군(空軍)으로서는 F-16 최신예기(最新鋭機) 도입(導入)으로 새로운 전력구조(戦力構造)를 형성(形成)하여 대북절대우위(対北

絶対優位)의 공군력(空軍力) 확보(確保)로 우리의 영공수호(領空守護)에 새로운 면모를 지니게 되는 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당면과제(当面課題)에 대한 새해 국제경제환경(国際経済環境)은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不確実性) 속에서 표류(漂流)될 것으로 전망(展望)된다.

국제경제(国際経済)의 두드러진 양상(様相)은 일부(一部) 선진국(先進国) 주도(主導)에 의한 신보호무역주의(新保護貿易主義) 경향(傾向)이 더욱 심화(深化)될 것이며 이로 인한 개도국(開途国)들의 외채문제(外債問題)는 국제경제질서(国際経済秩序)를 크게 왜곡하는 현상(現象)으로 대두(擡頭)될 조짐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제(此際)에 불과 15년(年) 앞으로 다가선 2000년(年)을 하나의 이정표(里程標)로 삼고 금세기말(今世紀末)까지 한국경제(韓国経済)가 어떠한 경로(経路)를 따라 발전(発展)해 나가고 어떠한 국제경제적(国際経済的) 과제(課題)들을 해결(解決)해 가야 할 것 인가를 국제경제여건(国際経済与件)이 불리(不利)할 것으로 전망(展望)되는 '86년(年)을 맞으면서 우리의 대응책(対応策)을 진단(診断)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意義)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 • 국제경제(國際經濟)의 전망(展望)

오늘날의 국제경제(国際経済)는 북(北)(부국(富国)·선진국(先進国))과 남(南)(빈국(貧国)·후진국(後進国)) 간(間)의 끊임없는 대결(対決)과, 자본주의(資本主義)(서(西))와 사회주의(社会主義)(동(東))체제(体制) 간(間)의 경쟁관계(競争関係)에서 방향(方向)을 잃고 표류(漂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류(漂流)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南)·북(北)이 대화(対話)로 이어지고 동(東)·서(西)가 협력(協力)으로 가까와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最大) 관심사(関心事)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当面)한 국제경제적(国際経済的) 여건(与件)은 동(東)·서(西)·남(南)·북(北)이 화합(和合)으로 균형(均衡)과 조화(調和)를 이루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목(反目)과 경쟁(競争)으로 끊임없는 불균형(不均衡)과 갈등을 지속(持続)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4년도(年度)에 4%의 비교적(比較的) 높은 성장율(成長率)을 보였던 국제경제(国際経済)는 국제경제(国際経済)의 성장세(成長勢)를 주도(主導)해 온 미국(美国), 유럽, 일본(日本)같은 선진국경제(先進国経済)의 경기회복속도(景気回復速度)가 '85년도(年度) 하반기(下半期) 이후(以後) 뚜렷하게 둔화(鈍化)됨으로써 '85년도(年度)엔 국제경제(国際経済)가 3% 수준(水準)의 성장(成長)에 머물렀고(표(表)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년(年)에는 경제성장세(経済成長勢)가 '85년(年)보다 전반적(全般的)으로 낮은 수준(水準)을 나타내어 국제경제(国際経済)의 침체현상은 당분(当分)간 계속 될 것이다.



〈표(表) 1〉 • 국제경제성장전망(國際經濟成長展望)

단위(単位) : %

| | 80~82 | '83 | '84 | '85 | '86 |
|---|---|---|---|---|---|
| 세 계(世 界) | 1.3 | 2.3 | 4.1 | 3.1 | 2.1 |
| 선진국(先進国) | 1.0 | 2.4 | 4.7 | 3.0 | 1.6 |
| 개도국(開途国) | 1.8 | 0.2 | 2.7 | 3.6 | 3.3 |
| 공산권(共産圈) | 2.1 | 3.5 | 3.1 | 3.0 | 3.1 |

(자료(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5.

〈표(表) 2〉 • GNP 성장율(成長率)

단위(単位) : %

| | 1984 | 1985 | 1986 |
|---|---|---|---|
| 미 국(美 国) | 6.8 | 2.7 | 2.5 |
| 일 본(日 本) | 5.8 | 4.7 | 3.1 |
| 서 구(西 欧) | 2.1 | 2.2 | 2.3 |

특히 새해엔 국제경제환경(国際経済環境)이 개도국(開途国)에 더욱 불리(不利)하게 돌아갈 것이며 국제경제성장(国際経済成長)의 둔화(鈍化)로 인해 외채부담압력(外債負担圧力)은 가중(加重)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展望)은 국제경제(国際経済)의 두 주역(主役)이 미국(美国)과 일본(日本)인데 이들 두 국가(国家)가 국제경제환경(国際経済環境)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美国)의 재정적자(財政赤字)는 GNP 비율(比率)로 보아 여타국(余他国)에 비해 큰 것은 아니나 절대액면(絶対額面)에서는 거액(巨額)이기 때문에 재정적자축소(財政赤字縮小)는 미국(美国)만이 아니라 여타국(余他国)의 경제안정(経済安定)에도 기여하므로 미국정부(美国政府)는 가능(可能)한 한(限) 세출(歳出)억제를 위해 노력(努力)을 기울여야 하고, 달러화(貨) 강세(強勢)가 미국(美国)의 경쟁력(競争力)에 영향을 주고 보호주의(保護主義) 압력(圧力)을 조장(助長)하는 요인(要因)으로 작용(作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제해결(課題解決)에 최대(最大)의 성의(誠意)를 보여야 하며, 일본(日本)은 일본(日本)의 무역수지흑자증대(貿易收支黒字增大)가 국제적(国際的)인 무역(貿易)마찰의 요인(要因)이며 세계(世界) 각국(各国)과의 무역수지(貿易收支) 균형(均衡)도모를 위해 외국기업(外国企業)의 일본시장참여기회(日本市場参与機会)를 확대(拡大)하는 한편 수입증대(輸入增大), 대내외직접투자(対内外直接投資)의 확대(拡大),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 등을 우선적(優先的)으로 추진(推進)하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

(外面)함으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세계적(世界的) 신보호무역주의(新保護貿易主義)와 개도국(開途国)의 외채문제(外債問題)를 새해 국제경제(国際経済)의 주요정책과제(主要政策課題)의 산물(産物)로 남겨두게 되었다. 특히 최근(最近)에 보호주의(保護主義)가 점차 확산(拡散)되고 있는 것은 국제경제(国際経済)의 장기적(長期的) 저성장(低成長) 추세와 이에 따른 실업증대(失業増大), 일본(日本) 및 신흥공업군(新興工業群)에 의해 주(主)로 유발(誘発)되고 있는 국제비교우위(国際比較優位)의 변화(変化), 미국(美国)을 중심(中心)으로 한 선진국(先進国)의 재정적자누증(財政赤字累増) 및 이와 관련된 주요(主要) 국가(国家)들의 금리(金利) ·환율체계(換率体系)의 불균형(不均衡) 그리고 개도국(開途国)의 외채증가(外債増加) 등에 기인(基因)한 것이다. 특히 개도국(開途国) 채무(債務)가 '73 제(第)1차(次) Oil Shock 이후(以後) 급격(急激)히 증대(増大)되기 시작(始作)하여 〈표(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4년말(年末) 현재 8,950억불(億弗)에 이르고 개도국(開途国)들이 외채이자(外債利子) 만을 갚는데도 수출액(輸出額)의 평균(平均) 40%를 지불(支拂)해야 하는 등 심각한 외채난(外債難)을 당(当)하고 있는 현실(現実)이다.

〈표(表) 3〉 • 개도국(開途國) 채무(債務)

| | '73 | '80 | '81 | '82 | '83 | '84 |
|---|---|---|---|---|---|---|
| 채무액(債務額) 억불(億弗) | 1,124 | 6,070 | 7,010 | 7,660 | 8,100 | 8,950 |

(자료(資料) : 0.E.C.D 발표(発表), '85. 10.)

따라서 미국(美国)의 보호주의(保護主義) 완화와 일본(日本)의 무역흑자폭(貿易黒字幅)의 축소를 기하지 않는 한(限) 국제경제(国際経済)의 회복(回復)은 어려울 것이므로 미(美)·일(日) 두 나라는 국제경제현실(国際経済現実)을 직시(直視)하고 보호주의해결(保護主義解決)을 위해 GATT(관세(関税) 및 무역(貿易)에 관(関)한 일반협정(一般協定)) 체제(体制) 안에서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를 조기실현(早期実現)하기 위한 New Round 협상(協商)이 성공적(成功的)으로 수행(遂行)되도록 노력(努力)하는 한편, 미국(美国)은 과거(過去) 자국산업보호(自国産業保護)만을 위해 보호주의(保護主義)를 강화(強化)하다가 '30년대(年代)의 대공황(大恐慌)을 불러 일으켰던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実)을 한번쯤 냉정히 생각해보고 자국(自国)의 실리(実利)를 떠나 국제적(国際的) 시야(視野)에서 선(先)·후진국(後進国) 간(間)에 노력(努力)의 자세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国際経済秩序) (New International Economics Order)의 수립(樹立)과 국제경제(国際経済)의 번영을 위해 공동노력(共同努力)을 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美国)이 보호주의정책(保護主義政策)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解決)하려 든다면 미국산업(美国産業)의 경쟁력(競争力) 강화(強化)와 실업(失業)해소는 커녕 산업구조(産業構造)의 왜곡(歪曲) 및 실업증가(失業増加)란 역효과(逆效果)가 초래되어 악순환을 빚게 될 공산이 크다. 나아가 각국(各国)의 보복적인 보호무역정책(保護貿易政策)을 유발(誘発)하여 국제경제(国際経済)를 위축시키고 개도국(開途国)의 외채압력(外債圧力)을 가중(加重)시켜 그 여파가 미국(美国)으로 되돌아 올 것이니 경제정책(経済政策) 의 부메랑(Boomerang) 피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 우리의 대응(対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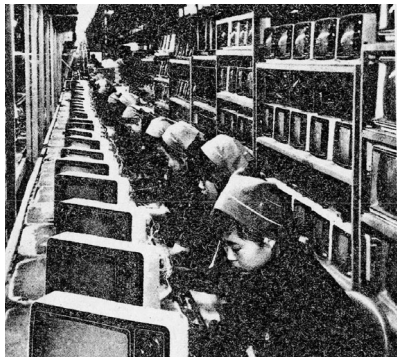
오늘날, 국제사회(国際社会)는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Interdependence)에 입각한 무역원칙(貿易原則)을 추구(追求)하는 등 국제경제여건(国際経済与件)은 우리가 희망(希望)하고 있는 것보다 비관적(悲観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不利)하게 진전(進展)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経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국제경제성장(国際経済成長)의 둔화(鈍化)와 더욱 높아만 가는 보호무역(保護貿易)장벽, 이를 반영(反映)한 국제교역량(国際交易量)의 축소(縮小)라고 하겠다. 이들 해외여건(海外与件)이 '86년에 어떤 방향(方向)으로 전개(展開)되어 나갈지는 불확실성(不確実性)이 크지만 수출여건(輸出与件)에 관한한 당분간(当分間) 호전(好転)을 기대(期待)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것이 우리 경제(経済)에 위축(萎縮)과 침체(沈滯)현상을 초래하는 절대요인(絶対要因)이 될 것이다. 미국(美国)을 위시한 국제경제(国際経済)의 성장(成長)이 '86년에도 대체로 부진(不振)을 보이고 이에 따라 국가간(国家間)의 무역(貿易)마찰과 신보호주의적(新保護主義的)인 경향이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의 대응책(対応策) 마련은 여기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강화(強化)되어 있는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가 앞으로 상당기간(相当期間) 동안 더욱 강화(強化)될 가능성(可能性)은 미국(美国)을 비롯한 선진국(先進国)에서의 보수세력(保守勢力)의 득세(得勢)에 따라 자국산업보호(自国産業保護) 우선(優先)의 경제정책선택(経済政策選択)에서 엿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향(傾向)은 적어도 선진국(先進国)에서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이 계속될 1980년대말(年代末)까지 계속될 전망(展望)이다.

이와 같이, 국제경제(国際経済)가 당면(当面)하고 있는 경제문제(経済問題)가 앞으로도 상당기간(相当期間) 지속(持続)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호주의(保護主義)의 영향도 감퇴(減退)되기 보다는 강화(強化)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拡散)되는 가운데 신보호무역주의(新保護貿易主義)가 초래하게될 국제경제(国際経済)의 파국(破局)에 대한 수다(数多)한 경고와 자유무역수호(自由貿易守護)를 위한 정책(政策)이 제시(提示)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5년(年)에 이어 '86년(年)에도 보호주의(保護主義) 장벽은 더욱 더 높아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開途国)에 있어서는 경제성장(経済成長)의 둔화(鈍化), 국제수지(国際收支) 적자폭(赤字幅)의 확대(拡大), 실업증대(失業増大), 외채상환(外債償還)의 어려움 등이 가중(加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세계(世界) 가운데 한국(韓国)을 놓고 우리 경제문제(経済問題)를 생각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강도(強度)를 더해가는 우리 주요(主要) 교역상대국(交易相対国)들의 상호주의(相互主義) 압력(圧力)에 대응(対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経済)가 총수급면(総需給面)에서 해외경제(海外経済)에 크게 의존(依存)하고 있는데도 국제경제여건(国際経済与件)은 계속 악화(悪化)하거나 크게 호전(好転)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韓国経済) 항진(航進)에 큰 장애요인(障碍要因)으로 되고 있다. 그 대표적(代表的)인 예가 보호주의성향(保護主義性向)의 심화와 한국상품(韓国商品)에 대한 수입규제(輸入規制) 강화(強化)이다. 사실(事実) 국제사회(国際社会)에 있어서 경제적(経済的)으로는 영원한 우방(友邦)도 없지만 영원한 적(敵)도 없다. 미국(美国)과 일본(日本)이 한국상품(韓国商品)에 대해서는 강(強)한 보호색(保護色)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상품(中共商品)에 대해서는 개방성(開放性)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예(例)이다. 이와 같이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에 의한 무역마찰(貿易摩擦)과 수입규제(輸入規制)는 규제(規制)의 정도와 폭(幅)이 장기적(長期的)으로 확대(拡大)·심화될 전망(展望)이 뚜렷하고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가 상대적(相対的)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여파는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새로운 추가규제사항(追加規制事項)에 대한 적극적(積極的)인 회피 노력(努力)과 피해를 최소화(最少化)하는데 전력(全力) 투구(投球)해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賦存資源)이 절대적(絶対的)으로 부족(不足)한 우리나라로서 보호주의압력(保護主義圧力)의 증대(増大)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根本的)인 대응책(対応策)은 우리나라 수출상품(輸出商品)의 경쟁력(競争力) 배양(培養)을 중심(中心)으로 정책(政策)을 집중(集中)하고 수출시장(輸出市場)의 다변화(多辺化)에 의하여 각종(各種) 규제(規制)로 인한 수출(輸出) 애로를 타개하는 한편 무역수지(貿易収支)의 적자폭(赤字幅)을 줄이는 대책(対策)도 시급(時急)히 정립(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무역(国際貿易)에 있어서 시장(市場)을 다변화(多辺化)하지 않고 어떤 한 나라만을 무역상대국(貿易相対国)으로 국한(局限)한다면 상대국(相対国)에 대한 교섭조건(交涉條件)은 그 폭(幅)이 좁고 불안정(不安定)하기 마련이다. 그 반대(反対)로 무역상대국(貿易相対国)의 수(数)가 많고 분산(分散)되어 있으면 정세(情勢)의 변화(変化)에도 무역(貿易)의 안정(安定)을 얻을 수가 있고 상대국(相対国)과 교섭시(交涉時) 행동자유(行動自由) 및 선택(選択)의 폭(幅)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輸出)·수입(輸入)의 품목(品目)도 다종(多種)·다양(多様)하여야 무역(貿易)에 있어서 피지배성(被支配性)을 회피할 가능성(可能性)의 폭(幅)이 넓어지는 것이다. 또 한편, 미국(美国) 보호주의(保護主義)장벽에 대처하여 비교우위(比較優位)의 관점(観点)에서 구라파시장(欧羅巴市場)에 파고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기술개발(技術開発)에 의한 품질(品質)의 고급화(高級化), Marketing 활동강화(活動強化)로 수출액(輸出額)을 늘리고 Cost의 인하(引下) 등으로 대구라파시장(対欧羅巴市場) 진출(進出)을 위한 체질강화노력(体質強化努力)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보호주의압력(保護主義圧力)이 가중(加重)될수록 그러한 압력(圧力)을 분산(分散)시키는 대응책(対応策)이 필요(必要)하고, 외채문제(外債問題)에 있어서는 종합적(綜合的)인 외채절감방안(外債節減方案)을 수립(樹立)하여 범국민적(汎国民的)인 소비절약(消費節約)과 국산화(国産化) 촉진(促進), 그리고 저축증대(貯蓄増大)와 투자배분(投資配分)의 합리화(合理化), 선별적(選別的) 국제행사(国際行事), 무분별(無分別)한 해외여행(海外旅行)의 억제 등의 조치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비록 '86 국제경제전망(国際経済展望)이 불투명하고 비관론(悲観論)이 대두(擡頭)될지라도 우리는 근대화(近代化) 과정(過程)에서 보여준 우리 경제(経済)의 저력(底力)과 그간(間)에 축적(蓄積)된 잠재력(潜在力)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経済)의 앞날에 대하여 기본적(基本的)으로는 낙관적(楽観的)인 전망(展望)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외여건(対外与件)이 전(前)에 비(比)해 훨씬 불리(不利)한 방향(方向)으로 변화(変化)되고 있기 때문에 전(前)보다도 더 힘겨운 발전(発展)의 국면(局面)을 지나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향(志向)하고 있는 선진경제(先進経済)로의 차질없는 진입(進入)에 결코 아무런 고통(苦痛)과 장애요인(障碍要因)이 없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国民) 모두의 합심(合心)된 지혜가 필요(必要)한 것이다.

# 주변 정세(情勢)와 남북대화(南北對話)

나 창 주(羅昌柱)
〈건국대(建國大) 교수(敎授), 정박(政博)〉

– 목 차 (目 次) –

1. 한반도(韓半島) 주변의 세력구조(勢力構造)
2. 미(美)·중(中)·일(日) 3국관계(国関係)와 북한(北韓)
3. 북한(北韓)의 대소접근(對蘇接近)의 배경(背景)
4. 북한(北韓)의 내부실정(內部実情)과 대소밀착(對蘇密着)의 저의(底意)

## 1. 한반도(韓半島) 주변의 세력구조(勢力構造)

한반도(韓半島)를 둘러싼 세력구조(勢力構造)는 소련(蘇联), 중공(中共), 북한(北韓)을 중심으로 한 북방(北方) 3각관계(角関係)와 한국(韓国)·미국(美国)·일본(日本)을 축(軸)으로 한 3각관계(角関係)라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중·소와 강(江)을 사이에 두고 연(連)해 있으며 일본과 미국을 바다에 건너 위치하고 있는 사이이다.

북한은 중·소와 군사동맹(軍事同盟)을 맺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안보조약(安保條約) 일본과는 한일협정(韓日協定)을 맺고 있는 터다. 북방 3각관계는 중(中)·소(蘇) 상호원조조약(相互援助條約), 북한·중공·소련의 방위조약으로 협력체제(協力体制)를 강화했으며 냉전체제에서는 비교적 확고하게 3각체제가 구축되고 있었다. 한국은 50년대 한미방위조약(韓美防衛條約)을 맺었으며 60년대 한·일국교정상화로 일본과도 긴밀한 관계가 되었으나 군사협력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견고하던 북방 3각관계도 1970년대 이른바 동서화해(東西和解)니 데탕트니 하는 기운에 따라 상당히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중소이념분쟁(中蘇理念粉争)은 1969년 중소의 국경충돌(国境衝突)을 빚게 되고 1972년 미·중공화해는 중·소분쟁을 실질적 차원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미·중공 사이에 나온 상해공동성명(上海共同聲明)으로 미국과 중공이 화해하게 되고 그해 9월 일본과 중공이 국교(国交)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중공은 개방화(開放化)를 도모하게 되었다. 특히 모택동(毛澤東)의 사망 후 등



소평(登小平) 세력(勢力)이 득세함에 따라 중공(中共)은 4개(個) 현대화(現代化)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연히 서방(西方)의 선진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공(中共)의 개방화(開放化)의 폭은 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미·중공화해의 원인은 중·소분쟁으로 인한 공산권의 분산현상(分散現象)에 있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1968년 8월 체코사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공 화해는 그래도 국교정상화(国交正常化)까지를 몰고 가는데 7년이나 걸렸던 것이다.

그리고 1979년 국교정상화(国交正常化)에서도 상호간에 상당한 이해관계(利害関係)가 대립되었으나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칸 침공사태는 미·중공의 실질적인 접근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중·소분쟁으로 갈등을 이루면서 소련권(蘇联圈)에서 이탈한 중공이 알바니아같은 동구국가(東歐国家)를 소련에서 떼어낼 수 있었고 이것은 동구의 자유화(自由化) 바람에 하나의 심리적 지원세력(支援勢力)이 되었을 것이다. 체코 침공은 바르샤바 조약군(條約軍)을 앞세운 소련의 철권 탄압이었고 브레즈네프독트린은 흔히 제한주권론(制限主権論)으로 지칭되는데 공산동맹국 중 어느 나라도 지나치게 독자노선(独者路線)을 택할 경우 바르사바조약군이 점령해도 좋다는 당위론(当為論)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공산국가가 소련에서 이탈한 경우 소련의 무력점령(武力占領)의 가능성을 높여 준 것이고, 그때가 마침 문화혁명(文化革命)으로 온 중국 땅이 무질서와 혼란으로 치닫고 있던 때라서 중공의 수뇌부(首脳部)에 준 충격을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1979년 12월 아프칸사태는 중공에 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체코사태는 공산권 내의 일이라고 보겠으나 아프칸은 공산국가가 아닌데도 소련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유인(誘引)을 받아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소련의 무력적인 팽창 전략은 미국과 접근해가는 중공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고 중공으로 하여금 미국과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도록 했을 것이다.

결국은 중공이 미국과 보다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고 이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서방(西方)과의 협력(協力)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일고 있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強大国)의 일반정세(一般情勢)는 미국과 중공, 그리고 일본이 묵시적으로 소련의 팽창을 제어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한반도에 소련의 팽창을 제어하는데 세 나라는 의견(意見)의 일치(一致)를 보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구체적(具体的)이고 실질적(実質的)인 진전(進展)을 이룰 수는 없었고 이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중·소국경지방에 대한 압력의 강화(強化), 극동함대(極東艦隊)의 증강을 유발케 하여 오히려 중공에게 커다란 위협을 가중시켜 준 힘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미·중공관계는 군사적(軍事的) 협력까지로 발전하게 되어 신장지역에 정보탐지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중동지역(中東地域)에서의 소련군의 움직임과 중소국경지역에서의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했다.

1980년대 미·중공·일본은 묵시적이긴 하지만 거의 동맹관계적(同盟関係的) 입장에서 소련이 이

지역으로 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공과 일본을 축으로 하여 이 지역의 안보망(安保網)을 넓히면서 중공이 북한을 품 안에 안게 되면 미국의 전략(戰略)이 간접적으로 북한까지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공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정치(政治)·군사적(軍事的) 영향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려는 것이었다. 일본으로서는 남북한을 등거리관계(等距離関係)로 유도하는데 선봉이 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군비를 증강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방위부담을 일본이 더 많이 맡아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 김일성(金日成)은 늘 중(中)·소분쟁(小紛爭)의 틈바구니에서 줄다리기 외교(外交)를 통해 교묘하게 재미를 보았다. 그는 어느쪽에도 편향되지 않으면서 북한(北韓)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호전성(好戰成)과 공산혁명(共産革命)의 기치를 높이들고 소위 남조선 혁명을 주민들에게 교화(教化)시켜 온 것이다. ……◊

## 2. 미(美)·중(中)·일(日) 3국관계(國關係)와 북한(北韓)

소련의 팽창을 제어하려는데 미·중공·일본의 이해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3국관계(国関係)에는 많은 모순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공과의 지나친 협력을 중공의 변질(変質)보다는 공산국인 중공을 강대(強大)하게 만들어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중공은 반패권주의를 외치면서 일본의 군비증강을 제어하고자 한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국방비(国防費) 지출을 증대시켜 동아시아의 방위부담을 줄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으로서는 소련과 중공·북한을 의식하면서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1983년 레이건 미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美)·일(日)공동성명(共同聲明)이 나오지 못한 요인(要因)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미·일·중공 3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의 긴장은 저들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중공은 불가피하게 한반도에 전쟁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전쟁에 가담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반도의 비상사태(非常事態)의 발생은 일본의 발전을 결정적(決定的)으로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공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6·25와 같이 지원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중공의 현대화(現代化)와 미·중공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특히 소련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정세판단(情勢判断) 아래 한반도의 정세추이를 살펴 보면 우선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미·일·중공이 함께 바라고 소련이 이 지역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소련도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지만 최근의 주변정세가 소련과 미·일·중공의 양극(両極)으로 하는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어 소련이 긴장완화무드에 동조하게 된다면 소련의 이 지역으로의 팽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켜 내부(内部)의 불만(不滿)을 남조선(南朝鮮)의 통일





(統一)에 묻게 함으로써 김일성체제(金日成体制)의 당위성을 확인해온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항상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킴으로써 북한의 존재(存在)를 부각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늘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줄다리기 외교(外交)를 통해 교묘하게 재미를 보았다. 경우에 따라 중공의 편에 또 어떤 때는 소련측에 가까와지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소련과 중공의 사이에서 교묘한 외교노선(外交路線)을 취하여 중공이나 소련 어느 쪽에 편향되지 않으면서 북한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호전성(好戰性)과 공산혁명(共産革命)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 혁명을 주민에게 교화(教化)시켜 온 것이다.

## 3. 북한(北韓)의 대소접근(對蘇接近)의 배경(背景)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情勢)는 긴장완화의 기본무드에 부응하여 남북 간에 대화(対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기운은 본질적으로 미·중공의 접근에서 비롯된 중공의 개방화(開放化)와 현대화(現代化)의 바람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1974년 대미평화협정(対美平和協定)의 제의는 원칙적으로 미군철수와 한반도 문제에서 자기가 주도권(主導権)을 잡고자 하는 전략(戰略)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김일성은 1984년 조자양(趙紫陽) 중공수상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해결 방안으로 3자회담(者会談)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중공이 참여하는 4자회담(者会談)을 일본은 소련과 일본이 포함된 6자회담(者会談)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정권(政権)을 이양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소의 지원을 받고자 중공과 소련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고 중·소로 하여금 상당한 지원과 원조를 받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으로 하여금 현하의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입장을 읽는데 여유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공으로서는 서방(西方)으로부터의 기술이전(技術移轉)과 현대화(現代化)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중공의 사회주의체제(社会主義体制)의 변질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사회(社会)·경제구조(経済構造)에 있어 상당한 동요가 있음을 보면서 또한 모택동의 시시비비(是是非非)에 대한 중공의 최근 동향을 보면서 몇가지 대안(対案)과 대처방안(対処方案)을 구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북한과 직접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1983년 한국을 방문한 레이건 미대통령은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 평양(平壤)과는 여하한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대미(対美) 직접협상은 어려운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공산국가가 서방과 접촉을 하게 되면 개방화(開放化)가 도모(圖謀)되고 그런 가운데 그 사회는 상당히 변질되면서 원천적으로 호전성(好戰性)을 누그러뜨리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48년 유고의 티토가 스탈린과 반목(反目)했을 때 유고를 서방으로 끌어낸 결과 오늘날 유고는 사회주의체제(社会主義体制)에서 가장 개방된 이른바 혼합체제(混合体制)를 도모하게 되었고, 1972년 중공을 밖으로 끌어낸 결과 오늘의 중공이 크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원칙(原則)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

상이다. 따라서 북한이 중공보다 폐쇄적인 공산사회(共産社会)이지만 북한을 밖으로 끌어내면 결국에는 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모양이다. 또한 공산체제(共産体制)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일단 개방화가 추진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공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지만 한국과는 노골적인 접촉을 할 수 없다. 중공은 북한과 방위조약(防衛條約)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소련과 북한의 밀착(密着)을 촉진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공은 우리와의 접촉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統一政策)이 북한의 그것에 비해 훨씬 평화지향적(平和指向的)이고 현실적(現実的)임을 알면서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개선(関係改善)이 중공의 현대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발이 묶여 능동적인 자세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문제에 대해 약간 다른 인상을 갖는 것 같다. 일본은 평양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한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도 독자적인 노선을 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일본이 평양을 밖으로 끌어내는데 선봉이 될 것이니 미·중공이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인상이다. 작년 5월 중공을 방문한 나까소네 일본수상(日本首相)은 중공에 사는 한민족의 재회(再会)에 일본이 교량역할(橋梁役割)을 할 뜻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같은 제스처가 바로 일본이 평양과의 접촉에 앞장서겠다는 의미(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게 북경(北京)으로 가는데 선수(先手)를 놓친 일본으로서는 평양행(平壤行) 버스를 운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인상이다. 이처럼 미·일·중공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소련의 제어를 함께 바라면서도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이런 사실을 김일성이 이용하겠다는 데에 소련과의 최근 접촉의 의의(意義)가 있다고 보여진다.

## 4. 북한(北韓)의 내부실정(內部實情)과 대소밀착(對蘇密着)의 저의(底意)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세(情勢)를 유효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南北対話)를 순수히 응해 올 경우 현재의 한반도정세에 순응(順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공·미국·일본·한국의 평화무드에 부응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김일성에게 득(得)보다는 많은 위험요소를 배태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볼 것이다. 만약 남북대화를 통해 미·일과 접촉하게 되고 중공과 보다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칫하면 오늘의 중공의 예(例)에서처럼 북한사회(北韓社会)가 크게 동요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이것은 김일성 타도(打倒)의 여론(與論)을 조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폐쇄주의를 고집하던 모택동(毛澤東)이 죽은 후 그에 대한 중공의 전개상황(展開狀況)을 보면서 완전히 외부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말년(末年)에 가까운 김일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개방화는 김일성 타도를 부를 것이라는 두 가지 역기능(逆機能)을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현재(現在) 줄잡아 50억달러 이상의 외채(外債)를 지고 있고 20억달러 이상의 외채가 연체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도 김정일체제(金正日体制)를 구축하는데 있어 북한 주민(住民)들에게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넣어 줄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중공·일본·미국·한국이 펴온 평화지향적 무드에 동조하게 되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얻을 것은 적어지고 부담은 늘어난다는데 김일성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남북대화에 임하는 것은 정치(政治)·경제적(経済的)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最大化)하기 위해서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일·중공 등이 편 정세에 도전요인(挑戰要因)은 결정적으로 소련이라는데 착안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冷戰時代)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소련이 중공보다 현상유지와 평화지향적이었지만 1970년대부터 달라진 평화무드는 미·일·중공이 주도한 소련의 견제력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소련을 끌어들이게 되면 남북대화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이 직접협상에 소극적이고 일본과의 협력이 한국을 의식한 가운데 더디며 중공의 권유가 김일성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고 판단할 때 김일성이 소련을 끌어들임으로써 미·일·중공을 긴장시키게 된다는 판단이다. 소련은 최근 MIG-23기를 다량 북한에 반입시켜 주고 여러 채널을 통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치·사회·문화적으로도 잊혀져가는 소련의 존재를 북한에 유입(流入)시키고 있다. 특히 금년 8·15경축식에는 소련의 대규모 참석단(參席団)과 군사시찰단(軍事視察団)이 소련의 함대를 타고 원산을 통해 참석했으며 북한 언론(言論)은 옛 친구인 소련에 대한 대단한 찬사를 보낸 바 있으나 중공은 8·15경축식에 대표단(代表団)을 파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더우기 지난 9월 소련의 비행기가 북한 영공(領空)을 지나는 일이라든지, 남포항을 통해 인도지나군 통로를 소련이 개설하려는 움직임 등은 매우 심각한 사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김일성이 중공측에서 소련쪽으로 편향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빠르다. 최근 북한이 그런대로 남북대화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 소련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에는 함수관계(函数関係)가 있다고 풀이된다.

말하자면 김일성(金日成)은 미·일·중공과 남북대화에 소련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협상은 매우 까다로와서 일률적(一律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나 협상의 막바지에서는 변타변담(邊打邊談)의 전략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것은 한번 치고 그것을 협상(協商)으로 풀어간다는 이야기로 6·25때 휴전(休戰)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공산군의 대공세(大攻勢)를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대화는 오늘의 북한에 긴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한국과 일본·미국·중공도 남북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미·일이 북한에 대해 소극적일 바엔 저들이 싫어하는 소련을 끌어들임으로써 미·일을 긴장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김일성이 노리는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김일성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직

◆ 공군만평(空軍漫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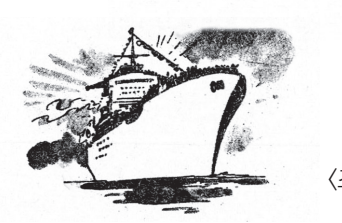
〈사선(死線)을 넘은 자유—임종철 하사 귀순〉

접접촉이고 그보다 절실한 것은 미·일로부터 경제적(経済的) 지원을 얻어 낙후되고 침체된 북한의 경제에 새바람을 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중공과 비슷한 특구(特区)를 해안 지방에 만들어 서방(西方)의 기술과 자본, 산업을 유치하여 북한의 노동력(労動力)을 팔고 기술을 향상시켜가는 동시에 외화(外貨)를 얻어들여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김일성(金日成)의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北韓住民)은 매우 뒤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외부(外部)와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 불평불만의 표출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개발을 도모하면서 외국기업(外国企業)을 직접 유치하게 되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주민생활(住民生活)과 북한경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제·사회·정치적인 여건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대남혁명(対南革命)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국민의 불만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리없이 김정일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은 양보할 줄 모르는 나라다. 소련을 김일성이 끌어들이게 되면 체코와 아프칸사태를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소련이 북한을 체코나 아프칸같은 희생물로 만들 경우에는 동아시아 정세는 기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미·일·중공·한국의 평화지향적(平和指向的)인 자세에서 나오는 평가(評価)이며 김일성체제(金日成体制)도 오히려 붕괴의 위협이 커진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 보호주의무역경제(保護主義貿易経済)와 우리의 대응(対応)



이 성 덕(李聖德)
〈조선대경영대학원(朝鮮大經營大學院) 조교수(助教授)〉

- 목 차 (目 次) -

1 . 보호주의(保護主義)의 기회비용(機会費用)과 해소책(解消策)
2. 보호주의(保護主義) 무역경제(貿易経済)의 가속화(加速化) 추세(趨勢)
3. 우리의 대응방안(対応方案)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추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GATT의 주장과 같이 자유무역의 수호를 위하여 국제무역체제 속에서 최혜국(最恵國) 대우가 다하고 있는 역할(役割)과 기능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努力)에 적극 호응하여 개방적(開放的) 무역원칙(貿易原則)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

## 1. 보호주의(保護主義)의 기회비용(機會費用)과 해소책

GATT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날 선진제국(先進諸国)은 수출자주규제(輸出自主規制)와 시장질서유지협정(市場秩序維持協定) 등 양적규제(量的規制)나 수출보조금(輸出補助金), 차별적인 행정차치(行政借置) 등 5 백여종이 넘는 보호조치(保護措置)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무역(世界貿易)의 약 40%가 각종 규제조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15년 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선진제국(先進諸国)의 보호주의(保護主義)는 국제경쟁력을 잃은 산업(産業)의 보호와 고용대책(雇傭対策), 그리고 국제시장(国際市場)의 파탄을 막기 위해 시장관리(市場管理)가 필요하다는 주장(主張) 등을 배경으로 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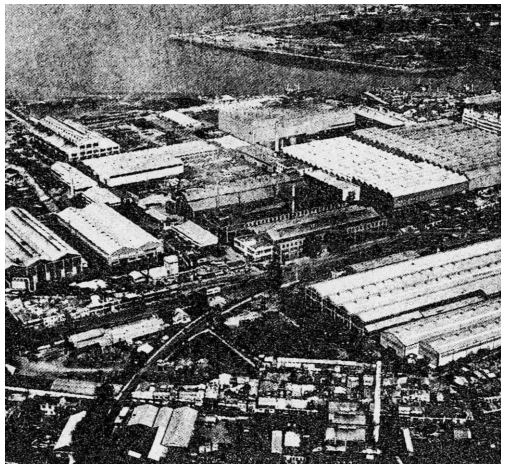
있다. 무역보호주의(貿易保護主義)는 기본적으로 국제(国際) 간에 있어서 비교우위(比較優位)를 상실한 산업(産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적절한 산업조정(調整)을 적기에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제한적인 조치에 의하여 비교우위구조의 변화를 저지하고자 하는 입장 내지 주장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ernon에 의하면 새로운 생산품(生産品)은 처음에는 자본(資本)이 풍부하고 노동(労動)이 적은 나라에서 개발되지만 기술적(技術的)인 'Knowhow'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비교우위는 필연적으로 임금이 싼 나라에 이동하게 된다. 선진국(先進国)과 개도국(開途国) 간에서 생겨나는 비교우위의 이동은 개도국(開途国)의 공업화(工業化)를 촉진시키고 선진국에 대한 공산품(工産品)의 수출(輸出)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선진국에 있어서는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된 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에 자본(資本)과 노동을 이동시켜야 하는 산업조정(産業調整)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선진제국(先進諸国)에 있어서도 그러한 산업조정(産業調整)이 단기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조적 실업(失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경제(経済)가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을 때에는 특화(特化)에 따라 자원이 수축부문(收縮部門)(수입대체)으로부터 확장부문(拡張部門)(수출 또는 비교역재(非交易財))에 이전(移転)될 것이지만 그러한 자원(資源)의 이전을 일반적 경기(景気)상태와 함께 확장부문의 흡수능력(吸收能力), 노동의 가동성(可動性), 요소수요(要素需要)의 방향, 새로운 고용(雇傭)기회의 창출(創出)여부 등에 따라 제약(制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입증대로 무역 경상수지(経常收支)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기간산업(基幹産業)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태가 생기게되면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会的) 압력도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많은 산업에 대한 무역제한적 조치가 생겨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70년대부터 선진제국이 보호주의(保護主義)장벽을 높이고, 보호주의 압력을 확산하여 왔다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보호주의의 채택과 그 확대에 따른 「코스트」도 매우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채택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 등에 경제적, 사회적 조정(調整)을 위한 부담을 회피하게 하는 이익(利益)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보호주의(保護主義)는 보호조치를 택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무역제한을 받는 상대국까지도 막대한 대가(代価)를 지불하여야 하는 희생(犠牲)을 강요하게 된다. 먼저 보호적 조치를 실시하는 수입국은 보호대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低下)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 조치때문에 산업발전(産業発展)이 저해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 산업을 갖는 수출국의 경우, 수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업발전, 나아가 경제발전이 저해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수입국에서는 비교열위산업(比較劣位産業)이 축소되지 않고 수출국에서는 비교우위산업이 확대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분업(分業)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세계교역(世界交易)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이 볼 때 무역보호주의장벽이 높아지고 보호주의압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世界貿易)의 확대와 모든 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威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개도국(開途国)에 있어서는 경제성장(経済成長)의 둔화, 국제수지적자폭(收支赤字幅)의 확대, 실업(失業)증대, 외채(外債)상환의 어려움 등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第)2차대전(次大戦) 후 특히 50년대와 60년대에 세계무역(世界貿易)은 각각 연율(年率) 6.4%, 8.3%로 성장하여 세계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러한 세계무역의 확대는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체제(自由貿易体制)를 견지하고 확대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경제(世界経済)의 안정성장(安定成長)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여 세계자원(世界資源)의 이용(利用)을 효율화하고 생산성(生産性)을 향상(向上)시키는 국제적(国際的)인 협력(協力)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런 점에서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先進諸国)이 50~60년대의 세계경제(世界経済)의 번영기에 있어서와 같이 국제무역(国際貿易)의 자유화(自由化)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의 전망에 의하면 선진국(先進国)이 적극적으로 재정금융상(財政金融上)의 불균형(不均衡)을 해소시키는 정책(政策)에 의하여 인플레율이 연(年) 5% 이하로 억제되고 또 OECD제국(諸国)의 경제가 연(年)평균 3.5% 정도로 실질성장을 이룩하게 되면 보호주의적 압력은 봉쇄될 것이고 무역의 확대와 국제경제의 자유화(自由化) 및 일체화(一体化)의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84년 후반 이래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서구에 있어서도 경기가 가속될 공산이 작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계경제(世界経済)가 50~60년대와 같은 안정성장경로(安定成長経路)에 복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더우기 제2차 석유파동 후 선진제국에 있어서 실업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인플레억제(抑制)에 최우선 과제(課題)를 설정하고 긴축적인 거시정책(巨視政策)기조를 견지하되 실업(失業)의 경제·사회적 「코스트」를 고려하여 직업훈련(職業訓練)이나 실업보험급부(失業保険給付), 주노동시간(週労動時間)의 단축 및 잔업(残業)의 삭감 등 Work Sharing을 촉진하여

왔으나 세계(世界)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선진제국의 고용사정(雇傭事情)이 단시일(短時日) 내에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GATT 연차(年次)보고서 - 1983~84년의 국제무역(国際貿易) - 가 장기적(長期的)인 경기(景気)에 대한 신뢰성회복에 중점을 두고 주요국(主要国)이 보호주의(保護主義)압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게 되면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불안정요인(不安定要因)의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에 관한 중장기적(中長期的) 전망(展望)을 안정(安定)시킬 수 있는 현명한 처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호주의적 압력에 대한 단호한 반대만이 보호주의 장벽하에서 얻게 되는 이익때문에 일시적(一時的)인 보호적 조치가 극대화되는 위험을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世界経済)에 있어서 무역관련 투자(投資)의 안정성(安定性)을 높여 경기회복(景気回復)을 국제적으로 파급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보호주의(保護主義) 무역경제(貿易經濟)의 가속화(加速化) 추세(趨勢)

UN 세계경제조사보고(世界経済調査報告)에서 인용된 한 연구에 의하면 1974년에 OECD 가맹국의 수입은 그 34%가 각종 비관세적 규제를 받았으나 1979년에는 규제가 41%로 강화되었다. 특히 이를 무역상대국별로 보면 1979년 현재 OECD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 24%가 각종 무역제한적 조치의 적용을 받았으나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 62%가 각종 비관세적 규제하에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규제도 어구류(魚具類)에 대한 일본의 수입허가제(1960년 도입)를 효시로 하여 섬유(繊維)에 대한 한미(韓美) 2국간협정(国間協定)에 의한 수량규제(1971년 도입)로부터 1980년까지는 신발, 피혁제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과 TV 등 가전제품이나 철강 등 자본, 기술집약적 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대상에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에는 선진(先進) 19개국에 대한 수출 중 38.1%가 수입규제하에 있었던 것이 1984년 6월에는 규제가 43.8%로 높아졌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종(主宗)수출품목인 섬유류, 철강제품, 신발류, TV 및 금속양식기 등은 이들 총수출의 60% 이상이 규제하(規制下)에 놓이게 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선진(先進)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호주의의 영향도 감퇴되기 보다는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는 가운데 무역보호주의가 초래하게 될 세계경제(世界経済)의 파국(破局)에 대한 수다한 경고와 자유무역수호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보호주의장벽은 더욱 더 높아지게 될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개도국(開途国)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1984년 통상(通商)관세법(Trade and Tarriff Act)을 발효시킨데 이어 올해에도





대미(対美) 수출상품(輸出商品)의 덤핑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를 내용으로 하는 반(反)덤핑법개정안(法改正案), 지적소유권(知的所有権) 보호법안, 수입 공산품(工産品)과 수입석유(石油)에 대한 덤핑규제강화법안 등 수입규제에 관련된 법안(法案)의 입법화(立法化)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4년 통상관세법은 반(反)덤핑관세와 상계관세(相計関税)의 적용대상이 되는 「덤핑」과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한데 이어 피해제정기준의 완화, 지속적 감시체제의 확립, 제소절차(提訴節次)의 간소화 등 대미(対美)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외국(外国)의 불공정무역관행(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한 자국(自国)의 대항(対抗)조치사항을 종전의 상품무역(商品貿易)에서부터 서비스 무역(貿易), 직접투자(直接投資), 고도첨단기술분야(高度尖端技術分野)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GSP(일반특혜(一般特恵) 관세제도)를 연장하되 경쟁력 충족기준(充足基準)과 졸업개념(卒業概念) 적용기준(適用基準)도 강화하였다. 즉 1987년 1월까지 완료키로 한 일반품목별(一般品目別) 심사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품목(品目)에 대한 경쟁력 충족기준을 1개 GSP수혜상품(受恵商品)의 대미(対美) 수출실적을 현행 연(年) 5천 7백만 달러에서 2천 5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품(輸出商品) 또는 특정 상품(商品)에 대한 미국 수입액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25%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商品)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더우기 수혜국(受恵国)들의 각 품목별(品目別) 경쟁력(競争力) 판정을 위한 일반품목별심사(一般品目別審査)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쟁력 판단 기준으로서는 (1) 미국의 상품(商品) 및 용역(用役)에 대한 수혜국(受恵国)의 시장개방(市場開放) 정도, (2) 수혜국의 비합리적(非合理的)인 무역관행(貿易慣行)의 철폐 여부, (3) 미국의 지적소유권(知的所有権)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의 유무, (4) 세계무역관행(世界貿易慣行)을 왜곡시키는 투자제한(投資制限)의 유무, (5)근로자에 대한 국제적으로 안정된 권리(権利)의 보장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GSP 수혜 졸업조항(卒業條項)은 1인당(人當) GNP가 8천 5백달러 이상인 국가에 대해서만 GSP 공여(供與)를 전면 중지(中止)하고 나머지는 국별, 품목별로 정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그밖에 1985년부터 개도국에 적용될 제2기 GSP 공여(供與)기간도 현행 9년에서 8년 6개월로 단축되었다

이같이 개정된 GSP 연장법은 GSP 수혜규모가 큰 우리나라와 같은 선(先)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差別)적용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受恵)적용 품목(品目)에 대한 경쟁력 판단기준으로서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市場開放),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 국제적으로 공인된 근로자의 권리보장 등을 제시하여 GSP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교섭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GATT 연례(年例)총회에서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美国)의 제안에 대한 일본과 EC제국(諸

国)의 동조(同調)로 GATT 활동(活動)의 새로운 대상으로서 「서비스 무역(貿易)의 자유화(自由化)」를 추가하는데 합의하였다. 미국 대통령의 특별 자문기관(諮問機関)인 수출협의회(The President's Export Council)가 작년 12월에 공표(公表)한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GATT 가맹국의 일치된 견해에 의하면 GATT는 고도기술(高度技術), 소프트 웨어(Soft- ware) 서비스 분야(分野)의 무역(貿易) 또는 무역관련투자나 지적소유권(知的所有権) 문제에 관한 새로운 행동원칙(行動原則)을 내세우는 일은 고사하고 경쟁적인 무역시스템의 난용(乱用)(덤핑, 보조금(補助金),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다수의 비난에 결연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GATT의 활동을 확대하여 이 분야에 적용하는 일은 미국의 명백한 기득권에 속하지만 우리로서는 솔선하여 이 분야에서 제안(提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同)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이 세계최대의 서비스 수출국이라는 점과 서비스 부문이 노동흡수력이 클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제국(先進諸国)의 경쟁력 우위가 확고하며 서비스 교역(交易)이 연간(年間)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그 교역(交易)규모 때문에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가 선진제국(先進諸国)이 당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失業)문제와 무역적자(貿易赤字)의 누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데 연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경쟁력이 크게 열위(劣位)에 놓여 있는 개도국(開途国)에 상품교역(商品交易)에 대한 보호주의와 더불어 또 다른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며 상품교역(商品交易)에 대한 보호주의적 장벽을 높이면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선진제국에만 유리한 국제무역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3. 우리의 대응방안(對應方案)

국제무역에 관한 선진제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호주의(相互主義)와 무차별정신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最恵国待遇)(Most Favored Nation)를 적용하되 2국(国)간의 양허(譲許)가 갖는 중요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추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GATT의 주장과 같이 자유무역의 수호를 위하여 국제무역체제 속에서 최혜국(最恵国) 대우가 다하고 있는 역할(役割)과 기능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保護主義)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努力)에 적극 호응하여 개방적(開放的) 무역원칙(貿易原則)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자간협상(多者間協商)을 통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제무역 질서(秩序)의 감퇴와 그 결과로서 생겨난 대립(対立)의 확대를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러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過程)에서 선진제국(先進諸国)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화(尖鋭化)하여 단기적 국면에서는 선진제국의 보호주의적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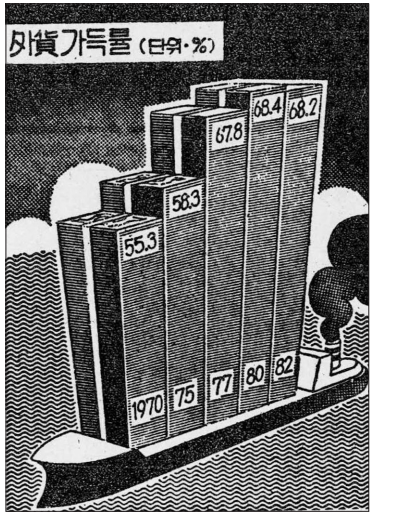


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1985년에 1천 3백억 달러를 다소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폭(経常収支赤字幅)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고 선진제국의 실업율(失業率)도 9%(1984년) 수준에서 좀처럼 개선될 전망(展望)이 없는데다가 미(美)·일(日) 간의 무역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본(日本)의 노력(努力)도 미온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제국(先進諸国)의 보호주의 추세는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무차별(無差別) 원칙(原則)에 대하여 차별원칙이 평등(平等)보다 불평등(不平等)이, 국제적인 협조(協調)보다 강자(強者)의 논리(論理)가 적용되는 불확실(不確実)하고 불안정(不安定)한 국제경제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정(公正)과 호혜(互惠) 그리고 평등원칙(平等原則)에 따라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응책은 결국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에서만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이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技術開発)과 설비투자(設備投資)의 효율적인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여지도 없다.

한편 GATT의 룰(Rule)과 방법(方法)을 서비스 무역에까지 확대시키는 가능성이 검토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그러한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비추어 최혜국 대우의 기본이 2국간의 양허(譲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GATT의 기본정신에 따라 선진제국(先進諸国)의 차별적인 보호주의(保護主義) 장벽을 철폐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처하여 서비스산업의 체질개선(体質改善)과 경쟁력 배양에 힘써야 할 것이지만 수입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와 같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도 선진제국의 시장개방과 보조(歩調)를 맞추어 추진하여야 호혜원칙(互恵原則)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선진제국(先進諸国)의 보호주의장벽이 높아지고 확산될수록 통상교섭노력(通商交涉努力)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수입을 수출증대에 연결시키는 방안이나 수입선(輸入先)다변화, 수입감시제도(輸入監視制度)를 통한 수입(輸入)억제 등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보호주의에 대한 대항조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 만을 제시할 뿐, 올바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보호주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를 극복하거나 우회(迂廻)할 수 밖에 없고 그렇지 못하면 보호주의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볼 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에는 보호주의적 장벽의 완화에 대한 요구로 대처할 수 밖에 없고, 무역역조(逆調)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바로 그러한(그림) 2국 간의 교섭이 공정(公正)과 호혜(互惠) 그리고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입각한 차별없는 무역체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대응책은 최선의 해결책도 아니고 또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으나 차별적(差別的)인 규제(規制)나 불공정(不公正)한 무역 관행(慣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구책(自求策)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보호주의 압력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길 밖에 없으나 그밖에 수출입시장(輸出入市場)의 다변화에 의하여 각종 수입 규제(規制)로 인한 수출 애로(溢路)를 타개하는 한편 무역수지(貿易收支)의 적자폭(赤字幅)을 줄이는 대책도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주의 압력이 가중될수록 그러한 압력을 분산시키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 수치예보(數値予報)에 대(対)하여

소령(少領) 오 문 영(吳文泳)
〈73기상전대〉

## 1. 개 요

오늘날 세계의 산업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급속히 과학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기상정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용은 날로 그 비중이 늘어나 이제는 우리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점차 정착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선진각국에서는 전국을 연결하는 기상데이타 통신을 가지고 기상자료의 빠른 수집과 분배를 통해서 기상예보 결정을 위한 보다 많은 정보를 단시간 내에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초대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률이 높고 객관적인 수치예보(Numerical Weather Prediction)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리함과 안락과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상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며 인명피해·기상재해방지 및 장기적인 국가계획수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고도의 산업사회일수록 기상서비스는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여, 현대과학의 첨단에 등장한 과학적 과제로서, 또 그 나라 과학 수준의 척도로 알려지고 있는 수치예보는 오늘날 선진각국에서 일기예보의 기본적 작업으로 선택되어 실제 기상업무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며, 앞으로 '86 아시안 게임과 '88 국제올림픽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선진조국 창조의 깃발 아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수치예보업무는 기상분야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주과학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필요불가결하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노력과 개발에 필요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기서는 1950년 후반부터 미국이나 일본, 서구 유럽에서 현업에 이용하고 있는 수치예보의 개념과 변천과정 및 개략적인 수치예보흐름을 우리나라 현황과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수치예보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개 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임의의 시각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대기의 운동을 예측하는 일기예보는 16세기 후반까지도 주로 관천망기(觀天望気)에 의한 것이었다.

그 이후 기상현상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과학이 점차 발달하여 각종 통신수단과 기상위성통신 및 고속·대형 전자계산기의 등장으로 경험적 방법에 의해 인위적·주관적으로 분석하여 생산하던 예보에서 지금은 현재의 다양한 기상요소(기압, 기온, 바람 등)의 대기상태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대기운동을 지배하는 유체역학 방정식을 수치적분 방정식으로 풀은 해(Solution)를 가지고, 통계론적 방법과 유사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의 대기변화 상태를 예측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높은 정확률에 접근하는 객관적인 수치예보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이 일기예보 방법의 기본적 작업으로 선택한 정확성이 높은 예보는 수치예보의 면밀한 해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수치예보는 대기운동을 지배하는 기본방정식에 현재 대기상태의 기상변수를 초기값으로 하여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24시간, 48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미래의 기상변수의 공간적 분포를 구하는 것에 비해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수치예보는 보다 정확한 예보수행을 위해 통계적·유사론적 방법을 겸용하는 복합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날씨를 지배하는 종관제가 그보다 작은 중간규모계 및 난류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며 이러한 작은 규모의 운동계 형태는 그 구조적 복합성으로 유체역학적 방법에 의한 수치적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종관계와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서만이 예보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각 대학과 중앙기상대에서 수치예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나 독자적 수치모형에 대한 개발을 하지 못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수치예보 일기도를 수신하여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와 극동지역에 대한 일기예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실정이며, 우리 현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수치예보의 개발없이는 예보 정확성의 향상이 힘든 상태로 우리나라 기상분야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 3. 수치예보의 역사적 배경

### 가. 일기예보법의 변천

관천망기를 탈피한 진정한 의미의 예보는 1820년 영국의 BRANDES로부터 시작된 종관일기도를 효시로 고·저기압 구조를 포함하여 대기의 성질을 점차 이해함에 따라 예보법도 발전하게 되었다. 1850년에는 BUYS-BALLOT에 의해 등압선과 바람과의 관계가 발견되었고, 폭풍이나 전선에 관한 연구도 진척되어 1927년에는 BERGERON이 기단론을 제창하면서 기단과 등압선 형태간의 유선(Stream Line) 법칙이 알려짐에 따라 수렴(Convergence)과 발산(Divergence)에 의한 일기예보의 가능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1940년에는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전선분석에 의한 이동과 기류의 수령·발산지역을 예보한 PETTERSSEN 일기분석예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단기예보와는 별도로 장기예보분야도 BAUR에 의해 기압이나 기온의 통계를 기초로 하고 약간의 물리적 고찰도 가미하여 10일 간의 예보가 시도되었고 계절예보도 역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1950년까지의 일기예보는 주로 기압, 기온, 바람 등의 분포를 기초로 하여 운동학적 외삽법으로 장래의 기압분포를 예측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고, 기상패턴을 해석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판단에 의한 주관적인 예보에의 접근이 지난 수십년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약간의 발전은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접근방법이 자연히 경험적이고 정성적인 성격이 강해 한동안 유일한 예보방법으로 여겨졌으나 세월이 흐르고 모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것만으로 예보결과를 현저하게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나. 수치예보의 변천

앞서 설명한 주관적 예보접근방법과는 달리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인 개념으로 일기를 예보하고자 하는 욕망이 고조되어 20세기초엽 노르웨이 기상학자인 Bierknes(1904) 가 날씨는 대기의 열역학과 유체역학으로 설명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시한 이래 일기예보는 대기과학의 기본적 과제로서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항공기와 Radiosonde에 의한 고층기상 관측으로 상충의 대기상태와 운동이 파악되었고, 실제적으로 현대수치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Rossby(1939) 등에 의해 장파 (Long Wave or Planetary)의 역학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대기운동을 가장 간단한 순압모형 (Barotropic Model)으로 표현하였다. 그 후 기상위성통신과 전자계산기의 출현으로 막대한 자료수집, 전파 및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일찍이 대기역학 기본방정식의 수치적분으로 수치예보의 이상이 실현되었다. Charney(1948)는 대기의 운동을 지균근사(Geostrophic Approximation)를 이용, 대기역학 방정식을 가장 간단히 하여 수치예보 모형에 의한 예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1950년에는 실제 초기치를 순압모형에 아용하여 최초로 예보시도에 성공하면서, 균형방정식을 이용한 순압모형의 개량과 경압모형(Baroclinic Model) 의 발전도 가져왔다.

계속적인 수치적분방법의 연구와 개발 및 컴퓨터 계산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Eliassen, Shuman (1959) 등이 독립적으로 원시방정식을 이용한 원시모형(Primitive Model)의 수치예보를 시도하는 한편 Charney와 Lorenz에 의해 실제예보를 통한 준지균(Quasi—

Geostrophic) 역학의 타당성이 실증되면서 대기의 역학적 구조가 보다 상세히 파헤쳐졌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제 예보업무나 연구에 원시방정식 모형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시모형에 의한 수치예보가 중추를 이룰만큼 예보의 정확도와 객관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역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치예보를 위해 이의 보완에 대한 많은 연구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인 수치예보 발달 추세에 부응하고,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1980년 이후 과학기술처, 연세대학교 및 중앙기상대에서 공동으로 한국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수치예보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간단한 순압모형에 대한 3~4편의 연구논문과 5~6편의 경압모형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며 실제 수치예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 우리나라 기상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4. 수치예보의 구조

### 가. 지배방정식

대기를 지배하는 3개의 보존법칙(에너지, 운동량, 질량보존법칙)이 있는데 이러한 보존법칙을 만족하면서 대기운동에 관계하는 주요 방정식은 운동, 열역학, 연속, 상태방정식 등이 있다. 이러한 방정식들을 만족하는 해(Solution)는 일반적으로 매우 계산하기 힘들고 어려우며, 실제 대기에서는 이러한 만족된 해가 관측된 진동과 파동에 일치하고 있다. 수치예보에 있어서는 기상학적으로 의미있는 대규모 운동의 특정해 만을 얻기 위하여 간단한 모형(순압, 경압, 준지균모형)에서는 지배 방정식을 단순화하고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지만, 원시모형에 있어서는 대규모 운동뿐만 아니라, 중규모 이하 소규모현상의 운동도 포함되므로 지배방정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아직 미해결된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기상학적으로 의미있는 특정해를 얻기 위해 지배방정식을 단순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의 운동에는 장파와 같이 대규모 운동이 있는가 하면 음파(Sound Wave)나 중력파 (Gravity- Wave)와 같은 소규모 단파운동이 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대규모 운동이므로 이런 단파가 지배방정식의 해로서 포함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해야 하는데, 실제 풍속을 쓰는 대신 지균풍속(Geostrophic- Wind)이나 정역학방정식을 변형하여 지배방정식에 대입하면 음파나 중력파같은 소규모 운동은 해로서 포함되지 않는 미분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지균풍 근사라 하며 이 근사로써 음파나 중력파를 제거할 수 있다.

둘째, 대기운동의 특성이 수평규모에 크게 좌우되므로 지배방정식의 각 항의 크기를 추정하여 수평규모가 아주 미세한 항은 미리 제거하는 규모분석(Scale Analysis)을 사용하여, 지배방정식을 단순화 할 수 있다. 참고로 표 1은 대기 운동계의 전형적인 수평규모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2 는 시간적·공간적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대기운동 시스템의 전형적 규모

| 운동형태 | 수평규모(m) |
|---|---|
| Molecular mean free path | 10-7 |
| Minute turbulent eddies | 10-2 -10-1 |
| Small eddies | 10-1-1 |
| Dust devils | 1-10 |
| Gusts | 10-102 |
| Tornadoes | 102 |
| Cumulonimbus Clouds | 103 |
| Fronts, Squall line | 104-105 |
| Typhoon, Hurricane | 105 |
| Synoptic cyclones | 106 |
| Planetary wave | 107 |

표 2. 대기운동계의 시간과 공간적 규모

| 명 칭 | 공간적 규모 | 시간적 규모 | 예 |
|---|---|---|---|
| Macro-Scale (대순환규모) | 수만km~ 1,000km/전지구 | 수 년 - 월 -주 | 1,000~5,000km : Moon Soon<br>5,000km : General Circulation<br>10,000~40,000km : Long wave or planetany wave |
| Synoptic-Scale (종관계 규모) | 1,000~100km /대륙규모 | 수 주 일- 수일 | 100~200km : 열대저기압<br>200~400km : Typhoon, Hurricane<br>400~1,000km : 극전선 |
| Meso-Scale (중간계규모) | 100km ~ | 수일 - 수분 | 10~20km : 안개<br>20~40km : 산악파<br>400~100km : 해륙풍, 뇌우, 스콜선 |
| Micro-Scale (미세규모) | 10km<br>1cm ~ 10km | 수분 - 수초 | 1~10m : 지상풍<br>10~100m : 작은 구름<br>1 一 100m : Turbulence(난류)<br>100~1,000m : Tornado<br>1~10km : 비구름 |

## 나. 예보체계 비교

기상업무는 크게 진단업무(Diagnostic Service)와 예보업무(Forecast Service)로 나눌 수 있다. 진단업무가 대기대순환의 상태, 종관 및 중간규모 상태 등 기존의 대기상태를 파악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는 분석업무에 반해 예보업무는 현재의 대기를 파악, 분석하여 미래의 대기상태를 알아내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런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예보체계는 각종 관측장비로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고 예보하며 예보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기상예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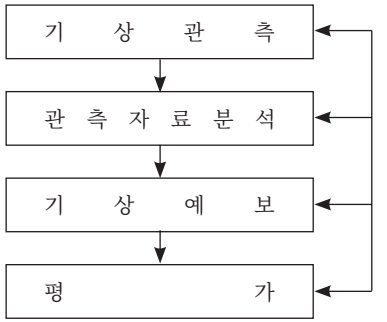



표 4. 선진국(미, 일)의 기상예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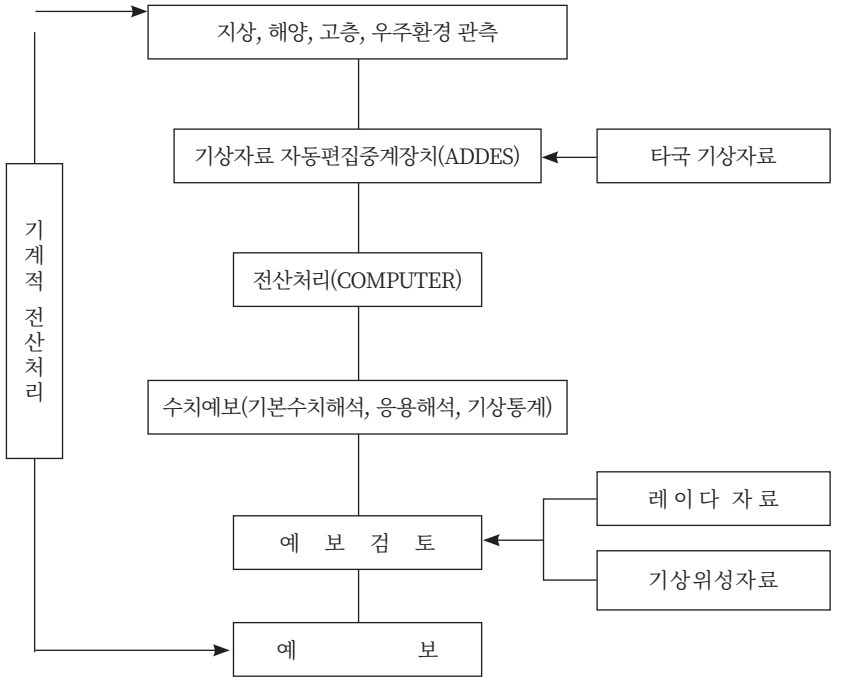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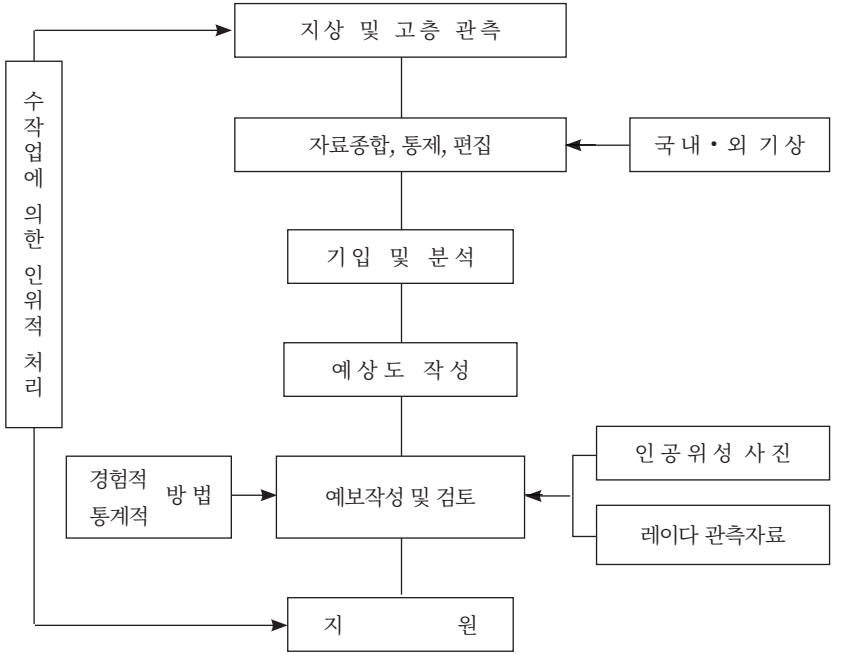





표 5. 한국의 기상예보 체계




예보된 기상정보는 결국 기상예보를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전파되어 이용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예보 정확률의 향상은 예보체계 단계의 평가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결함이나 오차발생요소를 발견하여 개선 또는 향상시킴으로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보체계는 평가단계에서 끝나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각 단계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순환체계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예보체제가 자동화되어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거의 5~6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에 선진국보다 훨씬 뒤떨어진 실정에 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상예보 체계를 비교하면 표 4, 5 와 같다.

## 다. 모형 종류

기상예보 방법에는 앞서 설명되었듯이 경험적 방법으로 주관분석을 하는 예보,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여 기상패턴을 해석하는 방법, 모수화된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 흔히 Dynamic Model이라 불리는 수치 예보 등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수치예보가 정량적 예보이며 정확성

이 있는 객관적 예보로 중기예보가 가능하고, 수치예보를 수행 함으로써 특수한 기상서비스가 가능하여 대기의 과정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예보기술과 개념이 사용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수치예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치예보에 사용되고 있는 모형의 종류에는 순압, 준지균 및 원시모형 등으로 각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순압모형

가장 간단한 예보모형으로 대기를 두 층으로 나누어 지배방정식을 단순화 내지 변형하여 한 개의 와도방정식(Vorticity Equation)을 사용, 500 mb 고도만을 예보하는데 예보기간이 48시간 미만인 경우 장파예보에는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나 고·저기압계의 발달·소멸을 설명하기 위한 온도변화(온도변화는 운동에너지를 생성시킴으로써 고·저기압 발달, 소멸에 영향을 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위도 종관계 예보에는 적절하지 않다. 순압모형과 원리는 같으나 와도방정식에 산악 및 비단열적 효과를 삽입 또는 일부 수정하여 개발된 개량된 순압모형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1984년에 걸쳐 순압모형을 이용한 북반구에서의 500mb 등압면 고도의 실제적 예보가 시도된 바 있다.

### 2) 준지균 모형 (Quasi-Geostrophic odel)

통상 Q-G 모형으로 알려진 이 모형은 온도변화를 고려한 경압대기의 종관적 상태를 예보하는 간단한 역학적 모형으로서 순압모형과는 달리 열방정식을 첨가시키고 지배방정식을 단순화 내지 변형시켜 대기의 구조를 진단하는 오메가 방정식(Omega Equation)과 미래의 대기를 예측하는 경향방정식(Tendency Equation)을 사용하여 예보를 수행하는데 예보기간이 48시간 미만인 경우 중위도 종관계의 예보에 상당한 정확도(60~70%)를 가지고 있으나 강수과정을 포함한 비단열적 과정(Adiabatic Process)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여 특히 중위도 지표부근의 종관적 상태 예보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1984년에 이 모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고 실제 수치예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과정의 연구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 3) 원시모형

통상 PE모형으로 알려진 이 모형은 여러 가정이나 근사가 포함되지 않는 지배방정식(정역학, 운동, 열, 수분방정식)을 약간 변형하고 모수화하여 대기운동의 종관계와 중간계 규모의 운동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준지균 모형이 지표면과 대기의 상호작용, 대기의 중규모 운동체계를 대표하는 적난운 군집체 및 복사와 구름의 상호작용 등 대규모 운동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원리적으로 다룰 수 없음에 비해 원시모형은 중간규모 이하의 운동과정 가운데 종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열과 잠열의 난류수송, 에너지의 복사 및 대류수송 적난운군집체 등 Q. G 모형이 다룰 수 없는 중·소규모 운동과성을 적절히 모수화시켜 다룰





수 있다. 따라서 계산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부분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에서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대학과 중앙기상대 및 유관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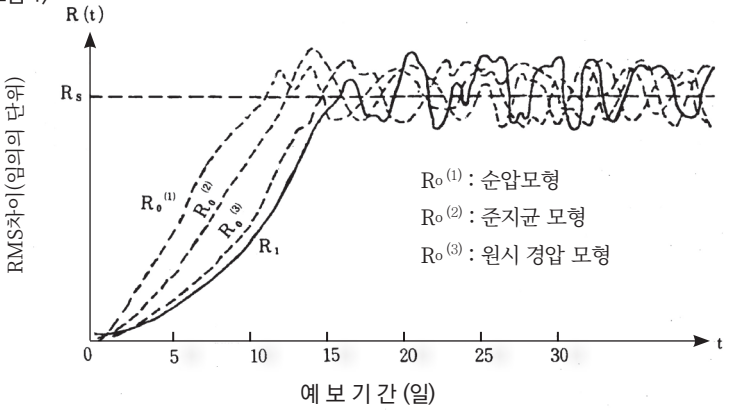
## 라. 대기의 예측성

대기의 예측성이란 수치예보모형을 이용하여 대기의 종관적 상태를 예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본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한 초기조건으로 출발한 예보오차는 예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러한 예보오차는 사용된 모형의 불안정성과 초기조건의 불확정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조건의 불안정성에 의한 오차는 보통 계기의 정밀도, 관측행위 미숙 등에 의한 관측오차와 불균질한 관측지점들로부터 모형의 격자정위에 종관자료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분석 오차 및 난류오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보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모형의 연구와 개발에 따라 모형의 불안정성은 점차 제거될 수 있지만 가장 발전한 원시경압모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보기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형의 개발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또한 초기조건에 기인하는 관측 및 분석 오차는 원리적으로 임의대로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종관상태의 초기조건은 필연적으로 난류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초기상태의 오차가 시간에 따라 증폭하는 과정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대기의 지배방정식들이 보존원리를 중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없이 증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예보오차 R0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초기시각 t = 0 에서는 모두 Ro = 0 즉,

〈그림 1〉



분포와 예보분포의 완전한 일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예보기간 15일 미만에 RMS(Rootmean-Square) 차이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그 값이 Rs 부근에서 불규칙한 소폭 진동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가장 좋은 예보를 보여주는 원시경압 모형의 Ro 는 Ro가 증가하는 기간에 R1에 가장 빨리 접근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예보란 무작위로 뽑아낸 두 개의 관측된 종관상태 사이의 RMS 차이를 구하고 이러한 작업을 반복·시행하여 얻은 차이들의 평균을 Rs, 관측과 예보 분포 사이에 앞에와 같은 방법을 적용시켜 얻은 결과를 Ro라 할 때 Ro《Rs 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예보일 것이다. 이로 미루어 순압모형에 의한 종관상태예보는 10일, 준지균모형은 11~12일, 원시모형은 2주 정도가 됨을 알 수 있고, 이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난류존재에 의한 초기조건의 불확정성으로 무의미함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대기예측성의 한계를 의미하며 오늘날 모든 일기예보의 기초적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마. 예보 평가

#### 1) 일기예보 평가

일기예보 평가는 실제로 관측된 일기와 예보된 일기를 비교하는 일련의 과정 즉, 수집된 자료로부터 지수(Index)나 점수를 계산하여 이 값을 기준값과 비교·검토하여 지수나 점수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보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대기의 상태를 정확히 예보하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기상학 이론의 과학적 타당성이나, 일기예보에 있어서의 오차의 본질과 원인을 밝히는데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 목적 외에도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평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수치예보를 위한 컴퓨터 계산에 대한 인위적인 입력의 수정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되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보모델을 새로운 모델과 교환하거나 두 개의 상반된 모델을 비교·검토하여 평가하는데 이용되며, 현재 운용 중인 모델의 취약점을 발견하는데 이용된다. 실제로 이러한 예보평가 방법에는 여러 종류(예를 들면 % Error, Average Error, RMS Error, Skill Score 등)가 있지만 평가방법의 선택은 평가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어떠한 이상적인 평가방법도 일반적인 모든 목적을 만족시키는 평가방법이 될 수 없다.

#### (2) 모형 평가

모형이라 함은 전산화된 수치모형과 모형출력 통계에 따라 산출된 다양한 예보수칙을 말한다. 이러한 모형들은 객관적인 모형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작업이 필연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예보에 비해 발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창의적 평가작업을 수치모형과 더불어 고안된 모든 예보수칙에 적용해야할 것이다. 대기예측성에서 약간 언급된 바와 같이 모형의 평가는 아주 기초적 처리방법으로 다음 식을 사용한다.





즉, $S = 100 \times \left(1 - \frac{Ro}{Rs}\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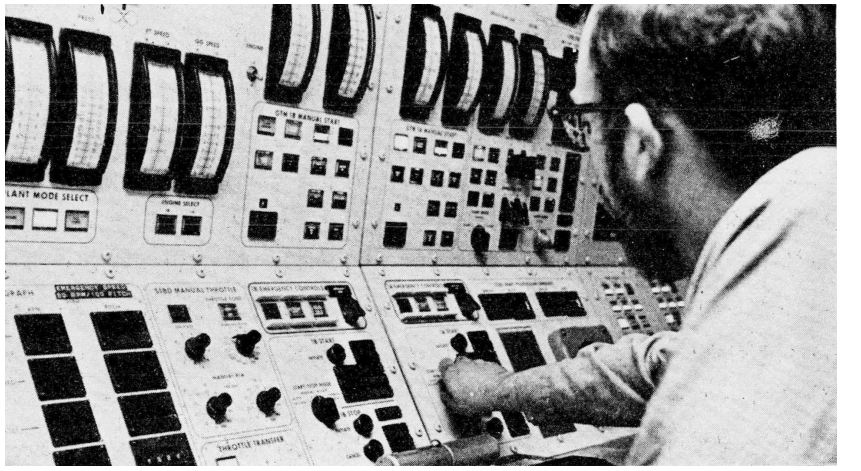
이 식에서 S가 클수록 그 모형은 실제 대기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며 Ro가 0에 가까울수록 S 는 100에 접근하여 예보치와 관측치가 일치함을 의미하며, R와 Rs가 서로 같으면 S는 0로서 Random하게 두 개의 일기도를 선택했을 때 예보치의 오차가 두 일기도의 차이와 같으므로 예보치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흔히 창의력 평가작업이라 함은 객관적 모형이 포함하거나 의미하는 물리적 과정들의 메카니즘을 밝혀내는 연구작업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모형의 수정이 가능한 것이다.

## 5. 앞으로의 과제

수치예보에 대한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는 기상정보 시스템의 연구로서 기상분야의 종합적인 현대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며 단계별, 연차적으로 제시된 확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개선수행이 이루어져서 실제 운영상의 세부적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해결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완전한 기상시스템의 자동화(전산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수치예보 수행업무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연구과제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상대(민·군)는 30~40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관심소홀과 투자 및 여러 요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무



엇보다도 기상에 관심을 가지는 고급인력의 부족과 앞으로 실천적인 기상정보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할 전산요원의 부족은 현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제반 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의 부족, 노후 및 낙후 등으로 주관적인 예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현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능력과 국내·외 기술적 수준을 감안하여 두가지 측면 즉, 기상시스템 연구와 전산시스템 연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상시스템 연구는 앞서 설명한 기상예보체계가 유기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상관측망의 구성, 기능수행을 위한 구조로서 관측장비의 자동화, 조직과 관리 및 기상서비스 등의 효율화를 연구하여 최적기상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며,

둘째, 전산시스템의 연구는 기상시스템의 성취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통신의 전산화와 자료처리의 전산화를 비롯 각종 기능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구로서,

가. 하드웨어(Hard Ware)의 확보 및 소프트웨어(Soft Ware)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통신 소프트웨어의 연구, 실시간에 기상도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및 보완연구, File 관리 시스템의 연구 등이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상관측(지상 및 상층) 장비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분야로서 자동화가 가능한 장비선정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동관측데이타, 송수신의 시스템 연구가 요구된다.

다. 수치예보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예보체계의 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국외의 모형과 체계에 대한 연구, 북반구 순압 모형과 준지균모형의 실험적 응용, 원시경압모형의 기초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라. 컴퓨터 통신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통신망의 통합연결을 위한 연구 즉, 관련 업무부서(민·관·군)와의 연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 수치예보 시스템의 확정을 위한 연구로서 차후의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인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상전문요원의 확보, 기상에 대한 정책적 배경이 따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가(기상 및 전산)와의 긴밀한 협조, 기술정보의 계속적인 수집 및 국내·외 연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기상분야의 현대화가 이루어져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수치예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바람직한 지휘관리(指揮管理)

중령 장 상 용
〈공군본부〉

무기체계의 고성능화와 고가화(실례로 F-16 1대가 '86년 가격으로 약 200억원이라고 볼 때, 이는 웬만한 중소기업의 전체 자산과도 맞먹는 액수임)에 따라 엄청난 예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우리 공군에서는 전력의 무위 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Leadership과 Management에 관한 지식이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James McDermott 가 쓴 Leadership and Management라는 글을 우리말로 옮겼는데, 지휘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서 론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고 사람은 통솔하는 것이다"라는 단순한 말이 그동안 전문직 공군장교들에게 상당한 관심이 되어 왔다.

복잡하고 또 계속 변천하고 있는 군의 환경 속에서 직업의 안전을 찾고 자기 현실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표현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군장교들의 행동 "모델"로 삼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마치 "열이 나면 찬물을 마셔라"라는 구식 가정요법을 연상케 하는 말이다.

이 말은 통솔력은 관리능력 없이도 가능하고 관리능력도 통솔력 없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고 더우기나 통솔력을 찬미하면서 관리능력은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야심있는 젊은 장교라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누가 관리직에 자리를 원하겠는가?

그러나 이 단순한 격언이 주는 진짜 위험은 장교의 자질에 관한 진지한 관심을 왜곡시킨다는 점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양분되어 있는 장교직, 즉 작전과 관리, 일선근무와 참모직, 자격조종사와 비자격조종사, 조종사와 항법사, 전투조종사와 수송기조종사 등 사이에 갈등을 잠재적으로 가중시킨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 통솔자와 관리자 사이까지 갈라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사람은 통솔하고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장교의 역할과 자격을 어느 모로도 분명히 하여 주지는 못하고 장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제시하여 주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찌하여 관심을 받는가? 사실 훌륭한 통솔자와 능률적인 관리자는 구별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훌륭한 장교의 자질은 전자인가, 후자인가, 아니면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같이 포함시킨 훌륭한 공군장교상이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론은 통솔력과 관리능력은 상호 깊이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며 양편 모두 건전한 장교의 자질에 똑같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통솔력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관리는 이성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성이 없는 통솔자는 사랑이 없는 관리자 만큼이나 해를 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군은 관리능력이 있는(즉, 인력의 부담과 경비를 판단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솔자를 필요로 하고 통솔력이 있는(즉, 부하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욕구를 이해할 줄 아는) 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군은 이 두 기회를 분리시키거나 어느 한쪽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본 론

### ○ 장교 자질에 대한 현대 견해

장교를 신사, 통솔자, 전술가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는 대부분 육군의 전투사를 통하여 본 견해로서 충성심, 용감성, 독창성 그리고 사병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장교의 높은 자질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의 충격과 군에 대한 정치적 분열로 인한 불화,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장교의 역할에 새로운 차원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복잡하여진 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현대의 장교 자질문제는 장교의 변천하는 역할의 문제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통솔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장교들의 강력한 재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고도로 기술화, 전문화되어 있고 중앙통제되어 있는 군사체제 속에서 장교의 자질은 관리능력과 관리수단을 더 중요시 하게 되어 있다.

Bennie Davis 장군은 통솔력과 관리능력 그리고 직업관을 장교의 자질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가 뒤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기본 자질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확실한 개념을 주지도 못한다. 이 문제들은 지속적인 가치관과 자아의 정립을 추구하는 공군장교들이 의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최근에 와서 장교는 무엇보다도 우선 통솔자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를 다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수년전만 하여도 "관리"라는 제목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던 지도력 교육이 이제는 사관학교 또는 군사 전문학교에서 거대한 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며 고급지휘관들은 장교나 생도들의 모임에서 자주 통솔력의 중요성을 훈시한다. 물론 학교교육을 통해서나 지휘관들이 군대에 있어 통솔력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분명히 구분하여 왔다. 즉 지휘 통솔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으로 명료하게 구분시켰다는 점이다. "공군장교들은 관리자가 되는데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반면, 통솔자가 되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당신은 사물을 관리하고 사람을 통솔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군이 관리자보다는 통솔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명백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공군장군은 관리를 정의하기를 '기본적으로 통계와 관련된 하나의 기록제도'라고 하였다. 또 어떤 장군은 "통솔자는 정보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된 사항을 제시하고 통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이 말은 관리이론을 잘 아는 장교들에게는 바로 효율적 관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은 마치 "관리"라는 용어가 장교들의 전문사전에서 소제당하여 버린 것 같다.

여하간 통솔과 관리라는 용어의 해석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관리능력보다 통솔력을 더 주장하는 것은 공군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공군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장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거운 때이다. 기술이 애초부터 공군임무의 기본요소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년간 무기 및 지원체제에서 이루어진 폭발적인 발전과 그에 대한 의존은 장교의 자질에 대하여 종래의 가치관에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최소한도 공군은 폭력의 관리(Management of Violence)라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전문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국제정세에 대한 군사적 대처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사작전을 모든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게 만든다. 그 결과로 공군은 각급 일선장교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점점 둔화되었고 거대한 기술적 참모들로 구성된 양적 조직으로 성장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술적인 능력과 타분야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관료 정치적 수완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장교의 자질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공군의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완전자원제에서 온다.

자원제도는 군의 유능한 인력을 얻기 위하여는 민간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얻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자원제는 장교의 직무관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국가에 대한 봉사" 의미가 아닌 "경력" 또는 "평생직"의 의미로 더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 군의 기상과 군의 권위적 동기부여의 방법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난처한 "인간적" 문제를 새로이 일으킨다.

끝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공군장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즉 공군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증대는 전 군에 거대한 행정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소수의 여성문제로 인하여 사기, 복지, 지원체제에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였고 마약과 알콜 남용 문제로 인하여 지휘부의 혁신적인 대처가 필요한 새로운 인력문제가 가중되었으며 "편모, 편부" 또는 "부부장교"의 문제로 인하여는 전투태세 정비와 인사배치 정책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견해에서 생소한 것들로서 혁신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치밀하고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전문직 장교들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장교의 자질은 통솔력이며 관리능력은 부분적인 문제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교상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생각이 있다.

첫째는 사람은 통솔하는 것이고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라는 격언에서 나온 생각으로 장교의 자질은 통솔력이며 관리능력은 기타 자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장교에게 관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마지 못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사소한 관심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즉 관리는 장교가 부하를 통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금 그리고 물자를 획득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므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

통솔(統率)과 관리(管理)의 균형(均衡)속에서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은
효과적(效果的)으로 달성(達成)된다

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생각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관료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장교들이 갖게 될 갈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준다. 또 하나의 생각은 장교의 역할에 관리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완전히 구별하여 각기 장교자질의 양쪽 끝에 있는 것처럼 보는 태도이다. "관리능력면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고 말한 Davis장군의 논평이 바로 군에서의 순수한 지도력은 한쪽 극에 있고 관리능력은 다른 한쪽 극에 있는 변용적 능력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통솔력은 지나치게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고 관리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일처럼 되어 지휘통솔을 강조하면 성취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관리를 강조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장교가 부하에게 임무수행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 중간 어디엔가 이상주의와 실용주의가 적당히 만나는 곳을 알아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위의 두 견해 중에 어느 쪽이라도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견해는 장교의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연효과적인 지침이 될 것인가?

필자는 장교상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들은 최근의 연구이론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 ○ 새로운 견해

지휘통솔과 관리에 대한 지난 30년 간의 이론들은 지휘는 어디에서 끝나는 일이며 관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휘력 문제를 집단역학 문제로 다루게 됨으로써 학술적 판정이나 순수한 해석보다는 경험적 자체에 입각하여 다루는 행동학적 연구로 취급되고, 조직분석은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다만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때 서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심사임을 명백히 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통솔력에 대한 행동연구에서는 통솔력이란 특정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비한 자질이 아니라 뚜렷이 보이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았다.

통솔력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바치는 인간노력의 과정이라는 견해에는 몇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통솔자의 태도(Attitude)보다는 실질적인 행동(Action)을 어떻게 하느냐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즉, "지휘관으로서의 당신의 일은 부하의 속 생각을 바꾸어 놓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통솔자는 인간의 행동심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부하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행동(Action)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통솔력을 행동상의 과정(Behaviored Process)으로 보는 가치관을 그러한 행동은 신비한 것이 아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통솔력은 집단 내에서의 개인 간에 일으키는 상호작용이며 또한 그 집단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일으키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조직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지휘로서는 물론 목적달성을 못하거나 조직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 전제는 통솔력은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차원적인 성격이라는 것이다.

물론 통솔의 과정은 지휘관과 부하들 간에 유지되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나 지휘관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전문가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관계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목적과 부하의 사기와 추진력의 유지관계에 균형을 잃고 능률을 잃고 조직을 분열시킬 염려가 있다. 즉 조직은 인적자원뿐 아니라 비인적자원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제도이며 비인적자원의 관리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기계적인 기능이 아니라 구석 구석이 스며드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사명완수를 위하여 부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광범위한 능력을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관리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솔력은 관리능력과 명백히 관계가 있는 것이다.

실상 행동학적 분석과 조직이론에서는 통솔력과 관리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솔자나 관리자는 다같이 조직속에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것으로서 관리는 "사물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고, 지휘는 "사람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구별하여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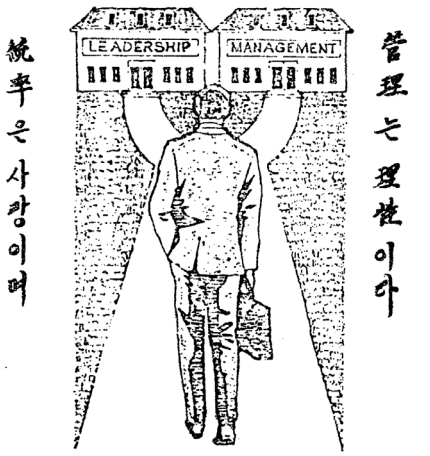


효과적인 지휘와 관리는 집단의 사기와 조직의 목적 사이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원인이 있다. 관리자는 객관적 조건으로 임명이 되고 지휘관은 내적 조건으로 임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군처럼 안정과 능률을 기본조건으로 조직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통솔관리자는 내적 조건을 같이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건전하려면 관리자는 그의 통솔력에 대하여 집단 내부의 비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휘관은 실제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객관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관리자이든 지휘관이든 두 가지 능력이 같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조직의 어떤 위치에 있는 지휘관이든 통솔자의 입장에서는 부하와 직접 유대를 갖는 것이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를 활용하여 조직적 효율을 얻는 것이다.




## 결 론

이제는 통솔력과 관리능력은 공군장교의 자질에서 불가분의 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능력은 한 몸에 붙어 있는 두 팔과 같은 것으로 같은 일을 위하여 노력을 바치는 것이다.

통솔이 인간의 직접 접촉으로 조직 속에서 전개되는 일이라면 관리는 직접 접촉하는 범위를 넘어서 전체 조직의 욕구를 다루는 일이고 결국 다같이 인력을 발전, 유지, 인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의미로 중복되는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통솔이 집단의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관계를 끌고 가는 일이라면 관리는 부하들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알게 하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장교는 부하를 교

육시키고 훈련하고 돌보아 주면서 통솔하는 것이고 조직의 능력과 소요경비를 분석하고 취사선택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통솔은 부하에게 느껴지는 것(Felt)이고 관리는 이해(Understood)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장교의 자질 중에 관리는 이성이고 통솔은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잃으면 조직은 고통을 받게 된다. 통솔력을 무시하는 장교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지 모르나 전체 조직의 목표에 관심이 없으면서 개인적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 조직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고 관리능력을 소홀히 하는 통솔은 목표달성에 계속 실패하거나 지나친 소모를 치르게 만들어 결국 사기를 잃게 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월남전에서의 미 육군의 경우로 관리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야전보병장교의 통솔권한이 무시당했고 결국 부대단위의 권위와 규율을 파괴하게 된 경우이고, 후자는 1차대전시에 베르당에서의 불란서 육군의 경우로 과감한 통솔력만이 관심사가 되어 장교들이 담력과 열기에 도취되어 인적 소모는 생각도 않고 참호 속에서 방어하고 있는 적에 대하여 계속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쳐버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경우이다.

장교는 그의 조직관 속에서 사람과 임무에 대하여 똑같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조직이란 완수해야 할 임무를 가진 한 인간의 집단이다.

임무는 조직의 명분이고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는 수단이다. 전문직으로서 공군장교의 자질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장교는 사람을 통솔하는 것이고 사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통솔력과 관리능력은 장교행동에 상반되는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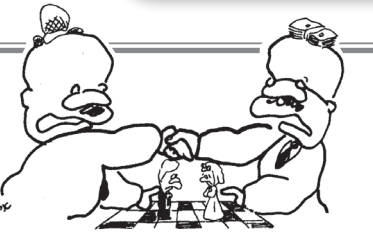
통솔력과 관리능력에 대하여 체계 있게 연구하여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해답 또는 한 가지 의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계속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하고 헌신적인 전문직 장교를 길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공방위 대비태세

'86, '88 이상없다.



# 군 조직(軍 組織) 의사결정(意思決定)에 참여이론(參與理論)



대위(大尉) 김 성 곤
〈공군본부〉

## 1. 의사결정에 참여의 필요성

인간은 그 지위의 고하에 무관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인간은 그 나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임하게 되며, 같은 의미로서 조직의 장은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의사결정의 책임을 갖게 된다.

다른 공식조직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군 조직에서도 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시책과 방침을 세워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일이 지휘관의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관은 효과적으로 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군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 조직의 규모가 증대하고 당면하는 문제들이 복잡성을 띰에따라 부대 지휘관이 참모들의 협력없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부대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휘관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 및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그들의 조언과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부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 조직 의사결정에 참모 및 다른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개발한 정책은 수행에 용이하다.

둘째,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

세째,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네째, 참여는 조직과 일체감을 갖게 하며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한다.

다섯째,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의 참여는 참여자 개개인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관련 된다.

그러나 조직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의 모든 참여가 그들의 사기·만족 및 직무성과의 향상에 항상 정적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 문헌들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노력과 시간의 낭비로 생각하고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군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휘관은 참모 및 부대 구성원들을 어떤 기준하에서 어느 정도 어느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결정의 질, 실행 및 참여자의 만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 2. 의사결정의 개념

webster에서 decision이라는 말을 간추려 보면 행동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행위 혹은 의견을 형성하는 행위(the act of decision or forming an opinion)로서는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decide라는 말을 통합해 보면 문제해결에 결말 또는 결론 내리는 것(to arrive at a solution, to bring to ends, to infer or conclude from....)과 미래의 행동방안으로서 선택 또는 선정하는 것(to choose or select as a future course of action)으로 되어 있다. 의사결정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해 놓은 의미내용을 종합하여 그 성격과 개념을 탐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은 시·공간 및 문화적으로 조건지워진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연속적인 순환과정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환하면서 전개된다. 여기서 연속적인 순환 과정이란 의사결정이 가치를 지향해서 나선형적으로 전개된다는 뜻이다. 의사결정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건지워진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건지워진 상황들 중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그것에 대응해서 목적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수단과 방법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평가라는 환류과정(feedback)은 다음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째, 군 조직 의사결정은 군 및 부대운영의 효과성을 이해하는 중추개념으로써, 현실적으로 조건지워진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군 및 부대운영의 목적을 지표와 지침으로 하여 ① 문제의 인지 및 발견 ② 문제의 진단과 분석 ③ 해결 방안의 탐색 ④ 해결방안의 평가 및 선택 ④ 실행 및 종합적인 평가의 제 단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의사결정에 참여 이론

참여는 개인 및 집단이 직접, 간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식적일수도 비공식적일수도 있으며 지적, 감정적, 육체적 개입을 수반한다. 이러한 참여에 대하여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한 사람은 Mary P. Follet 일 것이다. 그는 행정이론 발전과정에서 행정의 심리적 측면을 최초로 인정하였고 정책수립 과정에 관련자들은 참여해야 하며 정책이 결





정된 후에 단순히 통고받기만 해서는 안 됨을 진술하고 있다. Herbert A. Simon은 행정의 심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있게 분석한 가운데서, 조직 속에서 고립된 개인은 객관적으로 고도의 합리성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행동에 대한 책임은 특정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정자체는 계서제상의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조직 속의 많은 집단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 군 조직운영은 군 조직의 목적달성을 긍극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욕구 충족도 동시에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군 조직의 운영활동이 단일성보다 복합성을 띈 경우가 많으며 지휘관의 지식 불완전성, 불충분성, 예견의 곤란, 행동 가능 영역 등의 제한 때문에 지휘관은 부대운영에 관한 제 의사결정 과정에 상황에 따라 구성원들의 참여 형태 기준시기 및 정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 가. 참여의 형태

참여의 형태에는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참여는 의사결정의 주체들 사이에 사람 자체가 구비하고 있는 교호작용의 수단을 가지고 표현과 반응을 즉시 할 수 있는 참여이다. 예를들면 부대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한 명의 참모를 참여시켰을 경우에 두 주체의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의 교호작용이 가능한 참여이며 말하기·듣기·표정·몸짓하기를 비롯하여 사람과 사람사이에 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표현과 응답 수단이 가능하며, 표현과 응답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때 그때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참여자의 수·시간 또는 회수 그리고 공간적인 제한점이 있다.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참여자의 수·시간 또는 회수 그리고 공간 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대행자와 매체를 통하여 참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간접적인 참여라고 한다.

### 나. 참여의 기준

지휘관은 부대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모 및 구성원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참여시키지 않을 것인가? 참여시킨다면 어느 정도 어느 단계부터 참여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기준이 비효과적이거나 불분명하고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를 무분별하게 강요함으로써 참여의 결과 시간낭비·소외감·불화와 반목·저항 등을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당연히 결정해야 할 구성원들이 이것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무관심의 영역"(Zone of indifference)에 해당하는 문제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거나 참모들이 당연히 참여하여 결정해야 할 "관심영역"의 문제를 지휘관 단독으로 결정한다면 불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구성원들은 자기들의 관심권 내에 있는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관심권 밖에 있는 결정에는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 및 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결정할 혹은 결정에 기여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시간낭비·소외감 및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 군 조직은 계층적으로 조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범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문제가 어떤 조직 구성원에게 관련이 있고 그가 그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수행할 수 없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은 만큼이나 비효과적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군 조직 의사결정에 참모들의 참여기준은 첫째, 의사결정 내용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관련성) 둘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경험 및 능력(전문성) 세째, 관할영역(관할권)이 되며 이들의 유무와 정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참여의 시기와 정도에 차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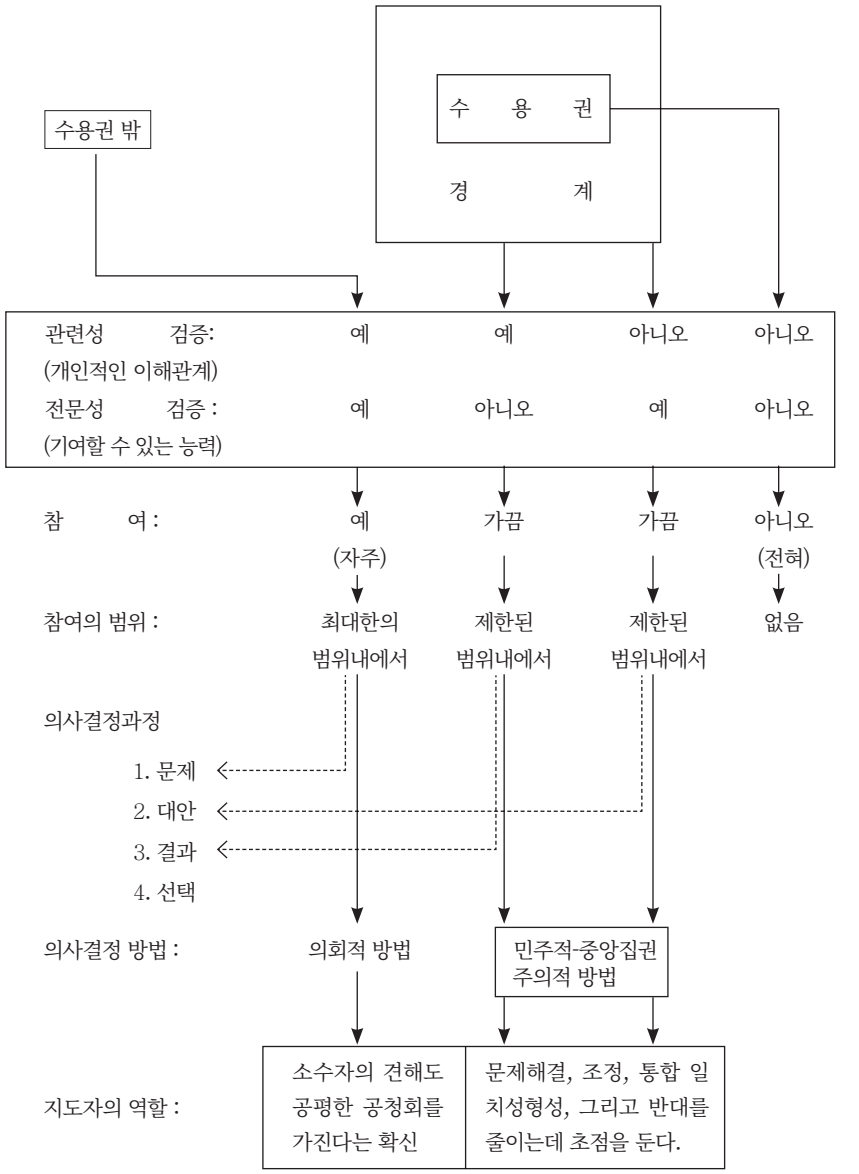
### 다. 참여의 모형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정도는 이론상 전혀 참여가 없는 경우에서부터 항상 참여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서 참여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Waryne K. Hoy와 Cecil G. Miskel은 문제가 구성원들의 수용권 내 혹은 외에 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성·전문성의 유무에 따라 구성원들의 참여정도에 차이가 있어야함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수용권(Zone of acceptance)의 개념은 Barnard가 규정한 무관심권(Zone of indifference)과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원들이 지휘관의 결정에 이의없이 받아들여지는 영역이다. 지휘관이 구성원들의 수용권에 있는 의사결정에 그들을 참여시킬 때 그 참여는 비효과적이며, 구성원들의 수용권 밖에 있는 의사결정에 그들의 참여가 효과적이고,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성검증과 전문성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

도식에서 상황유형 Ⅰ의 경우 문제가 명백하게 구성원들의 수용권 밖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지며 의사결정 과정에 가능한 한 조기단계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문제를 규정하고 목적을 진술하는 데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황유형 Ⅱ Ⅲ의 경우는 수용권도 수용권 밖도 아닌 경우이다. 상황유형 Ⅱ의 경우 참여의 주요 목적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의사결정 결과의 저항을 감소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유형 Ⅲ의 경우는 참여의 주요 목적이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의사결정 과정의 조기단계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참여자의 문제 진술과 목적의 진술에 있어서 유형 Ⅰ의 경우보다 자율성이 제한된다. 상황유형 Ⅳ의 경우는 수용권 내에 속하는 의사결정으로서 참여가 요구되지 않은 의사결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휘관이 부대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을 어떤 기준하에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냐에 대한 개념적인 지침을 마련해 준다.

〈표 Ⅱ－6〉 공동 의사결정 모형



□ 공군만평(空軍漫評) □

# 다 도(茶道)

장 세 순(張世淳)
동다헌(東茶軒) 대표(代表)

## 그 뿌리를 찾아 맥락을 같이 한다는데 현대 다도의 재 정립을 위한 생활예지가 요구된다.

### 1. 차생활(茶生活)

차살림(차생활(茶生活))은 생활(生活)의 사치(奢侈)로 오인(誤認)되기도 한다. 그러나, 차생활(茶生活)은 좋은 물을 마심으로써 건강(健康)과 행복(幸福)을 누리려는 인간욕구(人間欲求)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接近)하여 즐길 수 있는 생활(生活)이다.

일부(一部) 다인(茶人)들의 지나친 복고적(復古的) 경향(傾向)은 도리어 그런 오인(誤認)의 요소(要素)가 되고 있는데, 그 실례(実例)로 전통다도(伝統茶道)를 소개(紹介)할 적에 한복(韓服)을 갖추어 입고 꿇어앉아, 까다로운 절차(節次)를 지나치게 강조(強調)하는 일들을 들 수 있다.

우리의 현실(現実)을 그 옛날로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그럴 필요(必要)도 없다. 다만, 그 뿌리를 찾아 맥락(脈絡)을 같이 한다는 데에 현대(現代) 다도(茶道)의 재정립(再定立)을 위한 생활예지(生活叡智)가 요구(要求)된다.

### 2. 전통차(傳統茶)

현재(現在) 우리 생활주변(生活周辺)에는 많은 종류(種類)의 국산차(国産茶)가 있으나, 차(茶)라 하면, 녹차(綠茶), 오룡차(烏龍茶), 홍차(紅茶)를 들 수 있고, 그 밖의 차(茶)는 대용차(代用茶) 또는 약차(藥茶)에 속(屬)한다.

녹차(綠茶)는 이른 봄에 어린 잎을 따서 증기(蒸気)로 찌거나 솥에 볶아서 산화효소활동(酸化酵素活動)을 중지(中止)시켜 만든 차이므로 초록색(草綠色)이 나오도록 만든 차(茶)를

말한다.

그리고 오룡차(烏龍茶)는 어느 정도 다 자란 차잎을 따서 반쯤 발효(発酵)시킨 차이며, 홍차(紅茶)는 성엽(成葉)을 따서 완전(完全)히 발효(発酵)시킨 차를 말한다. 그러니까, 차나무는 한 가지지만 잎을 따는 시기(時期), 만드는 방법(方法)에 따라 녹차(綠茶), 오룡차(烏龍茶), 홍차(紅茶)로 분류(分類)된다.

옛날에는 화후(火候)니 품천(品泉)이니 하여 불과 물에 대(対)하여 신경을 많이 썼지만,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必要)는 없다. 수도(水道)물을 끓여서 차를 다려 마시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복(韓服)이건 양복(洋服)이건 단정(端正)하게 입고, 간편하게 옛 격식(格式)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日常) 예절(礼節)을 잘 지키고, 욕망(欲望)을 털고 무아(無我)의 경지(境地)를 닦는데 힘쓰면 된다.

요즈음 우리 주변(周辺)에서 전통차(伝統茶)를 찾자는 소리와 권장(勧奨)하는 소리가 높은 이유(理由)에 대(対)하여 설명(説明)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각종(各種) 순환기(循環器) 질환(疾患)이나 당뇨병(糖尿病)같은 현대병(現代病)을 예방(豫防)할 수 있으며, 각종(各種) 공해물질(公害物質)의 체내축적(体內蓄積)을 활발(活溌)한 이뇨작용(利尿作用)을 통(通)해 예방(豫防)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차생활(茶生活)을 통(通)해서 서로가 이해(理解)의 광장(廣場)을 마련하여 화평(和平)으로 이해(理解)를 돕게 되고, 자아(自我)를 재조명(再照明)하게 되어 욕망(欲望)의 심연(深淵)에 빠진 자기(自己)를 구원할 수 있는 자기학(自己学)이라는 점(点)이다. 끝으로 국산차(国産茶)의 애용(愛用)으로 외화(外貨)를 절약(節約)하는 등(等) 경제성(経済性)도 배제(排除)할 수 없음을 지적(指摘)해 둔다.

우리에게는 내 것을 소홀히 여기고, 남의 것을 무조건(無條件) 따르려는 경향(傾向)이 과거(過去)에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주인의식(主人意識)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되찾고, 잠들었던 주인의식(主人意識)을 일깨워 생활애국(生活愛国)의 길을 몸소 실천(実践)하여야 하겠다.

## 3. 생활다도(生活茶道)

옛날에는 화후(火候)라 해서 불을 다루고, 품천(品泉)이라 해서 물을 다루는 등 차를 다려 마시는 절차(節次)도 까다로왔다. 그러나, 차생활(茶生活)의 저변(低辺)을 확대(拡大)하려면 다도(茶道)를 현대(現代) 생활양식(生活様式)에 적응(適応)시켜야 한다.

물은 수도(水道)물을 쓰되 냄새가 가시도록 미리 받아 놓았다가 사용(使用)하면 되겠고, 불은 주전자나 커피포트 같은 전열기구(電熱器具)나 연탄불 등에 잘 끓인 다음, 차의 중요한 성분(成分)인 각종(各種)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도록 60도~80도로 식혀서 쓰도





록 한다.

용기(用器)로는 차관(茶罐)(차를 우려내는 주전자), 茶鍾(찻종), 숙우(熟盂)(귀사발 : 물식히는 그릇), 차칙(茶則)(차를 차통(茶桶)에서 덜어내는 데에 쓰는 대나무 조각) 같은 것이 필요(必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구비(具備)하려면 비용(費用)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누어 구입(購入)하는 것이 좋다. 차관(茶罐)이나 숙우(熟盂)가 없으면 커피포트나 주전자에 물을 잘 끓여 뚜껑을 열어 놓고 2~3분간 기다렸다가 물의 온도(温度)를 80도(度) 안팎으로 식힌 다음, 한 사람에 lg 정도의 차를 넣고 2~3분(分) 후에 찻잔에 따라 마시면 된다. 차관(茶罐)이나 주전자도 없을 경우에는 찻잔에 차를 넣고 탕수(湯水)를 부어 놓았다가 2~3분 후에 마시면 된다. 옛 선조(先祖)들도 우중섭차(盂中攝茶)라 하여 사발 같은 그릇에 차(茶)를 넣고 탕수(湯水)를 부어 마시기도 하였다. 현실성(現実性)을 무시(無視)하고 옛 형식(形式)에만 얽매인다면 차살림의 대중화(大衆化)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차문화(茶文化)는 전승(伝承)을 위한 전승(伝承)을 지양(止揚)하고, 시대감상(時代感賞)에 맞도록 재창조(再創造) 발전(発展)시켜야 하겠다.

**현실성(現實性)을 무시(無視)하고 옛 형식(形式)에 얽매인다면 차살림의 대중화(大衆化)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차문화(茶文化)는 전승(傳承)을 위한 전승(傳承)을 지양(止揚)하고, 시대감상(時代感賞)에 맞도록 재창조(再創造) 발전(發展)시켜야 하겠다.**

## 4. 차마시는 순서(順序)

가. 숙우(熟盂)(귀사발 : 물식히는 그릇)에 잘 끓인 물을 붓는다. 차관(茶罐)(차 주전자)의 뚜껑을 열고 귀사발의 탕수(湯水)를 차관(茶罐)에 붓는다.

나. 茶鐘(찻종)에도 차관(茶罐)의 탕수(湯水)를 부어 잔을 깨끗이 하고 따스하게 덥힌다.

다. 귀사발에 탕수(湯水)를 붓고 70~80도(度)의 온도(温度)로 식힌다.

라. 물이 식는 동안에 차칙(茶則)으로 사람 수에 알맞는 차의 양(量)을 덜어낸다.

마. 차칙(茶則)의 차를 차관(茶罐)에 넣는다.

바. 왼쪽부터 차례로 따르되, 다시 되돌아가면서 세 차례에 나누어 따른다.

사. 왼쪽으로 찻잔을 받히고 오른손으로 잔을 감싸쥔 다음 천천히 서너번 나누어

마신다.

아. 잔을 내려 놓으면서 두 손을 마주 모아 예(礼)를 표(表)한다.

## 5. 다도(茶道)의 유의점(留意点)

가. 손을 모아 포갤 경우에는 오른 손이 밑으로 가고, 왼손을 위에 놓아야 한다.

나. 탕기(湯器)를 잡을 때 왼손의 엄지는 상대방(相対方)에게 보이지 않도록 항상 손바닥쪽으로 숨긴다.

다. 차칙(茶則)은 왼손 안쪽으로 깊숙이 잡는다.

라. 차칙(茶則) 대신 깨끗한 종이를 사용(使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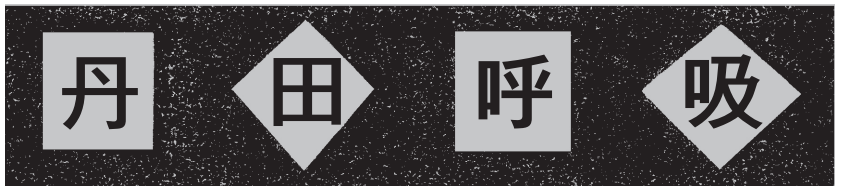
마. 차를 마시는 도중(途中) 대화(対話)를 나눌 경우는 한 모금 마신 후에 나누는 것이 좋다.

바. 차는 반드시 다 마신 후에 내려놓는다.

사. 차는 3~4탕(湯)까지 우려내어 마신다.

아. 과를 마실 때에는 다식(茶食)이나 유밀과를 곁들이면 더욱 좋다.






# 단 전 호 흡

주 우 성(朱禹聖)
〈한국정신도법 교육회 회장〉

**단법행공(丹法行功)에는 반드시 심신(心身)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정상적인 변화는 선도(仙道)가 목적한 바이다.**

## 1. 단 전(丹 田)

○ 붉을 '단(丹)'과 밭 '전(田)'

단(丹)이란 정(精)이 모인 힘을 일으키며, 정(精)은 천기(天気)와 지기(地気)가 우리 몸에서 만나 이루어지는 생명의 원천적 에너지로서 사람 몸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천기(天気)와 지기(地気)라 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풀이하면 하늘로부터의 햇빛과 공기를 천기(天気)라 하고, 땅으로부터의 곡식과 물 등, 즉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지기(地気)라 하는 것이다. 결국 생명활동의 기본에너지를 '단(丹)'이라 하며 '밭'(전(田))은 어미 모(母)와 같은 뜻으로 '모인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이 두 자가 모여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는 뜻의 단전(丹田)이 되었다.

우리 고유의 의학에서는 인체를 상단(上丹), 중단(中丹), 하단(下丹)의 3단전(丹田)으로 구별하였으며 상단(上丹)은 머리(큰 뇌와 작은 뇌 사이 영(靈)이 자리한 곳), 중단(中丹)은 가슴(심장(心臟)으로서 얼을 말하며 혼(魂)이 자리한 곳), 하단(下丹)은 넋(백(魄)) 이 자리한 하복부(기해(気海))를 뜻하며 보통 '단전'하면 하단전(下丹田)을 의미한다.

## 2. 단전호흡(丹田呼吸)이란?

기해혈(気海穴)이 있는 하단전(下丹田)을 중심으로 호흡(呼吸)하는 것.

단전(丹田)은 기운의 중심자리로서 머리로 지식을 쌓고 마음으로 정서를 쌓는다면 기운이 쌓

이는 곳이 곧 단전(丹田)이다.

단전(丹田)의 위치는 양 신장 사이에 계란만한 크기로 존재하며 실재의 장기가 아니며 기(気)가 모이는 자리이다.

단전(丹田)의 실증은 추위를 느끼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흔히들 아랫배에 힘을 주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 온 바이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덜 춥거나,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된다. 또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때 아랫배(단전(丹田))에 힘을 주면 더 쉽게 들 수 있으며 흔히 '뱃심이 좋다' '뱃장이 좋다'하는 말도 바로 단전(丹田)의 힘이 실(実)하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등(척추)이 굽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바로 단전(丹田)의 힘이 약하여 상체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목욕탕에서 보면 나이 70~80된 사람 중에서 자세가 바르게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가 하단전(下丹田)(아랫부분)이 실(実)하며 그 부분이 약간 나와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수련으로 단전(丹田) 단련이 돼있다는 증거이다.

## 3. 한국(韓國)의 단전호흡(丹田呼吸)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인 단전호흡(丹田呼吸)은 그 체계와 내용에서 세계 제일이다. 동양 각국(인도, 중국, 일본 등)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호흡수련법인데, 그 체계와 종류가 극히 미미하여 서너가지에서 십여가지 미만의 행공법(行功法)에 그치지만, 우리는 무려 360 가지나 되는 행공법(行功法)이 있으며 그 단계의 우수성과 심오한 수련의 극치감은 일본, 인도 등의 여러 수련법과 호흡에 조예깊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 정도로 되려면 200년이 걸려도 힘들 것이다."라고 간단히 비교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왜 이러한 호흡법이 외국에 흘러가지 않고 우리 민족 내에서만이 전수되고 지켜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증에 대해 긴 설명이 요구되며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납득되는 일이다. 그러나 먼저 방대한 역사적(歷史的) 고증보다는 단전호흡법(丹田呼吸法)이 우리 민족 고대(古代)에서부터 '밝도'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온 사실(史実)을 옛 문헌에서 밝혀 보겠다.

육당(六堂)선생의 고대사연구(古代史研究) 가운데 하나인 「백두산관참기(白頭山観参記)」를 보면 "고대조선신전(古代朝鮮神典)에 나타나는 '밝'의 참 이치(고도(古道))의 중요한 뜻(요의(要義))은 극히 간단하고 알기 쉽게 직접 얻어 갖는 것(간명직재(簡明直裁))이다.

그 깊고 오묘한 참된 이치(철리(哲理))의 깨끗함은 밝고 행복한 분별의 마음(광명의식(光明意識))이었다. 하나의 밝고 행복한(일광명(一光明)) 가운데 사람과 하늘이(인천(人天)) 서로 통하고(융섭(融攝)) 너와 내가 하나됨이(물아(物我)가 혼일(混一)) 그 이치로 되어(이론(理論)) 있는데 그 근거(계기(契機))를 '밝'이라 하고 그리하는 실현과정(実現過程)을 "영(令)"(역(譯)하여 선(先), 선(仙) 혹은 선(鮮))이라 하고 실현방법(実現方法)을 '달'(역(譯)하여 돌, 복(復) 혹은 귀(帰))이라 하니……"





## 4. 단전호흡(丹田呼吸)의 방법(方法)

◇ 단전호흡은

첫째 : 마음을 고요히 하고(고루고 : 조심(調心)

둘째 : 몸의 혈도를 골고루 풀어주고(조신(調身))

세째 :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여

여러가지 단계적 자세를 취하며 숨을 쉰다(행공(行功))

초보자는 보통 호(呼)와 흡(吸)을 각 5초씩으로 하며 정신집중의 방법으로 장강혈(長強穴)에의 호흡 의식화 방법, 하지(下肢)로부터의 흡입법(吸入法) 등으로 자연스럽게 하단전호흡을 터득할 수 있다.

좀더 설명하면 단전호흡(丹田呼吸)에 있어서 두가지 요령을 잘 알아야 한다.

그 하나는 단전호흡(丹田呼吸)의 단계적 요령이요, 또 하나는 단전(丹田)의 위치다. 숨쉬기를 가슴으로만 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 배꼽 아래로 내려가 단전(丹田)자리 밑에까지 코로 서서히 길게 들이마신다. 그때 양쪽 콩팥에 의지하여 계란 만한 크기의 단전(丹田)자리에 기운을 모이게 하기 위하여는 단전(丹田)자리 밑에 은은히 가벼운 힘을 주어 코로 숨을 마실 때는 아랫배가 나오게 하고, 코로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마치 난로에 주전자 물을 끓이려 할 때 밑에서 불을 때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때 배꼽과 배꼽 윗부분은 결코 부풀어 오르거나 줄어드는 동작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배 전체를 가지고 숨쉬는 것은 복식호흡(腹式呼吸)이라고 하는 것이니, 단전호흡(丹田呼吸)에서 복식호흡은 금물이다. 그러므로 깊이 들이쉰 공기가 단전(丹田)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숨을 쉬어야 하므로 수련장에서는 장강혈(長強穴)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처음 지도할 때는 유도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이나 초심자에게는 그러한 지도가 단전호흡(丹田呼吸)에 빨리 익숙하여짐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숨쉬기를 하라는 것이다.

물론 코로써 숨을 쉬는 것이나 그러한 생각은 초심 수련자에게 빨리 요령을 터득하게 해 준다.

이제 구체적으로 숨쉬기하는 방법을 몇가지 예를 들면 모든 단계의 숨쉬기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중기단법(中気丹法) 행공시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일신 일심법에 '정법' 합장하고 서서 단전호흡, '좌법' 양손을 단전에 대고 서서 단전호흡, '입법' 양손을 좌우 옆구리에 대고 서서 단전호흡, '측법' 양손을 교대로 단전을 누르며 서서 단전호흡, '동법' 양손을 축 늘어뜨리고 자연스런 자세로 서서 단전호흡, 이와 같이 중기단법의 오십 동작으로 바뀌며 단전호흡(丹田呼吸)을 하는 것이다.

## 5. 수련의 효과

단법행공(丹法行功)에는 반드시 심신(心身)의 변화(変化)가 일어난다. 그 정상적(正常的)인 변화(変化)는 선도(仙道)가 목적(目的)한 바이다. 수련(修鍊)의 요령을 모르거나 그 요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비정상적인 변화(変化)가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어떠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어떠한 것이 비정상적인가를 예시(例示)하겠으나 모두 예시(例示)할 수 없으므로 그 중 중요한 것 만이라도 해설한다.

### 가. 중기단법(中氣丹法)

처음에 중기단법(中気丹法)부터 시작이 된다. 1일에 한 두 시간씩 수련하며 약 3, 4개월쯤 경과하는 중에 이미 여러 가지 심신(心身)의 변화(変化)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変化)의 종류와 심천(深浅)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수련의 원리는 같으나 수련자는 다양한 까닭이다. 연령의 차이, 체질(体質)의 차이, 심리(心理)의 차이, 유병(有病)과 무병(無病)의 차이, 도력(道力)의 차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차이가 있음으로 수련에 대한 반응(反応)에 차이가 있을 것은 정한 이치(理致)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일반적(一般的)으로 대개 나타나는 현상 중 수련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점을 몇가지 예시(例示)하려는 것이다.

#### (1) 정상적인 변화현상

○ 기분이 상쾌해진다. 몸이 경쾌하고 유연해진다.

○ 시장끼를 느낀다. 소화가 잘 된다. 트림이 자주 난다. 방귀가 잦다.

○ 손발에 땀이 난다. 대변이 순하다. 맥박이 정상화된다. 병이 호전된다.

○ 단전(丹田) 근처에 열기를 느낀다. 몸에 가벼운 진동을 느낀다.

이러한 열기와 진동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한 좋은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사범의 지도(指導)를 받으면서 수련(修鍊)을 해야 한다.

○ 음적(陰的) 체질(体質)을 가진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하단전(下丹田)에 열기(熱気)를 느끼나 양적(陽的) 체질(体質)을 가진 사람은 도리어 처음에는 찬 기운을 느낄 때가 있고 활변이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단전호흡(丹田呼吸)을 계속하면 열기(熱気)가 생기게 된다.

#### (2) 비정상적인 변화현상

원리에 따라 정상적인 단전호흡(丹田呼吸)이 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마음의 자세(姿勢)가 안정되지 못하였을 때는 비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과 호흡이 정상화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 횡경막 근처가 아프다. 명치가 묵직하다(이러한 증상은 단전호흡(丹田呼吸)에 있어 힘을 너무 주는 데서 있으므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즙을 많이 먹도록 하라).





○ 머리가 아프다. 눈이 피곤하다. 몸이 노곤하다(호흡의 정상화, 수면의 정상화, 휴식, 산보 등이 좋다).

○ 특히 혈압이 높은 분은 격렬한 동작을 삼가고 또는 행공중(行功中)에 머리를 땅에 대거나 거꾸로 걷는 동작은 삼가야 한다.

○ 좀 나아가던 병이 다시 도지는 듯하다(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병의 재발이 아니다. 근치(根治)의 작용(作用)으로 알아야 한다. 수련을 계속하면 효과(効果)를 보게 된다).

### 나. 건곤단법(乾坤丹法)

중기단법(中気丹法)을 마치고 건곤단법(乾坤丹法)을 하게 되면 차츰 몸의 진동(振動)을 느끼게 된다. 즉 열기(熱気)를 느끼고 진동이 오는 것은 진기유통(眞気流通)의 초기현상이다. 특히 건곤(乾坤)의 단법(丹法)에 이르면 누구나 열기(熱気)를 느끼는 것이다. 그때는 모든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 (1) 정상적인 변화현상

○ 중기단법(中気丹法)의 오십동작(五十動作)이 쉽고 자유로이 되며, 힘이 솟고 등산에도 숨이 차지 않으며 노인(老人)들도 몸과 발이 가벼워지고 피로하지 않다.

○ 모든 신경성 질환과 신경통도 스스로 나아지며 심신(心身)이 모두 건전(健全)한 느낌이 든다(이러한 좋은 현상은 건곤단법(乾坤丹法)을 정상적으로 수련하면 3, 4개월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現象)이다).

#### (2) 비정상적 현상

○ 병이 다시 도졌다가 다시 낫는 현상이 있다. 특별한 때는 사범에게 특별 처치(処置)를 받기도 한다.

○ 침자리, 뜸자리 또는 상처 있는 자리들이 도지거나 아파지는 현상도 있으나 이는 기(気)의 유통(流通)으로 인(因)한 치료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니 단법(丹法)을 정상적으로 계속하면 무사할 것이다.

○ 그러나 이 건곤단법(乾坤丹法)의 효과가 현저한 수련자에게 특히 주의할 것은 그 효력이 현저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주의(不注意)에 대한 주의(注意)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다소(多少) 효과(效果)가 있다 하여 그 힘을 남용(濫用)함으로써 무리(無理)하는 일이다、과음(過飮), 과색(過色), 과로(過労)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득도(得道)가 된 것처럼 생각하여 수련을 중단하거나 자만(自慢)하여서도 아니 된다. 아직도(道)의 길은 멀고 깊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 능력만 믿고 행공동작(行功動作)을 너무 강하게, 너무 연하게 하여 법(法)에 어그러져 몸을 상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 6. 행공(行功)에 임(臨)하는 자세(姿勢)

가. 식사는 단전행공(丹田行功) 1시간 전후에 할 것.

나. 대소변은 단전행공(丹田行功) 전(前)에 할 것.

다. 자극성 음식은 가급적 피할 것.

라. 음주하였을 시는 단전행공(丹田行功)을 하지 말 것.

마. 과음과식을 말며 싫은 음식을 피할 것.

바. 한열(寒熱)을 피하고 보온(保温)에 유의할 것.

사. 수면(睡眠)을 6시간 이상 충분히 취할 것.

아. 다사다언(多思多言)을 삼가고 내기(內気)를 기를 것.

자. 단전행공시(丹田行功時) 허리띠를 졸라 매지 말 것이며, 도복(道服)도 여유있는 것을 착용할 것.

차. 단전행공시(丹田行功時) 양말, 안경, 손목시계, 반지, 목걸이 등을 벗을 것.

카. 단전행공(丹田行功)은 무리말고 자연스럽게 할 것.

※ 단전행공(丹田行功)이 잘 되다 안 되는 때가 있으니 그때는 강하게 힘을 주어 행공(行功)하다가 자연(自然)스럽게 단전행공(丹田行功)을 할 것.

## 7. 중기단전행공(中気丹田行功)

### 가. 중기단전행공(中気丹田行功)(초(初), 일수완(一修完), 삼수(三修))

**흡입(吸入)하되 하단전(下丹田)에서 돌돌 기(気)를 만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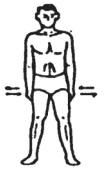
흡입(吸入)하는 시간이나 호출(呼出)하는 시간이나 고르게(조식(調息)) 하되 자연(自然)스럽게 오십동작(五十動作)을 서서히 하면서 흡입(吸入)은 깊게 그리고 조용히 공기(空気) 중에서 공(空)은 폐(肺)에 머무르고 기(気)(천기(天気))는 하강(下降)하다가 곡기(穀気)중에서 곡(穀)은 태양(大陽)으로 가고 기(気)(地気)는 하단전(下丹田)에서 천기(天気)와 합(合)하여 단기(丹気)가 되며 단기(丹気)는 정(精)이라 하고 정(精)은 력(力)이며 정력(精力)의 활동상(活動象)의 기운(気運)을 백(魄)이라 하고 정력(精力)은 백분(魄体)의 근(根)이라 한다.

정력(精力)은 승(昇)하여 머리(두(頭))에서 영기상단(靈気上丹)이 되며 승강중(昇降中)의 기운(気運)은 심(心)에 머무는 기운(気運)을 혼(魂)(중단(中丹))이라 하며 혼기(魂気)로 신명(神明)하므로 혼신(魂神)이 된다. 이것을 천지(天地) 교태(交泰)라 함(천기(天気)는 장해받지 않고 통과(通過)하다가 지기(地気)를 만나면 합하는 성능(性能)이 있음) 그러므로 사망(死亡)한 즉 혼령(魂靈)은 비(飛)하고 백체(魄体)는 산(散)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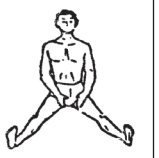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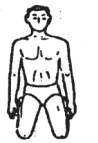


| 순번 順番 | 본법 本法 | 별법 別法 | 행공도(行功圖) | 동작설명(動作説明) | 행공해설(行功解說) |
|---|---|---|---|---|---|
| 1 | 일신일심법(一身一心法) | 정법 (正法) | | 서서 합장(合掌)하여 양손을 가슴부분(部分)에 대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심신(心身)을 통일(統一)하여 오장(五臟)에 은은한 압박(壓迫)으로 우수양(右手陽)과 좌수음(左手陰)의 합류(合流)로 고요한 경지(境地)에서 행공(行功) |
| 2 | 동상(仝上) | 좌법 (坐法) | | 서서 양(兩)손을 떼지말고 그대로 단전(丹田)에 갖다대되 무지(拇指)와 인지(人指)를 떼지말고 붙여서 대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오장(五臟)을 완화시켜 주는 동작(動作)으로서 단전호흡(丹田呼吸)의 정확성(正確性)을 확인(確認)하며 손의 감촉으로 단전(丹田)에 열기(熱気)를 유통(流通)시켜 육부(六腑)를 완화시키는 행공(行功) |
| 3 | 동상(仝上) | 입법 (立法) | | 서서 양손을 단전(丹田) 좌우편(左右便)에 대고 상체(上体)를 약간 뒤로 젖히고 몸을 척추에 의지하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좌우육부(左右六腑)의 호흡(呼吸)에서 오는 기능을 확인(確認)하며 직립(直立)하여 움직이는 오인(吾人)의 상태를 양손(兩手)의 촉감으로 확인하는 행공(行功) |
| 4 | 동상(仝上) | 측법 (側法) | | 서서 양손을 단전좌우편에 대고 호흡시교대(呼吸時交代)로 좌우편(左右便)을 가볍게 누르며 단전호흡(丹田呼吸) | 좌우부혈(左右腑穴)에 은은한 압박(壓迫)을 가(加)하여 줌으로 써 단전(丹田)의 기능을 강화(強化)시켜주는 행공(行功)임. |
| 5 | 동상(仝上) | 동법 (動法) | | 서서 자연(自然)스럽게 양손 축 늘어뜨리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위의 네가지 동작(動作)에서 긴장되었던 것을 풀어 주며 아울러 다음 동작(動作)에 대한 준비행공(準備行功)임. |

| 순번<br>順番 | 본법<br>本法 | 별법<br>別法 | 행공도(行功圖) | 동작설명(動作說明) | 행공해설(行功解說) |
|---|---|---|---|---|---|
| 1 | 정심법(正心法) | 합법<br>(合法) | | 서서 양손을 겨드랑이에 자연(自然)스럽게 끼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오장(五臟)의 기능에 은은한 압박(壓迫)을 가(加)하여 합류(合流)시키는 행공(行功)임. |
| 2 | 동상(坐上) | 신법<br>(身法) | | 서서 양손 목뒤에 깍지 끼고 머리는 뒤로 젖히고 손은 앞으로 은은히 당기며 단전호흡(丹田呼吸) | 압박(壓迫)시켰던 오장(五臟)을 완화시키며 오장(五臟) 기능을 촉진시켜 벌려주는 행공(行功)임. |
| 3 | 동상(坐上) | 낙법<br>(洛法) | | 서서히 상체(上體)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을 축 늘어뜨리고 고개는 들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직립(直立)하여 긴장(緊張)되었던 오장육부(五臟六腑)를 자연(自然)스러운 위치(位置)에 전환(轉換)시키는 행공(行功)임. |
| 4 | 동상(坐上) | 역법<br>(力法) | | 서서히 상체(上體)를 뒤로 젖히고 고개는 앞으로 숙이고 양손은 뒤로 하여 허리에 수직(垂直)으로 대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오장육부(五臟六腑) 전체(全體)에 대하여 압박(壓迫)을 가(加)하여 횡경막(膜) 깊숙이 양기(陽氣)를 단전(丹田)에 충만(充滿)시키는 행공(行功)임. |
| 5 | 동상(坐上) | 동법<br>(動法) |  | 서서 자연(自然)스럽게 양손축 늘어뜨리고 발끝에 힘을 주고 뒤꿈치는 드는 기분으로 몸을 좌우(左右)로 움직이며 단전호흡(丹田呼吸) | 위의 네가지 동작(動作)에서 긴장(緊張)되었던 것을 풀어주며 아울러 다음 동작(動作)에 대한 준비행공(準備行功)임. |



| 순번<br>順番 | 본법<br>本法 | 별법<br>別法 | 행공도(行功圖) | 동작설명(動作說明) | 행공해설(行功解說) |
|---|---|---|---|---|---|
| 1 | 해심법(解心法) | 합법<br>(合法) | | 가부좌 자세로 양손 겨드랑이에 자연(自然)스럽게 끼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오장육부(五臟六腑)의 기능을 은은한 압박(壓迫)을 가(加)하여 합류(合流)시키는 행공(行功) |
| 2 | 동상(坐上) | 신법<br>(身法) | | 가부좌 자세로 양손 목뒤에 깍지끼고 머리는 뒤로 젖히고 손은 앞으로 은은히 당기며 단전호흡(丹田呼吸) | 압박(壓迫)하였던 오장육부(五臟六腑)의 기능을 완화시켜 촉진 작용(作用)과 벌려주는 행공(行功) |
| 3 | 동상(坐上) | 낙법<br>(洛法) | | 양발 앞으로 뻗치고 양손으로 발가락 잡고 고개는 들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직립(直立)하여 있던 오장육부(五臟六腑)를 자연스러운 위치(位置)로 전환(轉換)시키며 장부(臟腑)에 화기(火氣)를 일으키며 수승화강작용(水昇火降作用)촉진 |
| 4 | 동상(坐上) | 역법<br>(力法) | | 발을 뻗고 상체를 뒤로 젖히고 양손으로 땅을 짚고 고개는 앞으로 숙이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장부(臟腑)의 압박(壓迫)을 풀어 주며 수승(水昇)을 촉진시키므로 생기생혈(生気生血)의 혈행(血行)을 촉진시키는 행공(行功) |
| 5 | 동상(坐上) | 동법<br>(動法) |  | 발을뻗고 자연(自然)스럽게 앉아서 단전호흡(丹田呼吸) | 위의 네가지 동작(動作)에서 긴장되었던 것을 풀어 주며 아울러 다음 동작(動作)에 대한 준비행공(準備行功)임. |

| 순번 順番 | 본법 本法 | 별법 別法 | 행공도(行功圖) | 동작설명(動作說明) | 행공해설(行功解說) |
|---|---|---|---|---|---|
| 1 | 동심법(動心法) | 상법 (上法) | | 양발 바짝 포개고 상체(上体)는 앞으로 숙이고 고개들고 양손은 양발의 용천혈(勇泉穴)을 무지(拇指)로 누르며 단전호흡(丹田呼吸) | 하단전(下丹田)에 압박(壓迫)을 가(加)하고 장부(臟腑)의 압박(壓迫)으로 열기(熱気)를 촉진시켜 호흡기관(呼吸器管)에 기능 촉진시키며 용천혈(勇泉穴)을 누르므로 장부작용(臟腑作用) 촉진 |
| 2 | 동 상 (仝 上) | 하법 (下法) |  | 무릎 꿇고 앉아 양손 축 늘어 뜨리고 가슴펴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골(骨), 육(肉), 신경(神経), 장부(臟腑)의 기능완화로 모든 기관(器管) 의 작용(作用)촉진 |
| 3 | 동 상 (仝 上) | 중법 (中法) | | 양발바닥을 마주 대어 앞으로 당기고 양무릎을 양손으로 누르고 상체(上体)앞으로 숙이고 고개는 들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수족(手足)의 신경(神経), 골(骨), 육(肉) 작용(作用)촉진과 장부작용(臟腑作用) 촉진 |
| 4 | 동 상 (仝 上) | 압법 (壓法) | | 양무릎을 모아 세우고 양손을 무릎 안으로 넣어 끌어당기며 고개들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하단전(下丹田) 압박(壓迫)으로 단(丹)의 화색(火色)촉진으로 전신(全身) 생기생혈 촉진시키는 행공(行功) |
| 5 | 동 상 (仝 上) | 동법 (動法) | | 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서 단전호흡(丹田呼吸) | 위의 네가지 동작(動作)에서 긴장(緊張)되었던 것을 풀어 주며 아울러 다음 동작(動作)에 대한 준비행공(準備行功)임. |



| 순번 順番 | 본법 本法 | 별법 別法 | 행공도(行功圖) | 동작설명(動作說明) | 행공해설(行功解說) |
|---|---|---|---|---|---|
| 1 | 휴심법(休心法) | 전법 (前法) | | 양발 좌우(左右)로 넓게 벌리고 무릎 뒤를 잡고 가슴펴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하단전(下丹田)에 의식(意識)을 집중(集中)하고 척추신경을 바로 세워 하부(下部)로부터 오는 하중을 받아 척추가 강하여지며 수승화강(水昇火降) 촉진 |
| 2 | 동 상 (仝 上) | 후법 (後法) | | 양발좌우(左右)로 넓게 벌리고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상체(上体) 앞으로 바짝 숙이고 고개는 들고 단전호흡(丹田呼吸) | 오장육부(五臟六腑)에 압박(壓迫)을 가(加)하여 척추와 수족(手足)의 역외(力外) 작용(作用)을 시켜 생기생혈(生気生血)순환 촉진 |
| 3 | 동 상 (仝 上) | 좌법 (左法) | | 발 벌린채 상체(上体)를 좌측(左側)으로 틀며 좌수(左手)로 땅을 짚고 우수(右手)는 단전(丹田)에 단전호흡(丹田呼吸) | 장부좌측(臟腑左側)에 압박(壓迫)을 가(加)하고 우측장부(右側臟腑)에 열기(熱気)를 승(昇)하게 하여 신경(神経)과 근육작용 촉진 |
| 4 | 동 상 (仝 上) | 우법 (右法) | | 좌법(左法)의 반대(反対) | 우측(右側) 골육신경(骨肉神経)에 압박(壓迫)을 가(加)하고 좌측(左側) 골육(骨肉) 신경(神経) 완화로서 신진대사 촉진시키는 행공(行功) |
| 5 | 동 상 (仝 上) | 동법 (動法) | | 발 벌린채 호흡(呼吸)에 맞추어 전후(前後)로 움직이며 단전호흡(丹田呼吸) | 위의 네가지 동작(動作)에서 긴장되었던 것을 풀어주며 아울러 다음 동작(動作)에 대한 준비행공(準備行功)임. |

### 나. 중기단법(中氣丹法) 전편(前編)

우주만유(宇宙萬有)가 현실(現実)을 유지(維持)하는 것은 중기(中気)의 운용(運用)이니 중기(中気)는 음양(陰陽)이 합실(合実)한 중심원리(中心原理)이니 유도(儒道)의 윤집궐중(允執闕中)과 선도(仙道)의 포일수중(包一守中)과 불도(佛道)의 중도(中道)가 모두 중(中)을 집수(執守)한다. 음양(陰陽)이 변화(変化)하여 수화(水火)가 승강(昇降)하며 기혈(気血)이 순환(循環)하는 것이 모두 중앙오십토(中央五十土)의 중기단합력(中気団合力)에 의(依)한 것이니 인체(人体)의 중(中)은 비장(脾臟)과 위(胃)가 토(土)니 중기(中気)는 실(実)로 중대(重大)한 생리(生理)이며 중기(中気)는 음양(陰陽)이 단합(団合)하여 양기상합(陽気相合)으로 중리(中裏)에 핵심원력(核心原力)이 상의상생(相依相生)의 원리(原理)로 생(生)하는 것을 진실(眞実)이라 하며 중기(中気)의 삼작용(三作用)이 유(有)하니 일일보급(一日補給)이요, 일일단합(一日団合)이요, 삼일보전(三日保全)이니 원래(元來) 생명(生命)이란 구체(具体)하고 기생(気生)함을 생명체(生命体)라 하는 것이니, 일신(一身)의 음양(陰陽)은 단합(団合)하면 생존(生存)하고 분리(分離)하면 사망(死亡)하는 것이니, 중기(中気)는 반음반양(半陰半陽)의 중성(中性)이요, 유음유양(有陰有陽)의 진실성(眞実性)이요, 이음조양(理陰調陽)의 조절성(調節性)이요, 유무변화(有無変化)의 대사성(代謝性)이니 하단전(下丹田)에서 생동(生動)의 힘이 간(肝)으로 나와 생신(生新)한 기혈(気血)이 되어 내몸을 보양(補養)하는 것이므로 중기단법(中気丹法)의 오십토단법을 수도초공(修道初功)으로 삼는 것이다.

## 3. 기신법(起身法)

단전호흡(丹田呼吸)을 하고 나서 더욱 몸 속의 모든 장부에 힘을 보내는 몸움직임이 있으니 그 차례에 따라서 몸놀림이 다르다. 돌단자리 숨쉬기의 모든 행법(行法)은 수련시 사범이 직접 지도하여 몸 속 움직이는 방법(方法)을 간단히 설명한다.

여기에 첫단계 정각도(正覚道) 수련시에 몸 안의 움직임을 기신법(気身法)이라 하니 본래는 '내기전신행법(內気全身行法)' 이라 하는 뜻이나 줄여 말할 때 '기신법'이라 한다.

다음으로 통기법(通気法)에서 차원높은 몸 안의 움직임이 있으니 요화법(伕和法)이라 한다. 이도 '요신화행법(伕身和行法)'을 줄여 말할 때 '선화법'이라 하는 것이다.

이 모두를 숨쉬기와 맞추고 하늘의 힘(기(気))과 조화(調和)를 이룬다는 대원(大願)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하면 한 만치 몸이 여물어지고 모든 위해가 사라지고 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하면 좋은 결과 또는 좋은 열매를 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성을 들여 실천하면 모든 병을 물리치는 첩경임을 말할 나위도 없고 스스로 감탄하고 행복을 찾아 기쁨의 희열을 안고 스스로 하늘(대자연(大自然)) 과 조상(선령(先靈))에 감사를 느끼고 매사에 빈틈없는 참 사람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수필(隨筆)

# 잃어버린 것들

군무원 이 희 열
〈제 8639부대〉

뉘엿뉘엿 해는 저물어 서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옆집에선 무엇을 하는지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고 있다. 문득 눈을 들어 황혼을 보고픈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등지고 서 있노라면 자연의 아름다움, 위대함과 함께 길게 늘어뜨린 그림자에서 초라한 한 인간임을 느끼게 한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으며 살고 있으나 무엇을 찾는지 모를 때가 많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하루살이의 생애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든다. 벗하여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있건만 왜인지 조금은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이 든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 중요한 것 같은 데도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세대를 '태양이 없는 세대에서 태양을 모르고 지내는 세대'라고 누군가 말한 기억이 난다. 우리에게는 영웅이 없다. 어느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그의 행동대로, 그의 말대로 살기를 원할 수 있는 영웅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의 작은 힘과 능력을 뭉쳐 발전을 계속하였고 나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옛날보다 좋은 것을 먹게 되었고 좋은 옷과 좋은 잠자리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인간의 기본조건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수출도 늘어나고 외국물건도 우리의 가까운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의 우리 경제를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는 진실한 청년의 모습에 견주어 보고 싶다. 한 국가의 국민의 가장 기본된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하였다.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원하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고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구가 갖추어져 있다. 완벽한 조건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진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역주하는 정부의 주도 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하고픈 말을 할 수 있는 국회가 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단계에 선 지금의 정





치는 보다 많은 민중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예술방면에서도 한국인의 이름이 세계에 퍼지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이 세계 예술사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것을 아끼고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훌륭한 문화유산이 뜻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세상에 밝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민족문학 속에 그윽히 담긴 우리 조상들의 멋과 여유를 예술인이 아닌 우리들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사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발전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부딪치는 것들이 있었다. 비근한 예로 우리는 갚아야 할 외채가 생겼다.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생긴 외채가 조금씩 불어나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눈덩이가 되었다. 직접 자신에게 빚쟁이가 와서 독촉을 하지는 않으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히 우리나라가 진 빚이요,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민족의 빚이요, 곧 나의 부채가 되는 것이다. 이 외채를 지고서는 21세기의 우리에게 찬란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젊은 지성들은 어떠한가. 지성의 울타리 속에서 진리탐구를 위해 젊음을 불태워야 할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그 젊은 황금같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술과 잡념으로 허송하고 있지는 않는가 걱정이된다. 머리에는 아무 든 것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대학생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대학생이라면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지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에 제동을 걸어야 함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의 행동에서 조금은 무모하고 독단적인 면을 보게 된다. 자신들의 생각이 항상 옳고 그에 반하는 사회의 많은 부분을 부정하는 것을 접하게 된다. 그네들의 생각과 그네들의 행동이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닌가, 혹시라도 좌익의 색채를 띠지나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가 산업화되고 분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기계화된 인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생소한 말들이 생소하지만은 아니하게 들린다.

인간이 일을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이 인간을 주도하여 일에 인간을 붙들어 매놓고 기계의 일부분으로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다. 사람은 사람과 만나 풋풋한 정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생활을 나누던 것에서 우리들의 생활은 점점 업무적인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랑어린 대화는 점차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많아지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줄어 들고, 예전보다 더욱 바쁘게 뛰며 살아가고 있으나 한쪽 가슴에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또한 요즈음의 대중문화는 어떠한가. 흔히들 소비성 문화라고 한다. 우리들의 주위에 접하는 수많은 Mass Media의 홍수 속에서 소비라는 단어를 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피와 땀을 흘려, 우리의 땀을 팔아 벌어 들인 외화로서 사치스러운 외제물건을 사들여와 그것으로 치장을 하고 남에게 과시를 한다. 그 물건이 이름없이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수고의 댓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사치스러운 소비의 습성은 사

라질 것이다.

우리의 성윤리도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다. 이것은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은 외로움을 한순간의 쾌락으로 메우려는 그 후에는 더욱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함을 알면서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극히 위험한 생활들을 하는 것 같다. 성(性) 윤리의 타락은 그 사회 타락의 단면도라 하는데 외국의 잘못된 성윤리를 취사선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찌 생각하면 사회의 여러 부분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고 그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은 그리 어둡지도, 그리 잘못되지도 않았다. 잘못된 부분을 확대하여 보고 확대하여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사고 방식과 인간마를 회복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면 여기 저기에서 빚어지는 마찰은 없어질 것이며 작은 사랑의 불씨가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인간적인 면들이 사라져 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나마 고향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푸근하게 하여 준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며, 우리의 아버님, 할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대부분 고향에 관한 것이다. 고향은 우리에게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하며 서로의 정을 연결시켜 주며 고통받는 환경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파랑새 처럼 우리에게 힘을 북돋우어 준다. 시골의 한갓진 풍경과 훈훈한 정이 살아 있는 곳, 우리가 그려온 고향이란 단순히 한가로운 시골 풍경의 아늑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소망이 잠재하고 있는 에덴의 모습이며 그 속에서 살며 소멸되어 가던 양심을 되찾고 삶의 의미

를 재확인하고 싶은 바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쉴새없이 변해가는 현세대 속에서 감상에 젖어 산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적응치 못하는 무능력함의 소치라고도 할 수 있으나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로 둘러싸인 회색빛 현세대 속에서 그래도 고향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써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가르쳐 준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적인 정서를 부여하여 주는 고향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은 왜일까? 우리가 고향이 필요없는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전세대인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들은 고향에 대한 집착이 놀라울 정도로 강렬한 것을 본다. 지구의 어느 땅덩어리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내가 태어난 곳은 바로 한국의 그 곳이며 죽어서 내가 묻힐 곳은 바로 이곳이라는 집념에 가까운 소망을 느낀다. 젊은 세대들이 가진 고향이라는 의미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런 고향일까? 더우기 도시의 메마른 공기가 시골로까지 번져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말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고향을 잊어버린, 아니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는 도시화, 현대 산업화의 영향이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대, 방향을 상실한 세대는 바다의 부초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작은 의미에서 고향을 찾는 것,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며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전통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은 먼저 잃어버렸던 우리의 옛 것을 회복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체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민족 고유의 문화가 없이는 민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상실되어가고 없어진 우리의 옛 문화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저녁 노을은 사라지고 땅거미가 짙게 깔려 있다. 하루를 정리할 시간이 된 것이다. 하루가 지나감에 대한 조금의 두려운 마음과 함께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며 조용한 어두움 가운데 발길을 집으로 향한다.

# 체험과 소재

준위 문 종 진
〈제3252부대〉

일전(日前)에 수필집을 발간하여 제법 문명(文名)을 떨치고 있는 친구와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었다. 즉, 군복을 입고 글을 쓰자니 제약을 받게 되고 창작에 애로점이 많으며 한편의 글을 쓰는 데도 그 글이 사회에 나가면 인상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한편으로는 수긍이 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비단 그 친구한테서만 그런 푸념을 들은 바도 아니다. 나 역시 군내(軍內)에 있으면서 붓 가는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안 쓰고는 못 배기는 괴팍한 성미여서 글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독자들과 간혹 대화를 할 때면 으레히 군의 신분이 튀어나오고 가급적이면 소재를 바꾸어 쓰면 안 되느냐는 식의 충고?도 받아왔다. 그러나 그런 충고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동서고금의 책들을 많이 읽어왔다. 그 중에서도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나 전기물의 약 70%에 가까운 명작들이 전쟁물(군인)이란 점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권위 있기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거의가 전쟁물이 차지한 비중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작품은 「미첼」이 10년간의 세월을 낭비했고, 「무기여 잘 있거라」와 헤밍웨이는 긴박한 전쟁터에서도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명작을 남겼고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레마르크는 17세의 소년이 1차대전에 학도병으로 끌려가 종전을 앞두고 죽어가는 전쟁의 참상과 냉혹성을 고발했고 「전쟁과 평화」의 톨스토이는 웅대한 나폴레옹 시대의 대하 장편소설을 썼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영국의 처칠은 제2차 대전 회고록으로 유명해 졌다. 그 이외에도 전쟁물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 한국도 6·25라는 비극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전쟁문학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치 이 나라에는 6·25의 배경이 없었다면 문학이 존립가치 조차 없었을 정도였다. 우리가 잘 아는 「D 데이의 병촌」 「광장」 「영웅시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휴전선」 등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전쟁물이 쏟아져 나와 전쟁의 환상을 그렸고 공산당을 고발했다. 그 때 우리가 6·25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잃었지만 그리고 오늘날은 통일의 꿈도 실현치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값비싼 민족의 화합을 성취했고 반공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이율배반적인 역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 세대들은 공산주의 정체를 몰랐을 것이다. 38선이 그어진 분단상태에서 공산당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가 말로만 나쁘다고 떠들었지 직접 맞대어 보았는가. 그러나 6·25를 통해서 우리는 절실하게 공산당의 폭정을 피부로 느꼈고 그리하여 세계 제일의 반공국민으로 부상하지 않았는가. 그 때의 체험이 오늘의 복지국가의 발원이 된 것이다.





누구든 생각이 나면 쓰고 싶은 게 글이다. 그러한 글은 우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지 딴 데 있는게 아니다. 우리는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군을 소재로 쓰게 된다. 글이 잘 되고 못되는 것은 필자의 소질과 역량(力量)에 달려 있는 것이지 소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소재는 우주만물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시키느냐가 문제다.

글이란 같은 제목(題目)을 갖고서도 잘 쓰는 사람과 못쓰는 사람은 구별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필자의 예술성이다.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은 많으나 겉으로 표현력이 부족해 인정을 못받는 사람이 있고 속에는 별로 든 것이 없는데 겉으로는 말을 잘 구사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 글이란 바로 그것이다. 머리 속에는 오만가지의 상상력이 도사리고 있고 금방 펜을 들면 줄줄 나올 것 같지만 막상 펜을 종이에 대고 보면 한 마디 글도 안 나온다. 반면에 상상력은 부족하지만 청산유수의 달변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호소력이 강하다는 결론이다. 상대방에서 호감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군 사회는 다양성보다 획일성이다.

단순하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여기에도 인간의 희·노·애·락이 있고 누구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색과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 최전방 고지에서, 망망한 파도 위에서, 드높은 하늘에서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쓸 수가 있고 게재할 지면도 있다. 얼마만큼 글이 다듬어졌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는 사람들도 다 군에 들어가 전쟁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소재로 오늘날 유명(有名)세로 남게된 것이다. 만약 그 문호들이 체험없는 남의 얘기를 빌어썼다면 오늘의 유명인은 안 되었을 것이다.

「릴케」의 말을 인용하면 「시(예술)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시는 한마디로 말해 체험이다. 시가 만약 사상과 감정이었다면 나는 어린시절에 많은 작품을 남겼을 것이다.」

릴케는 과연 대 시인이었다.

# 이 아침의 하늘을

## - 신년(新年)에 붙여 -

중령 임 관 영
〈제 73 기상전대〉

겨레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불모의 땅에서
동해 해돋이로부터
조국의 삼천리 만곡선 따라
우리는 날았지

차가운 밤하늘 별무리속
비구름 천둥치는 탄우 속에서
태양처럼 뜨거운 정열을 품고
우리는 힘차게 날았지

불 속에서 회생하는 불사조되어
지난날 피멍진 목울음 달래며
힘차게 힘차게 날아 왔었지

탑상운 처럼
터져 오르던 만세소리 속에
승전보를 날렸지

찬란히 찢기지 않는 빨간 마후라의
기질을 품고
승전보를 날렸지
그런 우리들
우리들이었던 걸
잊어서는 안 되지

우리네 잃은 하늘
우리는 우리의 하늘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
잊어선 안 되지
거듭 거듭 안 되지

우리가 날아온 억만리 역정
거성을 키우는 손,
승전고를 키우는 손
또, 또 영원해야지

독수리 닮은
하늘을 닮은
우리의 사유(思惟)
영원해야지

이 아침의 입김을 날리며
푸른 맹세의 기치 높은 눈부신 날개로
바다 멀리 멀리
하늘 높이 높이

우리 불기둥 세우며
오늘을 지켜야지
내일을 지켜야지



*특별기획 (特別企劃)*

#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현황(現況)과 개선책(改善策)에 관(關)한 연구(研究)

중위 윤 태 순
〈공본 기참부〉

- 목 차 (目 次) -

제(第)1장(章) 서론(序論)
제(第)1절(節) 연구(研究)의 목적(目的)
제(第)2절(節)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제(第)3절(節) 연구(研究)의 범위(範囲)와 방법(方法)
제(第)2장(章) 이론적(理論的) 배경(背景)
제(第)1절(節)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분석(分析) 모형(模型)
제(第)2절(節)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会) 연구접근법(研究接近法)
제(第)3장(章)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 (批判教育)의 실제(実際)와 문제점(問題点)
제(第)1절(節)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과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 조화(調和)
제(第)2절(節) 선입관(先入観) 인상위주(印象為主)의 공산주의(共産主義) 비판(批判) 시각(視覚) 상존(尚存)
제(第)3절(節) 동태적(動態的)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 전환(転換) 노력부족(努力不足)
제(第)4절(節) 공산주의(共産主義) 흐름의 인식(認識)을 통(通)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
제(第)4장(章)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 방법상(方法上)의 개선책(改善策) 모색(摸索)
제(第)1절(節) 장기적(長期的) 관점(観点)에서의 개선방안(改善方案)
제(第)2절(節) 단기적(短期的) 관점(観点)에서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제(第)1장(章) 서론(序論)

## 제(第)1절(節) 연구(研究)의 목적(目的)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말이 19C 초반(初半)에 생성(生成)된 이래(以來) 이미 130여년(余年)이 흘러갔으며,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자체(自体)도 갖가지 변화(変化)를 겪어오면서 새로운 모습과 양상(様相)으로 민주주의(民主主義) 진영(陣営)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 자신(自身)의 문제(問題)를 살펴볼 때 남북(南北)이 분단(分断)된 이래(以來) 상호(相互) 대립(対立)되는 이데올로기와 사회(社会)·정치(政治)·경제제도(経済制度)를 채택(採択)하고 40년(年)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産集団)의 남침도발책동은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時点)에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을 현대적(現代的) 관점(観点)에서 조명(照明), 이론비판능력(理論批判能力)을 강화(強化)하고 체계적(体系的)이고도 구체적(具体的)으로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행동(行動)을 예측(予測)하여 대응방안(対応方案)을 창출(創出)해 내는 일은 실로 중요(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韓民族)의 정통성(正統性)을 와해시키고 단일민족(単一民族)의 이질화(異質化)를 심화(深化)시키고 있는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産集団)의 전체주의체제(全体主義体制) 실체(実体)를 정확(正確)히 이해(理解), 분석(分析), 평가(評価)하여 올바른 국가관(国家観) 확립(確立)과 이념무장(理念武装)을 통(通)한 대북괴(対北傀) 우위(優位)의 정신전력(精神戦力)을 구비(具備)하는 일도 그 의의(意義)가 크다 하겠다.1)

이와같은 관점(観点)에서 현재(現在)의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실제(実際)를 재점검(再点検)하고, 보다 개선(改善)된 방법(方法)을 통(通)해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수준(批判水準)을 제고(提高)시켜 한층 성숙(成熟)되고 심화(深化)된 비판능력(批判能力)을 갖추는 것은 시대(時代)의 조류(潮流)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사회(自由民主主義社会)의 수호(守護)를 위한 노력(努力)에서 보나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요소(要素)라 하겠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이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실제(実際)를 파악하고 문제점(問題点)을 도출해 냄으로써 보다 원숙되고 차원(次元) 높은 반공사상무장(反共思想武装)의 도(度)를 강화(強化)시키기 위한 적확(的確)한 이론비판교육(理論批判教育)의 개선책(改善策)을 모색하려는데 그 중심목적(中心目的)이 있다.



## 제(第)2절(節)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사회사상(社会思想), 역사철학(歷史哲学), 경제학(経済学)과 같은 순수학문적(純粋学問的) 이론(理論)도 아니며, 이상향(理想響)을 꿈꾸는 유토피아의 환상도 아니다.2)

오늘날의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구체적(具体的)인 정치현상(政治現象)과 정치과정(政治過程)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巨大)한 힘의 실체(実体)이다.3) 또한 공산주의(共産主義)는 하나의 혁명(革命)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으며, 그 궁극적 목표(目標)가 세계적화(世界赤化)를 꾀하기 위한 포성이 없는 전장(戦場), 전선(戦線)이 없는 전장(戦場)에서 사상(思想)의 전쟁(戦争)을 전개(展開)하려 한다.4)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이 사상(思想)의 전쟁(戦争)을 통(通)해 그들의 정치적(政治的)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려 할 때 그들은 대개의 경우 민족해방전쟁(民族解放戦争)이나 통일전선(統一戦線)에 침투하여 반제(反帝), 반식민지투쟁(反植民地闘争)의 구호 아래 배타적(排他的)인 민족감정(民族感情)에 호소하여 이들 국가(国家)들이 서방진영(西方陣営)에서 이탈하여 용공화(容共化)되도록 유도(誘導)하거나 정부(政府)를 독재(独裁)나 매판(買辦)으로 몰아부쳐 민주(民主)·평등(平等)·인권회복(人権回復)의 구호 아래 반정부(反政府) 통일전선(統一戦線)을 형성(形成)케 하여 이들의 운동(運動)을 공산당(共産党)이 원격조정하는 방향(方向)으로 진행(進行)시킨다.

위와 같은 경우(境遇)는 대개 대중민주주의(大衆民主主義)의 효과적(効果的) 운영(運営)으로 사회(社会) 각(各) 분야(分野)의 안정(安定)과 발전(発展)의 조화(調和)를 이룬 성숙(成熟)한 사회(社会), 즉 선진국(先進国)보다는 근대화(近代化)의 충격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흡수할 수 있는 리더십의 결여(缺如)와 빈부(貧富)의 격차, 문화(文化)와 교육(教育)의 격차로 사회적(社会的) 갈등이 상존(尚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開発途上国)에 적용(適用)되며, 공산주의(共産主義)가 하나의 사상(思想)이나 이론(理論)으로서 정당(正当)해서라기 보다는 이들 국가(国家)들이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정체(正体)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공산당(共産党)의 계략과 거짓말에 쉽사리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5)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이미 하나의 사상(思想)이나 이론(理論)으로서는 의미(意味)를 상실한 지 오래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의 파괴적 격렬성이나 극단적 가치체계(価値体系)는 이성(理性)이 지배(支配)하는 성숙(成熟)된 사회(社会)에서는 의미(意味)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2차대전후(次大戦後) 혼란기였던 1950년대(年代) 후반(後半)부터 '70년대초(年代初)까지 일단의 좌경지식인(左傾知識人)을 중심(中心)으로 비판적(批判的) 사회철학(社会哲学)이 일어나고 이들이 다시 Marxism의 재해석(再解釈)을 통한 현실(現実)의 변혁(変革)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 때의 열병(熱病)일 뿐 대중(大衆)의 외면(外面) 속에 극단적 테러리즘으로 흐른 것에 지나지 않았다.6)

공산권(共産圈) 내부(內部)에서도 사정(事情)은 다를 바 없어 Marxism은 사상(思想)이나 이론(理論)으로서는 이미 그 의미(意味)를 상실한 지 오래이다. 소련과 중공, 유고의 이념논쟁(理念論爭)이나 동독,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자유화(自由化) 운동(運動) 등(等)이 이러한 사실(事実)을 입증(立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정권(共産政権)이나 공산국가(共産国家)가 존속하는 것은 공산주의(共産主義)가 정당(正当)해서가 아니라 억압(抑圧)과 폭력(暴力)에 의해서 그 체제(体制)가 강요(強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事情)이 이러함에도 개발도상국(開発途上国)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산주의(共産主義)가 힘을 발휘(発揮)하고 있는 까닭은 이들 국가(国家)의 국민(国民)들이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対)한 그릇된 인식(認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対)한 이들의 그릇된 인식(認識)은 공산당(共産党)의 교묘한 선전·선동에 의한 조작(操作)으로 현실(現実)에 대한 불만(不滿)과 좌절(挫折)을 기존(既存)의 문명(文明)과 사상(思想)·권력(権力), 그리고 가치(価値)의 권위적(権威的) 배분(配分)(Authoritative Distribution of Values)7) 의 타락으로 돌리고, 이와 같은 현실(現実)의 부정(否定)과 비판(批判)의 시각(視覚)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구(求)하고 공산주의적(共産主義的) 방식(方式)으로 현실(現実)의 변혁(変革)을 꾀하려는 태도(態度)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태도(態度)의 원인(原因)은 기존(既存) 사회가치체계(社会価値体系)에 대한 불만(不滿)과 이로 인(因)한 현실변혁(現実変革)으로의 시각전환(視覚転換)이라 하겠으나 보다 근원적(根源的)·원천적(源泉的) 원인(原因)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선전·선동에 눈을 돌리게끔 된 인식(認識)의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존재(存在)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다시말해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능력(批判能力)의 결여(缺如)가 선행적(先行的) 요건(要件)으로 작용(作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共産主義)의 기만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침투를 효과적(効果的)으로 처리(処理), 극복(克服)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한 정확(正確)하고도 체계적(体系的)이며 구체적(具体的) 인식(認識)이 선행(先行)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대적(時代的)이고도 현실감각(現実感覚)에 맞는 이론비판교육(理論批判教育)이 병행(並行)되어야 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시대적(時代的) 변천(変遷)에 따른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의 변화양상(変化様相)을 이해(理解)하고 체계적(体系的)인 관점(観点)에서 오늘의 공산주의(共産主義) 실체(実体)를 분석(分析), 향후(向後)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행위(行為)를 예측(予測), 대처(対処)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共産主義)를 하나의 학문(学問)이나 주의(主義)로서 투영하려고 하는 심리적(心理的) 경향(傾向)에서 탈피(脱皮), 혁명(革命)이라는 실천수단(実践手段)의 집합체(集合体)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点)에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실제(実際)는 어떠하고, 그 개선(改善)을 위한 연구노력(研究努力)에 대해 문제(問題)를 제기(提起)해봄은 자못 그 의의(意義)가 크다 하겠다.

## 제(第)3절(節) 연구(研究)의 범위(範圍)와 방법(方法)

본고(本稿)에서 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現在) 우리 군내(軍內)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実施)하고 있는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능력(批判能力) 향상(向上)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教育活動)의 실제(実際)와 현대적(現代的)인 관점(観点)에서 교육방법상(教育方法上)의 문제점(問題点)과 효과적(效果的) 교육시행(教育施行)의 제약요인(制約要因), 그리고 보다 발전적(発展的)이고 현실적(現実的)인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방법상(批判教育方法上) 개선책(改善策)의 모색(摸索)이라 하겠다.

구체적(具体的)으로 이야기한다면 제(第)2장(章)에서는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일반적(一般的) 특징(特徵)과 비교공산주의(比較共産主義) 이론연구(理論研究)를 위(為)한 사회과학(社会科学)을 원용한 공산주의(共産主義) 분석모형(分析模型)과 접근방법(接近方法)에 대(対)해서 살펴보고, 제(第)3장(章)에서는 2 장(章)의 공산주의(共産主義) 연구방법론(研究方法論)에 투영해 볼 때 현행(現行)의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실제(実際)와 문제점(問題点)에 대(対)해서 서술적(敍述的) 방법(方法)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제사장(第四章)에서는 효과적(效果的) 이론비판교육(理論批判教育)을 위한 방법론상(方法論上)의 개선책(改善策)을 모색(模索)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北韓)의 전체주의체제(全体主義体制)의 특성(特性)과 사회실상(社会実状)에 대한 설명(説明)을 병행(並行)하여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궁극적 목적을 대북괴(対北傀) 절대우위(絶対優位)의 정신무장 강화(精神武装強化)에 초점(焦点)을 두며 연구(研究)를 진행(進行)시키고자 한다.

본(本) 연구(研究)의 한계점(限界点)으로는 첫째,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연구방법(研究方法)들과 현행(現行) 이론비판교육(理論批判教育)의 실제간(実際間)의 연관관계(联関関係)를 명확(明確)히 밝혀주지 못한채 서술(叙述)을 진행(進行)시킨 점(点)과, 둘째, 이론비판교육상(理論批判教育上) 문제점(問題点) 제시(提示)에 있어 본(本) 연구자(研究者)의 교육담당자(教育担当者)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主観的) 경험(経験)이 토대(土台)가 되어 객관성(客観性)을 확보(確保)하지 못했다는 점(点), 셋째, 개선책(改善策) 모색(摸索)을 위한 노력(努力)이 종합적이고 체계적(体系的)인 범주가 되지 못하고 단편적·평면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点), 네째 연구조사방법상(研究調査方法上) 개인적(個人的) 능력(能力)과 시간(時間)의 부족(不足)으로 인(因)해 문헌조사(文献調査)에만 의존한 나머지 조사방법론상(調査方法論上) 객관성(客観性)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경험적(経験的) 방법(方法)(Empirical Study)을 사용(使用)치 못했다는 점(点) 등을 들 수 있다.

# 제(第)1장(章) 이론적(理論的) 배경(背景)

## 제(第)1절(節) 사회과학적(社會科學的)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분석모형(分析模型)

논리(論理)를 전개(展開)하기 앞서 이론적(理論的) 배경(背景)을 알아보는 것은 이론(理論)이 과학적(科学的)인 조사연구(調査研究)에 대한 기본적(基本的)인 토대(土台)를 제공(提供)해 주며 조사(調査)하고 있는 현상(現象)을 설명(説明)해 주고 새로운 사실(事実)을 예측(予測)케 해 준다는 점(点)에서 중요(重要)한 과제(課題)라 하겠다. 또한 이론(理論)은 과학적(科学的)인 지식(知識)을 간단명료하게 표명(表明)해 줄 뿐 아니라 과학적(科学的) 지식(知識)의 근원(根源)이라 할 수 있는 불확실(不確実)한 명제(命題)에 대(対)한 판단(判断)의 기준(基準)이 된다.8)

그러나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対)한 연구(研究)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과학적(科学的) 지식획득(知識獲得)을 위한 연구조사(研究調査) 활동(活動)이 그다지 활발(活溌)하게 진행(進行)되어 오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과학(社会科学) 연구방법(研究方法)에 의거한 분석(分析)틀의 활용(活用)에 있어서는 여타(余他)의 정치(政治)·경제(経済)·사회(社会) 측면(側面)에서의 연구(研究)와 비교(比較)해 볼때 극히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산주의(共産主義)와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会)를 이데올로기적 관점(観点)에서만 본 나머지 연구대상(研究対象)으로서 공산주의(共産主義)의 특징(特徴)과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会)의 현상(現象)에 사회과학자(社会科学者)들이 그동안 소홀히 취급해 왔었다는 데 그 1차적(次的) 원인(原因)을 찾아볼 수 있으며, 2차적(次的) 원인(原因)으로서는 공산사회(共産社会)의 폐쇄적 성격(性格)과 이로 인한 연구조사상(研究調査上) 자료수집(資料蒐集)의 곤란성(困難性)도 들 수 있다. 즉 민주진영(民主陣営)과 공산진영간(共産陣営間)와 교류(交流)가 활발(活溌)하지 못하여 서구학자(西欧学者)들의 연구관심권(研究関心圏)에 진입(進入)하기 힘들었다는 의미(意味)이다.9)

그러나 동서(東西) 양진영(両陣営)의 평화공존시대(平和共存時代)가 1960년대(年代)에 태동하고 난 후 현재에는 과학기술(科学技術), 통신(通信)의 획기적 발전(発展)으로 인(因)해 상대방(相対方)에 대(対)한 정보수집(情報蒐集)의 장벽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었으며,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会)에 대(対)한 서구학자(西欧学者)들의 관심(関心)과 연구실적(研究実績)도 괄목할 만한 성장(成長)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점(点)에서 현재(現在) 우리의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좌표를 추적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찾아 보기 위해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対)한 서구학자(西欧学者)들의 연구실적(研究実績)을 토대(土台)로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두드러진 특징(特徴)을 이해(理解)하는 것은 그 의미(意味)가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인 의미(意味)에서 사회현상(社会現象)을 설명(説明) 예측(予測)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회현상(社会現象)들 중 중요(重要)한 특징(特徴)을 위주로 포괄적(包括的) 개념(概念)을 설정(設定), 거시적(巨視的) 조망(眺望)으로 현상(現象)을 다루는 모형접 근법(模型接 近法)을 들 수 있다.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특징(特徴)을 일반화(一般化)시킨 모형(模型)으로는 대략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 1. 전체주의(全体主義) 모형(模型)

이는 1950년대(年代)까지 성행했던 모형(模型)으로서 은연 중 공산주의(共産主義) 체제(体制)를 악(悪)의 전형(典型)으로 규정(規定)하고 선(善)을 표상(表象)하는 서구(西欧)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체제(体制)와 대치적 입장(立場)에서 설명(説明)하고 있다.

즉 스탈린 체제(体制)를 겨냥한 전후(戦後)의 냉전적(冷戦的) 사고방식(思考方式)에 의거 관제(官制) 이데올로기를 통렬히 비난하는 모형(模型)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제(官制) 이데올로기의 주요내용(主要内容)으로서는 ①독재자(独裁者)에 의(依)해 영도(領導)되는 단일(単一)의 대중정당(大衆政党) ②폭력적(暴力的) 경찰통제제도(警察統制制度) ③매스컴의 독점(独占) ④ 일절(一切)의 유효(有効) 무기(武器) 독점(独占) ⑤ 경제(経済)의 중앙집권적(中央集権的) 통제(統制) ⑥ 사법권(司法権)의 행정적(行政的) 통제(統制) 등(等)을 들 수 있다.10)

그러나 냉전시대(冷戦時代)가 의미(意味)를 상실하고 공산주의국가간(共産主義国家間) 다원중심적(多元中心的) 추세가 농후해져 가고 있는 현대(現代)에 있어서 전체주의(全体主義) 모형(模型)의 설명(説明)만으로는 공산주의국가(共産主義国家)들을 단지 악(悪)의 원천(源泉)으로만 보게 될 선입관(先入観)의 오류를 범하게 될 경우가 있다. 다만 지구상(地球上)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돌연변이 집단(集団)인 북한공산주의사회(北韓共産主義社会)에 대한 이해(理解), 평가(評価)에 있어서 선입관(先入観)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말은 논의(論議)의 차원상(次元上) 그 의미(意味)가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産集団)의 경우에는 관제(官制) 이데올로기의 구성(構成) 및 유지(維持)에 있어서 스탈린시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의 요소(要素), 즉 폭력(暴力)·통제수단(統制手段)이 한층 강화(強化)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2. 근대화(近代化)·발전모형(發展模型)

전체주의(全体主義) 모형(模型)의 경우에는 체제(体制)의 안정성(安定性)과 제도화(制度化)를 지나치게 강조(強調)한 나머지 정태적(静態的) 성격(性格)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点)을 비판(批判)으로 제기(提起)할 수 있다.

이러한 차제에 스탈린 사후(死後), 1950년대(年代) 후반(後半)부터는 소련 정치동태(政治動態)의 급격한 변화(変化)가 야기되기 시작했다. 즉 체계적(体系的) 테러가 점차 감소(減少)하게

되었고, 개인독재체제(個人独裁体制)가 집단체제(集団体制)로 전환(転換)됨과 아울러 경제정책(経済政策) 결정과정상(決定過程上) 분권화(分権化) 추세가 일게 되고 정치과정상(政治過程上) 다원주의화(多元主義化) 현상(現象)이 발생(発生)하게 되었다.11)

이에 따라 동태적(動態的) 모형(模型)의 개발(開発) 필요성(必要性)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요청(要請)에 따라 나타나게 된 것이 근대화(近代化) 발전모형(発展模型)이다. 이 모형(模型)의 중심내용(中心内容)은 사회(社会)·경제적(経済的) 변화(変化)가 정치체(政治体)에 영향을 주어 변화(変化)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치체(政治体)의 변화(変化)가 사회(社会)·경제적(経済的) 변화(変化)를 초래하게 된다는 역(逆)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会)의 경직성(硬直性) 내지 폐쇄성(閉鎖性)으로 미루어 보아 정치체(政治体)의 변화(変化)보다는 사회(社会)·경제적(経済的) 변화(変化)의 가능성(可能性)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現代社会)의 발전추세(発展趨勢)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적 관점보다는 개인(個人)의 행복(幸福), 경제적(経済的) 여유(餘有)에 대한 관심(関心), 가치체계(価値体系)의 세분화(細分化)의 관심이 현대인(現代人)에게 취향에 맞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근대화(近代化) 발전모형(発展模型)이 사회경제(社会経済)의 변화(変化)와 정치체제간(政治体制間)의 정비례적(正比例的) 상응을 가정(仮定)하고 있지는 않다.

### 3. 관료정치모형(官僚政治模型)

이 모형(模型)은 공산당(共産党)의 우월적(優越的) 지위(地位)를 인정(認定)한 가운데 경쟁적(競争的) 선거(選挙)내지 효율적(効率的) 민주적(民主的) 통제수단(統制手段)의 부재(不在)로 인(因)한 일당(一党) 영구집권(永久執権)의 특성(特性)을 지닌 초관료제적(超官僚制的) 위치(位置)를 점(占)하고 있는 당(党)이 정부(政府) 및 다양(多様)한 사회조직(社会祖織)과 연계되어 활동(活動)한다는 점(点)에 초점(焦点)을 두고 있다. 즉 이 모형(模型)은 내밀정치(内密政治)를 주도하고 있는 당(党)이 대규모(大規模)의 복합관료제(複合官僚制)의 성격(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強調)하고 있다.

관료정치모형(官僚政治模型)은 현대사회(現代社会)의 대규모(大規模) 복합조직(複合組織)의 특성(特性)을 설명(説明)하고 있다는 점(点)에서 커다란 장점(長点)을 지니고 있지만 서방(西方)과 공산세계(共産世界)의 관료행태(官僚行態)의 유사성을 너무 쉽게 인정(認定)하고 있다는데 비판(批判)이 제기(提起)될 수 있다.

이상(以上)의 세 가지 모형(模型)은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성격(性格)을 일반화(一般化) 내지 간소화(簡素化)한 나머지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다양성(多様性)을 간과(看過)할 오류를 범할 수 있다.12)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입장(立場)에서 보면 사회현상(社会現象)을 한 눈에 통찰할 수 있는 거시적(巨視的) 조망능력(眺望能力) 이외(以外)에 다양(多様)한 현상(現象)을 조명(照明)할 수 있는 미시적(微視的) 조망능력(眺望能力)도 반드시 구비(具備)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특(特)히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신봉하고 있는 국가(国家)들의 경우 지역적(地域的)·문화적(文化的) 배경(背景)의 차이(差異)에서 오는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다양성(多様性)을 인식(認識)해야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 연구(研究)의 경우 비교(比較)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의 전개(展開)가 필요(必要)한 것이다.

이 문제(問題)를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과 결부시켜 볼 때,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실체(実体)를 포착하는 것이 단지 일반적(一般的)인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특성파악(特性把握)만으로 혹은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다양성(多様性)의 인식(認識)만으로는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에 대한 올바른 종합적(綜合的) 판단능력(判断能力)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点)에서 공산주의(共産主義) 이론비판교육(理論批判教育)의 어려움을 상상(想像)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다양성(多様性)을 인식(認識)할 수 있는 3가지의 연구분석방법(研究分析方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4. 개별예적(個別例的) 분석(分析)13)

이 방법(方法)은 공산주의국가(共産主義国家)들을 지역(地域)·문화(文化)·역사(歴史)·언어(言語)·인문지리(人文地理) 등 폭넓은 지적(知的) 하부구조(下部構造)를 기술(記述)함으로써 개별예적(個別例的)으로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会)의 특성(特性)을 발췌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 방법(方法)은 시간(時間)과 경비(経費) 등(等) 외적(外的) 연구제약(研究制約) 요인(要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방법론상(方法論上)으로 충분(充分)히 가능(可能)할 수도 있으나 연구자(研究者)의 정보수집능력(情報蒐集能力), 시간(時間) 등 현실적(現実的) 여건(與件)을 감안할 때 많은 한계(限界)가 따르기 마련이다.

### 5. 행태론적(行態論的) 분석(分析)

이 방법(方法)은 경험적(経験的)인 이론구성(理論構成)을 목적(目的)으로, 공산국가(共産国家) 정치제도(政治制度)보다는 실제(実際) 정치상황(政治状況) 속의 개인(個人)의 행태(行態)에 초점(焦点)을 두면서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Personality14,) 태도(態度), 가치관(価値観) 등(等) 실제행동(実際行動)의 포착을 통해 법칙(法則)을 정립(定立)하고 개연성(概然性)을 추측하려는 방법(方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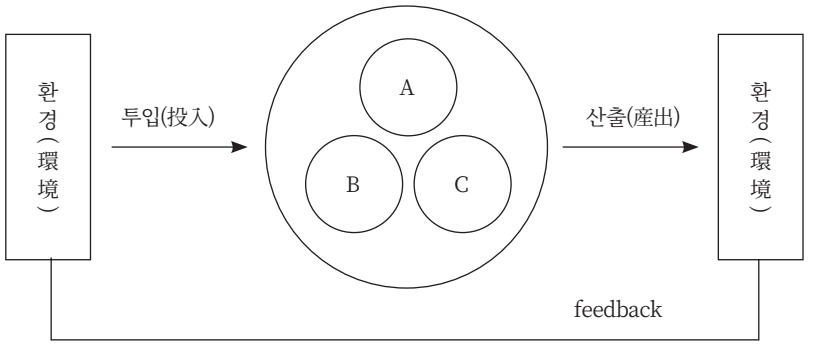
그러나 이 방법(方法)은 자료(資料)의 관찰(観察), 분류(分類) 및 측정(測定)에 있어 정확(正確)한 기법(技法)의 활용(活用)과 개발(開発)이 전제(前提)되어야 올바른 분석(分析)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점(点)에서 내부사회(内部社会)의 개방도가 극히 낮은 공산주의국가(共

産主義国家)를 대상으로 분석(分析)할 경우 이 방법(方法)은 그 신뢰도(信賴度)가 높지 않다고 하겠다.

### 6. 체제론적(体制論的) 기능분석(機能分析)

이 방법(方法)은 교시적(教示的) 입장(立場)에서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 존재(存在)의 확인(確認)과 체제간(体制間) 차이점(差異点)을 공통(共通)의 척도(尺度)를 설정(設定)하여 체제(体制)의 기능검토(機能検討)에 중점(重点)을 두고 있다.15) 이 방법(方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 비교(比較) 기능분석도(機能分析圖)〉




위의 그림에서 A, B, C는 각각(各各) 확인가능(確認可能)한 요소(要素)로 구성(構成)(예(例), 의사결정방법(意思決定方法), 가치(価値)의 우선순위(優先順位)) 되며 상호(相互) 의존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독자적 영역을 구비하고 있다. 반면(反面), 투입(投入)의 요소(要素)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区分)하고 산출(産出)된 기능(機能)의 양태(예(例), 입법(立法)·행정(行政)·사법(司法))를 관찰해 볼 때 A, B, C로 구성(構成)된 체제(体制)의 특성(特性)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비교(共産主義体制比較) 기능분석(機能分析)의 경우 특(特)히 문제(問題)가 되는 것은 투입(投入)의 요소(要素)를 어떻게 범주화(範疇化)시켜 체제(体制)의 존속과 차이점(差異点)을 규명하는가 하는 점(点)이라 하겠다.

## 제(第)2절(節)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會) 연구접근법(研究接近法)

앞서 1절(節)에서는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会)를 보는 눈, 즉 분석시각(分析視覚)의 관점(観点)에서 고찰(考察)해 보았다. 제(第)2절(節)에서는 이보다 한걸음 앞서나가 어떻게 공산주의(共産主義) 사회현상(社会現象)을 연구(研究)해 나가는가의 연구방향(研究方向)에 대해서 논(論)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論議)하게 될 접근법(接近法)은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의 허구성(虛構性)과 비논리성(非論理性)을 파헤치는 공산주의본연(共産主義本然)의 모습을 갈파하기 위한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틀, 즉 모형(模型)과는 그 목적상(目的上) 차이(差異)가 있다. 즉 1절(節)에서의 분석(分析)틀의 제시(提示)를 통해서는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의 주장(主張)을 올바르게 인식(認識)하고 나아가 공산주의이론 비판교육의 문제점과 실제를 이해함으로써 이론비판능력(理論批判能力)의 제고(提高)에 초점(焦点)을 두고 있는 반면(反面) 접근법(接近法)을 통해서는 향후(向後) 공산주의(共産主義) 사회현상(社会現象)을 정확(正確)히 이해·규명하기 위한 실천적(実践的) 연구방법(研究方法)을 제시(提示)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자(両者) 모두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개선책(改善策) 모색(摸索)을 위한 전제요건(前提要件)임은 분명(分明)한 이치(理致)라 하겠다.

### 1. 집단갈등접근법(集團葛藤接近法)

이 접근법(接近法)은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정책과정(政策過程)을 이해(理解)하는데 다양(多様)한 집단간(集団間)의 이익갈등(利益葛藤)을 토대(土台)로 해야 한다16)고 주장(主張)한다.

그러나 공산주의국가내(共産主義国家内)의 집단활동(集団活動)은 단지 광범위한 사회적(社会的) 카테고리 - 농민(農民), 수공노동자(手工労動者), 특정(特定) 인종집단(人種集団), 군(軍)·경(警), 경제지배인(経済支配人) -의 제도적(制度的)·기능적(機能的) 집단(集団)일 뿐이지 고도(高度)로 다원화(多元化)된 전문조직(専門組織), 자발적(自発的) 결사체(結社体)로서의 이익집단(利益集団)의 활동(活動)은 아니다.

그렇지만 1966년 유고, 1968년(年) 체코, 그리고 1980년(年)의 폴란드사태(事態)의 경우를 볼 때 공산주의국가(共産主義国家) 내부(内部)에서도 진정(真正)한 의미(意味)의 집단이익(集団利益)의 표명현상(表明現象)이 간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点)은 차후(次後) 설득력(説得力)을 배가(倍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존재(存在)한다고 하겠다. 이 접근법(接近法)에 대(対)한 비판(批判)으로서는 서구(西欧) 정치체제(政治体制)의 분석(分析)을 위해 창출(創出)된 집단이론(集団理論)의 틀이 그리 쉽게 공산주의(共産主義) 체제분석(体制分析)에 원용될 수 있는가와 집단(集団)의 구조(構造), 활동(活動), 구성원(構成員)의 성공(成功)·공유가치(共有価値) 등에 관(関)한 정보취득(情報取得)이 용이(容易)하지 않다는 점(点)을 들 수 있다.

### 2. 정치문화(政治文化) 접근법(接近法)

이 접근법(接近法)은 공산주의정치(共産主義政治)가 국가별(国家別)로 차이(差異)가 있다는 근거(根拠)를 마련해 주며, 공산화(共産化) 이후(以後)에 그 사회(社会)가 경험(経験)한 외형적(外型的) 변화(変化)보다 심층(深層)에 자리잡고 있는 역사(歷史)의 주맥(主脈)을 찾고 그 영향력을 밝혀 보려는데 관심(関心)을 기울이는 방법(方法)으로서 한 국가 국민(国民)의 정치적(政治的) 신념체계(信念体系)나 행태유형(行態類型)의 독특성(独特性)을 밝혀보아야 한다는 입장(立場)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접근법(接近法)의 한계(限界)로서는 역사(歷史)·문화적(文化的) 형성력(形成力)에 대한 지나친 신뢰(信頼) 때문에 자칫하면 개별(個別)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독특성(独特性)을 지나치게 강조(強調)한 나머지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공유적(共有的) 성격(性格), 즉 이념적(理念的) 동류성(同類性), 구조적(構造的) 특징(特徵) 내지 장기적(長期的) 목표(目標)의 주요성(主要性) 등을 간과하기 쉬운 점(点)을 들 수 있다.

### 3. 엘리트 접근법(接近法)

이는 당(党)과 관료제(官僚制)의 크기 및 복합성(複合性)이 증대(増大)됨에 따라 엘리트 충원(充員)시 합리적(合理的), 기술적(技術的) 수준(水準)의 문제(問題)가 중요시(重要視)되며, 의사결정과정상(意思決定過程上) 이데올로기가 주는 처방적(処方的)·교시적(教示的) 역할(役割)의 감소(減少)와 결과적(結果的)으로 관료계급(官僚階級)의 대두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点)을 강조(強調)하고 있다.

즉 엘리트간(間)의 관계(関係)를 볼 때 확립(確立)된 의사결정(意思決定) 중추가 뚜렷하지 못하고 권력승계(権力承継)를 위한 제도화(制度化)된 방법(方法)이 미흡한 공산체제(共産体制)의 경우에 불안정적(不安定的)이고 비정향적(非定向的)인 엘리트간(間)의 갈등(葛藤)은 불가피하게 되어17) 국가관료제(国家官僚制)는 당기구(党機構)로부터 분리(分離)되어 고려되며 인적(人的) 중첩요인(要因)이 감소(減少)하고 기계적(機械的) 전문화(専門化) 현상(現象)이 두드러짐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接近法)의 경우 엘리트의 배경(背景)·경력(経歷) 등이 동질적(同質的)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조망가치(眺望価値)의 동질성(同質性)까지 추론(推論)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提起)된다 하겠다.

## 제(第)3장(章)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실제(實際)와 문제성(問題成)

앞서 제(第)2장(章)에서는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특성(特性)을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인 연구방법(研究方法)을 활용(活用)하여 거시적(巨視的) 조망(眺望)의 입장(立場)에서 일반화(一般化)시킨 세 가지의 모형(模型), 즉 전체주의모형(全体主義模型), 근대화(近代化)·발전모형(発展模型), 관료정치모형(官僚政治模型)을 소개하였고 이어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전체적(全体的) 특성(特性)이외에 세부적(細部的) 다양성(多様性)을 포착하기 위한 비교(比較) 공산주의(共産主義) 연구방법상(研究方法上) 분석(分析)의 틀을 3가지 측면(側面), 즉 개별예적(個別例的) 시각정립(視覚定立)의 필요성(必要性)과 행태연구(行態研究) 그리고 체제론적(体制論的) 기능분석(機能分析) 등(等)에 대(対)한 설명(説明)을 보충(補充)함으로써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특성연구(特性研究)가 은연 중에 종합적(綜合的)이고도 세부적(細部的)인 양상(様相) 모두를 대상(対象)으로 삼아야 올바른 길로 접어들게 됨을 암시하였다.

또한 향후(向後) 공산주의(共産主義) 사회현상(社会現象)을 정확(正確)히 분석(分析), 예측(予測)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접근법(接近法) - 집단갈등접근법(集団葛藤接近法), 정치문화접근법(政治文化接近法), 엘리트접근법(接近法) -을 예시(例示), 설명(説明)하기도 하였다.

제(第)3장(章)에서는 본(本) 연구(研究)의 중심논제(中心論題)인 현행(現行)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실제(実際)와 문제점(問題点)을 4가지의 범주(範疇)로 구분(区分), 기술(記述)해 나감으로써 제(第)4장(章)에서의 개선책(改善策)의 모색활동(模索活動)을 앞에서 언급한 다수(多数)의 연구방법(研究方法) 혹은 접근법(接近法)에 투영하여 보다 효과적(効果的)이고 객관적(客観的)으로 전개(展開)해 보고자 한다.

## 제(第)1절(節)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總体性)과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 조화(調和)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사회(社会) 각분야(各分野)에서 제기(提起)되는 현상(現象) 및 과제(課題)를 총망라하여 해결(解決)하려 하고 모든 문제(問題)의 귀결점(帰結点)을 혁명(革命)으로 규정(規定)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철학(哲学)(유물론(唯物論), 변증법(弁証法), 변증법적(弁証法的) 유물론(唯物論)), 정치학(政治学)(계급투쟁론(階級闘爭論), 폭력혁명론(暴力革命論), 프롤레타리아 독재론(独裁論), 국가사멸론(国家死滅論), 당이론(党理論)), 경제학(経済学)(노동가치설(労動価値説), 잉여가치설(剰余価値説), 자본주의(資本主義) 붕괴론(崩壞論), 제국주의론(帝国主義論)) 등(等) 사회(社会) 각분야(各分野)의 실체(実体)와 현상(現象)을 개별화(個別化)·구분화(区分化)시키지 않고 하나의 범주(範疇)로 묶어 하나의 '주의(主義)'(一ism)으로 지칭한 가운데, 이 모든 사회(社会) 각분야(各分野)의 문제(問題)를 종국적(終局的) 혁명(革命)의 원인(原因)으로 간주(看做)하고 있다.18) 이렇듯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외형적(外形的)으로 사회(社会)의 모든 문제(問題)를 취급하고 있다는 총체적(総体的)인 특성(特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올바른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외형적(外形的) 총체적(総体的)을 감안하여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어느 한 부분(部分)만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체주의모형(全体主義模型)이나 관료정치모형(官僚政治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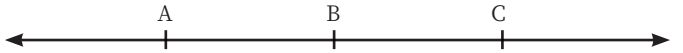
型)에서 제시(提示)하는 바와 같아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의 일반적 특징(特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視覚)의 확립(確立)이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한편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体制)를 정확(正確)히 인식(認識)하는 데는 개별예적(個別例的) 시각(視覚) 정립(定立)이 요청(要請)된다. 이른바 공산주의국가(共産主義国家)들 사이의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을 고찰(考察)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무리 공산주의(共産主義)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상극되는 악(悪)의 전형(典型)이라는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을 인식(認識)하였다 치더라도 동(東)구라파 국가(国家)들의 자유화(自由化) 운동(運動) 등으로 인(因)한 공산국가(共産国家)들 간의 사회현상(社会現象)과 실체(実体)의 상이성(相異性) 내지 다양성(多様性)을 파악하지못하면 완전(完全)한 의미(意味)에서의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은 관계(関係)를 간단한 도표(図表)를 사용(使用)하여 설명(説明)하면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서 점 A는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에 중점(重点)을 둔 이론비판교육(理論

〈표 2.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總体性)과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




批判教育)보다는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의 인식(認識)을 강조(強調)하는 교육방법(教育方法)을 의미(意味)하며 점 C는 정반대(正反対)의 현상(現象)을 뜻한다. 반면(反面) 점(点) B는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과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을 적절(適切)히 조화(調和)시킨 이론교육방법(理論教育方法)을 뜻한다고 하겠다. 간단히 말해서 위 그림이 예시(例示)하고 있는 바는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을 지나치게 강조(強調)하면 공산주의국가(共産主義国家)들의 구체적(具体的)이고도 다양(多様)한 사회적(社会的) 특성(特性) 혹은 현상(現象)을 간과(看過)하는 결과(結果)를 초래할 것이며, 반면(反面)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에 비중(比重)을 많이 두면 세계적화혁명(世界赤化革命)이라는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실체(実体)를 인식(認識)할 수 없는 결과(結果)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点)이다.

이러한 점(点)에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정도(正道)는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과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의 조화점(調和点)을 찾아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오류성과 모순성을 분석(分析)하여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対)한 종합적(綜合的) 비판능력(批判能力)을 배양(培養)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현재(現在) 우리 군(軍)의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은 점(点) A에 치우친 경향(傾向)을 띠고 있는 바 향후(向後) 점(点) B로의 점진적 이동(移動)을 위한 노력(努力)이 경주(傾注)되야 할 것이다. 교육



상(教育上) 공산국가별(共産国家別)로 다양성(多様性)을 이해(理解)시키는 데는 시간(時間), 교관(教官)의 전문성(專門性)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存在)한다는 것이 자명(自明)한 이치(理致)이나 가장 확실(確実)하고 안정적(安定的)인 이데올로기 비판교육(批判教育)은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과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의 조화(調和)를 추구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는 끈기있는 노력(努力)이 필요(必要)하며, 마치 그것은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허구적(虛構的) 속에 얽히고 섞힌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점(点)에 비유될 수 있다.

## 제(第)2절(節) 선입관(先入観)·인상위주(印象爲主)의 공산주의비판(共産主義批判) 시각(視覺) 상존(尙存)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対)한 종합적(綜合的)이고도 다각적(多角的)인 이해(理解)와 비판(批判)이 부재(不在)한 가운데, 다분히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종합적(綜合的)으로 막연(漠然)히 나쁜 사상체계(思想体系) 또는 이데올로기라 생각하는 습관(習慣)은 완전(完全)한 의미(意味)에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능력(批判能力)이 함양되는 것을 보장(保障)하지 못한다. 이 점(点)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을 평가(評価)하는데 내면적(內面的)·단계적(段階的) 이해(理解)와 비판(批判)의 시각(視覚)이 선행(先行)되야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対)한 선입관(先入観)이나 인상(印象)이 아무리 비판적(批判的)·부정적(否定的) 입장(立場)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지라도 선입관(先入観)이나 인상(印象)이 배제(排除)된 상태에서 객관적(客観的)으로 또는 이론적(理論的)으로 완벽(完璧)하게 공산주의(共産主義)를 비판(批判)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보유(保有)하고 있지 못하는 한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로 금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내포(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우리 군(軍)의 교육(教育)이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을 지향(指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듯이 만약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을 충분(充分)히 인식(認識)할 수 있는 경우 문제(問題)는 다르다. 즉,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의 인식능력(認識能力)이 결여(缺如)된 상태에서는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 특유(特有)의 유연한 태도(態度)와 능숙한 달콤한 말에 접(接)하게 될 경우, 단지 선입관(先入観)이나 인상(印象)에 의한 부정적(否定的) 시각(視覚)이나 견해(見解)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無意識的)으로든, 일시적으로든 점진적으로든 반전(反転)될 소지가 충분(充分)하다는 점(点)을 염두(念頭)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한 완벽(完璧)하고도 불변적(不変的)인 이론비판능력(理論批判能力)의 배양(培養)은 선입관(先入観)이나 인상(印象)에 대한 것보다는 내면적(內面的) 다양성(多様性)의 인식능력(認識能力) 이외(以外)에 특(特)히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이 내세우는 주장(主張)이나 선전, 선동, 그리고 보다 체계적(体系的)으로는 그들의 전략(戦略)·전술(戦術)의 개념(概念)·속성(属性)·변화(変化) 등(等)에 대(対)해 철두철미하게 오류성을 지적(指摘)할 수 있는 힘이 그 원

천(源泉)이 된다는 사실(事実)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점(点)에서 현재(現在) 우리 군(軍)의 교육내용(教育内容)을 살펴볼 때 공산주의전략(共産主義戦略)·전술(戦術)에 대(対)한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전문성(専門性)은 극히 제한적(制限的)으로 확보(確保)되었다고 하겠으며, 이는 특히 현재(現在) 계속적으로 진행(進行)되고 있는 남북대화(南北対話)의 뒷전에 숨어 있는 북괴집단(北傀集団)의 저의를 똑바로 갈파할 수 있는 위장평화공세전술(戦術) 비판능력(批判能力)을 체계적(体系的)으로 함양하는데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9)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提起)하는 것으로서 과연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만행과 잔학성을 몸소 전쟁(戦爭)을 통(通)해 체험(体験)한 6·25전란(戦乱) 당시(当時) 세대(世代)의 공산주의관(共産主義観)은 어떠한 것일까하는 문제(問題)를 들 수 있다. 6·25전란세대(戦乱世代) 사람들의 공산주의비판(共産主義批判) 시각(視覚)은 위에서 이야기한 선입관(先入観)·인상(印象)에 기인(基因)한 그것과는 차원(次元)이 다르다. 그들의 비판시각(批判視覚)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실제(実際) 행태(行態)를 직접(直接) 눈으로 보고 겪은 산 경험(経験)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각도(角度)에서의 비판(批判)보다도 강렬(強烈)하고 안정적(安定的)이며 불변적(不変的)인 성격(性格)을 띠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문제(問題)는 여기에서 파생(派生)된다고 하겠다. 즉, 소위(所謂)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이 이야기하는 민족해방전쟁(民族解放戦爭)을 통(通)해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본모습을 체험(体験)한 사람들의 비판시각(批判視覚) 내지 정도(程度)는 전쟁(戦爭)을 체험(体験)하지 못한 전후세대(戦後世代) 사람들의 그것과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存在)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事実)이다. 특(特)히 우리 군(軍)의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은 이와 같은 괴리를 포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教育内容)의 개발(開発)과 교육내용(教育内容)의 보강(補強)이 절실히 요청(要請)된다 하겠다.

즉, 정의(正義)·자유(自由)·평등(平等)·인권(人權)의 회복(回復)이나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한 약속(約束)을 하기도 하며 해방(解放)과 독립(独立)을 쟁취(爭取)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名分)을 내세우는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달콤한 입김이 6·25 체험(体験) 세대인(世代人)들에게는 씨가 먹혀 들어가지 못하는 반면(反面) 전후세대(戦後世代) 장병(将兵)들에게는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주장(主張)이 반드시 속임수로만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可能性)을 인식(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은 이점을 감안하여 전후세대(戦後世代) 장병(将兵)을 대상(対象)으로 하여 교육방법(教育方法)의 다양화(多様化)와 교육내용(教育内容)의 현실성(現実性)·시대성(時代性)을 고려(考慮)하는 노력(努力)이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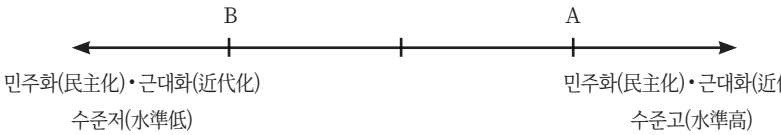
## 제(第)3절(節) 동태적(動態的)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 전환노력(轉換努力) 부족(不足)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도전(挑戦)은 집요(執拗)하고도 끈질기다. 아무리 민주시민의식(民主市民意識)이 뿌리깊게 박힌 민주주의국가(民主主義国家)라 할지라도 공산주의(共産主義)의 공격대상(攻撃対象)에서 결코 제외(除外)될 수는 없다. 이같은 사실(事実)은 최대(最大)의 궁극적(窮極的) 목표(目標)를 전세계(全世界)의 공산화(共産化)에 두고 있는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최상위(最上位) 전략(戦略)을 살펴볼 때도 자명(自明)한 이치(理致)라 하겠다.

구체적(具体的)인 실례(実例)로 민주화(民主化)와 근대산업발전(近代産業発展)이 성숙(成熟)하게 진행(進行)된 미국(美国)과 서(西)유럽 등의 경우에도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암약활동(暗躍活動)은 끊이지 않고 줄기차게 펼쳐지고 있다. 비록 그 활동(活動)이 외면적(外面的)으로 표출(表出)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암암리에 마수의 손길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点)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서독(西独)과 영국(英国)에서의 동독(東独)과 소련 첩보활동 내막이 보도(報道)된 점(点)은 이런 점(点)에서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중남미지역(中南美地域)의 경우와 아프리카 등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도(程度)의 차이(差異)는 있지만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암세포적 활동(活動)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바이다. 특히 북괴(北傀)는 민주화(民主化)·근대화(近代化)의 발전(発展)이 지극히 미약한 아프리카 국가(国家)에 군사고문단까지 파견하여 세계적화(世界赤化)를 위한 전위(前衛)의 역할(役割)까지도 수행(遂行)하고 있다.

그러면 비공산국가(非共産国家)의 민주적(民主的)·근대화(近代化)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활동양상(活動様相)은 어떠한 관계(関係)에 있는가 아래 그림을 통(通)해 고찰(考察)해보자.

〈표 3. 민주적(民主的)·근대화(近代化) 정도(程度)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활동관계(活動關係)〉




위의 표 3에서 민주화·근대화의 수준(水準)이 높을 경우(점 A, 미국(美国)·서(西)유럽)에는 공산주의(共産主義)들의 활동양상(活動様相)은 합법적(合法的)이며 비표출적(非表出的)으로 전개(展開)된다. 반면(反面), 민주화(民主化)·근대화(近代化)의 수준(水準)이 낮을 경우(점 B,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잠비아)에는 비합법적(非合法的)이며 표출적(表出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활동(活動)을 객관적(客観的)으로 분석(分析), 평가(評価)하려면 공산주의활동(共産主義活動)의 무대(舞台)를 국제적(国際的) 시각(視覚)에서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必要)한 작업(作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国際的)인 시각(視覚)을 확립(確立)한 가운데 공산주의(共産主義)의 활동무대(活動舞台)를 몇 개의 유형별(類型別)로 구분(区分)하여 분석(分析)함으로써 공산주의(共産主義)의 혁명전략(革命戦略)의 구체적(具体的) 발전양상(発展様相)과 단계적(段階的), 전술차원(戦術次元)의 세분화(細分化) 모습을 체계적(体系的)으로 이해(理解)하는데 크게 기여(寄与)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군(軍)의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은 크게 개선(改善)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問題)를 안고 있다. 즉 그것은 공산주의혁명(共産主義革命)의 전략(戦略)이나 전술(戦術)은 "이러이러 하다."라는 식(式)의 단순(単純)한 소개(召介) 내지 이해위주(理解為主)의 평면적(平面的)·정적(静的) 나열(羅列)만을 위한 비판교육(批判教育)이 아니라 공산주의(共産主義)의 활동무대(活動舞台)를 몇 가지의 유형별(類型別)로 나누어 시각적(視覚的)·입체적(立体的)으로 공산주의혁명(共産主義革命) 전략(戦略)·전술(戦術)의 성격(性格), 특성(特性), 현재(現在)의 활동양상(活動様相) 등을 이해(理解)함으로써 장차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혁명노선(革命路線)과 구체적(具体的)인 전술(戦術) 구사를 예측(予測)할 수 있는 동적이론(動的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이라 하겠다.

또 한 가지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시 유의해야 할 점(点)으로서는 전체적(全体的)인 국제정세(国際情勢)를 고려(考慮)하지 않는 가운데 공산주의(共産主義)를 통제(統制)된 상황하(状況下)에서 이해(理解)하고 비판(批判)하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의 한계성(限界性)을 인식(認識)해야 하겠다는 점(点)이다.

상황적응적(状況適応的)·임기응변적(臨機応変的) 전술(戦術)의 구사로 인(因)해 본(本) 모습이 가리워질 수 있는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전략실체(戦略実体)를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는 길은 공산주의(共産主義)를 통제(統制)된 상황(状況)에서 파악하는 방법(方法)을 지양(止揚)하는 일이라 하겠다.

## 제(第)4절(節) 공산주의(共産主義) 흐름의 인식(認識)을 통(通)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

공산주의(共産主義) 역시 현대(現代)의 과학기술(科学技術)·문명(文明)의 획기적 발전(発展)과 사회(社会) 각(各) 분야(分野)의 변화(変化)에 부응하여 정체적(停滞的)으로만 현상(現状)을 유지(維持)할 수는 없었다. 즉, 현대사회(現代社会)의 발전(発展)과 더불어 공산주의(共産主義)도 종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일부(一部) 수정(修正)을 가(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共産主義)가 원형(原型)을 도외시한 채 성격(性格) 자체(自体)를 수정(修正)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불변성(不変性)·항구성(恒久性)을 내포(内包)하고 있는 궁극적(窮極的) 목표(目標)의 테두리 내(内)에서 전술적(戦術的) 차원(次元)의 다변화(多変化)를 추구(追求)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60년대(年代) 동구(東欧)유럽에서 휘몰아쳤던 자유화(自由化)의 기운에 이어, 1970년대(年代) 종속이론(従屬理論), 유로코뮤니즘, 신마르크스주의 등은 공산주의(共産主義) 내부(内部)의 갈등(葛藤)을 표면화(表面化)시킨 사건(事件)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変化)의 흐름을 올바르게 판단(判断), 분석(分析)함이 없이는 현대적(現代的) 의미(意味)의 공산주의(共産主義) 모순성을 예리하게 지적(指摘)할 수 있는 정확(正確)한 이해(理解)와 비판능력(批判能力)은 뒤따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은 현대사회문명(現代社会文明)의 발전(発展)에 따라 일부(一部) 수정(修正)이 불가피했던 공산주의(共産主義) 내부(内部)의 변화(変化)를 초래한 동기(動機) 및 배경(背景)을 예리하게 파헤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련(一連)의 변화운동(変化運動)을 사회(社会)·정치(政治)·경제학적(経済学的), 신학적(神学的),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관점(観点)20)등에서 이해(理解)하지 않고서는 현대(現代)의 공산주의(共産主義) 정체(正体)를 100% 올바르게 이해(理解), 비판(批判)할 수 없다는데 초점(焦点)을 두고 시도래야 한다.

이런 의미(意味)에서 현재(現在) 우리 군(軍)의 비판교육(批判教育)은 어느정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고 있다 하겠으나 종속이론(従屬理論), 유로코뮤니즘, 신마르크스주의를 개별적(個別的)으로만 분석(分析), 비판(批判)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점(点)이 농후하며, 체계적(体系的)인 입장(立場)에서 이상(以上)의 변화(変化)를 집약(集約)하고 역사적 맥락을 파헤침으로써 종합적(綜合的) 비판능력(批判能力)을 함양시키는 점(点)에서 볼 때 다소 미약한 점(点)이 없지 않은 듯싶다. 종속이론(従屬理論), 유로코뮤니즘, 신마르크스주의 간(間)의 상호관련성(相互関联性)을 파악, 분석하는 정도까지 이를 수는 없지만, 개별적(個別的)·분리적(分離的) 이해(理解), 비판(批判)을 위한 교육(教育)의 범위(範圍)를 벗어나 종합적(綜合的)인 관점(観点)에서 비판교육(批判教育)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努力)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第)4장(章)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 방법상(方法上)의 개선책(改善策) 모색(模索)

제(第)3장(章)에서는 현재(現在) 우리 군(軍)에서 장병(将兵)들을 대상(対象)으로 실시(実施)하고 있는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실태(実態)와 제(第)2장(章)에서 소개(紹介)한 이론적(理論的) 배경(背景)을 토대(土台)로 한 교육실시상(教育実施上)의 문제점(問題点)에 대(対)해서 논의(論議)해 보았다.

본장(本章)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비판교육상(理論批判教育上)의 문제(問題)를 개선(改善)하기 위한 보완방향(補完方向)을 장기적(長期的) 시각(視覚)과 단기적(短期的) 시각(視覚)으로 양분(両分)하여 모색(摸索)해보기로 한다.

## 제(第)1절(節) 장기적(長期的) 관점(觀点)에서의 개선방안(改善方案)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은 그 효과상(效果上) 즉시적(即時的) 영향파급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보다 확고부동(確固不動)하고 체계적(体系的)이며 안정적(安定的)인 교육효과(教育效果)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事項)에 유념하여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摸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 과목(科目)의 세분화(細分化)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공격대상은 사회(社会) 전(全) 분야(分野)의 문제(問題)를 포함(包含)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주장(主張)의 오류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을 철학(哲学)·정치학(政治学)·경제학(経済学) 분야별(分野別)로 세분화(細分化)시켜 피교육자(被教育者)의 전문적(專門的) 비판능력(批判能力)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우리의 관점(観点)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행동(行動)은 이러 이러한 이유(理由)에서 불합리(不合理)하다"라는 식(式)의 비판능력(批判能力) 함양을 위해서 교육과목(教育科目)의 세분화(細分化)는 필요(必要)한 것이다. 교육과목(教育科目)의 설정(設定)은 다음과 같이 시도할 수 있다.

〈표 4. 교육과목(教育科目)의 세분설정(細分設定)〉

| 교과목 | 공산주의(共産主義) 철학(哲学) | 공산주의(共産主義) 정치학(政治学) | 공산주의(共産主義) 경제학(経済学) |
|---|---|---|---|
| 중점비판내용 (重点批判内容) | 역사인식의 오류성 | 혁명실천(革命実践)을 위한 궤변 | 경제결정론(経済決定論)의 허구성 |
| 세 부(細 部) | 변증법(弁証法) | 계급투쟁론(階級闘爭論) | 노동가치설(労動価値説) |
| | | 폭력혁명론(暴力革命論) | 잉여가치설(剰余価値説) |
| 포 함(包 含) | 유물론(唯物論)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独裁論) | 자본주의(資本主義) |
| | | 국가사멸론(国家死滅論) | 붕괴론(崩壞論) |
| 내 용(内 容) | 변증법적(弁証法的) 유물론(唯物論) | 당이론(党理論) | 제국주의론(帝国主義論) |

### 2. 종합적(綜合的) 비판능력(批判能力)의 배양(培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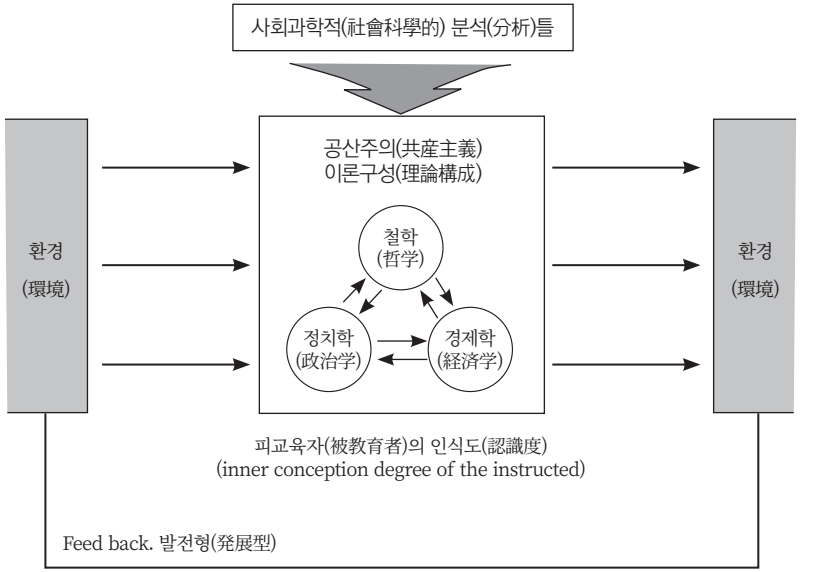
교육과목(教育科目)의 세분화(細分化)와 더불어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과 내면적(内面的) 다양성(多様性)을 조화(調和)시킨 교육(教育)을 병행(並行)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과목(教育科目)의 세분화(細分化)를 통(通)해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의 허구성을 인식(認識)하는 것만으로는 현재(現在) 구사되고 있는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교묘하고도 다양(多様)한 전술(戦術)의 추세를 분석(分析)하기 용이하지 않다. 공산주의(共産主義) 이론교육(理論教育)을 통(通)한 외형적(外形的) 총체성(総体性)만의 인식(認識)은 오히려 이론자체(理論自体)의 범위에 한정(限定)된 채 그 실체(実体)를 파악치 못하고 구체적(具体的)·다양적(多様的)인 전술(戦術)에 대비(対備)한 대응능력(対応能力)의 함양 사이에 단절성(断絶性)을 초래(超來)하기 때문이다.

### 3. 사회과학적(社會科學的) 분석(分析), 비판능력(批判能力) 함양(涵養)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실체(実体)를 위한 종합적(綜合的) 판단능력(判断能力) 배양(培養)에는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의 틀과 연구방법능력(研究方法能力)을 토대(土台)로 한 날카롭고 예지에 찬 '눈'이 절대적(絶対的)으로 필요(必要)하다.

즉, 공산주의국가(共産主義国家)들 사이에 발생(発生)되었고 현재(現在)도 계속 진행중(進行中)인 사회현상(社会現象)에 대(対)한 단편적 지식(知識)의 습득(習得)만으로는 사회현상(社会現象)이 의미(意味)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영향은 어떠한 경로(経路)를 거쳐 어떻게 파급되며, 추후(追後)의 현상(現象)에 대(対)한 예측능력(予測能力)을 배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편적인 지식(知識)을 체계화(体系化)시키고 조직화(組織化)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의 틀 확립(確立)과 연구방법론(研究方法論) — 이는 피교육자(被教育者) 개인(個人)의 사회현상(社会現象)에 대(対)한 지속적(持續的) 관심(関心)과 연구동기(研究動

표 5. 체제론적(体制論的) 관점(観点)에서 본 종합적(綜合的) 비판능력(批判能力) 배양(培養)



機)까지도 유발(誘発)시킬 수 있다 ㅡ 의 습득(習得)은 종합적(綜合的) 판단능력(判断能力) 배양(培養)의 전제조건(前提條件)이 된다.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의 틀과 연구방법론(研究方法論)을 장병(将兵)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선 고려돼야 할 사항(事項)으로 교육시간(教育時間)과 교관(教官)의 문제(問題)라 하겠는데, 교육시간(教育時間)의 경우에는 따로 교육과목(教育科目)을 설정(設定)할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교육과목(教育科目)의 세분화(細分化)에 병행(並行)시켜 통합(統合) 실시(実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관(教官)의 문제(問題)는 사회과학(社会科学)을 전공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확보(確保), 활용(活用)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 틀을 이용(利用)하여 어떻게 종합적(綜合的) 판단능력(判断能力)이 배양(培養)될 수 있는지 예시적(例示的)으로 체제론적(体制論的) 관점(観点)에서 다음의 도표를 사용(使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피교육자(被教育者)는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에 대(対)한 올바른 이해(理解)로서 충분(充分)한 교육시간(教育時間)과 우수한 교관(教官)의 심화(深化)된 교육내용(教育内容)을 통(通)해 이론비판능력(理論批判能力)을 배양(培養)시켜나감은 물론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장래 행동(行動)을 예측(予測), 적절(適切)한 대응책(対応策)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 피교육자(被教育者)는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능력(分析能力)을 통(通)해 산출요소(産出要素)를 더욱 발전적(発展的)으로 발휘(発揮)할 수 있는데, 현재(現在)의 상태로서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틀은 외부요소(外部要素)로 고려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즉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틀은 주어진 외적(外的) 요인(要因)으로가 아니라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공산주의(共産主義) 이론비판능력(理論批判能力) 내용(内容)으로 포함(包含)되어야 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21)

## 제(第)2절(節) 단기적(短期的) 관점(観点)에서의 개선방안(改善方案)

체계적(体系的)이고 안정적(安定的)인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효과제고(効果提高)와 함께 단기적(短期的) 조망(眺望)에서 우선 개선(改善)되야 할 사항(事項)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점(点)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1. 사례(事例), 실례위주(實例爲主)의 비판교육(批判教育)

옛말에 백문(百聞) 부여일견(不如一見)이란 말도 있듯이 이론(理論)과 실제(実際)의 승리(乘離)가 여타(余他) 학문(学問)의 경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점(点)에 비추어 특(特)히 이론상(理論上) 설득력(説得力)과 호소력(呼訴力)에 총력(総力)을 기울이는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주장(主張)의 오류를 여실히 증명(証明)하기 위해서는 객관적(客観的)인 사례(事例), 실례위주(実例為主)의 비판교육(批判教育)이 필요(必要)하다.

그 예(例)로서는 첫째, 2차대전후(次大戦後) 공산화(共産化)된 국가(国家)에서의 국민(国民)들의 비참한 생활상(生活像)이나 공산혁명후(共産革命後) 자행되는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만행을 소개(紹介)한 내용(内容)을 수록한 책자를 보급시켜야 하겠으며 둘째, 우리의 경우 특(特)히 자유월남의 패망과 같은 주변지역 국가 국민(国民)들의 나라잃은 서러움을 담은 시청각(視聴覚) 교보재(教補材)를 적극 활용(活用)하여22) 피교육자(被教育者)로 하여금 간주관성(間主観性)과 같은 공감각적(共感覚的) 동일인식(同一認識)을 유발(誘発)시켜야 할 것이며, 셋째, 산 반공교육(反共教育)의 현장(現場)을 찾아 책상머리에서의 비판교육(批判教育)을 탈피(脱皮)한 전사적지(戦史蹟地) 견학(見学)의 기회(機会)를 확대(擴大)하는 점(点) 등 몇 가지를 예시(例示)할 수 있다.

### 2. 동태적(動態的) 비판교육(批判教育)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활동(活動)은 현재(現在)에도 그치지 않고 세계(世界)도처에서 전개(展開)되고 있다. 즉 국제무대(国際舞台)에서 활동(活動) 대상국(対象国)의 민주화(民主化)·근대화(近代化)의 발전도(発展度)에 따라 때로는 활발(活溌)하게 때로는 표면(表面)에 나타나지 않게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암약 양상(様相)은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이런 점(点)에서 우리는 과거(過去)의 평면적(平面的)·정적(静的) 전달위주(傳達為主)의 비판교육(批判教育)의 방식(方式)을 보강(補強)하여 시사성(時事性) 있는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동향(動向)을 이론(理論)의 입장(立場)에서가 아닌 실제적(実際的) 전술(戦術)구사의 의미(意味)와 향후(向後) 전술전개(戦術展開)의 양상을 예측(予測)한 교육내용(教育内容)으로 동태적(動態的)인 차원(次元)에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의 실체(実体)를 벗겨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共産主義) 전략전술(戦略戦術)에 대한 체계적(体系的) 이해(理解)를 통(通)해 전략(戦略)과 전술(戦術)의 상관관계(相関関係), 전술(戦術)의 단계적(段階的), 주기적(週期的) 변화성(変化性) 등을 인식(認識)한 가운데 동태적(動態的)인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을 진행(進行)시켜야 할 것이다.

### 3. 의사발표방법(意思發表方法)의 활용(活用)

동태적(動態的) 이론비판교육(理論批判教育)의 중요성(重要性) 못지않게 고려 돼야 할 사항(事項)으로 피교육자(被教育者)로 하여금 직접 교관(教官)의 입장(立場)에서 공산주의(共産主義)의 허와 실에 대해 의사(意思)를 발표(発表)할 수 있는 기회(機会)를 제공(提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주장(主張)에서 볼 수 있는 변화무쌍한 내용(内容)을 단지 교관(教官)으로부터 듣고 이해(理解)하는 것만으로는 부족(不足)하며, 실제(実際) 자신(自身)이 터득한 내용(内容)이 객관적(客観的)으로 정확(正確)한 것이었는가 확인(確認)해 보는 것이 중요(重要)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対)한 잘못된 내용(内容)을 전달하고 이

해한 경우에는 차라리 교육이전(教育以前))의 단계(段階)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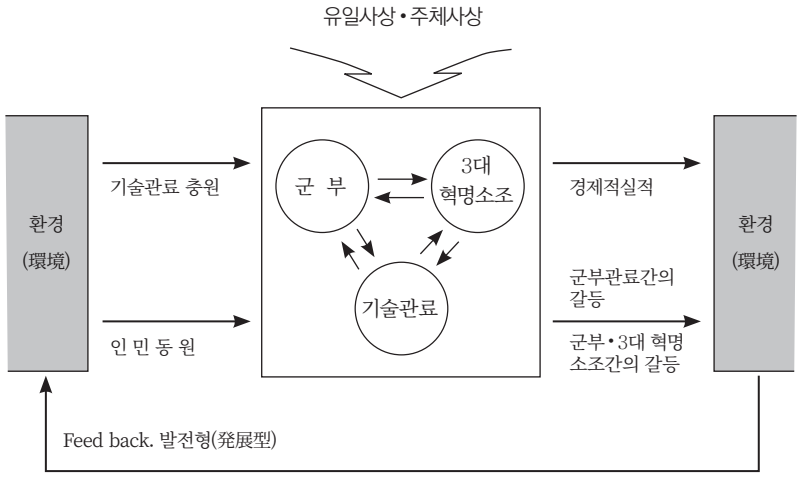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교육방법상(教育方法上) 시뮬레이션의 도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뮬레이션'이란 가상(假想)의 사건(事件)이나 상황(状況)아래 토의참가자(討議參加者)들이 동일(同一)한 사건(事件)·상황하(状況下)에서 취(取)하게 되는 대응방안(対応方案)의 제시(提示)에 초점(焦点)을 두고 있다. 즉,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의 구체적(具体的) 행동(行動)에 대(対)한 대비책(対備策)을 마련하는 가운데서 피교육자(被教育者)의 미래예측능력(未來予測能力)을 향상(向上)시킬 수 있다고 보겠다.

## 4. 대북괴(對北傀) 우위(優位)의 정신무장교육(精神武裝教育)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정확(正確)히 알고 대비(対備)하기 위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궁극적(窮極的) 목표(目標)는 우리의 입장(立場)에서 볼 때 북괴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는 북괴와의 이념전쟁(理念戰爭)에서 정신적(精神的)으로 절대우위(絶対優位)를 유지하기 위해 북괴의 내부사정(內部事情)을 체계적(体系的)으로 이해(理解)하고 비판(批判)할 목적(目的)으로 교육(教育)을 실시(実施)하고 있고 또한 교육(教育)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意味)에서 북괴 내부(內部)의 갈등(葛藤)을 분석(分析)하고 효과적(效果的)으로 대처(対処)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제론적(体制論的) 관점(観点)에서 북괴의 권력구조(権力構造)를 주지(周知)시키는 교육(教育)은 그 의미(意味)가 깊다고 하겠다.

〈표 6. 체제론적(体制論的) 관점(觀点)에서 본 북괴의 권력구조(權力構造)〉






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북괴는 유일사상(唯一思想)·주체사상(主体思想)의 테두리 내(內)에서 군부(軍部)와 3대혁명소조(大革命小組), 군부(軍部)와 기술관료간(技術官僚間)의 갈등(葛藤)이 심화(深化)되어가고 있다.

북괴의 권력구조(権力構造) 이외(以外)에 우리는 북괴(北傀)의 사회계층(社会階層), 직업구조(職業構造), 사회동원체제(社会動員体制) 등 북괴 사회체제(社会体制)의 모순과 갈등을 밝혀냄으로써 대북괴(対北傀) 우위(優位)의 정신무장강화(精神武装強化)와 함께 필승(必勝)의 자신감확립(自信感確立)을 위한 교육(教育)을 한층 강화(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실제(実際)와 문제점(問題点)을 고찰(考察)해 본 가운데 교육효과(教育效果)를 보다 증진(增進)시키기 위해 장기적(長期的) 관점(観点)과 단기적(短期的) 관점(観点)으로 나누어 교육실시상(教育実施上)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対)해 검토(検討)해 보았다.

표 7. 장기적(長期的) • 단기적(短期的) 개선방향(改善方向)

| 장기적(長期的) 개선방향(改善方向) | 단기적(短期的) 개선방향(改善方向) |
|---|---|
| 1. 교육과목(教育科目)의 세분화(細分化)<br>2. 종합적(綜合的) 비판능력(批判能力) 배양(培養)<br>3.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 비판능력(批判能力) 함양(涵養) | 1. 사례(事例)·실례위주(実例為主)의 비판교육(批判教育)<br>2. 동태적(動態的) 비판교육(批判教育)<br>3. 의사발표방법(意思発表方法)의 활용(活用)(Simulation)<br>4 대북괴(対北傀) 우위(優位)의 정신무장(精神武裝) |

본고(本稿)가 비록 앞서 제(第)1장(章) 마지막 부분(部分)에서 연구(研究)의 한계점(限界点)에 대(対)해 지적(指摘)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問題点)을 안고 있는 가운데 연구(研究)를 진행(進行)시켰지만 앞으로 같은 방향(方向)의 연구활동(研究活動)이 계속 축적(蓄積)되길 기대(期待)하면서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 비판교육(批判教育)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해 표 7과 같이 종합(綜合) 정리(整理)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주 해(註 解) -**

1) 국토통일원(国土統一院), "남북한(南北韓)의 이질화(異質化)", 서울 : 국토통일원(国土統一院), 1977.

2) 국군정신전력학교(国軍精神戰力学校), "공산주의(共産主義) 이론비판(理論批判)," 서울 : 국군정신전력학교(国軍精神戰力学校), 1984.

3) 안병영(安秉永), 「북한정치(北韓政治) 엘리트의 구조분석(構造分析)」, 아세아연구(亜細亜研究),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6.

4) 국군정신전력학교(国軍精神戦力学校), “공산주의(共産主義) 이론비판(理論批判),,” 서울 : 국군정신전력학교(国軍精神戦力学校), 1984, p.3.

5) A. W. Gouldner,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N. Y. : Basic Books, 1970), p.p.51～53.

6) 최평길(崔平吉), “공산권(共産圈) 연구방법론(研究方法論).”(정경연구(政経研究)). 1976년(年) 10, 11월호.

7)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 Alfred A. Knopf, 1953), p.126.

8) 김해동(金海東), 조사방법론(調査方法論), 서울 : 법문화(法文化), 1982, P.65.

9) 연구(研究)의 대상(対象)에 대(対)한 지적(知的) 관심(関心)은 사실상 자료(資料)의 획득(獲得)이 용이(容易)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의해 많이 좌우(左右)되기 마련이다.

10) Vic George & Nick Manning, Socialism, Social Welfare And The Soviet Union, p.p.180～184

11) H. Gordem Skilling & Frankliri Griffths(eds.), Interest Groups in Soviet, (Politics, Princeton, N. J., 1971).

12)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외형적(外形的) 특성(特性)을 강조(強調)하다 보면 구체적(具体的) 흐름의 변화(変化), 즉 내면적(内面的) 다양성(多様性)을 인식(認識)하는 데 제한이 따르게 된다.

13) 이와 같은 분석방법(分析方法)은 흔히 사례연구(事例研究)(Case Study)라고 한다.

14) L. A. Pervin, Personality : Theory, Assessment and Research,(2nd ed.)(New York : Wiley, 1974), p.382.

15) 이극찬(李克燦), 정치학(政治学), 서울 : 법문사(法文社), 1979, p.107.

16) H. Gordem Skilling & Franklin Griffths, op.cit., p.89.

17) 장을병(張乙炳), 「엘리트 충원(充員)과 리더십 배분(配分)」, 북한(北韓), 1975. 12.

18) 국군정신전력학교(国軍精神戦力学校), 공산주의(共産主義) 이론비판(理論批判), 1984. p.3.

19) 공산주의전략(共産主義戦略)은 구체적(具体的) 전술(戦術)에 의해서 가리워지기 쉽다. 따라서 전략(戦略)·전술(戦術)의 상관성(相関性)과 개념(概念)에 대한 올바른 이해(理解)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중요(重要) 요소(要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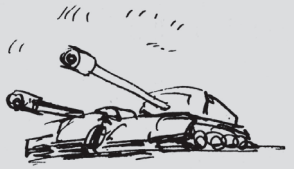
20) 일례로 해방신학의 경우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는 종교(宗教)를 개인적(個人的) 차원(次元)의 구원에서 해석하지 않고 사회문제(社会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한 실천적(実践的) 의미(意味)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神学的) 관점(観点)에서의 비판능력(批判能力)이 필요(必要)하다는 사실(事実)을 알 수 있다.

21) 투입요소(投入要素)로 사회과학적(社会科学的) 분석(分析) 틀을 포함(包含)시킬 때 결부(結付)되는 사항(事項)으로 교관(教官)의 자질(資質)과 전문성(専門性)을 지적(指摘)할 수 있다.

22) 난민의 경험담(経験談) 및 현재(現在)의 생활실상(生活実状)을 담은 교보재(教補材)의 활용(活用)은 간접체험(間接体験)을 통(通)해 교육효과(教育効果)를 제고(提高)시키는데 기여(寄与)할 것이다.

신좌경사상비판
新左傾思想批判

# 종속이론(從屬理論)과 우리의 현실



소위 전 상 배
〈군수사〉

## Ⅰ. 서언~종속이란?

종속이론에서 말하는 종속(Dependencia)이란 특히 발전된 국가들에의 저발전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말한다. 비록 지배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1960년경부터 라틴아메리카의 보다 더 체계적인 사회과학들에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유럽에 있어서의 사회과학들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상태의 해석을 주로 결정하고 있는 종속이론들은 발전과 저발전은 서로 제약하고 구조적으로 상호관련된 통일된 하나의 자본주의체제의 부분국면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체제 속에서 중심국가 및 사회들 그리고 변방의 국가와 사회들 간의 관계가 종속이라는 개념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는 기본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종속'은 일정한 국가들의 경제가 그에 예속되고 있는 어떤 다른 나라 경제의 발달과 확장에 의해 제약되고 있고, 둘 또는 그 이상의 국민경제들과 세계무역 간의 상호의존관계는 물론 그 국민경제들 사이의 상호의존관계가 소수(지배적인) 나라들이 팽창하여 자신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다른(종속적인) 국가들이 자기나라의 직접적 발전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작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팽창의 반사만을 할 수 있는 경우 종속형태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산토스(Santos)는 이해 하고 있다.

종속이론가들이 지칭하고 있는 종속의 상황이란 변방국가 내의 경제과정이 그 국가 외부의 과정들에 의해 제약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종속이란 외부의 투입(외국의 자본이나 기술)이 없으면 산출을 확대시킬 자체능력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속이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론이 이론으로서의 확실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현재 많은 문제점이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도하는 혹자가 있는 관계로 이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이 이론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설명함에 부적당함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 Ⅱ. 종속이론의 내용

종속이론은 그 발전단계를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1단계는 UN의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 (ECLA)의 책임자였던 라울 프레비쉬(Raúl Prebish)가 1949년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남미 제국의 경제발전 부진의 이유로 중심국과 변방국 사이의 불평등 교환관계를 들고 그 시정책으로 수입대체산업의 강화를 건의한 시기이다. Prébish의 건의에 따라 남미 제국은 수입대체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공업화정책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저발전의 가속화였다. 그 주요한 원인으로 다국적기업의 확산과 외채의 누증이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종속이론은 구체적 내용을 갖추기 시작하였는데 1960년대 중기부터 Frank와 Dos Santos 등은 저발전의 원인을 외세의 침투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제2단계). 이는 1970년대초 Sunkel과 Furtado 등 온건론자에 의해 비판과 수정을 받았으며(제3단계) 오늘날에는 실증적인 검증에 역점을 두고 있다(제4단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종속이론의 기본적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들은 제3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을 제3세계의 외부요인에서 구하고 비교우위론과 확산이론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발전이론을 비판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제3세계의 독립은 식민제국주의의 청산이 아니라 다만 종주국의 교체와 산업의 진척에 따른 지배형식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세째로,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면 종속국의 경제는 지배국의 경제적 수요에 연동되며 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대응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네째로, 오늘날의 남북경제관계가 맺고 있는 이른바 기술산업형 종속체계의 주요한 매체는 다국적 기업이며, 다국적기업은 종속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역할에 비해 역기능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종속이론은 국제체제 즉 국제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중심」과 「변방」의 2대 범주 또는 「중심」, 「준변방」, 「변방」의 3대 범주로 유형화하고 각 범주 간의 관계를 불평등 교환 또는 착취관계로 상정한다.

## Ⅲ. 종속이론의 일반적 문제점

이상과 같은 종속이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로, 이제까지 강대국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개발이론에 대체되는 제3세계 스스로의 개발이론이라는 점에서 학문의 자주성 내지 주체성이 평가되는 경우이고, 둘째로 선

진국의 외재적 요인이 후진국의 내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과론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평가인데 이것은 종래 확산이론가들의 방법론적 결함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이와 같은 부분적인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탈보편성과 지나친 혁명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학문적 이론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종속이론이 그 핵심적 목적을 자본주의체제의 긍정적 발전에 두지 않고 이의 파괴를 위해 형성, 전개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의 전이론체계는 "현재의 여기"를 파괴하고 거부하는 비판, 부정, 혁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이론은 현실부정적인 실천적 혁명이데올로기로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 1. 연구범위의 편향

종속이론은 그의 연구대상과 범위를 편향시킴으로써 하나의 이론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성을 잃고 이로 인하여 합리성과 과학성을 결하고 있는 것이다.

가. 종속이론은 종속을 2분법적 변수로 단순개념화시킴으로써 객관성을 잃고 있다. 즉 모든 국가를 〈종속〉 아니면 〈비종속〉 또는 〈중심〉 아니면 〈변방〉 이라고 구분하고 이 종속-변방국가와 비종속-중심국가는 피착취와 착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밀접할수록 중심국가는 발전하고 변방국가는 저발전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는 이론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종속과 비종속의 구분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는 종속국가와 비종속국가는 전위될 수도 있는 것이며, 종속과 비종속의 사이에는 회색지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후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무역체제에 통합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많은 제3세계 국가군-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리비아 등-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종속이론의 탈종속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종속이론은 편향적인 사례를 토대로 전개된 주장이다. 즉 이들은 그 사례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만 캐냄으로써 종속현상을 자본주의 세계의 전유물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동구권의 종속현상을 도외시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 종속이론은 다국적기업 등 민간해외투자가 착취적이고 위해롭다는 편견 아래 이론을 전개한다. 사실 민간의 투자는 이윤추구에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분야를 제외한다면 민간의 해외투자는 거의가 주고 받는 상호보완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 종속이론가들은 중심-변방의 관계로 인하여 국가간은 물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 대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은 있을 수 없듯이 불평등한 분배는 종속경제의 현실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성장의 초기단계를 상징하는 특징이기도 하며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부자와 빈자는 엄존한다는 것을 상기하여야만 할 것이다.





마. 종속이론가들은 국제관계의 힘(선진국의 영향력)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저발전국 자신의 영향력이나 책임은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속이론가들이 즐겨 인용하고 있는 일본의 근대화는 그들의 주장처럼 일본이 국제정치체제에 편입되어 착취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힘과 발전의지의 결과로 파악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 2. 탈종속모델의 허구

종속이론가들은 국제적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경제원조체제하에서는 제3세계의 진정한 발전이 도모될 수 없기 때문에 혁명과 사회주의를 주축으로 한 탈종속만이 변방국가의 실질적인 발전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 예로 중공, 쿠바 및 탄자니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상기 3국은 각각 그 허를 드러나게 되었으니 중공에 있어서 최근의 시장개방 정책과 탄자니아에 있어서의 니에레레대통령의 정책변경, 그리고 쿠바에 있어서는 소련에 의존하는 종속관계로의 선회가 그것을 실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 Ⅳ. 종속이론의 한국적 적용의 문제점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종속이론은 그 자체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지만 그 이론의 주된 대상국인 남미와 우리나라와는 서로 다른 제반여건상 그 이론의 한국적 적용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와 남미 제국과의 상이점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역사적 전통이 남미의 그것과는 다르다. 남미 제국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세기 전부터 미국이나 서구제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농산물, 광산물 등 1차산품은 싸게 수출되고 공산품은 비싸게 수입하는 불평등교환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적 접촉은 선진국의 경제적 욕망에서 보다는 지정학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착취는 일제의 통치기간을 제외하면 없는 것 또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그 자연적 조건에서 남미 제국과 상이하다는 것이다. 남미 제국은 풍부한 부존자원과 1차산품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중남미 제국은 지난 20년간 공업화의 노력이 미약한 채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1차산품의 수출과 공산품의 수입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쉽게 선진국에 종속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수출량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종속이론의 타당성이 희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미와 달리 부존자원의 빈곤으로 인력과 기술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서만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찌기 인식하여 현재의 남미 제국과 같은 상황을 미연에 막았던 것이다. 참고로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79년 말 현재 중남미 제국과 우리나라의 공산품대 1차산업의 수출구성비를 보면 아르헨티

나가 24:76, 브라질이 39:61, 칠레가 20 : 80, 멕시코가 39:61, 우리 한국이 89: 11로 현격한 수출구조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수출구조의 차이는 각국 제조업의 성장률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지난 60년대 한국의 제조업 연평균성장율은 17.6%에 달했음에 비해 중남미 제국은 멕시코의 9%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5%선을 유지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70년대에도 한국은 16.6%, 브라질이 10.3%, 기타 국가는 6%를 기록한 것을 보면 확연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이론이 한국의 현실에 적용될 수 없음은 우리나라가 중심 - 변방이론에 부합되지 않음이다. 종속이론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변방국가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는 중심국 경제체제에 통합됨으로써 저발전과 종속관계가 심화된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면에서 최근 20년 동안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여 왔고 수출면에 있어서도 기간중 약 320배의 증가를 이룩하였다. 그 결과 세계무역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점하는 비중도 1968년에는 0.21%이던 것이 1978년에는 1.07%로 5 배 성장하였고, 1984년에는 1.57%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신장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체제와 관련을 맺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절대적 성장은 물론 상대적 성장도 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몇 차례의 의욕적인 대외의존적 경제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급자족적 폐쇄경제체제를 채택하였더라면 이러한 성장은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종속이론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외채문제도 그 성질이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다. 우선 장기외채와 단기외채의 비율이 3 : 1(1974년에는 4 : 1)인 것과 다음으로 외채의 용도가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견고성과 앞날의 희망을 더욱 안겨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것화함으로써 부존자원의 부족과 기술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협소한 국내시장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몇 차례의 오일쇼크와 불황을 헤쳐가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어떠한 중심국의 간섭도 없이 우리의 자주성과 국가이익의 통합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종속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속국가의 선진국과의 통합에서 오는 저발전의 악순환은 우리에게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음은 그 이론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상당한 부분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는 관계로 분단상황에 공산도발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하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과격한 개혁주의는 공산도발주의자들에게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종속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대표되는 현존체제의 타도를 목적으로 한 남미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마르크시즘이 통합되어 형성된 하나의 혁명이데올로기로 파악되는데, 이때 종속이론은 현실부정과 비판인식을 저항적 민족주의에 두고 이의 혁명적 시각을 네오 마르크시즘에 두며,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분석적 틀은 레닌적 제국주의론에서 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은 폭력혁명에서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속이론의 체제파괴적, 폭력적 특성은 우리의 분단상황에서 받아 들여져서는 안됨이 명백하다.





## V. 결론-대책과 우리의 각오

이상에서 우리는 종속이론의 내용과 그 이론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낼 수 있었다. 대저 모든 학문적 이론을 수용하는 데에는 그 이론의 체계적인 이해와 비판적인 수용과정이 필요한 것이며 종속이론 또한 그와 마찬 가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종속이론가들이 자국의 역사와 현실을 자아준거적 시각으로 조명해 보았다는 점과 제3세계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내재요인 뿐만 아니라 외재요인도 고려했다는 점 등은 한국의 발전론자들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종속이론이 제시하는 제반 명제나 가설 또는 발전대안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본고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위험천만의 일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공산모험 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녕코 종속이론이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음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 이념적 현실이 그 이론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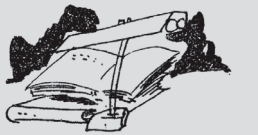
천보 만보를 양보한다고 하자, 어느 나라든지 완전한 독립은 있을 수가 없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공산권국가든, 자유진영권국가든 할 것 없이 각국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후진국도 꾸준히 참고 견디며 자기혁신과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에로 발돋움할 수도 있으며, 현재의 선진국도 기술 개발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그 위치가 반전될 수도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의 제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항상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로 현실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선진조국창조와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국민총화로 매진해야 함을 감안할 때 종속이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민족적 자각과 주체의식을 갖고 능동적인 비판과 민족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공군만평(空軍漫評) □

경계하자 — 북괴의 폭력음모

신좌경사상비판
新左傾思想批判

# 종속이론의 허구성과 우리의 자세



소령 정 재 원
〈공군대학〉

－목 차(目 次)－

1. 서론(序論)
2. 종속이론의 본질(本質)
3. 종속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비교(比較)
4. 탈(脫) 종속대안(從屬代案)의 허구성(虛構性)
5. 종속이론과 우리의 현실(現実)
6. 결론(結論)

## 1. 서론(序論)

흔히 말하기를 모르고 행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고 관용(寬容)을 베푸나, 알면서 행한 일은 엄중(厳重)하게 다스린다.

현대(現代)에 살고있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정보(情報)와 지식(知識)의 홍수 속에서 이들을 접(接)하면서도 대개 어렴풋하게 알고 지내는데, 때로는 자신감(自信感)없고 짧은 지식(知識)을 가지고 마치 자기만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몹시 난처한 입장(立場)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重要)하게 여기는 이른바 이념적(理念的)이고 사상적(思想的)인 문제(問題)인 "신좌경사상(新左傾思想)"을 올바른 이해(理解)와 냉철한 비판

(批判)과 판단(判断)이 결여된 상태로 일부 계층의 과격(過激)한 시위행동(示威行動)으로 사회를 혼란(混乱)과 무질서(無秩序)를 자아내게 하여 온 국민(国民)의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속이론"에 관해서 올바른 이해(理解)를 돕기 위해 그의 실상(実像)과 허구성(虛構性)을 알기 위해 현재(現在) 우리나라의 실정(実情)을 경제적(経済的)인 측면(側面)을 고찰(考察)하여 과연 경제적(経済的)인 종속이 있나 살펴 보겠다.

종속이론(従屬理論)은 그 자체(自体)가 독자적(独自的)으로 생겨난 이론(理論)이며 Neo-Marxism, New-Left운동, 해방신학, 매판자본 등의 급진사상(急進思想), 즉 현대판(現代版)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맥락에서 출현(出現)하여 이것들이 반정부(反政府), 반체제운동(反体制運動)으로 발전(発展)하면서 세계를 뒤흔들었던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구미(欧美)사회와 일본(日本) 등에서 그의 정체를 볼 수 있었다. 그 운동이 학생운동과 연결되어 일본에서는 오끼나와를 미국으로부터 반환하는 사태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월남을 베트콩 공산집단에게 넘겨주게 한 것이 되었다.

우리의 분단현실(分断現実)은 국민화합(国民和合)을 토대로 하여 민족(民族)의 숙원인 남북(南北)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성취(成就)하는 것 만이 우리나라가 외세(外勢)의 종속(従属)을 면하는 길이며 민족(民族)이 생존(生存)하고 번영(繁栄)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론(国論)의 통일(統一)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現実)을 감안하여 "종속이론" 등 급진사상(急進思想)의 이질적(異質的) 이데올로기들이 우리사회에 유입(流入)되어 국론(国論)을 분열(分裂)시키고, 국가안보(国家安保)를 해(害)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본질(本質)과 목적(目的)이 무엇인가를 분석검토(分析検討)하여 좌경화의식을 극복하는 방안(方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 2. 종속이론(従屬理論)의 본질(本質)

종속(Dependency)은 그의 대칭적(対称的)개념으로서 독립(Independency)을 연상케 하며 이것이 정치권력(政治権力)의 관계에서는 지배(支配)-복종(服従) 관계로 표현(表現)된다. 또 이것을 다시 국제(国際)관계에 적용(適用)하면 종주국(宗主国)-종속국(従屬国)의 대칭적(対称的) 의미(意味)로 사용(使用)되기도 한다.

종속이론가(従屬理論家)들에 의하면 자본주의세계(資本主義世界)에서는 국제(国際)관계가 종주국(宗主国)과 종속국(従屬国)의 관계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그들은 중심부(中心部)와 주변부(周辺部) 즉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자본주의권(資本主義圈)을 형성(形成)하여 항상 후자(後者)의 경제적(経済的) 가치(価値)가 전자(前者)에게 빼앗기는 결과(結果)가 되어 양자간(両者間)의 종속관계는 날로 심화(深化)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주변관계를 폭력혁명(暴力革命)에 의해서 단절(断絶)하고 독자적(独自的)인 사회주의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경제개발 전략(戦略)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国際社会)에는 완전한 독립(独立)도 완전한 종속(従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정치(政治), 경제(経済), 문화(文化), 군사적(軍事的)으로 협조(協助), 보완(補完)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속이론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경험과 자연적 환경 속에서 출현(出現)하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제3세계 국가군(国家群)에 속하는 라틴아메리카 특히 중남미(中南美)는 16세기 이래(以來) 약 300년간 스페인, 포르투칼 등의 유럽 열강들에 의하여 식민통치(植民統治)를 받아 오다가 19세기에 접(接)어들면서 정치적(政治的) 독립(独立)을 쟁취하게 되었다.

남미제국(南美諸国)은 독립 후 약 1세기 동안 (1830~1930) 주로 1차산품(次産品)(농, 광산물) 수출에 의한 외부지향적(外部指向的) 경제발전(経済発展) 전략(戦略)을 채택하여 왔으나 제1차 세계 대전과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기(経済大恐慌期)를 맞이하여 수출이 둔화되고부터 남미제국(南美諸国)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48년 유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의 개발전략(開発戦略)인 내부지향적(内部指向的) 수입대체산업화정책(輸入代替産業化政策)이 등장(登場)하게 된 것이다. ECLA의 초대(初代) 사무총장인 프레비쉬(Raul Frebish) 등의 종속이론가들에 의하면 1차산품의 수출로는 선진공업국(先進工業国)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이 산업화(産業化)하여 수입대체공업을 육성(育成)하고 오히려 공산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데서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발전략(開発戦略)에 따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외자(外資)와 기술, 기계, 원료 및 용역 등의 도입(導入)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R. 프레비쉬 등 종속이론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国内)의 소비(消費)가 저조(低調)하고 계속적인 외래공산품(外來工産品)의 수입(輸入)이 늘어나게 되자 남미의 수입대체산업체는 막대한 외채의 압박(圧拍)을 받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남미제국(南美諸国)은 지난 60년대 초(初)부터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재고(再考)하게 되었다. 산토스(Theotonio Dos Santos), 프랭크(A. G Frank) 등의 급진적(急進的) 종속학파(従屬学派)들에 의하면 ECLA의 정책인 「대외협력(対外協力)」이나 국제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저발전국가(低発展国家)에게는 종속상태를 더욱 심화(深化)시킬 뿐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급진적 종속이론가들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자본주의(中心資本主義)와 주변자본주의(周辺資本主義)의 양극적(両極的) 발전(発展)이라는 모순을 자조하기 때문에 폭력혁명(暴力革命)에 의해서 중심-주변관계를 단절(断絶)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종속이론(従屬理論)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비교(比較)

종속이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과 트로츠키 등에 의해 체계화(体系化)된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전(古典) 마르크스론자들이 미쳐 주목하지 못한 새로운

탐구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이론체계(理論体系)를 형성(形成)하였다. 물론 종속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시대적(時代的)인 배경과 분석(分析)의 촛점은 다르고 이론적(理論的) 배경도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직접적인 교과서(教科書)로 삼기보다는 일련(一連)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업적(業積)과 근대화확산이론(近代化拡散理論)에 터를 두어 논리전개방식(論理展開方式)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比較)해 보면 이해(理解)에 도움이 된다.

### 가. 유사점

(1) 소수에 의한 경제잉여의 착취와 횡령

(2) 중심과 주변의 양극화(両極化)

(3) 기본구조(基本構造)의 불변(不変), 즉 통치(統治) 엘리트를 매판시(買辦視)함으로써 착취의 하수인(下手人)으로 취급하는 형태.

### 나. 차이점

(1)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経済)의 파악방식. 즉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국민경제(国民経済)의 범주 내에서 생산(生産)과 재생산(再生産)으로 분석(分析)했지만 세계적 시각에서 국민경제간의 메카니즘을 분석하지 않았다.

(2) 제3세계의 발전문제(発展問題)를 종속이론가들은 비확산(非拡散) 및 비단선론자(非断線論者)들인데 반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단선 및 확산론자임.

(3) 마르크스론자들이 자본주의 단계를 제3세계가 거쳐야 할 필연의 단계로 간주한데 반해 종속이론자들은 이를 부정한다.

(4) 생산관계의 분석과 초점을 마르크스는 사회구성체(社会構成体)의 한 속성(属性)인 계급대립론을 전개(展開)하나 종속이론은 국제자본주의 입장에서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5) 마르크스주의자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강조(強調)한데 반해 종속이론가는 민족이익을 강조하였다.

## 4. 탈(脫) 종속대안(從屬代案)의 허구성(虛構性)

산토스 등의 급진주의자(急進主義者)들은 전술(前述)한 ECLA의 방법에 의해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국가가 제1세계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폭력혁명(暴力革命)만이 유일(有一)한 탈(脫) 종속대안(從属代案)이며 저발전국간의 지배(支配) -복종(服従)관계를 단절(断絶)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속이론가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분석시각(分析視覚)에 의해서 선진자본주의(先進資本主義) 국가와의 제국주의적(諸国主義的) 경제발전(経済発展) 전략(戦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탈종속(脱従属) 모델로 하였던 것은 쿠바 카스트로의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혁명노선(革命路線)과 모택동(毛澤東)의 자력갱생(自力更生) 사회주의 경제개발 전략(戦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주의와 사회적 집단주의(集団主義)만이 남미제국의 경제적 후진과 종속을 극복(克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스트로의 독자적(独自的)인 민족해방혁명노선(民族解放革命路線)은 그후 얼마 안가서 소련의 지배하(支配下)에 종속되었고 또 모택동의 자력갱생 개발전략은 국제적 고립과 빈곤만 남겨 놓은채 완전한 실패(失敗)로 끝나게 되었고, 그 뒤의 등소평체제(鄧小平体制)의 개방정책(開放政策)에 의한 실용주의노선(実用主義路線)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속이론이 얼마나 비현실적(非現実的)이며 허구적(虛構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속이론은 「국제간의 평등」, 「인간의 소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측면을 강조(強調)하는 네오-마르크시즘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혁명(革命)의 주체(主体)를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아니라 지식인(知識人)과 청년학생(青年学生)을 등장(登場)시키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종속이론가들은 남미(南美)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남미의 경험적 소산물이라는 차이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이론은 남미의 특산물(特産物)이며 이것을 제3세계국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適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국제적 고립과 빈곤,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국가와 특히 중공이 오히려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과 이윤동기(利潤動機)를 받아들여 경제적 생산성을 크게 향상(向上)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구(東欧)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의 활발한 교역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소련도 리베르만 이윤동기와 방법을 채택하여 큰 성과를 얻은 것이다. 특히 소련에서는 각 개인에게 허용된 자류지(自留地)가 전체 농지면적의 1% 밖에 되지 않으나 거기서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농작물들이 국영 혹은 집단농장에서 생산하는 양(量)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텃밭에서 생산하는 감자는 전국적인 총 생산량의 61%나 되고 야채, 육류, 우유 등은 각각 29%, 계란은 34%를 생산하고 있음을 볼 때 국영농장과 개인 텃밭에서의 생산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종속이론가들이 탈종속대안(脱従属代案)으로 사회주의 방법을 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5. 종속이론(從屬理論)과 우리의 현실(現實)

종속이론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출현 하였다함은 전술(前述)하였다. 종속이론가들은 제1세계군(群)을 미국, 소련 등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会)를 지칭하나 그 중에서

도 특히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2세계군(群)은 미·소보다 하위(下位)의 선진공업국가(先進工業国家)를 말하며 제3세계국가군(群)은 라틴아메리카(약 29개국), 아시아(약 20개국), 아프리카(약 45개국) 등지의 신생국가(新生国家)이며 주로 저발전(低発展) 농·공업국가군(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제3세계국가군(群)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산업발전면(産業発展面)에서 볼 때 여타의 제3세계국가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60~83년까지의 세계 각지의 연평균 GNP 성장률은 동남아국가들이 3.6%, 라틴아메리카 4.6%, 아프리카 3.1%, 구미(欧美) 선진공업국가 2.8%, 한국 9.0% 등으로 한국이 고도의 성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제국은 수입대체산업(輸入代替産業)에 실패(失敗)하였으나 우리의 경우는 제3세계국가군(群)에서 수출산업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国家)이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70년 초에는 8억 달러였던 것이 84년에는 245억 달러로 급성장하였고 88년에는 450억달러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종속이론가들의 중심(中心)-주변(周辺)의 착취이론과는 달리 우리의 수출 상대국은 주로 중심국인 미국과 EC국가 등 선진공업국가들이기 때문에 중남미의 제국가들과는 양상이 다르며, 따라서 우리 현실에는 종속이론이 적용(適用)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원래(原來)부터 부존자원(賦存資源)이 없었던 우리경제는 외채(外債)에 의존(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난 1984년 말 외채(外債) 총액 435억달러에 중동건설업체(中東建設業体) 등의 해외현지(海外現地) 직접 채무와 약 17억달러에 달(達)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 등을 합치면 총(総) 5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낙관론(楽観論)과 비관론(悲観論)이 대두되어 우리나라에도 종속이론의 출현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외채(外債)가 늘어나게 된 이유(理由)는 국민경제의 대다수(大多数)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산업(輸出産業)의 육성(育成)과 도로, 지하철, 항만, 댐, 교량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投資)를 위해서 그리고 동력확보(動力確保)를 위한 발전소 건설 및 관계수리시설, 경지정리, 농·어촌개발, 영농의 기계화 등 투자(投資)가 늘어났으며 여기에다 그동안 유가인상(油価引上)과 국제금리인상(国際金利引上) 등의 외적요인(外的要因)이 더욱 외채(外債)의 규모(規模)를 크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자(外資)에 의존(依存)해 온 것은 원래(原來)부터 가진 것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연간 4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지속적인 수출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분단현실(分断現実)에서 오는 기타의 안보상(安保上)의 이유에서도 국제분업체계(国際分業体系)가 필요했던 것이다.

국제사회(国際社会)에서 해외원조(海外援助)와 외채(外債)에 의한 경제발전(経済発展)의 성(成), 패(敗)의 예를 살펴 보면 1930년대에 캐나다(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일(同一))는 13억 3천만 파운드(1인당 127파운드)의 외채를 갖고, 적은 인구에 비(比)하면 많은 외채를 지면서 성공한 나라이고 일본(영국 동일(同一))은 2억 6천만 파운드(1인당 4파운드)의 외채를 지고 많은 인구와 소규모의 외자로 성공한 나라이다. 그러나 인도(인도네시아 동일(同一))는 10억 파운드





(1인당 2.5파운드)의 많은 외채(外債)와 인구임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영국과의 식민상환(植民償還)의 방법으로 외채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예로 일본은 2천억달러,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약 3천억 달러, 캐나다는 1천억 달러의 외채(外債)를 지고 있으나 이들 나라들은 외상수출 대금의 수금과 외환보유액을 상쇄하면 채무국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 모든 것을 공제하여도 아직 순외채(純外債) 310억 달러가 남게 되어 채무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외채(外債)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경우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분간 외채의존(外債依存)이 불가피하며 다만 그 규모(規模)를 줄여 가면서 외채(外債)의 중압(重圧)을 극복(克服)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속이론가들의 종속대안처럼 국제분업(国際分業)을 단절(断絶)하고 사회주의 모델을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종속이론 등 급진사상(急進思想)이 타당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종속이론을 신중(慎重)하게 다루는 것은 실천이론(実践理論)으로서의 갖는 이데올로기적(的) 성향(性向)과 한국적 상황에 대한 적실성(適実性)의 결여때문이다. 종속이론이 사회주의 혁명(革命)을 발전대안(発展代案)으로 제시(提示)한다는 문제는 남북분단(南北分断)이라는 우리의 특별(特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실천이론(実践理論)의 접근은 각별히 신중을 요하는 것이다. 종속이론의 맹목적인 수용과 무비판적인 논의(論議)는 현실적(現実的)으로 악용(悪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종속이론을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준거해서 보다 적실성(適実性)있게 비판적으로 재구성(再構成)하는 주안점을 두어서 한국과 남미제국과 구별짓는 상황의 특수성을 몇 가지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외종속(対外従属)은 남미에 비(比)해 그 역사가 짧으며 종속의 성격(性格) 또한 다르다.

둘째, 한국은 중심부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협조(協助)관계로 성립(成立)되어 있기 때문에 남미와 그 경우가 다르다.

셋째, 한국은 비교우위(比較優位) 자유무역 정책에 토대를 둔 고전적(古典的) 종속의 단계를 거치지않고 신식민(新植民) 주의(主義)단계로 이행했고 남미에 비(比)해 대외지향적(対外指向的) 개발정책(開発政策)도 뒤늦게 채택했기 때문에 고전적(古典的) 종속단계를 거친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종속의 사회경제적 위기 즉 저발전(低発展)의 심화(深化)정도가 다르다.

넷째, 한국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서와 같이 국가(国家), 다국적기업(多国籍企業), 국내자본가(国内資本家)의 3각적 제휴는 국가의 주도적(主導的) 역할하에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메카니즘의 골격(骨格)을 형성(形成)하고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진척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했다.

다섯째, 외국자본의 침투에 따른 한국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다국적 가업의 중심국의 경제적 수취의 결과라기 보다, 국내기업(国内企業)에 대한 국가의 특혜정책(特恵政策)과 그 결과로

빚어낸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집중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섯째, 단순히 외채의 절대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대외종속의 정도가 비슷하지만 외채(外債) 관리능력과 상환능력(Debt Service Ratio)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찰로 우리는 남미제국에서 말하는 종속의 개념이 확실히 다르다.

## 6. 결론(結論)

제2차세계대전 후의 신생독립국가(新生独立国家)로서 제3세계국가군(群)에 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생활(経済生活)에 있어서 남미(南美)의 특산물(特産物)인 종속이론(従属理論)이 고개를 들 염려도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앞에서도 논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발전(発展) 제안(提案)이라는 것은 외채(外債)의 부담(負担)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진공업국가(先進工業国家)와의 국제교역(国際交易)을 단절(断絶)하고 사회주의적인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경제개발 전략에 따라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으나 이것은 저발전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종속론자들의 탈종속(脱従属) 대안(代案)으로서는 우리경제의 완전한 파멸과 불행을 초래할 것이며, 오늘날 중공을 비롯한 많은 공산국가에서는 오히려 대서방(対西方)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또 자본주의적인 경제개발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속이론은 아주 허구적(虚構的)이고 비현실적(非現実的)인 것임이 판명(判明)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제가 외채(外債)로 누적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기 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갚아나가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외채낙관론(外債楽観論)과 외채비관론(外債悲観論)이 나돌고 있으나 분명(分明)한 것은 낙관(楽観)도 비관(悲観)도 아닌 외채상환(外債償還)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財産)도 없고 중남미(中南美), 인도, 중동(中東)처럼 풍부한 자연자원(自然資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우수한 인간자원(人間資源)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거국적(巨国的)인, 국민운동(国民運動)으로 외제품(外製品)의 소비(消費)를 억제하고 국산품(国産品) 사용과 저축에 힘을 기울여 외화(外貨)를 절약하고 외화를 재생산(再生産)에만 투입(投入)하여 수출(輸出), 소득(所得), 저축 등을 증대(増大)시키는 길 만이 외채의 압력(圧力)을 극복(克服)하게 되며 그것이 국력(国力)이 되고 또 이 국력을 토대로 하여 남북(南北)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성취(成就)하는 것이고 비로소 이 땅에는 안정(安定)과 번영(繁栄)이 꽃필 때 우리 사회는 불신(不信)과 혼란(混乱)이 사라지고 종속이론 등과 같은 좌경사상(左傾思想)과 공산주의이론(共産主義理論)이 발붙일 수 없게 되며 우리 민족(民族)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 공군만평(空軍漫評) □

◎ 국민정신교육 9대덕목 – 주인의식(主人意識) : 내 인생과 내 운명에 대한 책임

신좌경사상비판
新左傾思想批判

# 유로 코뮤니즘의 본질과 우리의 자세

대위 서 휘 석
〈교육사〉

## 1. 머리말

세계 공산주의는 1917년 10월혁명 이래로 일련의 공산주의 변천과정을 거쳐 1970년대 중반부터 Eurocommunism이라고 하는 수정공산주의의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그 표방하는 바가 이른바 민주주의적 방법을 채택한 획기적인 것으로서 전례없는 숱한 해석과 논란을 낳으며 동서 양진영과 좌우의 정치세력으로부터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이란 용어는 유럽 공산주의(European Communism)란 말의 압축어로서, 서구의 지배적 공산당인 이태리, 프랑스 및 스페인 공산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새로운 조류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들 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주노선을 표방하며 대의제적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속에서 사회주의로의 길을 걸을 것을 다짐하고 현존 공산주의 체제와 구별되는 민주주의적 다원주의적 사회주의 모형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유로코뮤니즘이 근년에 들어 활발한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새로운 조류의 선두주자인 이태리와 프랑스 공산당이 집권의 문턱에까지 왔다고 하는 정치적 현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유로코뮤니즘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대체로 공산주의의 새로운 사조가 공산집권을 위한 일시적 책략이냐, 아니면 민주적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장기적 책략이냐 하는 문제로 집약되는 것이다.



## 2. 유로코뮤니즘의 개념적 특성

유로코뮤니즘은 이를 표방하는 개개의 공산당에 따라 저마다의 다양한 색채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들간에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재해석

유로코뮤니스트들은 한결같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단일적 세력중추나 이념적으로 의무화된 공동노선의 존재를 부인한다. 즉 모든 국가의 공산당들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 맞춰 자신의 행동노선을 결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등권을 바탕으로 한 자주성과 독립성의 상호보장과 불간섭 원칙은 공산주의 정당간의 기본적인 관계양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로 소련에의 종속화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개념을 부정하고, 대신 〈다양성 속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각국공산당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 유대〉라는 개념을 즐겨쓴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1950년 코민포름 해체 이후 본격화되어 이태리 및 스페인 등 유로코뮤니즘의 선두주자들의 경우, 외교정책에 있어 소련의 품 속에서 벗어난지 이미 오래이다. 소련의 외교 정책이 그들이 앞세우는 공산주의 형제당의 혁명적 이익 아닌 소련 자신의 국익 내지 국시를 바탕으로 마련된다는 인식이 이들의 해방의식을 자극한 것이다.

### 나. 사회주의로의 민주주의적 이행

유로코뮤니스트들은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부인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의제적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하나의 불가피한 역사적 필요성〉이었으나 이제 〈발전된 자본주의의 민주국가〉에게는 더 이상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변화된 사회상황, 계급관계 및 서구의 대의제적 민주주의적 전통을 감안할 때 사회주의로의 전이를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길의 모색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적 길이란 그들에 의하면 국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회 민주제적 방식에 따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완전한 과도기를 말한다.

### 다. 공산당 중심주의 배격

일개 공산당의 지도자 역할을 포기하고 광범한 동맹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회정책 및 세계관적 세력과 광범위한 동맹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련이 추구하는 동맹정책은 소련을 위시한 각국의 공산당만이 그의 경제정책, 사회비판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정치집단이나 정당들은 이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이러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동맹 내에서 그들의 당을 다른 정당 및 정치조직과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간주한다.

또한 많은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중간계층과 같은 애매한 개념을 부인하고 국민의 계층과 사회의 계층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것과 어떠한 계층이 동맹에 가입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정치세력 중 좌파 뿐만 아니라 중도파와도 동맹을 시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라. 마르크스주의의 개방과 대화

동등한 파트너 간의 동맹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요구한다. 즉 스탈린주의에 의하여 왜곡·변형된 관제마르크시즘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의 화살을 보내며, 〈제도적 마르크시즘〉의 질곡에서 해방된 〈지성적 마르크시즘〉의 창조적 발전을 요구한다. 그들에 따르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학문적 검토나 이론적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의 이론일 수 없으며, 더우기 당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해석된 교의의 무류성(無謬性)·절대성의 요구는 마르크스주의의 창조적 발전가능성을 화석화시킨다는 것이다.

많은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사용되었던 개념인 〈과학적 사회주의〉를 즐겨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형태의 하나하나를 이데올로기적 논리로서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를 이미 포기했고, 과학적 사회주의에의 확신 여부가 공산당 입당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반체제적 동구 지성들에 의하여 시작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탈신화 과정도 이제 유로코뮤니즘의 반교조주의적 조류에 의하여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폭력혁명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반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부정, 레닌주의적 정당구조에 대한 공박은 신성시되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파격적인 평가절하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로코뮤니스트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요구하며, 전통적 마르크스 해석에서 벗어나는 이견이나, 그에 대한 반론까지도 유로코뮤니스트들에 의하여 발간되는 논집이나 당지에는 수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개방화의 기운은 자연 다른 세계관을 가진 정치·사회세력과의 접촉의 빈도를 높이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했다. 대부분의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대종교세력과의 관계에서 이미 이념투쟁을 포기했고, 이는 이태리·프랑스 및 스페인 공산당이 시도하는 공산주의자와 천주교도와의 대화에서 예증되고 있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의 개방화와 대화의 자세에 대한 회의론을 들어 보자.

(1)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집권전략의 차원에서, 현존 공산주의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연상시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독재〉 내지 〈폭력〉 개념을 유보하고 있으나 이는 신념의 변화로 볼 수 없으며,

(2) 이태리·프랑스·스페인 공산당이 이들 나라에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천주교도와의





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 역시 불가항력적 상황에 적응을 위한 책략의 일환일 뿐 마르크스주의의 반종교적 교의의 수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마. 소련과 동구에 대한 비판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친소공산당의 소련 추종과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을 거부하며, 동구의 정치·경제권력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관료화 및 인권침해사태(체코·폴란드) 등을 신랄히 비난한다. 특히 소련 및 동구의 현 정치체제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에도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소련 및 동구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 바. 레닌적 당구조와 당이론의 부정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레닌의 당이론을 배척한다. 즉 레닌의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원칙(명령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적 명령체제, 혁명적 엘리트당, 강철과 같은 당기율— 모든 당원의 이데올로기적 확신하에서 모든 조직들은 공산당의 지도부에 예속되어야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할 의무를 가진다는)을 반대한다.

## 3. 유로코유니즘의 전개

유로코뮤니즘의 전개과정을 역사적 사건의 추이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오늘날 유로코뮤니즘의 생성과 전개에 영향을 준 획기적 사건으로 우선 1948년에 있었던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간의 정치단절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공산주의 전열의 최초의 파열로서 〈유로코뮤니즘의 초석〉이라고까지 불러 그 의미의 심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즘의 발생사의 첫 장은 역시 1956년 2월에 있었던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하다.

여기서 비롯된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특히 스탈린주의적 테러리즘의 폭로는 마르크스 철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 전당대회 이후 불붙기 시작한 중·소 분쟁은 공산세계 내에서의 소련의 지도적 역할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른바 〈다중심화〉 현상을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이 물결은 유로코뮤니즘의 정신적 이정표를 마련했다.

유로코뮤니즘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하나의 사건은 이른바 〈프라하의 봄〉을 구가하던 체코슬로바키아를 일시에 동토화 시킨 1968년의 소련군의 체코진입이었다.

이 사건은 이제까지 동구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보다도 서구의 좌경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제까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련을 지지해 온 서구의 좌경지식인들도 프라하의 충격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들은 휴머니즘과 코뮤니즘, 민주주의와 동구의 사회주의를 화해시켜 보려던 환상으로부터 프라하가 바르샤바 동맹군의 전차바퀴에 깔리는 것을 본 순간 깨어났다.

프라하의 충격은 이토록 컸고, 또 심각했으며, 이 사건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아보려던 서구 공산당들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이들을 당혹케 하였다. 이로부터 서구공산당들은 이념적 전환과 노선의 전환을 통하여 대중적 지지를 회복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볼 때, 유로코뮤니즘의 생성 전개과정은 역사를 통한 서구공산당의 민주적 자의식의 성장과 집권을 향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 교차되는 복합적 과정이라 하겠다. 유로코뮤니즘의 전개는 서방민주세계와 소비에트형의 동방세계 모두에게 하나의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우선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 공산당의 정권에의 참여는 서방동맹체제의 결속에 위협적인 균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는 소련의 서구세계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 팽창이라는 사실을 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한편 부르조아적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앞세우는 서구의 다원적 사회주의 모형이 동구의 집권사회주의체제에 무서운 방사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유로코뮤니즘의 독자노선이 세계 공산주의운동의 분극화를 조장하고 소련의 지도역할에의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볼 때, 소련은 유로코뮤니즘의 발흥을 〈기회〉라는 관점에서보다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느낌이다.

서방세계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유로코뮤니즘은 일단 하나의 위험신호이자 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구 민주질서의 혁명화, 서구의 경제적·정치적 통합의 저해요인, 나토의 약화 등이 대체로 본 비관적 측면이다.

## 4. 개념평가 및 우리의 자세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도 반공의식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특히 이러한 반공체제에 선봉역을 맡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유로코뮤니즘이 표방하는 너무도 부드럽고 이상적인 그들의 체계에 자칫 비판없이 수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냉철한 판단 및 수용태도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보수주의적 견해는 민주주의의 신앙고백을 앞세우는 유로코뮤니즘은 권력쟁취를 위한 개념이지 권력행사를 겨냥한 개념이 아니라는 회의를 표명한다. 다시 말해서 유로코뮤니스트들은 그들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불투명한 소신을 위장하고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이는 책략에 불과하며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권력쟁취의 숨가쁜 순간이나, 특히 권력쟁취 후 역전된 상황에 당하여는 현존 공산주의국가의 반민주주의적 관행에 다시 수렴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유로코뮤니즘이 앞서 평가했듯이 잠정적 성격의 집권용 무기인가, 본질적 가치인식의 문제인가 하는 점에 그 촛점이 모아진다는 것으로써 비록 그들이 지구책으로 제시한 유로코뮤니즘은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은 현재에는 비록 폭력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위한 그들의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로코뮤니스트들의 민주주의표방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의 최대의 위험성은 유로코뮤니스트들이 그들의 불확실한 목표에 심취되어 언제 어디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권탈취전략을 외면하고 폭력전략 전술로 돌변할런지 모른다는 것과 그들이 표방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단지 교활한 공산화 전략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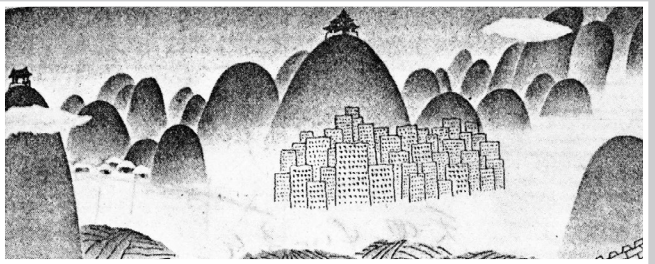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공산당이 대중들에게 소리높이 외쳤던 약속들이 집권후 소리없이 외면되어버린 예 (1917 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의 공산주의의 중요목표 중 하나인 토지개혁을 "농민에게 토지를" 이라는 구호로 농민에게 환심을 사고는 혁명달성 후 토지를 몰수하고 외면해 버린 일 등…)는 우리의 이러한 회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만일 유로코뮤니스트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공산주의자들과는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거나, 그들이 표방하는 공산주의는 현존하는 어떤 공산주의 체제와도 다르다는 전제 하에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고도로 성숙된 사회가 있다면 그리고 유로코뮤니즘이 향후 수백년이 경과한 다음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한하여 호소력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적 환경이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유로코뮤니즘의 이념들은 달성할 수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코뮤니즘의 유화적인 언사와 민주주의의 표방이 전후 유럽사회에 많이 늘어난 관념적이거나 환상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산당의 표가 모아질 때 서구는 위로부터의 공산혁명이란 고통을 경험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유로코뮤니즘이 그의 허구적 환상의 전파를 통해 서방의 반공의식을 약화시키고 이념적 내부분열을 획책한 다음, 폭력과 독재에로의 전환을 가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은 현실적인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면은 지나친 회의론이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영토에 대한 단 1%의 침공가능성도 100%의 완벽한 대비태세로서 대처해야 하는 우리 군인의 입장에서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이러한 문제 파악은 그들의 최종적 목표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부동의 사실임을 인식할 때, 이에 대한 우리의 이념수용의 좌표는 명약관화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 우상(偶像)의 도시(都市) 평양(平壤)

이 상 우
〈서강대학교·정치학박사〉

이번에 제가 평양에 다녀온 계기가 남북적십자 회담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 동안의 적십자 회담의 경과와 이번 회담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린 다음 제가 평양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 나름대로 분석 정리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상의해보는 순서로 강연을 진행하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담은 시작된지는 오래되었읍니다. 지난 1970년 당시 우리 적십자 총재이시던 최두선 총재께서 이산가족을 재결합시켜주고 만나게 해주자는 제안을 했고 그 당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북쪽도 이것에 호응하고 나왔기 때문에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읍니다.

적십자회담은 남북한관계에서 약간 특이한 부분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40여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체제와 이념의 차이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멀리 느껴지는 곳으로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전쟁까지 치렀읍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기된 것이 이산가족문제입니다. 8·15해방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6.25사변 전까지 상당수의 북한주민이 월남해 왔읍니다. 저도 그 중의 한사람으로 제 원래 고향은 함흥이고 인민학교를 다니다가 1946년에 월남한 사람입니다. 그후 6.25사변 중에 특히 1.4 후퇴 때 많은 분들이 월남해 오셨읍니다. 동쪽에서는 흥남철수 때 내려오셨고, 서쪽에서는 바다로 땅으로 많이 내려오셨읍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 월남가족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읍니다만 300만 이상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읍니다. 그분들의 2세까지 합한다면 600만 내지 700만이 됩니다. 지금 그 분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까지 감안한다면 약 1,000 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 일천만 이산가족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이 일천만 이산가족의 문제는 남북대결에서 또 하나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은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 내려왔으니 별문제 아니지만 부부가 결혼한지 3개월 만에 헤어진 사람도 있고 자식을 북에 두고 내려온 사람도 있읍니다. 그리고 헤어진지 40년이 흘렀읍니다. 그래서 우리 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이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우선 정치를 떠나서 순수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서로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라도 해주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체의 정치를 배제하기로 한거구요. 이렇게 해서 13년 전에 적십자회담이 시작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회담할 것도 없는 거지요. 우리 이런 취지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자, 그리고 북한에서도 알았다고 하면 그날로 끝나는 회담인데 이게 13년을 가면서도 해결이 안나고 있읍니다. 왜 해결이 안 났는가에 대한 이유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기 위한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의 외조부모님은 북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내려올 때 이미 70이 넘으신 분들이니까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는게 상식인데 어느 날에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니까 제사를 못지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편의상 생신날에 제사를 지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이산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논리적으로도 살아계신지, 살아계시다면 어디에 계신지를 서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원래 적십자에서는 사람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걸 심인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십자사에서 나서서 우선 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주자. 그 다음에 만일 사람이 찾아지면 판문점에 면회소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거기서 간단히 만나게라도 해주면 될게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괜찮다고 하면 서로 방문하게 하자. 그리고 방문한 다음에 만일 부부가 갈렸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 모여서 살게 해주자, 이게 재결합 문제죠. 만일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유골을 찾아 오든지 성묘를 하게 해주자, 이 다섯가지가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에서 이 다섯가지를 내놨고 여기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어서 북한도 이 다섯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북에서 소위 일괄타결론이라는 걸 내는 겁니다. 우리쪽에서는 논리적으로 우선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만나는 이런 순서가 되는데, 북에서는 그런 순차 필요없다, 일괄타결하자,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어냐 하니까, 다 집어치우고 남북간에 자유왕래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찾아질게 아니냐 하는 거죠. 심인사업이다 무슨 서류다 모두 필요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산살던 사람이 혼자 부산에 찾아가서 복순이네가 어디로 이사갔느냐고 물어보면서 찾아가면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 한가지 방법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용어대로 한다면 자유왕래야말로 가장 중핵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이야기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다 조건환경론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자유왕래를 하려면 남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남에는 그 당시 반공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고 공산당 때려잡는 법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내려가라는 이야기냐, 그러니 자유왕래의 전제조건으로 이 두 가지 법을 없애라.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남쪽의 정부가 반공정부이고 반동정부이니 남쪽의 정부를 민주정부로 바꿔라 하는거예요. 이것이 성취되어야만 자유왕래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만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치를 배제하고 시작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결론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렬되어 끝났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작년부터 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동안 계속 우리가 회담을 재개하자고 여러번 제안도 했었지만, 그 동안 답이 없었던 북한인데, 작년에는 갑자기 응하고 나왔어요. 적십자회담 뿐이 아니예요. 경제회담도 하자, 국회회담도 하자, 총리회담도 고려할 수 있다. 하여튼 회담이라는 건 다하겠다고 갑자기 발벗고 나섰어요.

북이 왜 갑자기 이 싯점에 와서 이렇게 회담을 하자고 나오는지 우리도 아직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읍니다. 아무튼 그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회담을 시작해서 드디어 첫번째 합의본 사항이 적십자회담 재개입니다.

원래는 지난 2월에 제8차 회담을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팀스피리트 훈련을 걸고 넘어져서 전쟁하려는 이 판국에 무슨 적십자회담이냐고 북에서 생떼를 썼기 때문에 연기되어 결국 지난 5월 말에 제8차회담을 했고, 이번에 제9차회담을 평양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담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옛날에 아주 정확하게 서로 합의한 사항들이 있읍니다.

꼭 어린애처럼 벼라별 것 다 정해 놨었는데, 짝수회담은 서울에서 하고, 홀수회담은 평양에서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도 합의사항이고, 몇 사람이 참석하는가 이것도 합의사항입니다. 며칠을 묵는가 이것도 합의사항입니다. 누가 먼저 발언하는가 이것도 합의사항이고, 누가 축사를 먼저 하는가 이것도 합의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차에 태우는가, 그리고 어떻게 재우는가까지도 합의사항입니다.

합의사항 중에서 특히 대표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표단은 양측이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대표단을 세분해서 말하면 좁은 의미의 대표가 있고, 또 자문 위원이 7명 있읍니다. 적십자회담이기 때문에 북에서 말하는 적십자 일꾼들이 대표가 되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사람이 되는거죠.

북에서는 원래 적십자사가 없읍니다. 이 적십자회담 때문에 만들었어요. 적십자는 필요없다고 자신들이 실토해요. 공화국에서 하도 잘해주기 때문에 또 뭐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하도 치밀하게 모든 일을 잘해주기 때문에 적십자가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적십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급히 만들었어요. 적십자중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손성필씨가 — 다음 주에 여기 오시겠지만 — 그 양반이 거기 책임자로 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하고 따져보니까 주로 북한의 외무부와 조선노동당의 국제부, 그리고 대외연락부 대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 상당히 국제경험도 많고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대표단은 전원이 적십자 직원들입니다. 우리 수석대표 이형덕 교수도 서울대학교 교수시지만 그 양반이 10여년째 적십자 부총재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원이 원래 적십자 직원들이고, 북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외교관이나 다른 당에 소속된 사람이 나와 있었읍니다.

자문위원 구성은 남북한이 다릅니다. 북에서는 자문위원들을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한은 일당독재이고 조선노동당 밖에 없지만 형식상으로는 북한에도 정당이 여러 개 있읍니다. 천도교 청우당도 있고, 조선민주당도 있어요. 물론 의석은 한 명도 없는 정당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석자문위원 장석준은 조선노동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고, 최희준이라는 사람은 천도교 대표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전 해외교포들도 자기네 편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일본 조총련에도 대표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조총련 부위원장인 박재로라는 사람이 자문위원이예요. 그리고 사로청이라고 해서 — 사회주의 노동총동맹이라고 하는건데 — 14살부터 서른살까지의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단체가 있읍니다.

이 사로청 부위원장인 김창용이도 자문위원이예요. 또 직총이라고 해서 — 직업총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원장인 김영남이도 자문위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게 우리쪽 자문위원의 구성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자문위원이 대학교수가 넷, 그리고 언론인과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거죠. 왜냐 하면 Protocol(협정서)상으로는 자문위원이 대표위원보다 위거든요. 그런데 우리쪽을 보니까 전부 허약한 대학교수만 끼어있단 말이예요. 그래 좀 친해지니까 개인적으로 물어오는게 이런거예요. "이선생, 이제 서로 아는데 실토하라우야." "뭐냐 그러니까" "그 서강대학인가 하는거 말고 진짜 사업은 뭐합네까?" 그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전부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 내 사업이라는게 애들 가르치는거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숨기지 말고 진짜 사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대학교수가 어떻

게 자문위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게 그 사람들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수행원이 20명 있읍니다. 원래 수행원이 필요하다는 건 뻔하지요. 아닌 말로 대표위원 가방도 들어주고 이러는게 수행원인데, 실제 구성에서 보면 이 수행원들이 상당히 센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단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끼어 있더군요. 특히 북쪽이 더해요. 그중 최봉춘이라는 사람은 12년 전에도 수행원, 지금도 수행원인데 그 사람의 큐가 없으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직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물론 본명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양반이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12년 전에 여기에 왔던 수행원 중의 한 사람은 서울을 다녀간 후 주유엔 대표부가 설치되자마자 초대 대사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수행원이라는게 겉하고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기자가 끼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25명으로 합의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8차회담 때부터 갑자기 북에서 자기 네 기자가 많아졌다고 하면서 50명으로 늘리자고 요구해왔어요. 우리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50명으로 늘렸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84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명이 추가될 수도 없고 한 명이 빠질 수도 없읍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할 때에도 대표단은 승용차를, 수행원과 기자는 버스를 타야 하고, 호텔에 들어가서도 대표단은 1명씩, 수행원과 기자는 2 명씩 투숙해야 합니다.

방이 비어 있어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이 구성사항이고 지금부터 제가 이번 회담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12년 만에 제8차회담을 했는데, 그때 우리는 옛날에 합의봤던 5개사항을 재확인 하면서 이 5개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옛날에 합의봤으니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이야기하자고 한 반면, 북한은 역시 과거와 같이 자유왕래 우선주의를 꺼냈읍니다.

8차 회담에서 여기까지 이야기 해놓고 이번에 제9차 평양회담에 간 겁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 사이 석달 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후 기왕지사 사람을 만나게 해주자는 거라면 저쪽에서 원하는대로 다 해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큰 보따리를 쌌어요. 저네들 하자는대로 다 받아주기로, 일괄토론도 좋다. 자유왕래도 좋다. 다좋다. 단 자유왕래에서 너네들이 억지부리는 소위 조건환경론이라는 것 만은 토론하지말자 라는 주석을 붙였어요. 우리에게 정부를 바꾸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 대신 누가 들어와도 우리가 완전히 신변보장을 해주겠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다 보장해준다. 그러니 법이 있고 없고는 너네들이 상관할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안까지 준비해서 큰 보따리를 싸갔읍니다, 그래서 첫날 회의에서 그것을 다 풀어놨읍니다. 자 너희들 하자는대로 다 집어넣었으니까 오늘 가지고 가서 읽어봐라. 빠진 게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쉬고 내일 사인하고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첫날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른바 모란봉 경기장 사건이라는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회의 벽두부터 회의는 제쳐두고 사과해라, 싫다하면서 언성 높여 말싸움 하다 보니까 둘째날 회의는 다 없어진 거예요. 11월 26일에 제10차회담을 한다는 것 만은 합의봤으니까 그때 오기만하면 저희가 풀어놨던 보따리에 대한 답이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1월을 기대해보는 수 밖에 없읍니다. 이상이 그 동안 적십자회담이 흘러온 과정입니다.

저희가 평양에 다녀온 75시간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다시 요약해 드리겠읍니다. 저희는 8월 26일 아침 9시 반에 판문점을 넘었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개무량한 순간이었읍니다. 39년 만에 다시 38선을 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판문점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도 북한측은 9시를 요구했고, 저희는 10시를 주장했읍니다. 뭐 이른 아침부터 서두를 것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9시에 넘어달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는 동안에 점심을 먹을 곳이 없으니, 적어도 점심시간 전에는 평양에 들어가야 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참고로 평양, 개성 간의 거리는 도로로는 201km이고, 철도로는 199km에요. 8차 때 내려온 사람들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로 4시간 50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미루어서 도로사정을 알 수 있을거예요. 2차선 도로인데 가운데에 중앙분리선도 없어요.

그 정도로 낡은 도로입니다. 4시간 50분이 걸린다니까 쉽게 말하면 시속 40km 정도로 밖에 달리지 못하는 도로거든요. 그것도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밥먹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10시에 떠나고 보면 점심을 굶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자기네들도 고민은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쪽에서 도시락을 싸갈테니 10시에 떠나자 했거든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러면 둘이 타협하자. 그래서 반 꺾어 9시 반이 된거예요. 어린애 장난 같은건데, 가만히 보면 어린애식으로 서로 안 지려고 티격태격하는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서글픈 일입니다. 관문점 여행은 많이 다녀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도 보세요. 깃발을 양쪽에 걸어놓고 서로 큰 깃발을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양보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니까 저쪽이 170m짜리 깃봉에다가 몇십m 짜리 인민공화국기를 걸어놨읍니다.

우리 태극기는 그것보다 훨씬 작읍니다.

판문점 안에도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놨읍니다. 평화의 집이라고, 바로 분계선 남쪽에 다 지어 놨어요. 앞으로 총리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고 고위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해서 지어논거죠.

북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읍니까. 기죽을 수 없죠. 얼른 또 통일각이라고 자기네 집을 지었어요. 휴전선 넘자마자 판문점 공동관리구역 안에다 지어 놓았는데, 그집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집은 참 잘 지었더군요. 화강암으로 짓고 장식도 아주 잘해놨어요. 자기네 말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친히 나와 감독하며 지은 집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가 앞으로 자꾸 나오니까 이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읍니다. 북에서는 아무리 높은 사람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름 석자

를 입에다 못 올리게 돼있어요. 일제시대 때 천황이름을 히로히또라고 입에 못올린 것과 똑같읍니다. 그래서 항상 간접으로 표현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김일성이는 위대한 수령이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김정일입니다. 길어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젊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김정일 얘기를 할 때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말이 여러 번 뛰어나오지 않읍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줄입니다. "친지동께서"라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니까 줄이면 "친지동께서"가 되는거지요. "위대한 수령"은 "위수"라고 안 줄이데요.

이 친지동께서 친히 감독해서 지은 집이 바로 이 통일각입니다. 통일각에서 잠깐 쉬면서 음료수 대접을 받았는데, 음료수는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해 놨읍니다. 오미자 단물, 쥬스를 단물이라고 합니다. 신덕샘물, 이건 생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잔 얻어 마시고 저쪽에서 내준 벤츠를 타고 개성으로 들어갔는데, 개성까지는 불과 10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읍니다. 사실 판문점만 벗어나면 바로 그 앞에 개성이 보입니다. 판문점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 개성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실 때 수학여행으로 많이 다녀오셨을거예요. 서울 수원거리거든요. 서울 인천거리고, 그런데 요새는 소위 북에서 말하는 북의 해방지구가 된 겁니다. 자기네 유일의 해방지구, 우리의 수복지구에 해당하는게 해방지구라는 겁니다. 원래는 개성에서 10시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늦어서 10시 5분쯤 그 사람들이 내준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갔읍니다.

이것 역시 원래는 자동차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문점에 도착하니까 저쪽에서 기차로 변경됐다고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위반이 아니냐하고 항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정이 있기는 있었어요. 우선 도로가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가 나요. 12년 전에 갔을 때에도 자동차가 하나 전복되어서 우리 대표 한 사람이 다치고 운전기사는 죽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큰 사고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책임 못지겠고, 가는 동안 휴게소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밥먹을 곳도 없다는 문제들도 있고, 기차에다 한꺼번에 태우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에도 편리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84명인데 안내원이 1인당 한명씩 붙으니까 그것만해도 1백 몇십명이 되는 데다가 자기네 요원들까지 타니까 4, 5백명 정도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내는 것 같아요.

그 기차는 전용열차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구라파식 침대열차인데, 침대칸에 저희 대표 1명씩 집어넣고 안내원을 한 명씩 집어 넣은 다음 거기에 기자라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우리를 혼자 놔두지를 않아요. 혼자 창밖을 내다보고 무슨 이야기라도 할까봐, 앉은 순간부터 말을 걸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기차를 새로 페인트칠하고 잘 꾸며놨읍니다만 아주 낡은 기차예요. 몇 십년은 된 기차같아요. 내부 치장도 자기네들은 신경써서 잘 해놓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쿠션도 없어요. 솜을 약간 넣고, 그 위에 비닐로 덮어 놓은 대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전용열차입니다.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쓴 건 사실입니다.

개성을 떠나 평양까지 199킬로미터를 약 3시간 20분에 달렸는데 一 시속 60km 밖에 안 되는 거지요 一 쉬기를 딱 한 번 쉬었어요. 평산이라는 곳에서 내연기관차를 전기기관차로 바꾸기 위해 한 번 쉰거죠. 경의선은 요새 단선입니다. 원래는 복선이었는데 선로 하나를 다른 곳에 쓰기 위해 거뒀어요. 그래서 단선이 된거죠. 철로장비는 아주 노후합니다. 해방 당시의 것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성부터 평양까지 우리를 실은 기차는 논스톱으로 달리고 다른 기차는 모두 세워 놨어요. 뿐만 아니라 정거장을 모두 폐쇄해 버리고 그 앞에 역무원만 서 있어요. 북한이니까 가능한 거죠. 만약 우리가 특별열차가 지나간다고 다른 열차를 모두 세워놓고 정거장은 모두 폐쇄시켜 놨다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평양에 도착해서는 바로 평양역 앞에 있는 평양 고려려관이라는 호텔에 들어갔읍니다. 북에서는 여관이라는 것이 호텔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호텔은 모두 외국인 전용으로 다른 사람은 못쓰게 되어 있고, 평양시내에 8개가 있읍니다. 보통 강려관, 해방산려관, 이 고려려관 이런 곳입니다. 이 고려려관이 옛날에 조만식씨를 납치했던 그 고려호텔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예요. 자리도 그 자리가 아니고, 새로 지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새 건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호텔이 어떠냐고 수백번을 물어요. 호텔자랑을 하려구요. 이 호텔은 8월 9일 준공을 했어요. 위대한 수령과 친지동께서 친히 나와 테이프를 끊고 준공을 한 호텔입니다. 상당히 큰 호텔이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셨겠읍니다만 쌍탑으로 올라가는 4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방이 자기들은 1,200개라고 하는데 하여튼 1,000개는 돼요. 상당히 큰 호텔이죠. 애써서 만들었어요. 옆에다 타일을 붙이고 안에는 전부 외제를 가지고 치장했어요. 문틀은 동독제고, 카페트도 외국제고, 전등불은 네덜란드 필립스제고, 텔리비전은 컬러가 하나 있는데 자기네 국산이라고 앞에 진달래" 라고 크게 써놨지만 그건 "도시바"이고, 냉장고도 앞에는 "대동강"이라고 크게 써놨지만 그것도 글자 석자 이외에는 통째로 일본 "산요"예요.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있는 도기들도 모두 일본 도요도기로 아주 고급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써본 적이 없고 생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공에 문제가 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호텔을 제대로 수리 안한 채 앞으로 그냥 손님을 받아 쓴다면 한달 내로 허물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돼요. 왜냐 하면 가령 목욕탕 같으면 욕조 속에서 사람이 목욕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시공할 때 욕조와 벽 사이는 빠대라는 것으로 다 메워야되는데 한 군데도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모두 2센티씩 틈이 벌어져 있읍니다. 그러니 방마다 샤워하고 목욕한다면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벽사이로 들어갈텐데 천명이 한달만 계속 퍼부어 댄다면 호텔이 떠내려가지 무사하겠읍니까?

모든게 이런 식이예요. 카페트도 외국제를 들여놨는데 한 번도 안 깔아봤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두개씩 포개놨어요. 침대도 외제를 들여다 놨는데 베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메트리스 위에 요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가져다 놨어요. 해놓고 보니까 여관방 같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테이블보를 하나씩 가져다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안 맞는거죠.

아무튼 그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구경을 시작했는데 44층 꼭대기에는 40분마다 돌아가는 회전식당이 있읍니다. 그 식당에서 평양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평양시내의 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의 커다란 세트라고 표현할 수 있읍니다. 그냥 통째로가 하나의 커다란 무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가까운 인상을 여러분에게 굳이 표현한다면, 헐리웃에 있는 영화 촬영 세트와 같다는 겁니다. 세트로 도시를 만들어 놨죠. 그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부영화를 보게 되면 꼭 옛날 서부도시 같지 않읍니까. 가보면 앞만 있고 뒤에는 없다든지 이런식 아닙니까? 평양시내를 사진찍어 놓고 컬러 TV로 찍어 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고층건물이 있고, 숲이 많고, 길이 넓고, 조용하고, 그런데 그 건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끝 마무리 작업이 우리 시골 새마을회관의 벽에 시멘트 발라놓은 정도 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벽면이 아주 거칠죠. 거기에 페인트칠만 해논거죠. 그러니 얼핏보면 도시 전체가 상당히 예뻐보입니다. 숲이 많고, 길이 넓고, 고층건물이 많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전체 인상이 뭐 같으냐 하면 마치 워싱턴 디시의 모울 같아요.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부터 제퍼슨 메모리얼까지 나오는 스미소니언이 있는, 그 모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자랑하고 .있고, 공원 속의 도시라고 자랑하고 있읍니다. 사실 계획도 아주 애를 썼고, 북한에서 자랑할 만큼 정말 잘 가꾸어 놨읍니다. 해방 전에 있던 건물은 단 한 개도 안 남기고 모두 없애버렸읍니다. 옛날 도로도 한 개도 남김 없이 모두 없애버린 다음 새로 금을 그어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도로를 찾으면 그 길은 어느 건물 밑 쯤에 있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새로 디자인한 도시인데 전체적으로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미리 플래닝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오는 것은 전부 상징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백칠십미터 높이의 주체탑, 김일성 대궁전, 김일성 동상 등이죠.

김일성 광장은 여러분도 뉴스에서 북한 행사나 군사 퍼레이드 광경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아주 달라요. 우리 광화문통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우리는 머리 속에 여의도광장 정도로 생각하고 갔는데 여의도광장의 30분의 1이나 4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광장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속은 적이 있어요. 1979년에 제가 소련을 여행했는데, 우리 머리 속에서 크레믈린궁하면 어마어마하고 그 앞에 붉은 광장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붉은광장이라는게 생각보다 적읍니다. 큰 학교 운동장의 2배 정도되거든요. 그게 붉은 광장이었는데 김일성 광장은 붉은 광장보다 더 좁아요. 김일성 광장 앞에 인민학습당이 있고, 높이 40미터짜리 김일성동상이 언덕 위에 버티고 서 있읍니다.

그건 금으로 입혔어요. 자기네 주장은 모든 인민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나머지 그 사람의 70회 생일기념으로 전 인민들이 돈을 거둬서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 서 금칠한 40미터짜리 김일성동상이 서있고, 그 다음에는 보여주느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고층 아파트들이 시내에 좀 있고, 자기네 당건물같은 큰 공공건물들이 몇 개 있고 이게 다 입니다.

밤에는 그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을 너무 철저히 해서 인지는 몰라도 불을 안켜요. 다만 상징물에 대한 스포트 라이트만 켜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전체가 캄캄한데 스포트 라이트륨 비춘 상징물들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전부 텔레비전으로 시민들에게 보여 줬더라면 평양에 대한 인상이 제대로 잡혔을텐데, 우리나라에서 노파심으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건물마다 김일성 천연색 사진이 붙어 있고, 빨간 간판에 흰글자로 써진 구호가 붙어 있거든요. “위대한 수령 만수무강을 빕니다.” “조선노동당 뭐,” “우리식으로 살자” 뭐 어쩌자하고 붙여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라는게 간판이 하나도 없다면 우선 이상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평양시내에 사람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려면 평소 민방위훈련 때 거리를 나가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하나 없고, 길만 딱 뚫려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거리 속에 건물이란 건물마다 전부 똑같은 천연색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하나씩 붙어있고 옆에는 똑같은 빨간띠가 모든 건물을 도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리 속에 그림이 좀 들어옵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었어야 아 저게 평양이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개선문도 만들어 놨는데 개선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그대로 만들어 놨더군요. 저도 이번에 북한 사람에게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파리의 나폴레옹 개선문의 높이가 48미터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이번에 60미터 정도로 높였다고 그래요. 주체탑도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가 살아온 날 하루씩을 돌하나로 계산해서 2만 5천 몇개의 돌로 쌓았답니다. 그것까지는 참아주겠는데 그 꼭대기에다 몇십미터 짜리 횃불을 조각해서 얹어놨어요. 모양이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이게 평양의 인상입니다.

평양시민이 186만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어디서 온지 모르게 다 나와요. 모란봉 경기장에도 15만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앉아 있거든요. 저희가 평양에 들어간 이튿날 짐바브에의 무가베 수상이 왔어요. 그때 연도에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수십만이 갑자기 나와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올리다가, 지나가면 또 다 사라져요. 그래서 평양시민의 주임무는 무대에 나오는 의장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서 귀빈이 연간 100여명이 오니까 사흘에 한번씩은 연도에 나와 환영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모란봉 경기장에서 행사를 계속하니까 거기에도 동원돼야 하고, 그래서 안내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사람들 고달프겠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평양에 사는 것은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고, 거기 나가는 동안에는 일을 안하니 고달플 것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주 임무가 되는거죠.

북한이 평양을 얼마나 가꾸느냐 하면, 트럭이 평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퀴를 씻고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어요. 시민들도 불구자는 보기 싫다는 이유 때문에 평양에서 못살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까지 신경써서 가꾼 도시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서울구경하고 싶으면 버스타고 서울로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은 그게 아니예요. 군단위를 넘을 때마다 특

별허가가 없으면 못 넘어요. 소련은 좀 나아요. 공화국을 넘을 때마다만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소련에 갔을 때 그걸 몰랐읍니다. 소련비자 하나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키에프를 내려가려고 하니까 비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여보시요, 내가 소련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키에프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이니까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기다려서 우크라이나 비자를 다시 받아서 간 적이 있읍니다. 결국 소련은 공화국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 북한은 군단위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구경꾼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교통은 상당히 낡긴 했지만 기차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도로는 상당히 나쁘고요. 고속도로는 평양 원산 간을 연결하는게 하나 있고, 옛날에 쓰던 기린비행장을 폐쇄하여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순안 비행장을 새로 만들어 국제공항으로 사용하는데 평양에서 그 공항까지 가는 길이 4차선 고속도로화되어 있고, 평양의 서남쪽에 이른바 그들의 성지라는 만경대까지가 고속화되어 있읍니다. 그외에는 전부가 우리의 국도 정도인데 우리 국도보다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없읍니다. 평양까지 가면서 길이 철로하고 평행으로 가기에 유심히 살펴봤지만 개성에서 평양까지 전 구간에서 트럭 2대를 봤을 뿐입니다.

그 이외엔 도로에 자동차가 1대도 없었읍니다. 그 트럭 2대도 옛날 6.25때 쓰던 소련제 낡은 트럭 뿐입니다. 평양시내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던 버스 이외에는 시야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는 대개 1대 아니면 2대 정도쯤 보이는데, 그게 바로 전차처럼 전기줄이 있고 아래는 버스로 된 트롤리 버스예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평양시내에는 신호등이 없읍니다. 자동차가 없으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신 것처럼 네거리에 여자 순경이 교통순경으로 나와 서 있는데, 물어보니까 외국손님이 왔을 때에 한해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차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그 넓은 길 한가운데 노란선이 2줄 그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수령님 전용차선이라는 건데 어떤 차도 그 선 안으로는 못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없다는게 특색이예요. 중공은 여러분도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북경같은 데는 자전거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에너지가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에는 원칙적으로 자전거가 없읍니다. 지방 면사무소 같은 데에 행정용으로 있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없답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주민통제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하루에 너무 멀리 돌아 다닌다는 거죠. 자전거가 없어야 멀리 못돌아 다니니까 주민통제의 편의 때문에 자전거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전장이 32킬로미터예요. 그 사람들 1호선은 우리 1호선보다 1년 먼저 만든겁니다. 그런데 구경을 가보니 평균 지하 100미터, 110미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도 한참 내려가야 돼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소련 지하철은 대개 지하 90미터부터 110미터입니다.

100미터나 내려간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읍니까. 묻지 않아도 알만 하죠. 역시 군사목적이 제일 큰 거죠. 민방위하고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참고로 1메가톤의 핵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지하 40미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하 100미터면 안전한거죠. 그런데 북한에는 지하철이 별 용도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도 제대로 구경도 못 했구요. 왜냐 하면 저희가 구경하겠다고 내려가니까 빈차가 와서 탔어요. 2정거장을 거슬러 갔다가 도로 왔는데, 그 동안에 전 구간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는 한 대도 못본거죠. 그리고 정거장 3개를 봤는데 우리 일행 이외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통제해 버린거죠. 그래 저희가 지하철에 1시간 머무르는 동안 지하철은 올 스톱이죠. 이게 북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통은 대개 이 정도구요. 가면서 오면서 본 농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은 한마디로 손이 너무 안 가 있어요. 여기서 평양에 가는 동안 평산을 지나 황주까지는 주로 산이예요. 산쪽에는 주로 수수하고 옥수수만 심었더군요. 황주 가까이 가게되면 사과과수원들이 나오는데 거의 왜생종을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황주벌을 들어가면 전부 논인데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특히 수수밭, 옥수수밭에 가보면 사람 손이 거의 안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우리 새마을운동을 본따서 집단농장의 집들을 전부 획일화하여 고쳐놨는데 그 수준은 우리가 새마을운동하기 이전의 마을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대개 맞을거예요. 거의 손이 안 가 있는데, 물론 다른 데에 노동력을 썼기 때문에 손이 안 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사회주의체제로 집단농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인 동기가 없어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농사를 잘 지어도 내게 아니고,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지, 잘하나 못하나 나에게 보상이 안 따르니까 악착같이 일하지를 않는 거지요. 똑같은 것을 제가 소련에서 느낀 적이 있읍니다. 소련이 그 넓은 농토를 가지고도 식량이 모자라 미국에서 해마다 사정하다시피 식량을 사가는데 그게 다 농사가 그 꼴이라 그런겁니다. 제가 소련에 갔을 때 고집을 피워가지고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구경한 적이 있읍니다. 꼭 보겠다고 그러니까 며칠 후에 안내원이 와서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랑할 만한 농장이라고 해서 가 봤는데, 가보니까 꼭 황무지에 들어가는 것 같았읍니다. 가다보니까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는 곳이 있어 저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텃밭이라고 그래요. 텃밭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숙소 앞에 일정한 땅을 주고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이 농사진 것을 혼자 처분해도 좋다고 특별허가를 한 곳이예요. 그러니까 농장일은 건성으로 해놓고 얼른 뛰어와서 이것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갖추어진 밭이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가 엉망인거죠. 중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소평이 1979년에 농업에서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일종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단 말이예요. 네가 만든 건 네가 마음대로 가져라. 그랬더니 농업생산량이 6년 동안에 2 배나 올랐어요. 그러니 물질적 동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북한의 노동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것 보다는 이런 동기여부가 안되니까 사람들이 일

할 턱이 없는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은 주로 아파트인데 페인트칠을 해놓아 사진찍어 보면 예뻐보이지만 그 자체는 아주 거칠게 지은 집이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에 지은 와우아파트 정도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나마 관리를 잘하지 않았읍니다. 내집입니까? 아니죠. 임시로 사는 집인데. 그래서 역시 사람이라는 건 어디가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걸 느꼈읍니다. 기왕 이야기난 김에 주택관계를 이야기해 보면, 제 안내원에게도 물어보고, 그동안 상당히 친해진 북쪽 자문위원 중 카운터 파트한테도 물어보고, 만찬회장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마다 취재를 해보았는데, 결과가 대개 이렇게 나와요. 보통사람들이 사는 것은 2칸 방입니다. 그들은 전부 단위를 칸으로 쳐요. 제가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8~9평 정도 됩니다. 그게 기준이예요. 대학교수는 연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칸을 더 줘서 세칸, 그 세칸집이라는 것이 대략 13평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간부가 네칸 내지 다섯 칸. 네칸집이 약 18평, 다섯칸 집이 21,2평되는 규모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집들이 최하 8~9평에서 최고 21,2평까지라는 거죠. 이것이 일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밤에 불켜진 내부를 들여다 봤는데 참 어설퍼요. 조그만 방에 벽에다 옷을 몇개 걸어 놓고, 거기에 수건, 보자기 같은 걸 쳐놓고, 한쪽에 김일성 사진이 걸려 있고, 전등불은 아주 어두운 대개 이런 집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는 악착같이 아파트 두 개를 구경했었는데, 거기도 우리 시민아파트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이고, 기준은 전부 13평 정도부터 17평 정도까지 입니다. 집은 대개 이 정도입니다. 입은 옷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셨읍니다만, 이변이 일어났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획일적으로 여자는 흰저고리에 까만치마, 남자는 흰샤츠에 옛날 우리 학생복하고 비슷한 혁명복을 입고 다녔었는데, 어떤 일인지 그걸 다 바꿔 버렸어요. 한 3, 4년됩니다만 이번에는 획일적으로 남자는 전부 양복을 입고, 여자는 전부 양장을 입습니다. 그래서 소위 투피스인 두동강옷, 원피스인 외조각 옷이니 해서 다 입혀놨는데, 금년부터는 또 여자들에게 하이힐 신기기 운동이예요.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전부 파라솔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파라솔은 햇빛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예요. 날씨가 흐려도 파라솔이고, 개여도 파라솔이예요. 비가 와도 파라솔이구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신구가 된거죠.

그런데 그 양장옷이 아직 전체에 다 보급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은 양장옷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한번 이 사람들이 미리 플래닝을 못한 적이 있어요. 모란봉 경기장에서 우리가 화가 난다고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예정시간보다 1시간 30분 정도 먼저 나왔거든요. 그때 호텔로 돌아오는 사이는 전혀 다른 옷이죠.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은 흰블라우스에 까만치마, 남자들은 흰남방사쓰에 검은 바자를 입고 레닌모자를 쓴 정도예요. 그게 옷수준이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안내원이나 요원들은 전부 새양복을 입었어요. 물론 대표단들은 세련된 사람들이고 해외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니까 어울리는데 가령 엘리베이터 조작하는 사람들은 새까만 양반들이 하루아침에 새 양복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옷하고 몸이 안맞아 서로 겉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양복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먹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배급제도라는 것만 제가 확인했어요. 아직도 쌀배급이고 기초 품목은 모두 배급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하는게 있읍니다. 영화를 보든지, 북한 소개 책자를 보면 북한에도 백화점이 있거든요. 평양에도 제일백화점이 있고 여러 백화점이 있어요. 이 백화점 사진은 많이 찍어 왔지만 이 백화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주고 물건을 골라 사오는 데가 아닙니다. 자기가 배급받은 쿠폰을 들고가서 그 물건을 찾아오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큰 배급소이지 백화점일 수가 없죠. 소련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유스럽습니다. 거기는 돈주고 자기가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다만 살 물건이 없는게 문제죠. 소련에는 백화점이 세 급이 있어요. 제일 고급은 소련 전체 2억 8천만명 중에 2만명 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백화점이예요. 2억 8천만명 중에 2만명 안에 끼려면 상당한 수준이어야겠지요.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다는 백화점이 있다는데 불행히도 저는 구경을 못했어요. 두번째급이 자기네 중간간부와 외국인 전용이예요. 저는 외국인이니까 갔었읍니다. 그 백화점에서는 외화만 써야 하는데, 켄트 담배도 있고 스카치 위스키도 있고 제법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백화점에는 살만한 물건이 별로 없어요.

레닌묘 바로 옆에 있는 큰 건물이 바로 모스크바에서 제일 크다는 백화점이고 레닌그라드와 키에프에서도 백화점에 가봤는데 기념품이라도 사가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살만한 것이 없어요. 그게 소련이었는데 이번에 북한의 경우에는 백화점의 성격도 다르고, 소비재도 제가 육년전에 봤던 소련의 소비재보다도 한급이 아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럼 소련의 소비재가 어느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역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읍니다. 저희가 부산으로 피난갔다가 환도했을 때, 그때가 처음 국산품이 나올 때죠. 그때 학교에서 캐치프레이즈가 국산품 애용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물건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필을 서너번 깎아서 한 번 안부러지면 좋아하던 무궁화, 백두산같은 연필들, 노트 종이는 절반쯤 쓰다보면 찢어지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소련의 소비재가 대개 그 당시의 우리 소비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소비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표준어를 쓰고 있읍니다만, 북에서는 자기들끼리 표준어를 따로 만들었어요. 1960년대 중반의 일인데, 문화어라고 그러죠. 자기들 주장으로는 우리 표준어를 기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말 전체를 들어보면 평안도 사투리+함경도 사투리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 20년 쓰다 보니까 순수한 평안도 사투리와 순수한 함경도 사투리는 거의 사라졌어요. 도리어 우리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순수한 사투리더군요.

예를 들어 우리 수석대표는 완벽한 평양사투리거든요. 저도 완벽한 함경도 말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쪽이 훨씬 더 사투리를 강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 자체가 바뀐 것은

좋은데 단어를 너무 많이 바꿔 놔가지고 저는 명색이 북한을 공부하고 북한을 연구하기 때문에 김일성선집도 여러 번 읽어 봤고, 노동신문도 몇년치를 분석해 보느라 그 용어들이 익숙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쪽 단어로 고쳐서 이야기를 해줄 정도는 됩니다만 이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용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혼동이 일어나게 한다구요. 그점이 바로 12년 전에도 말썽을 일으킨 게 아니예요? 합의문을 만들 때, 합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합작이라는 말 뜻이 서로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칭하는 말이 많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지만,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상대방들이 모르는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8차회담 때 저쪽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죠. 저하고 같이 타고 가던 사람에게 서울인상이 어떠냐하고 물었더니 첫마디가 간판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간판이 시끄럽죠. 조그만 건물에 다닥다닥, 저도 그말을 듣고 유심히 봤지만 건물의 연면적보다 간판의 연면적이 훨씬 더 넓을 정도예요. 그 다음 두번째로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심히 살펴보니까 완전한 외래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 어정쩡하게 만든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탁틴"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써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한글 읽고 외국어 아는 사람들이지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되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외래어는 써요. "그루빠"니 "또락도루"니하는 소련어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언어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북한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한테 75시간 동안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던 안내원이 있었읍니다. 판문점 넘어서부터 돌아와 판문점을 넘어설 때까지 글자 그대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호텔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문간에서 제가 잘 때까지 문간에서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아마 자는 모양이예요. 제가 다른 대표위원들한테 간다고 옆방에 가면 쫓아와서 그 대표의 방 앞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또 다른 방에 가면 그곳으로 쫓아오고, 식당가면 그곳으로 쫓아오고 했거든요. 그래 75시간 그 사람 눈에서 제가 벗어난 적이 한번도 없었던거죠. 그런데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이고 저보다 5살 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읍니다만 북한은 교육의 질이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양적으로는 교육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교사와 학생의 비례라든지 모두 조건이 좋고요. 물론 다 무상이고요.

대학에는 종합대학이 김일성종합대학 하나가 있읍니다. 평양시내에 있는데 우리의 종로구, 용산구하는 구 하나가 통째로 김일성종합대학입니다. 아주 잘 지어놓고 크기도 큽니다. 학생수는 만명 정도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전문대학이라고 그래요. 전문대학이라지만 4년제, 5년제이고 단과대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김책 공과대학이 평양에 있고, 옛날 평양사범이 김형직 사범대학이 되어 있고요. 김형직이 누구입니까? 김일성의 아버지죠. 옛날 강계여자사범은 지금 강반석 사범학교가 되었고, 강반석 이는 김일성의 어머니입니다. 하여튼 전체가 김일성 집안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게 되면 굉장한 프라이드죠.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의 학교 차이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역시 소련에 가서 제가 느낀건데 소련에서 제일 가는 대학이 모스크바 대학인데, 거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공산주의 국가도 별 수 없구나 한건데, 거기에도 재수, 삼수가 있고, 과외가 있어요.

모스크바 대학에 들어가는데 28:1이라고 그래요. 졸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되고요. 북한의 경우는 각 도와 시에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두 배수로 추천을 받아 시험을 쳐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국민학교부터의 전 성적이 모두 평가되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관계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북한사회에서 오락이 무엇이 있을까하고 따져 봤는데, 역시 근본적인 플랜은 소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의 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련사회라는게 정치라는건 우리 형님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낄려고도 하지 마라.

그대신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거리 만들어주고 놀게 만들어 주고 그러다가 아프면 고쳐주고 그리고 교육시켜주는 것 다해 주마. 이러는게 소련입니다. 이렇게 60년을 해 오면서 이제는 묵시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것 같아요. 소련의 일반사람들은 정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끼려고도 하지 않읍니다. 우리는 프라우다, 이즈베시아를 펴놓고 지금 소련이 무엇을 하고 있나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소련의 일반 사람들은 고르바쵸프가 지금 책임자라는 것도 모릅니다. 알 생각을 안해요. 고르바쵸프가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게 소련 사람들이거든요. 북한의 경우는 다르죠. 전부 정치화시켜 놓았으니까요. 그건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소련사람들이 관심사항으로 꼽고 있는게 일곱가지인가 여덟가지인가 예요. 의·식, 주에, 교통에, 오락에, 그 다음에 뭐라해서 일곱인가 여덟인가를 꼽고 있읍니다. 이게 소위 기본요구죠. 이건 다 충족 시켜준다는 원칙 이거든요. 그래서 소련에는 마을마다 영화관 하나, 극장 하나, 그리고 실내 체육관 하나, 이것들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마다 서커스 전용극장이 하나있고, 서커스단이 하나 있고, 이것이 대개의 시스템이었읍니다.

북한에도 보니까 서커스가 굉장히 중요한 오락 중의 하나여서 평양에도 평양교예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규모의 서커스단이 있고, 그 전용극장이 있어요. 그리고는 주로 쓰는게 영화예요.

왜냐 하면 영화는 오락도 되고 정신교육하는 자료거든요. 이번에 제가 평양에 가기 전에 미리 훈련을 받으면서 북한의 극영화를 십여편 봤는데 어떤 극영화를 봐도 그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게 되었읍니다.

한번은 어떤 만찬장에서 제 왼쪽에 한 영감분이 앉았어요. 지금 나이가 77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잘 생기고 젊잖은 영감분이예요. 만나자 마자 인사를 하려고 보니 낯이 굉장히 익어요.

남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북에 낯이 익은 사람이 있다는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성명을 해놓고 보니 알만 했어요. 제가 본 어떤 극영화의 주인공이예요. 인민배우고요. 참고로 북한에서 배우라고 하면 우리처럼 연극이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만이 배우가 아닙니다. 가수도 배우고, 노래하는 사람도 배우고, 악기다루는 사람도 다 배우입니다.

배우 중에는 1급배우, 2급배우, 3급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칭호를 붙여서 특히 우수한 사람은 공훈배우라고 해요.

공훈배우만 해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 위가 인민배우예요. 인민배우는 전국적으로 약 250명이 있다고 그래요. 배우 중에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는 최고의 영예죠. 이 사람이 바로 1급배우이고 인민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좀 했죠.

우선 자기가 영화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기네 할당량이 일년에 극영화 50편, 그리고 기록영화 50편, 그외에 다규멘타리 얼마 해가지고 일년에 200편 정도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 작업량은 무조건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극영화 50편은 왜 그러냐 하면 리단위까지 영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매주 한편씩 돌려야 하기 때문이래요. 북쪽 영화는 저도 몇편 봤지만 상당히 수준있는 영화도 있어요. 또 항상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양반이 주인공했던 영화가 "헤어져서 언제까지나"하는 북한판 이산가족영화인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북한에서 유명한 교예단에 여자 주인공이 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산가족이예요. 그 스토리 대로 한다면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삼팔선 장사를 하면서 남북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그만 삼팔선이 막히니까 못들어간 거예요. 그 영감은 혼자 떨어져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피팔러 다니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상상해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서울의 생활상을 바닥으로 그려놨어요. 다 개천 밑의 살림정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예단이 파리에 가는 것을 이용하여 남반부의 특무들이 이쪽의 공작원이라는 이야기죠. 공작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이 사람을 찾아내어 양복을 입히고 말쑥하게 차려 입혀서 파리로 데리고 가는거예요. 자기 딸을 만나서 딸을 회유하여 남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그 여자 아가씨가 아버지를 거꾸로 설득하여, 음모가 뒤집혔다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던 인민배우 유명한 배우이고, 그 여자 주인공은 북한에서 손꼽는 박미애라는 유명한 여자 배우라고 그래요. 물론 설득의 요지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남쪽에 가고 없지만 위대한 수령 아버지께서 잘 키워줘서 오늘의 자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부러울게 없으며, 나를 키워준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보다 더 고맙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낳아준 아버지를 쫓아가느냐, 나는 지금의 아버지이며 위대한 수령을 훨씬 더 존경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꾸로 이쪽 아버지도 내가 잘 키우지 못했는데 그렇게 키워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니 넌 가라.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거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우리 공작원이란 사람이 막 끌어내어 드골공항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양





반에게도 물어봤더니 역시 영화가 제일 중요한 오락이고, 그 다음이 스포츠라고 해요. 여러가지 실내스포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았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온 일반적인 견문기인데 지금부터 제 소견을 겸해가지고 분석이랄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는 북한 경제의 전체 모습을 못보고 있는 겁니다. 소비수준은 적어도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제가 보고 온 것처럼 아주 낮읍니다. 19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초의 우리나라 생활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기자들이 오랫만에 북한에 다녀와서 신문에 보도한 논조가 북한이 우리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촌스럽고 못살고 하는 것만 강조해놨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혹시 잘못알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 정부가 연구소에서 분석해놓은 걸로 하면 7, 8백불 수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960불이니까 절반이 조금 못된다는게 우리 정부의 추정 입니다. 북한에서 우기기는 자기네가 삼천 이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자기네가 50% 앞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읍니다.

2천불 넘은 것이 6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기구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 보다 약 2백불 정도 처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우리 보다 조금 못한 소득수준인데 소비수준은 25년 전의 우리 수준으로 묶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소득이 2,000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만불 정도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류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이지만요. 잘먹고 잘입고 집치장하고 별거 다하고 살거든요. 북한은 쉽게 말하자면 1,700불 수준에서 500불 이하 수준만큼 살고 있다구요. 그걸 단순히 북한이 못산다고 깔볼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지금의 소득 가지고 더 잘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년 전의 소비수준으로 꽉 묶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지요. 이번에 북한에 가서 생활 수준이 낮다는 걸 보고 저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측면만 보고 북한과 우리의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속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꾸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적어도 소득이 줄잡아 우리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수준을 우리의 1/4 수준만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나머지 1/4 은 어디를 갔느냐. 그것도 몇십년 동안, 그래서 오늘날 심각한 군사문제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북한보다 소득은 많이 나오면서 그것을 모두 먹는데 썼거든요. 게다가 빚내 가지고 쓰고, 그 대신 북한은 안 먹고 안 쓰고 딴데 모아 놨으니까 결국 우리가 북한보다 소득에서는 몇배 앞서면서도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열등한 위치에서 허덕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이제 경제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북한의 간부급들과 안내원들하고 이야기해 봤읍니다. 북한도 개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요. 지금 북한도 중공에 대

하여 관심이 많고,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하고 둘이서 홍콩 옆에 있는 신춘까지 다녀왔읍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합영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중공개발의 상징인 신춘처럼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북한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만든게 합영법 아니냐. 그런데 1년 전에 합영법을 발표한 이후 투자가 아주 소규모로 4건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재일교포에게서 자동차 서비스공장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커피숍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참고로 북한에는 커피숍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자본으로 외국공관원들을 위해 호텔에 커피숍을 하나 만들었읍니다. 또 하나는 제일 큰 덩어리로 불란서와 합작하여 양각도라는 데에 50층짜리 호텔을 짓기로 했어요. 그것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제일 큰 덩어리죠. 그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해외투자가 안 되는가. 당연하죠. 중공에서는 개방만 한게 아니라 체제개혁과 병행을 했어요.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돈이 돌아가게 하고, 시장을 개방하여 돈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가질 수 있게끔 개혁을 한 다음 해외개방을 하니까 돈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거죠. 그런데 북한은 40년 동안 가꿔온 체제가 아까워서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체제는 묶어놓고 개방만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제일백화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해외투자 중의 하나인데 재일교포가 투자했어요. 앞으로 지점을 만들어 달라는게 북한의 요구인데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생각 해보세요. 돈주고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도시에서 백화점을 만들어봐야 운영이 될 수는 없는거죠. 시장경제를 약간이라도 숨통을 터주어야 이쪽도 운영이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북한에서도 이제는 체제를 고치지 않는 한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개방은 못하겠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옛날에 우리가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만들던 식으로 보세가공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일본같은 데서 자본을 들여와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값싼 노동자를 공급하여 임금만 벌고 물건은 도로 내보내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봤읍니다. 경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이번에는 정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야기하기로 하겠읍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의 하나가 북한정치론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읍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를 가르치면서도 평소에 제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게 몇가지 있었어요. 제 동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1인독재이고 1당독재체제예요. 그리고 역사상 한번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전제정치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걱정이 되죠. 모든 권력이 한사람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자연인이란 말이예요. 한 10년 있으면 죽을 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후에 그걸 어떻게 수습할거냐 하는거죠.

또 하나 사실상 김정일이 승계를 끝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모로 봐서 김정일이 아버지만 못하거든요. 그러니 김정일이 승계해서 아버지가 누리던 카리스마를 과연 지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번째로는 지금 북한의 엘리트들이 김일성이니까 할 수 없이 승복하고 있지만 김정일이가 승계해도 그 밑에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고 승복을 하겠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쿠데타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가지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극히 짧은 경험이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 의문이 다 풀렸읍니다. 결론부터 내리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북한은 지금 완전히 신정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자는거죠.

김일성이는 원래 보통 정치인이 아닙니다. 김일성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돼요. 4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 온 고도의 테크닉과 경험을 가진 생각이 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기 죽은 뒤까지 배려를 하고 있어요. 스탈린과 스탈린이 죽은 뒤의 꼴을 봤거든요. 그래서 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고쳐놨어요. 유일신이 바로 그 자신이죠.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되는거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김정일이는 뭐가 되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려주신 유일한 독생자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권위라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위를 승계받아 그 후광이 더 크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메카니즘으로 김일성이가 죽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김정일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권력의 승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가보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개인숭배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제가 그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제 나름대로 맥시멈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몇배가 된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각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김일성뿐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배자들도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읍니다만, 중세의 가톨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교황, 주교, 신부들은 일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나 신심을 토대로 해서 중세를 지배해왔다구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유일신의 종교체제를 강화해서 모든 인민들이 김일성이를 존경하는 마음을 일부러 조장해서 그걸 자기네가 이용하여 통치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김일성 숭배는 오히려 지금의 지배층이 조작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김일성이가 죽어도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고, 김정일의 승계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혹시 저 친구만 죽으면 혹시 좋은 세상이 올까하고 막연히 기대했었지만 좀 섭섭한 이야기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75시간 돌아다니는 중에 군인은 판문점에서 경비병 2명을 본 게 다입니다. 군인은 한명도 눈에 띄지 않고, 군인 비슷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다

못해 머리 짧게 깎은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군사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군사시설은 흔적조차 안남겨 놨어요. 딱 하나 본 게 판문점을 넘어서자마자 전차 저지를 위해 자연석을 가져다 늘어논 방어망이예요. 그외에는 전혀 완전 백지예요.

그리고는 자랑을 하는 것이지요.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개성이 가까이 올 때쯤, 저와 같이 앉았던 북한측 사람이 그래요. "저! 이선생, 전쟁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하지 말아야죠." 그랬더니 "전쟁하지 않겠다고 수령님께서 몇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느냐, 너희들은 6.25때 전쟁을 한다고 하고 전쟁을 했느냐?" 그랬더니 표준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25가 북침이지 남침이냐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하고 여러 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서 그런 식의 북침설 가지고는 저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 옆의 안내원을 딱 막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리선생, 6.25 때는 우리 수령님이 박헌영이에게 속아서 전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 제가 한말이 "그럼 제2의 박헌영이가 없으란 법 있읍니까?" 그랬단 말이예요. 그랬더니, "아! 그건 옛날이죠."하는 거예요. 참고로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죠. 조선공산당은 박헌영이가 만든 것이나 다름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소련 점령 하에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돌아와 지금의 정권을 만든거예요. 때늦게 박헌영이가 제것을 찾겠다고 들어갔을 때에는 김일성이가 기반을 굳혀논 다음이예요. 김일성이는 중국 공산당원이지 우리 공산당원이 아니지 않읍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공산당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국내에서의 주류는 박헌영인데 박헌영이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대접을 잘해서 외무장관도 시키고 굉장히 우대했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공산당 주류는 전부 처형했거든요. 원래 조선공산당은 김일성이 손에 다 죽었어요. 거기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읍니다. 김일성 노래를 작사했던 임화가 마지막 처형당할 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서 허무하다. 왜냐 하면 내가 죽는 대상으로서의 조국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나는 조선공산당을 위해서 평생을 싸웠는데, 바로 그 공산당 정부라고 하는 인민공화국에서 나를 적이라고 하니,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평생 싸우고 죽어야 하는가 말이다. 오늘 나는 죽기는 하지만 내 자신을 확인하지 못해서 섭섭하다. 이 이야기만 내 동료들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죽었어요.

제가 박헌영에 대한 공소장을 다 읽어봤지만 공소장 내용이 박헌영이에게 그렇게 모욕적일 수가 없어요. 해방 전에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미제국주의자 간첩죄로 사형당했단 말이예요. 공산당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당에 입당해 공산당을 오도하여 자멸하게 만든 장본인이 박헌영이고, 위대한 수령님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전쟁을 하게 하여 북한에 타격을 입힌 장본인이 박헌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불쌍한 게 '피고는 이 사실을 시인하는가?'하는 질문에 무기력하게 '네'하고 대답하고는 사형당했어요.

"하여튼 좋읍니다." 저쪽 사람이 김영남인데,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영남 선생은 믿읍니다.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읍시다. 전쟁 안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 어려운 돈 가지고 미그 23은 자꾸 들여옵니까?" 그랬단 말이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펄쩍 뛰면서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3가지를 물어봤어요. 왜 소련비행기는 자꾸 들여다가 정찰비행시키고, 왜 극동함대는 진남포항까지 들여다가 자꾸 남의 신경쓰이게 하느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예요. 그랬더니 전부 날조라는 거지요. 자기는 남조선 신문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죠. 8월 말까지 미그 23이 46대 들어옵니다. 어느 비행장에 몇대 들어오는지도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내려왔읍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화이미지를 특히 부각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제가 원래 의심이 많고 노파심이 많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나칠 정도로 평화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게 다른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거죠. 뭐 별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겠읍니다.

그들에게는 부러운 게 하나 있고, 무서운 게 하나 있고, 경계해야될 게 하나 있읍니다. 부러운 게 뭐냐? 바로 북한의 엘리트들입니다.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접해 본 북한의 대표단 사람들, 만찬회장에서 만난 고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유능하고 박학하고 아주 융통성 있고 대한민국 사회 어디 풀어놔도 무슨 일이든지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게 부러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만한 인재가 없느냐. 숫자로 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재관리를 잘 안했거든요.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키워논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읍니까. 좀 일할만하면 때묻었다고 버리는거죠. 정변있을 때마다 한번씩 물러났잖아요. 4.19때 그랬죠, 5.16때 그랬죠, 10.26때 그랬죠. 겨우 경험쌓고 겨우 훈련해 놓으면 다 내보내고 이제는 중앙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까지 있지 않읍니까? 더구나 개인 기업체로 빠지고 외국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많은데 마치 도너츠처럼 중앙은 텅비고 바깥에 모여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든 인재가 다양하게 모든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 되니까 자유 개방사회의 장점이 되는거죠. 그러니 단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전체주의 사회와의 대결에서는 문제가 있는거죠.

저쪽에서는 숫자는 적지만 엘리트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반면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로서는 힘이 클지는 몰라도 우리가 손해 아니겠읍니까?

또하나 무섭다고 하는 것은 조직력이예요. 북한의 주민 2천만은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우리 공군사관학교의 공군사관생도만큼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어 있읍니다.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

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런 체제 속에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는가. 숨막히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안돼 보이는게 표정들이 없어요. 거리 다니는 사람, 피바다가 극단에서 공연관람하는 사람, 모란봉 경기장에서 박수치는 사람, 모두 기계적으로 박수치라면 치고 그치라면 그치고, 아주 기계적이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읍니다. 죠지오웰이 북한을 보고 「1984년」을 썼으면 더 실감나게 썼을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1984년」에 나오는 사회와 북한의 사회가 가장 비슷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데 그게 다같은 우리 민족이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조카들이고 우리 사촌들이고 우리 형제들인데 그 상태로 놔둔다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비수준입니다. 그들이 낮은 소비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나머지 소득은 어디다 두었냐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읍니다. 남북한 대결에 있어 남북한 전체 힘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외국 학자들로부터 곤혹스러울 정도로 이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겁니다. 한국문제를 분석하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북한보다 인구도 많고 공업생산성도 높고, 기술수준도 높고, 국민소득도 외교관계도 모두 우세한데 어째서 어린애같은 북한에게 겁을 내며 싸우지 못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답이 궁해지잖아요. 이론상으로 요소요소 다 따져보면 2배다, 3배다, 4배다 그러는데 왜 그런 어린애 같은 북한 하나 가지고 난리를 피우느냐 이겁니다. 밖에서는 대답이 궁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는 간단하죠.

여기 칠판이 없어 못 쓰지만, 나라의 힘을 계산하는 공식을 하나 소개하겠읍니다.

Power(나라의 힘)=C(Capability, 객관적인 능력) X W(Will to fight, 싸우려는 의지) X I(Interest, 관심 혹은 이익) 객관적인 능력 C는 우리가 모두 앞섭니다.

경제능력도, 공업생산력도, 무역, 기술, 모든 항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강하지요. 문제는 나머지 두개항이예요. 싸우려는 의지, 이게 왜 의미를 갖느냐 보세요. 가령 우리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북한이 50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100만 대군의 군인 아저씨들이 안 싸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3배의 장비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싸우려는 의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Interest는 뭐예요. 그건 관심이죠. 죽고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하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자기가 투입하는 힘의 양이 다르죠. 월남전을 보세요. 월맹은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 Commitment예요. 그러나 미국은 이기면 좋지만 안 이겨도 할 수 없다하는 정도니까 굳이 따지자면 1% 정도의 Commitment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강국이라는 미국이 맨발벗고, 샌달신고 나온 베트콩한테 지게 된다는 말이예요. 우리 남북한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인 능력에서는 북한보다 월등히 낫죠. 그러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북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 공식이 + 가 아니라 X 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항이 0이 되기만 하면 전체는 자동적으로 0이 된다는 거지요.





국민소득이 7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0이기만 하면 다른 항들이 10배가 아니라 100배라고 해도 국가의 힘은 0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부드린다는 의미도 되고 함께 걱정하자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드웨어는 참 좋아요.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하나도 소용없는 거지요. 정치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정책결정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운영체제라든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라든가 이와 같은 모든 소프트웨어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글자 그대로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북한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군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렇지요. 우리가 소득이 북한보다 높기에 북한만큼 검소하게는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 분수에 알맞는 정도만 살아줘도 그 여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남의 신세를 지지않고 군비를 장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 초전필승 다짐속에
## 무너지는 북괴야욕

# 북한주민들의 불행한 가정생활

중위 장 한 철
〈제3591부대〉

목 차

1. 머리말
2. 북괴의 가족정책
3. 북한의 가정생활 실태
4. 가정의 남·북한 비교
5. 맺음말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집 울안을 말한다. 이 집 울안은 외부에서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집 울안 속에서 윤택한 경제생활의 보장은 물론 가장의 통솔이 확립되고 주부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아이들의 재롱과 성장이 이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람들의 안식처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개념으로는 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 프리드리히 앵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1884년)"이라는 저서에서 "……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서 가족형태가 생성 변화해 왔으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재산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가족도 소멸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이론을 제도와 행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북괴의 이른바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할 때까지 경제형태와 발전의 정도에 맞게 가족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가족을 소멸하는 길로 걷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북괴의 가족정책의 기본목표는 무엇이며, 그 결과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의 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2. 북괴의 가족정책

### 가. 기본목표

북괴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체제의 실현은 가족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의 실현방법으로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봉건적 잔재를 철저히 근절하여 사회주의 가족제도를 가일층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애정의 결합이며 사회문화의 역사적 전승기관인 동시에 모든 사회활동의 근본적 기초로서 사회 발전의 주체적 원동력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북괴는 가족의 관념 중에서 애정은 자본주의적 유물이며 전통적 문화계승 작용도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이 사회활동의 원초적인 집단이라는 점에 촛점을 맞추어 가족을 하나의 사회주의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로서 만들어가고 있다.

즉, 북괴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붕괴시키고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정치, 사회화 기능만을 수행하는 소위 사회주의 가족제도를 만드는데 가족정책의 기본 목표를 두었다.

### 나. 전통적 가족구조의 파괴

북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에 주력해 왔다.

**첫째, 생산수단의 집단화를 통해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한 것이다.**

1949년의 토지개혁과 1954년부터 1958년까지의 농업협동화를 통하여 모든 토지를 가족단위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시켰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을 잃음과 동시에 사회 집단화의 틀 속에 가족이 묶여버리고 말았다.

**둘째, 노동력의 공급을 공산당이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

북괴는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주민들은 공산당이 지정 배치한 직업에 무조건 취업하도록 만들어 가족성원들을 각자의 직장에 분산배치함으로써 가족의 동일체감이 박탈되었다.

**셋째, 호적법의 폐지 및 "공민증제도"를 시행했다.**

북괴는 1947년 전통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오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하여 공민증제도를 마련하여 전통 가족질서와는 다른 가족질서를 만들어 왔다.

공민증제도에 의하여 북괴는 가족에 관한 범위를 규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가족의 중심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부부에 두고 있으며 가족 간의 상호부양이나 산업장에의 동원거점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주의적 교양장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들어 비록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측면이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반면 혈연관계가 있더라도 이런 측면이 없으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펴왔다.

그 구체적 내용은 첫째, 부부로서의 결합을 가족을 이루는 기본단위로 보며 둘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자관계는 당연히 가족이 되며 셋째, 친부모와 손자녀는 부양 의무여하에 따라 가족의 성원이 되며 네째, 형제자매는 상호간 부양관계가 조성될 때 가족이 되며 다섯째, 기타 인원이라도 부양문제로서 결합되면 가족이 된다는 것 등이다.

그 결과 장남인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남인 동생이 부모를 모시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장남의 가족이 될 수 없고 동생의 가족이 되며, 혈연관계없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인

민위원회의 결정아래 양자가 될 수 있으며 일단 양자가 되면 생가의 부모와는 친자관계의 신분마저 단절되고 오로지 양가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친척간의 접촉기회도 단절함에 따라 친척의 확인이 어려워져 본의 아니게 동성동본 간의 결혼 또는 친족간의 결혼이 늘어가고 있다.

### 다. 가족의 정치적 및 사회적 기능화

북괴에서의 가족의 정치적·사회적 기능은 가족이 사회주의적 교육장이라는 점과 생산수단의 공급원이라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족을 통하여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교육받게 되며 이것이 인간이 받는 제1차적 사회화과정이다.

북괴는 이런 가족의 사회화 기능을 역이용, 이른바 공산주의사상을 교습하는 기본단위로서 가족제도를 유도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괴는 어린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보다 강하게 주입시키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 생활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상과 김일성 유일체제에 적응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북괴는 1976년 6월 1일부터 이른바 "아동보호교양법" 을 만들어 유아는 탁아소에서 기르고 부모는 일주일에 한번 만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고향방문단이 평양에 갔을 때 우리 측 신문기자의 인터뷰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던 약 5살 정도의 사내애에게 어디가느냐고 물었더니 탁아소에 간다고 했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냐고 했더니 전쟁에 관한 노래를 배운다고 대답했던 장면, 인민학교 2, 3 학년 학생에게 무엇을 배우냐고 질문하자 "미제국주의자…", 남한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미제국주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판에 박힌 듯한 말을 앵무새처럼 줄줄히 외워대던 북한의 어린이들, 지하철에서 만난 한 청년에게 제일 먼저 다닌 곳이 어디냐고 하는 질문에 "탁아소"라고 대답하던 모습 등 그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또한 북괴는 산업장에의 동원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즉 인민반 조직이나 5호담당제와 같은 제도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인민경제기획에 따른 계획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성의 남성으로부터의 해방",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을 산업장으로 내몰아 여성의 가정주부,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박탈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말한다면 북괴의 가족정책은 가족개념에 대한 민족전래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고 변형시켜서 가족을 "물질적인 부"를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의 기초적인 조직단위로 생각하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고, 그것이 가정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물질적인 부"를 생산하는 노동능률을 높이는데 우선적으로 복무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조직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북한의 가정생활 실태

그러면 이와 같은 북괴의 가족정책에 따라 오늘날 북괴 치하에서의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그 구체적인 실태를 다음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 가. 어머니와 주부없는 가정

북괴는 노동력을 가진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일하게 노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거나 꾸려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러한 강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여성은 부양가족으로 취급해서 식량배급을 1일 300그램으로 한정시켜 배를 곯여 끌어내는 방법과 직장에 나가지 않는 여성들로 "가두작업반"을 조직하여 직장에서의 노동생활 못지 않게 힘겨운 무보수 노동을 시키는 방법 등 이중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1976년 11월에 열린 북괴〔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4기 7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여성위원장인 김일성의 처 김성애는 이른바 〔자연개조 5대 방침〕의 관철을 위하여 여성〔유휴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두 연맹조직들은 여성지원대를 조직해서 여맹원 한 사람당 1년에 3톤 이상의 황토와 부식토를 장만해 협동농장에 보내라〕 고 촉구하였다. 결국 여성들은 집에서 못견디어 가정을 떠나 직장으로 나가며, 일터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려서 자연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나. 가장의 권위가 서지 않는 가정

독일의 시성 괴테는 〔…아버지로부터는 인생을 진실하게 보내는 방도를, 어머니로부터는 명랑한 천성과 사랑을 이루는 기쁨을 나는 배웠다〕 고 말한 일이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큰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공산 사회제도의 작용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당한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탁아소에서 아버지보다 괴수 김일성을 더 우상적인 존재로, 또 절대적인 숭배인물로 배운다.

김일성을 〔어버이〕 또는 〔아버지〕란 말로 부르도록 강요당하며 김일성 외의 모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시하도록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 더 성장하면서 〔소년단〕, 〔사회주의 노등 청년동맹〕 등의 사회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하여 아버지나 어머니, 기타 가족들의 행위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도록 유도당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나 반감을 품었거나, 그 사회에서 천시당할 출신 또는 사회성분을 가지고 있거나 처벌 또는 숙청당한 상태에 있으면 자식들로부터 노골적인 괄시와 천대를 받는다. 예를 들면 무용가 최승희의 남편인 안막이 문화인 아파트 구석진 방에 연금 당한채 무용극 대본이나 써주고 살면서 아내 최승희와 딸 안성희에게 천대를 받아가며 괴롭게 살다가 비참히 죽은 일은 그런 실례들 중 하나이다.

그의 딸 안성희는 친구들 앞에서 안막을 〔이빨 빠진 늙은 개〕 라고 마구 비난하고 다녔고, 그것으로 자기 〔당성〕 을 과시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승희나 안성희 할 것 없이 모두 안막의 뒤를 따라 무용가 동맹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에서 숙청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결국 최승희 안막이가는 지리멸렬해 버렸다. 북괴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낸 김창만의 사생활에서의 약점들을 모조리 수집하여 당조직 지도부장(그 당시) 김영주에게 밀고한 자가 바로 김창만의 친아들인 김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하는 모스크바 유학 시절에 김영주와 가까이 지냈고,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보다 김영주의 편에 서는 것이 출세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김창만 숙청자료에 보탬을 주었다. 북괴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이던 한설야가 숙청 대상자로 비판대에 오르자 그의 두 아들인 한형원과 한욱이 누구보다도 먼저 열을 내어 아버지를 공박하고 심지어는 밤에 침실에 들이닥쳐 아버지를 구타한 일은 표본적인 실례의 하나인 것이다.

당시 맏아들인 한형원은 북괴 〔시나리오 창작사〕 부주필이었고 둘째 아들인 한욱은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이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와 한무더기로 매장당하는 수난을 면하고 그 자리나마 부지해보려고 비정한 짓을 저질렀으나 결국 둘 다 아버지를 따라 숙청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 주민 사이에는 "나와 개를 제외한 모든 것은 정보원이고 감시원이다"라는 은어가 만연하고 있다.

### 다. 아이들이 없는 가정

북괴는 지난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회의〕 에서 소위 〔어린이 보육교양법〕 (6장 50조) 이라는 악법을 채택하고 그해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어린이 보육교양법〕 의 골자는 350만 명의 학령 전 어린이들을 무조건 탁아소 또는 유치원에 수용할 것과 그 어린이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혁명위업의 계승자〕 로 키운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주탁아소(일주일을 맡겨 놓는 탁아소), 월탁아소(한달을 맡겨 놓는 탁아소)를 비롯한 여러 탁아소에서 어머니의 얼굴보다도 탁아소 보육원의 얼굴을 먼저 익히고, 아버지의 이름보다도 괴수 김일성의 이름을 먼저 배우고, 철들기 전부터 김일성을 아버지로 착각하고 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성〕 을 바치는 정신을 지니도록 세뇌를 당하고 있다.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나 볼 때 거기 있어야 할 귀여운 어린 자식이 없어서 느끼는 그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 것인가. 어린이가 없는 가정은 벌써 행복이 떠나버린 빈 집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 라. 밥솔이 없는 가정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홉〕 은 〔다리미가 없는 집은 가정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일이 있다.

자기가 빨아주고 정성껏 다리미질 해준 양복을 입고 기쁘게 학교로 뛰어가는 아들과 손을 흔





들어 보이며 직장으로 떠나가는 남편을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부의 따사로운 마음과 행복이 없는 곳은 벌써 가정이 아니라는 뜻을 지닌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많은 가정에는 다리미는 커녕 밥솥도 없거나 쓸쓸히 한 구석에 흩어져 있는 집안이 태반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밥을 "밥공장"으로 쌀을 들고 가서 바꿔다 먹고, 국은 "국공장"에 가서 사오거나 간혹 "국공장" 판매원이 팔러 다니는 것을 사서 먹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겨울이면 밥과 국이 식는다. 가족끼리 따뜻한 음식을 둘러 앉아 단란한 식사의 한때를 즐기는 기쁨마저 없어진지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밥공장", "국공장" 제도는 아직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불원간에 그들 모두에게 강요할 계획이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마. 가정윤리 없는 가정

북괴에서는 이른바 "당적 원칙"과 "수령의 교시" 가 가정생활을 지배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랄하게 비판되고 소속 단체에 보고하는 것이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강요된다. 즉 가족 구성원들은 부모, 형제이기에 앞서 공산주의혁명의 "사상적 동지"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탁아소를 통하여 자기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났다"고 믿고 있으며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는 오히려 동무로 대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다.

즉 북한사회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의 척도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김일성 수령에 대한 충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잘못을 당이나 사회단체에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언동을 소년단을 통해 교원에게 고발한다.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딸이 어머니를 비판한다.

실례를 들어보면, 북괴 문예총에서 같이 근무하는 며느리 송수정이 작곡가이며 지휘자인 유광준을 비판하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고 몸을 떤 일과 무용가 최승희를 그의 딸인 안성희가 비판한 일들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사회에서는 보기 어렵지 않다.

### 바. 당이 통제하는 결혼

북괴에서의 결혼은 당사자의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북괴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소속직장이나 단체의 당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당간부나 군관 등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은 당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만일 당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유의사대로 결혼을 강행할 경우에는 바로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북괴는 결혼으로 인한 노동력, 특히 여성 노동력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결

혼연령도 남자는 32세, 여자는 28세가 넘어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결혼식의 경우도 결혼 예물은 "김일성 선집"이나 "항일 빨치산 투쟁기" 등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주어지고 결혼 식장에는 반드시 김일성초상화를 걸어 놓아야 한다. 결혼식의 절차는 간단하나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 감시와 통제로 불안한 가정생활

북한의 가정은 〔5호 담당선전원〕 인민반장, 위생기관원 등이 제멋대로 드나들며 간섭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므로 늘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집〕과 같아서 가정의 안정감을 파괴한다. 집안에서도 항상 감시의 시선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는 실정이다.

5호 담당제는 1958년 7월 초, 김일성이가 〔현지지도〕 차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찾아가 〔유급간부 한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사상 교양사업과 경제문화생활 등 일체를 지시하도록하고 이 당위원회에서 그 실행 정형을 총화하도록 하라〕 고 지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5호씩 한데 묶어서 앞잡이들로 하여금 가정에 이르기까지 감시 통제하도록 짜 놓은 것이다.

특히 가정에 대한 〔위생기관원〕의 간섭은 모욕적이다. 〔위생기관원〕들은 〔이〕가 있는지 여부의 상태와 세탁실태를 검열한다고 하면서 남의 집 옷장속의 이불과 내의까지 들추어내어 살펴 볼 권한까지 가지고 실제 그러한 행패를 연반장의 권한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의 간섭은 수시로 벌어지는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비상소집 훈련과 가정에 강요되는 각종 학습과 휴일의 〔노력동원〕 등으로도 나타난다.

비상소집훈련은 상당한 준비를 미리 해 놓아야 한다. 해당된 복장의 준비는 물론 반드시 메고 나갈 배낭 속에 넣을 물건만 해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비상소집 후 소지품에 대한 검열을 받게 되는데 이때 미비점이 있으면 지적을 받으며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아이들 것들도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비상소집을 자주 치르게 되니 가정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 뿐 안정을 바라기는 어렵다.

또한 가정에 강요되는 여러 가지 학습에도 빠질 수는 없다. 인민반의 〔5 호 담당 선회원〕이 수시로 지시하는 학습이 있고, 각자 직장에서 받아온 학습내용을 함께 복습하거나 토론하는 학습이 있다. 휴일에도 직장 또는 가두 인민반에서 벌이는 〔노력동원〕에 참가해야 한다. 따라서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명승지나 유원지에서의 휴식, 영화나 연극관람, 등산, 낚시 등을 하며 즐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실정이니 어찌 아늑한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 아. 지친 노동자의 합숙소로 전락된 가정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들은 하루 남자는 15시간 이상, 여자는 14시간 이상 직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데 시달린다.

직장마다 〔당과 수령이 준 과업을 완수해내지 못하고 나서는 쉴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표어가 붙어 있다. 쉴 수 있는 권리는 커녕 죽을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긴 상태에서 혹독한 중노동에 내몰린다. 거기에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 등 군사훈련을 고되게 강요당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말할 기력도 없다. 그대로 쓰러져 자고는 이튿날 또 다시 직장에 나가야 한다. 북한의 가정은 마치 지친 노동자들의 합숙소와 같이 변해버렸다. 이밖에도 주택난으로 단칸방에 대여섯 식구가 끼어 살거나 방 한가운데 백포를 치고 두 가구가 살거나, 겨울에 연료난으로 허덕이는 일 등 북괴 치하의 가정생활은 너무나 비참하다.



특히 주택난이 심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없고 직책에 따라 배정해 주는 집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란한 가족생활은 커녕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안주 광산에서 사택의 단칸방에 신혼부부 두쌍을 수용한 일이 있었다. 방 가운데 백포를 치고 아래 웃목으로 나누어 두 식구가 살았는데 광산은 3교대 근무제로 남자와 여자의 출근시간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아랫목쪽의 남자와 웃목쪽의 여자만이 자게 될 경우가 생기고는 했다. 이래서 불륜관계가 맺어지고 드디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정을 파괴당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스런 사건이다.

이와같이 북괴 치하에서는 우리 민족 전래의 가족제도와 가정 생활양식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4. 가정의 남•북한 비교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남·북한간의 가정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5. 맺음말

북괴의 가족정책은 가정이 "사회주의 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라는 이른바 "사회주의 가족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여성의 노동참여, 탁아소 제도의 완성, 생산에 복무하는 장소로의 가족성원의 분산배치, 가족 상호고발 장려, 5호 담당제에 의한 외부적인 간섭통제, 혼인문제에 관한 당 및 사회단체의 관여 등 이 모든 것이 이른바 "사회주의 사회"에 알맞는 가족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변형 작업을 북괴는 "가정을 혁명화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혁명화의 내용은 "공산주의가 필승한다는 정신으로서의 무장,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배양, 부단한 혁명의식 고취,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과 프롤레타리아 국가주의 정신으로의 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괴의 가족정책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가정을 김일성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실한 인간들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교양의 가장 작은 기본 세포로 또 노동력을 최대한 짜낼 수 있는 기초적인 단위로 만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가정의 남·북한 비교

| 구분 | 한 국 | 북 괴 |
|---|---|---|
| 개념 | ○ 생활의 보금자리 | ○ 사회주의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 |
| 가족제도 | ○ 전통적 가족제도보유<br>○ 핵 가족화 경향 | ○ 호적제도폐지에 따른 가족 관념 소멸 |
| 주택 | ○ 개인소유로 각양각색 | ○ 국가소유로 거주지를 당이 지정 |
| 결혼 실태 | ○ 인생동반자의 결합<br>○ 효도와 사랑을 강조<br>○ 여성의 대부분이 가사에 종사 | ○ 혁명 동지의 결합<br>○ 혈연보다 사상강조<br>○ 여성의 대부분이 "생산직장"에 종사<br>○ 가정이 직장생활에 종속되는 경향<br>○ 어린이는 탁아소에서 집단 양육<br>○ 김일성을 아버지로하는 대가족 제도형성으로 일인독재 기반 구축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지만 각자의 이념과 체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남한 사회는 개방체제 속에서 고귀한 인간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정반대로 북한 주민들은 오로지 공산독재 정권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85년 9월에는 남북분단 이후 사상 최초로 남북이산가족의 고향방문단의 교환이 있었다. 그때 9월 23일자 석간신문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35년만에 찾은 정든 고향땅을 다시 떠나가는 순간, "아버지, 부디 오래 사세요" 북에서 온 아들은 남쪽의 아버지의 오른손을 두손으로 꼭 잡은 채 소매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장승처럼 우뚝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놓고 천천히 되돌아서 버스에 오르자 아버지는 두손을 번쩍 들어 흔들면서 "애야, 잘 가거라"고 계속 외쳤다. ('85. 9. 23. 자 동아일보) 이산가족의 아픔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해서도 그리고 북괴치하의 우리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근검절약부대운영
늘어나는국가재산





指揮成功事例

#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의 효율적 운영(效率的 運営)을 통(通)한 자율적 참여도 제고(自律的 參與度 提高)

소령 하 무 웅
〈제5315부대〉

– 목 차 –

1. 머리말
2. 지휘관리(指揮管理)를 위한 기본모형(基本模型)
 가. 지휘목적(指揮目的)을 고려한 지휘수단의 조화
 나. 동기화(動機化) 및 행동화(行動化) 모형(模型)
  (1) 동기화(動機化) 모형(模型)
  (2) 행동화(行動化) 모형(模型)
3.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와 지휘관리(指揮管理)
 가. 중간지휘관(中間指揮官)(소속장)을 중심(中心)으로한 지휘체제확립(指揮体制確立)
  (1) 소속장 능력향상책(能力向上策) 강구(講求)
  (2) 소속장에 대한 신뢰도(信賴度) 및 친밀감(親密感) 제고(提高)
 나. 지휘관(指揮官) 직접의사소통체제(直接意思疏通体制) 강화(強化)
 다. 특별참모역할제고(特別參謀役割提高)
 라. 부대원상호간(部隊員相互間) 수평적(水平的)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 확립(確立)
4. 맺는 말

## 1. 머리말

“공군(空軍)은 신사(神士)”라는 말을 공군(空軍)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뿌듯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는 외형상(外形上)의 멋이 상당비중(相當比重) 차지하는 것도 사실(事実)이지만 공군자체(空軍自体)가 기술군(技術軍)의 특징(特徵)을 띠고 있기에 업무(業務)가 타군(他軍)에 비해 기능적(機能的)으로 분업화(分業化)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서상호간(部署相互間)의 협조(協助)가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業務遂行)이 어렵기 때문에 성격상(性格上) 공군전반적(空軍全般的)인 분위기가 강압적(強圧的)인 명분(名分)보다는 협조적(協助的)인 근무체제(勤務体制)가 형성(形成)되어 다소 부드럽다는 얘기이고 이를 타군(他軍)의 입장(立場)에서는 신사(神士)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요인(要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側面)은 자칫 군(軍)의 생명(生命)이라 할 수 있는 엄정(嚴正)한 위계질서(位階秩序)를 해칠 가능성(可能性)과 함께 업무(業務)의 신속한 처리(処理)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可能性)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機能的)인 분업화(分業化)와 함께 형성(形成)된 협조적(協助的)인 근무 분위기가 나태하고 부서이집적인 경향으로 흐르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業務処理)와 자발적(自発的)인 참여(參與)로 유도되기 위해서는 특별(特別)한 리더십이 요청(要請)된다 하겠다.

문제(問題)는 이에 대한 인식(認識)은 있으나 대부분(大部分)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具体的)인 방안(方案)과 특히 꾸준한 실천력(実践力)이 뒷받침되지 못하기에 타군(他軍)이 보기에 신사(神士) 공군(空軍)은 자체적(自体的)으로는 “군기(軍紀) 빠진 군인” 더구나 투철한 군인정신(軍人精神)과 사명감(使命感)의 결핍을 가져올 가능성(可能性)이 잠재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공군(空軍)의 장점(長点)이라 할 수 있는 협조적(協助的)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인간(人間)의 욕구(欲求)와 성격(性格)을 고려한 지휘관리(指揮管理) 즉 부대원(部隊員)의 심리적(心理的) 수용도(受容度)를 고려한 지휘관리(指揮管理)를 근간으로 하여 자발적(自発的)인 참여도(參與度)를 제고(提高)하고 투철한 군인정신(軍人精神)을 고취시키는 방안(方案)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본인(本人)은 1983년(年) 12월 제30단 307대대장으로 보임되어 현재까지 당부대(當部隊)의 지휘관(指揮官)으로 근무(勤務)하면서 다각적인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를 어떻게 형성(形成)시켜 나갈 때 상기(上記) 취지(趣旨)에 합당(合當)한 지휘통솔(指揮統率)이 가능(可能)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여론조사결과(조사대상 : 장교 20명(名), 하사관 30명(名), 영내사병 50명(名)) 그 동안의 보람과 나름대로의 자신감(自信感)을 가질 수 있었기에 본인(本人)의 사례(事例)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지휘관리(指揮管理)를 위한 기본모형(基本模型)〈방침(方針)〉

부대(部隊)를 훌륭히 지휘(指揮)한다는 것은 단순(単純)한 업무능력(業務能力)이나 합리적(合理的)인 예산운용(豫算運用)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다져지는 부대원(部隊員) 상하간(上下間)의 존경(尊敬)과 자애(慈愛)가 정착되고 수평적(水平的)인 유대(紐帶)가 공고할 때 가능해지는 것임을 거듭거듭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본인(本人)은 지휘관리(指揮管理)의 기본모형(基本模型)을 다음과 같이 설정(設定)하였다.

### 가. 지휘목적(指揮目的)을 고려한 지휘수단(指揮手段)의 조화(調和)

부대(部隊)를 효과적(効果的)으로 지휘(指揮)하기 위해서는 지휘목적(指揮目的)에 맞는 지휘수단(指揮手段)이 활용되어야 하기에 본인(本人)은 Amitai Etzioni의 조직통제수단(組織統制手段)을 원용하여 지휘관리(指揮管理) 기본모형(基本模型) Ⅰ을 설정(設定)하였다.

즉, 부하를 통제(統制)하기 위해 상급자(上級者)가 동원(動員)하는 권한(権限)과 그에 대한 부하(部下)의 태도(態度) 사이에 형성(形成)되는 관계(関係)에 따라

① 강압적(強圧的) 관계(関係) ② 공리적(功利的) 관계(関係) ③ 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로 대별(大別)하여 이 3가지 관계(関係)(통제수단(統制手段))가 어떻게 조화(調和)되어야 할 것 인가를 제1차적인 모형(模型)으로 삼은 것이다.

① 강압적(強圧的) 관계(関係) : 강압적(強圧的)인 권한(権限)에 의한 굴종적인 복종관계(服従関係)

② 공리적(功利的) 관계(関係) : 공리적(功利的) 권한(権限)과 타산적(打算的) 복종(服従)에 의한 관계(関係)

③ 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 : 애정(愛情), 인격존중(人格尊重), 사명감(使命感) 등에 의한 규범적(規範的) 권한(権限)과 도덕적(道德的) 복종(服従)이 부합되는 관계(関係)

중요(重要)한 것은 이중 한가지를 선택(選択)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조화(調和)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본인(本人)은 되도록 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에 의한 지휘통솔(指揮統率)을 하되 공리적(功利的) 관계(関係)와 강압적(強圧的) 관계(関係)를 어떻게 조화(調和)시키느냐에 역점(力点)을 두었다.

즉 부대원간(部隊員間)의 신뢰감(信頼感) 조성(造成)과 친밀성(親密性) 확보(確保) 및 인격적(人格的) 접촉을 통한 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의 계속적 유지(維持)를 통해 부대(部隊)에 대한 강한 애착과 높은 충성심(忠誠心)을 견지케 하였으며(이는 정신전력(精神戰力)의 사대지표중(四大指標中)의 하나인 단결력(団結力) 고취에 해당)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利益)에 따라 부대(部隊)에 기여하려는 인간(人間)의 욕구(欲求)를 감안하여 공리적(功利的) 관계(関係)를 공정(公正)히 하였고(이는 정신전력(精神戰力)의 사대지표중(四大指標中)의 하나인 사기(士気) 앙양에 해당) 군인으로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감내할 수 있는 엄정(嚴正)한 위계질서(位階秩序) 확립(確立)을 위해(이는 정신전력(精神戰力)의 사대지표중(四大指標中)의 하나인 군기확립(軍

紀確立)에 해당) 강압적(強圧的) 관계(関係)를 조화(調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3가지 관계(関係)가 제대로의 역할(役割)을 다하고 상호조화(相互調和)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의 꾸준한 노력(努力)과 희생·솔선수범(率先垂範) 등에 의해 다져지는 상하간(上下間) 수평간(水平間)의 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가 얼마나 공고히 형성(形成)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銘心)하였으며 지휘과정(指揮過程)에서 계속 실감할 수 있었다.

## 나. 동기화(動機化) 및 행동화(行動化) 모형(模型)

### ⑴ 동기화(動機化) 모형(模型)

Fredrick Herzberg는 욕구충족이론(欲求充足理論) 이원론(二元論)을 주장하면서 "인간(人間)은 이원적(二元的)인 욕구구조(欲求構造)를 가지고 있다. 한가지 욕구체계(欲求体係)는 불유쾌한 것 또는 고통(苦痛)을 피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 욕구체계(欲求体係)는 개인적(個人的) 성장(成長)을 갈구(渴求)하는 것이다" 이는 부대(部隊) 지휘관리(指揮管理)에도 큰 지침(指針)을 시사해 준다.

본인(本人)이 부대(部隊)에 부임(赴任)하여 장병(将兵)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사(調査)하는 도중에서 첫번째 난관으로 부딪친 것은 장병(将兵)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매우 형식적(形式的)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장병(将兵)들의 소극적(消極的) 자세보다는 지금까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사(調査)하고는 이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였기 때문에 장병(将兵)들의 이러한 태도(態度)는 오히려 당연(當然)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把握)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本人)은 장병(将兵)들과의 약속(約束)을 지키는 신뢰(信賴)받는 지휘관(指揮官)이 되기 위해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그 조치결과(結果)를 통보하고 약속기일(約束期日)을 엄수(嚴守)하는 풍토조성(風土造成)에 우선 노력(努力)하였다.

또한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창구(窓口)를 다양화 하기 위해 메뉴회의(会議)〈월(月) 1회(回)〉, 내무반장(內務班長)·반부회의(班副会議)〈월(月) 1회(回)〉, 직장단결회의(職場団結会議)〈월(月) 1회(回)〉, 전입장병여론조사(転入将兵輿論調査)〈월(月) 1회(回)〉 및 가정통신문(家庭通信文) 발송(発送)〈전입시(転入時)〉 전역장병여론조사(転役将兵輿論調査)〈월(月) 1회(回)〉 등 정기적(定期的)인 여론조사(輿論調査)와 소속장 및 선임하사(先任下士)의 주기적인 면담(面談) 그리고 정훈장교(政訓将校)·군목·주임상사(主任上士) 명예내무반장(名誉內務班長) 등의 개인적(個人的) 접촉에 의한 자유(自由)스럽고 전문적(專門的)인 면담(面談)을 특성별(特性別) 및 분야별(分野別)로 활성화(活性化)하였으며, 이를 종합(綜合) 전(全) 장병(将兵)에게 그 조치 결과(結果)를 월(月) 1회(回) 반드시 통보(通報)하였다.

그 결과(結果) 애로 및 건의사항의 접수(接受)에 대한 인식(認識)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건의사항도 부대(部隊)에 무조건(無條件) 요구(要求)하는 것에서 점차 자기(自己) 스스로 할 일을 계획(計劃)해 줄 것 등 〈예(例). 청소(淸掃)의 날 주(週) 1회(回) 설정(設定), 언어순화운동(言語純化運動) 전개(展開)……〉 초기(初期)의 형식적(形式的) 태도(態度)는 완전히 불식되었다.

그러나 문제(問題)는 장병(将兵)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요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고(事故)의 사전방지(事前防止) 및 소속원의 일체감(一体感)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좋은 지휘관(指揮官) 정도로만 인식(認識), 적극적인 근무자세(勤務姿勢)로 반드시 유도(誘導)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처음에 의욕적(意慾的)으로 근무(勤務)하려는 지휘관(指揮官)도 얼마 후 "잘해봤자 소용없어"하면서 나태에 동승(同乘)하게되는 이유(理由)를 체감(体感)하게 되었다.

두번째 난관(難関)은 바로 부대(部隊)가 자율적(自律的)인 협조체제(協調体制)를 유지(維持)하면서 발전(発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만(不滿)을 해소(解消)시키는 방법(方法)만으로는 가능(可能)하지가 않다는 것이었다. 즉 애로사항이나 불만요인(不滿要因)을 제거시키는 것은 단기적(短期的)으로 현상(現状) 유지(維持)에 이바지 할 뿐 적극적인 발전(発展)으로 유도(誘導)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만요인(不滿要因)의 제거가 발전(発展)을 유도(誘導)하는 플러스(+) 효과(效果)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最小)한 마이너스(一) 효과(效果)를 감소(減少)시키는 것은 분명(分明)하다. 따라서 부대지휘(部隊指揮)의 기본모형(基本模型)으로서 현황유지(現況維持)를 위한 불만요인(不滿要因)의 제거와 부대발전(部隊発展)을 위한 동기요인(動機要因)의 적절한 조화(調和)를 모색(模索)하게 된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불만요인(不滿要因)과 동기요인(動機要因) 및 그 효과(效果)에 관한 기본모형(基本模型)이다.

도표 2 -1을 좀더 상세히 설명(說明)하면 불만요인(不滿要因) 및 동기요인(動機要因) 항목중(項目中)에서 위에 있을수록 주로 불만요인(不滿要因)에 해당하는 것 즉, 이의 해결(解決)은 그 효과(效果)가 단기적(短期的)이고 적극적인 근무의욕(勤務意慾)을 불러 일으키기보다는 "마이너스" 효과(效果)를 제거하는 정도(程度)에 그치며 밑으로 내려갈수록 동기요인(動機要因) 즉 창의적(創意的)이고 적극적인 근무의욕(勤務意慾)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要因)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항목(項目)은 부대원(部隊員)의 여론조사(輿論調査) 및 상담(相談)을 통하여 색출(索出) 선정(選定)하였으며, 이의 해결(解決)이 과연 어떠한 효과(效果)를 얼마나 가져오는가를 분석(分析) 본인(本人) 나름대로의 지휘관리(指揮管理) 모형(模型)으로 설정(設定)하게 된 것이다.

### (2) 행동화(行動化) 모형(模型)

위에서 제시한 기본모형(基本模型)인 동기화모형(動機化模型)은 아직 행동화(行動化)시키는데는 미흡(未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동기화(動機化)되었다 해서 반드시 행동화(行動化)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평소에 적극적인 의욕(意慾)이 고양(高揚)되었다해도 구체적인 한 사업(事業)에 대해 행동화(行動化)하는 것은 별개(別個)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족(充足)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군대조직(軍隊祖織)의 특성상(特性上) 명령(命令)에 의해 경제적(経済

〈표 2-1〉 불만요인 및 동기요인과 그 효과

| 효 과 | 불만요인 및 동기요인 | 비 고 |
|---|---|---|
| (-)제거 ↕ (+)효과 / 단기적 효과 ↕ 장기적 효과 | ○ 진중근무의 공정 (불침번, 일직, 당직근무) | |
| | ○ 외출·외박·휴가의 공정 | |
| | ○ 의 : 보급품의 적기지급 및 규격 고려 | |
| | 식 : 사병급식의 위생·영양·맛 식수보급 | 식사중 음악감상 |
| | 주 : 비품보급 및 관리 | 전입장병 침구 및 |
| | 조명시설 | 비품 사전 준비 |
| | 침구소독 | |
| | 화장실, 위생관리 | |
| | 냉·온방시설 | |
| | ○ 근무조건 | 작전실 24시간 |
| | ○ 복지시설 | 급수체제 |
| | 목욕탕 시설 | |
| | B. X 운영 | |
| | 세탁소 관리 | |
| | 이발소 관리 | |
| | 당구장 관리 | |
| | 체육관 관리 | 탁구장, 종합체력 |
| | 의무실 운영 | 단련장 |
| | 도서관 운영 | 신간도서 구입 |
| | 기지극장 운영 | 비디오상영(주 4회) |
| | ○ 대인관계 | 영화상영(주 1회) |
| | ○ 직무상의 성취도와 그에 대한 인정 | |
| | ○ 개인의 발전과 부대 의 발전일치 | |



的)으로 업무(業務)를 수행케 할 수는 있으나 이럴수록 형식적(形式的)이고 현상유지적(現狀維持的)이며 다만 사고(事故)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다. 따라서 창의적(創意的)이고 자율적(自律的)이며 적극적인 근무자세(勤務姿勢)를 확립(確立)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행동화(行動化)를 유도(誘導)하는 인간(人間)의 본질(本質)에 대한 배려가 촉구(促求)되기에 지금까지 많은 학자(学者)들이 연구(硏究)한 인간본질(人間本質) 이론(理論)을 기초(基礎)로 하여 군(軍) 조직(組織)에 맞는 지휘관리(指揮管理) 모형(模型)을 설정(設定)하였다.

〈표 2-2〉 행동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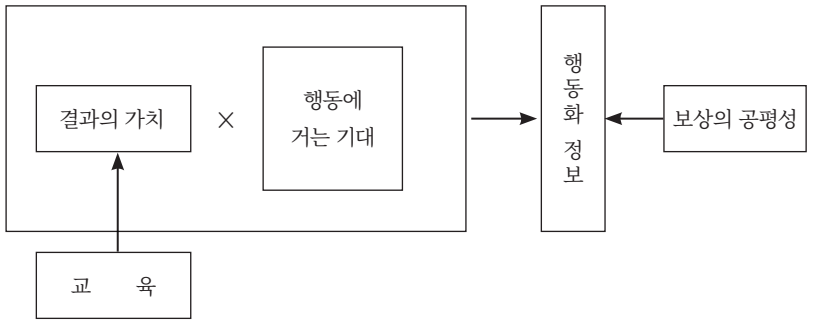



표 2-2를 중심(中心)으로 살펴볼 때 결과(結果)의 가치(価値)는 부대원(部隊員)이 어떠한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結果)에 부여하는 가치(価値)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대환경(部隊環境) 미화작업(美化作業)을 추진(推進)할 때 과연 작업추진후(作業推進後) 얼마나 부대(部隊)가 깨끗해질 것인가에 대한 가치부여(価値賦與)를 의미(意味)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結果)의 가치(価値)는 부대원(部隊員) 자신(自身)의 보람이 아니고 단순(単純)히 부대(部隊)의 업적(業績)이라고 판단될 가능성(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피동성(被動性)을 보일 가능성(可能性)이 있으므로 한 사업(事業)을 추진(推進)할 때는 그 결과(結果)가 각각의 부대원(部隊員)에게 어떠한 혜택(恵澤)이 돌아간다는 해명(공리적(功利的) 관계(関係) 형성(形成))과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주인의식(主人意識) 및 사명감(使命感) 고취 교육(教育)(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 형성(形成)) 이 요구(要求)된다. 이 단계까지 해결(解決)되어야 부대원(部隊員)은 한 번 해 보면 좋겠다는 의욕(意慾)이 구체적으로 발생(発生)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동(行動)에 거는 기대(期待)는 지금부터 취하는 행동(行動)이 결과(結果)를 가져온다는 기대(期待)(확률(確率))를 의미(意味)한다. 결과(結果)의 가치(価値)가 클수록 부대원(部隊員)의 행동화강도(行動化強度)가 강(強)해지는 것은 사실(事実)이다. 그러나 결과(結

果)의 가치(価値)가 크더라도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期待)(확률(確率))가 희박하다면 행동화강도(行動化強度)는 약(弱)해진다고 볼 수 있다. 예(例)를 들면 지휘관(指揮官)의 교체에 따라서 많은 업무(業務)들이 추진중(中)에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하면 좋긴 좋은데(즉, 결과(結果)의 가치(価値)는 큰데)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적극적(積極的)인 행동화(行動化)는 당연(當然)히 수반되지 않는다. 또, 기술적(技術的)인 어려움, 예산(豫算), 시간(時間) 등을 합리적(合理的)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대(期待)는 희박해지고 행동화강도(行動化強度)는 약(弱)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結果)의 가치(価値)를 확인(確認)시킴과 동시(同時)에 행동(行動)에 거는 기대(期待)를 보장(保障)해줌으로써 비로소 한 사업(事業)에 대한 행동화강도(行動化強度)는 강(強)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過程)에서의 행동화(行動化) 강도(強度)를 강화(強化)하는 방안(方案)이 었으나 또한 중요(重要)한 것은 일정업무(一定業務)가 완료(完了)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補償)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온갖 고생을 하여 일을 마쳐놓으니까 마치 명령(命令)한 사람 자기(自己)가 다한 양 큰소리친다면 다음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할 때는 동기화(動機化)의 강도(強度)는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업무(業務)가 끝난 후 공정(公正)한 보상(補償)을 한다는 것은 그 업무(業務) 뿐만 아니라 다음의 업무(業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그러면 보상(補償)이 어떤 형식(形式)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군조직(軍組織)에 있어서는 사기업체(私企業体)와 같이 보수보상(報酬報償)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점(点)이 있으나 이는 부대원(部隊員)이 스스로도 인지(認知)하고 있으므로 실감을 초래(超來)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엄정(嚴正)한 근무평정(勤務評定)을 통한 승진기회(昇進機会)의 보장(保障)이나 부대장(部隊長)표창, 위로휴가 등(等)을 통한 보상(補償)을 병행 실시할 때 노력(努力)에 대한 보상(補償)은 보장(保障)된다고(공리적(功利的) 관계(関係) 형성(形成)) 인식(認識)될 수 있기에 이를 엄정(嚴正)히 실시(実施)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重要)한 것은 높은 업적(業績)에 대하여 부대원(部隊員)이 스스로 체득하는 보상(補償)인 내재적(內在的) 보상(補償)(즉,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인정감(認定感))이며, 이는 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가 지속적으로 형성(形成)될 때 가능(可能)해지는 요소(要素)이다. 물론 이러한 내재적(內在的) 보상(補償)은 추상적(抽象的)이기에 쉽게 파악되지 않지만 간접적(間接的)인 관찰(観察)이나 여론조사(調査)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심한 지휘관리(指揮管理)가 계속적으로 수행(遂行)될 때 부대(部隊)의 사기(士気)는 고양(高揚)되고, 모든 업무(業務)가 자율적(自律的)이고 창조적(創造的)이며 그 효과(効果) 또한 현상유지(現象維持)가 아닌 발전(発展)에의 길로 치달을 것이라고 확신(確信)하여 지휘관리(指揮管理)의 기본모형(基本模型)으로 삼은 것이다.



## 3.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와 지휘관리(指揮管理)

부대원(部隊員)의 자발적(自発的)인 근무자세(勤務姿勢)를 견지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병(将兵)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要求)하고, 무엇에서 보람을 느끼는 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어떻게 부대발전(部隊発展)을 위해 상호동참(相互同参)할 동인(動因)을 형성(形成)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인간(人間)의 욕구(欲求)와 성격(性格)을 고려하여 전체목표(全体目標)에 합치(合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여 시행(施行)할 때 자발적(自発的) 참여(参與)와 장병(将兵) 스스로의 보람은 커지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본인(本人)은 부대전반적(部隊全般的)인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를 어떻게 형성(形成)하고 활용(活用)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먼저 당부대(當部隊)에서 여론조사한 결과(結果)를 살펴 보면 표(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表) 3-1〉 행복(幸福)의 요인(要因)

(문) 군에서의 행복은 무엇(누구)에 의해 좌우되나?

| 구분 / 항목 | 장교 | 하사관 | 영내사병 | 비고 |
|---|---|---|---|---|
| 부대장 | 42% | 25% | 5% | |
| 소속장 | 27% | 39% | 8% | |
| 보직 | 20% | 32% | 42% | |
| 고참 | 5% | 5% | 34% | |
| 기타 | 6% | 1% | 8% | |
| 무응답 | | | 2% | |

○ 장교의 경우는 부대장→소속장→보직 순(順)으로 군(軍)의 행복(幸福)을 좌우하는 요인(要因)을 지적하고 있으나 당부대(當部隊)의 성격상(性格上) 장교의 절반 정도는 참모(参謀)이기에 부대장(部隊長)의 비중(比重)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참모(参謀)를 제외한 장교는 소속장에 대한 비중(比重)이 상대적(相対的)으로 높아진다 하겠다.

○ 하사관의 경우는 소속장→보직→부대장 순(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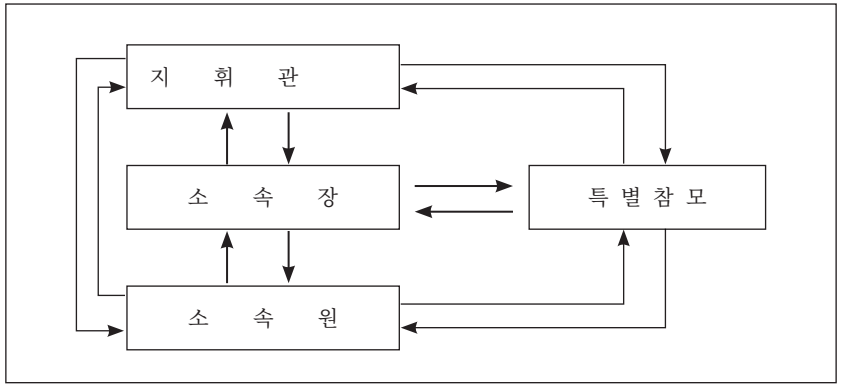
○ 영내사병의 경우는 보직 및 고참에 큰 비중(比重)을 두고 있는데 실제 보직 및 고참 문제(問題)는 각부서(各部署)에서의 문제(問題)이기에 소속장의 재량(裁量)에 상당(相當)히 좌우되

는 요소(要素)라 하겠다.

따라서 효과적(效果的)인 지휘관리(指揮管理)를 위해서는 어떻게 소속장(참모(參謀))을 지휘(指揮)하여 소속장과 소속원 간의 관계(関係)를 어떻게 형성(形成)시키느냐가 첫번째 관건임을 여론조사결과로 재확인(再確認)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자애로운 지휘관상(指揮官像) 정립(定立)을 위한 지휘관직접의사소통체제(指揮官直接意思疏通体制)를 어떻게 형성(形成)하고, 삼국시대(三国時代) 소도와같은 역할(役割)을 담당(担當)할 수 있는 특별참모(特別參謀)의 역할(役割)을 어떻게 조화(調和)시키며 부대원(部隊員) 상호간(相互間)의 관계(関係)를 어떻게 유도할 때 자율적(自律的)이면서도 가장 강(強)한 단결력(団結力)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部隊)로 이끌 수 있는가에 촛점을 맞추었다.

〈표(表) 3-2〉 부대의사소통체제(部隊意思疏通体制)




### 가. 중간지휘관(中間指揮官)을 중심(中心)으로 한 지휘체제확립(指揮体制確立)

#### (1) 소속장 능력 향상책(向上策) 강구(講求)

공군인사운영상(空軍人事運営上)(특(特)히 당대대(當大隊)의 경우 대부분(大部分)의 부서(部署)가 장교 1명씩이므로) 소속장의 재임기간(在任期間)이 1~2년(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속장이 부대실정(部隊実情)에 맞는 융통성있는 업무수행능력(業務遂行能力)을 계속적으로 확보(確保)하지 못하는 단점(短点)을 안고 있다. 물론 당제도(當制度)가 장점(長点)도 있으며 모든 소속장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부임 후 1~2개월은 새로이 적응(適応)해야 하는 관계(関係)로 업무(業務)(지휘(指揮))의 계속성을 확보(確保)한다는 것은 사실상(事実上)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問題点)으로 인해 비교적(比較的) 장기적(長期的)으로 한 부대(部隊)에 근무(勤務)하는 하사관(下士官)에 의한 실질적(実質的) 업무처리현상(業務処理現象)을 초래하여 소속장중심(中心)의 지휘체제(指揮体制)가 계속성을 확보(確保)하지 못함으로써 부대전체(部隊全体)의 지휘계통(指揮系統)이 확고하지 못할 가능성(可能性)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業務)의 계속성 확보(確保)와 지속적인 발전(発展)을 위해서는 소속장의 능력(能力)을 향상(向上)시킴과 아울러 소속장의 교체에 따른 공백기에도 업무(業務)의 계속성이 확보(確保)될 수 있는 방안(方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본인(本人)은 다음과 같은 방안(方案)을 채택하였다.

○ 업무참고철 작성에 따른 업무(業務)의 표준화(標準化)

여기서 업무참고철은 각 소속별로 소속장이 해당업무의 종류(種類)(업무분장표(業務分帳表)에 해당), 시행시기(施行時期), 시행방법(施行方法), 시행시(施行時)의 협조부서(協助部署), 각종보고서(各種報告書) 작성요령(作成要領)과 보고시기(報告時期) 및 업무점검표(業務点検表) 등을 작성(作成)하여 업무처리(業務処理)를 표준화(標準化)함으로써 담당업무(担當業務)의 정확성(正確性)을 기하고, 기일(期日)을 엄수하는 계획적이고 종합적(綜合的)인 업무수행(業務遂行)과 함께 업무발전(業務発展)을 위한 참고자료(參考資料)로 활용(活用)될 수 있는 기회(機会)가 되었으며, 또한 소속장의 교체시에도 업무참고철을 인수인계함으로써 업무의 계획성 확보와, 당부대(當部隊)에 빨리 적응(適応)할 수 있는 좋은 방안(方案)이 되었다.

특히 전소속장(全所屬長)은 항상 업무참고철을 지참하고 다니게 함으로써 타부서(他部署)와의 협조(協助)가 언제 어디서나 용이해졌고 지휘관(指揮官) 스스로도 수시로 참고(參考)함으로써 부대지휘관리(部隊指揮管理)에 참고(參考)할 수 있는 좋은 자료(資料)가 되었다.

○ 참모간(參謀間) 업무향상교육(業務向上教育) 운용(運用)

참모회의시(參謀會議時) 각참모간(各參謀間)에 중요업무(重要業務)의 전파 및 업무발전(業務発展)을 위한 직무지식(職務知識)을 교육(教育)함으로써 실시업무(実施業務) 및 계획업무(計劃業務)의 보고(報告)에 그치는 통제위주(統制為主)의 참모회의(參謀會議)가 아니라 창의적(創意的)이고 발전적(発展的)인 직무능력(職務能力)을 향상(向上)시키는 기회(機会)가 되었다.

예(例)를 들면 시설반에 Pert공법(工法)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업무(業務)의 종합적(綜合的) 수행(遂行)에 따른 공정기간의 단축과 일의 우선순위의 효과적(效果的) 결정(決定)에 따른 효율성(効率性)을 확보(確保)하게 되었고, 행정계장(行政係長)의 경우는 문서작성법(文書作成法)을 전참모(全參謀)(선임하사 포함)에게 숙지케 하였으며, 정훈실장(政訓室長)의 경우는 브리핑법(法)을 교육(教育)함으로써 VIP 방문시 각종(各種)브리핑에 대비케 하였으며 전문적인 면담법교육(面談法教育)으로 소속원의 신상파악과 상담(相談)의 실효성(実効性)을 확보(確保)케 하였다.

이러한 참모교육(參謀教育)은 반드시 해당 소속장이 다른 소속장에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 소속장이 관련소속장의 업무발전(業務発展)에 유용(有用)하리라 생각되는 지식(知識) 및 관리방법(管理方法)을 교육(教育)함으로써 부대(部隊)의 능력(能力)을 최대(最大)한 활용(活用)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 자율적(自律的)인 업무수행능력(業務遂行能力) 향상(向上)

소속장(참모)이 담당업무(担當業務)를 창의적(創意的)이고 자율적(自律的)으로 개발(開発)해야 하는 것은 당연(當然)한 것이지만 이를 막연히 기대(期待)한다는 것은 부대장(部隊長)에게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하겠다. 물론 앞에서 제시(提示)한 2가지 방법(方法)이 소속장의 능력(能力)을 향상(向上)시키고 업무발전(業務発展)을 가능(可能)케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행동화(行動化)되는 것은 아니며(이는 앞의 지휘관리(指揮管理)를 위한 기본모형(基本模型) Ⅱ에서 언급한 결과(結果)에 대한 가치(価値)는 크지만 행동(行動)에 거는 기대(期待)는 크게 확보(確保)되지 못할 가능성(可能性)을 의미(意味)한다). 자칫 자신(自身)의 지식축적에 그침으로써 사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能力)을 어떻게 하여 자율적(自律的)으로 업무발전(業務発展)에 기여 활용(活用)케 하느냐가 실제지휘관리(実際指揮管理)의 핵심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반(基盤)은 평소(平素)부터 다져지는 부대(部隊)에 대한 애착, 업무(業務)에 대한 보람 등 내재적(內在的) 요인(要因)에 좌우(左右)되는 면(面)이 크지만 이러한 관계(関係)(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를 꾸준히 다지면서 업무부과시 소속장의 자율성(自律性)을 보장(保障)해주는 것 또한 미세하지만 상당(相當)히 중요(重要)한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의 업무(業務)를 맡길 경우 부대장(部隊長)이 일방적(一方的)으로 지시(指示)하고 그 결과(結果)를 통제(統制)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장과 협의(協議)하여 실제(実際) 결정(決定)은 소속장이 하게끔 함으로써 스스로 결정(決定)했기 때문에 책임(責任)이 따르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기회(機会)를 제공(提供)해 주며 참모업무(參謀業務) 수행능력(遂行能力)을 향상(向上)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效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참모(參謀)(소속장) 스스로가 부대(部隊)의 문제점(問題点)과 개선점(改善点)을 스스로 발굴하여 처리(処理)할 수 있는 자율적(自律的)인 분위기와 창의적(創意的)이고 보람된 업무수행(業務遂行)이 가능(可能)해졌다 하겠다.

이러한 것은 상당(相當)히 심리적(心理的)인 요인(要因)이며 강(強)한 애착의 정도(程度)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부대장(部隊長) 스스로도 잘못되었을 경우 화를 내기 보다는 어떻게 반응(反応)해야 더 큰 효과(効果)를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교육적(教育的) 차원(次元)에서의 숙고와 자기수양(自己修養)이 무척이나 요구(要求)되었다. 자상함과 엄격한 업무수행(業務遂行)은 양립(両立)할 수 없을지라도, 자상함과 자발적(自発的)인 업무수행(業務遂行)은 가능(可能)한 것이며, 이는 또한 창의적(創意的)이고 발전적(発展的)인 부대관리(部隊管理)의 핵심(核心)이 됨을 확인(確認)하게 된 것이다.



### (2) 소속장에 대한 신뢰도(信賴度) 및 친밀감(親密感) 제고(提高)

앞에서는 부대장(部隊長)과 소속장과의 관계(関係)에 관(関)한 지휘관리(指揮管理)였으나, 다음으로 소속장과 소속원간(間)의 관계(関係)에 관한 지휘관리(指揮管理)를 모색하게 되었다. 소속장과 소속원간(間)의 관계(関係)는 물론 소속장의 영역(領域)이겠지만 부대장(部隊長)의 입장(立場)에서 이를 방관할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지나친 간섭은 역효과(逆效果)를 초래(超來)하는 것이므로 간접적(間接的)인 지도나 유도가 중요(重要)하다고 생각하여 부대장(部隊長)으로서 소속원의 소속장에 대한 친밀감(親密感) 및 신뢰도(信賴度) 제고(提高)를 위해 다음 사항(事項)에 역점(力点)을 두었다..

○ 솔선수범

부대(部隊)를 이끌어가는데는 지금까지 언급한 인간(人間)의 욕구(欲求)와 인격(人格)을 고려한 지휘방침(指揮方針)이 마련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當然)하지만 부대(部隊)를 이끌어가는 참모(參謀)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혼연일치된 단결력(団結力)을 고양(高揚)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하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말단 하급자(下級者)라 하더라도 20년 정도는 세상(世上)을 경험(経験)했기 때문에 옳은 소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도리어 반복적인 훈시(訓示)는 잔소리로 인식(認識)될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수십번의 강조(強調)보다는 한번의 실천(実践) 즉, 솔선수범이 부대원(部隊員)을 스스로 따르게 하는 첩경이며 곧 부대(部隊) 전체(全体)의 단결력(団結力)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本人)은 모든 면(面)에서 부대장(部隊長) 스스로가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장(참모(參謀))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자 노력(努力)하였다. 예(例)를 들면 부대장(部隊長)이라하여 "바쁘기 때문에"라는 쉽게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부터 노력(努力)하였다. 즉, 부대장참석시간(部隊長參席時間)은 시계(時計)를 보면서 1~2초도 차이(差異)가 나지 않도록 노력(努力)하였고, 제대로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를 지시(指示)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直接) 잠구며, 부대원(部隊員)과의 체육활동(体育活動)에서도 최선(最善)을 보이는 자세(姿勢)를 견지하였다.

특히 솔선수범과 관련(関联)하여 최선(最善)을 다한다는 인식(認識)은 상당(相當)히 중요(重要)한 상관관계(相関関係)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대원(部隊員)과의 체육활동시(体育活動時) 처리(処理)하기 불가능(不可能)하다고 생각되는 공도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最善)을 다해 쫓아가는 열성(熱誠)을 보임으로써 부대원(部隊員)의 가슴에 최선(最善)을 다한다는 인식(認識)을 심어주는 것이다. 운동(運動)을 잘하여 이기는 순간 "우리 부대장 멋쟁이다"라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나 부대원(部隊員)의 정신자세(精神姿勢)에 큰 일깨움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많은 사병(士兵)이 보는 가운데에서 부대원(部隊員)이 못하더라도 넘어지며 열심히 하는 것을 본다면 이를 보는 부대원(部隊員)의 정신자세(精神姿勢)는 뭔가 자극을 받을 것이며, 소속장도 자연히 최선(最善)을 다하여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부대원(部隊員)이 최선(最善)을 다하는 솔선수범은 소속장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동시(同時)에 소속원은 소속장에 대한 신뢰(信賴)와 함께 자발적(自発的)인 복종이 유발되어 자율적(自律的)인 부대운영(部隊運営)이 가능(可能)해진 것이다.

○ 언어순화(言語純化)

행동(行動)에서의 솔선수범 못지 않게 언어사용(言語使用)에서의 솔선수범도 또한 중요(重要)한 요체라 생각한다. 특히 소속장을 중심(中心)으로 한 지휘체제(指揮体制)가 신뢰기반(信賴基盤)을 다지기 위해서는 소속장에 대한 존경심(尊敬心)이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러한 존경심(尊敬心)은 소속장의 자질(資質)이 첫번째 요소(要素)이겠으나 또한 부대장(部隊長)의 소속장에 대한 예의(礼儀) 또한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라 생각되어 언어사용(言語使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注意)하였다.

예(例)를 들면 소속장을 찾을 경우 지시(指示)받는 자(者)가 소속장보다 하급자(下級者)일 경우 "중대장(中隊長)(또는 계장(係長))있나?"하는 것 보다는 "중대장(中隊長) 계시나?"함으로써 부대장(部隊長) 스스로 소속장을 예우해주어(물론 당연(當然)한 것이지만) 소속원 스스로도 무의식중에 "님"자를 붙이지 않는(특히 소속장 부재장소(不在場所)에서) 습관을 없애고 소속장의 지위(地位)를 부대장(部隊長) 스스로 존경(尊敬)해줌으로써 소속원이 소속장을 믿고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提供)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조그마한 배려(配慮)에 불과(不過)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実際) 소속원의 소속장에 대한 신뢰(信賴)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며, 부대전반(部隊全般)의 언어순화(言語純化)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대(部隊)분위기의 명랑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전문적(専門的)인 면담법(面談法) 숙지 및 소속원에 대한 관심(関心) 촉구

이에 대한 필요성(必要性)에 앞서 당부대(當部隊)에서 조사(調査)한 설문자료(設問資料)를 통해 장병(将兵)들의 관심도(関心度)를 먼저 살펴 보면,

장병(将兵)들의 관심중(関心中)에서 군대내(軍隊內)와 군대외(軍隊外)의 어느 쪽에 비중(比重)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군대외(軍隊外)쪽이 25%, 군대내(軍隊內)쪽이 34%로 군대내(軍隊內)가 약간 많으며 반반(半半)의 비중(比重)을 두는 장병(将兵)은 36%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具体的)으로 살펴 보면 군대내(軍隊內)의 문제(問題)에 대해서는 장교는 86%가 근무관계(勤務関係)에 집중(集中)되어 있는 반면, 하사관은 근무관계(勤務関係)가 54%, 복지시설 18%, 영내사병(領內士兵)은 근무관계(勤務関係)가 40%, 내무생활(內務生活) 24%, 외출·외박·휴가가 18%, 복지시설이 14% 순(順)으로 관심도(関心度)를 보이고 있다.

다음 군대외(軍隊外)의 문제(問題)에 대해서는 장교는 취업문제 40%, 가정문제 33%, 학업문제 20%이고, 하사관은 취업문제 39%, 가정문제 36%, 학업문제 11%로, 영내사병은 학업문제 34%, 취업문제 28%, 여자문제 20%, 가정문제 14% 순(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사정(個人事情)에 대한 것을 소속장이 소속원 개인별로 파악, 같이 상의하고 꾸준한 관심(関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自己)에게 관심(関心)이 있다"는 인식(認識)을 통해 자부심(自負心)을 길러주고 이러한 문제(問題)를 같이 해결(解決)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造成)함으로써 소속장에 대한 신뢰감(信賴感)과 친밀감(親密感)은 확보(確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特)히 장병(将兵)들의 관심도(関心度)는 군대내(軍隊內)의 문제중(問題中)에서 주로 근무관계(勤務関係)에 집중(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근무관계(勤務関係)는 바로 소속장에 의해 대체로 좌우(左右)되는 것이므로 소속장의 적절(適切)한 근무 할당이야말로 장병(将兵)들의 불만요인(不満要因) 제거 및 동기요인(動機要因)을 촉구할 수 있는 제일요소(第一要素)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인(本人)은 소속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면담법의 숙지 및 계속적인 관심(関心)으로 소속장의 지시(指示)가 중간(中間)에서 변경되어 하급자(下級者)에게 무리한 근무하중이 걸리지 않나를 실질적(実質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努力)하였다.

이와 관련(関联)하여 특히 주의(注意)할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업무(業務)를 떠맡기는 폐단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군대(軍隊)에서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닌 중간(中間)이 제일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잘하면 계속해서 업무를 맡기므로 고생스럽다는 얘기이고, 못하면 일을 가르쳐주고 한두번의 실수를 통해 업무(業務)를 체득케 하는 기회(機会)를 마련해주기 보다는 기합을 주거나 잡일 등에만 활용(活用)하는 무사안일적(無事安逸的) 근무관계(勤務関係)를 형성(形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意味)하며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못하는 사람은 도리어 편하고 잘하면 이용당해"라는 식(式)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형성(形成)시킬 가능성(可能性)이 농후하다.

문제(問題)는 이러한 의식구조(意識構造)가 막연한 편견에 의한 것도 있지만 경험상(経験上)에서 체득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그 근본원인(根本原因)을 제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하다고 생각되었다.

즉, 소속장이 분담(分担)시킨 업무(業務)가 가장 말단하급자(下級者)까지 적절(適切)히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피동성(被動性)을 낳게 하는 직접적(直接的)인 감독(監督)보다는 전문적(専門的)인 관찰(観察)이나 면담(面談)을 통해 간접적(間接的)으로 파악하고 이의 제거는 소속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関心)으로 일의 진척도에 대한 협의(이는 반드시 협의에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実際)로 본인(本人)이 하고 있는가의 점검이기도 하다) 및 칭찬과 격려 등(等)을 통해 지휘(指揮)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장의 전문적(専門的)인 면담법(面談法) 및 관찰법(観察法)이 요청(要請)되었고 무엇보다도 소속장의 소속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요구(要求)되었다.

따라서 전문적(専門的)인 면담법(面談法) 및 관찰법(観察法)을 체득케 한 결과(結果) 형식적(形式的)인 관계(関係)에서 좀 더 밀착되고 적극적(積極的)인 관계(関係)로 점차 개선(改善)되어 갔다.

### 나. 지휘관 직접 의사소통체제 강화(指揮官 直接意思疏通体制 強化)

대부분의 업무(業務)나 사병(士兵)들과의 관계형성(関係形成)은 소속장을 중심(中心)으로 수행(遂行)되지만 부대장(部隊長)이 사병(士兵)들과의 직접적(直接的)인 의사소통(意思疏通)채널을 최대한(最大限) 활용(活用)하는 것은 부대사기(部隊士気)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意思疏通)을 위한 선결요인(先決要因)이라 할 수 있는 부대원(部隊員)의 이름과 할당업무(직책) 및 개인적 신상을 되도록 상세히 파악하여 부대순찰시 엄격한 지적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통해 친밀도(親密度)를 고취하고 자신(自身)에 대한 인정감(認定感) 및 중요도(重要度)를 자각케 하여 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를 계속 확보(確保)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를 형성(形成)하는 데는 공식적(公式的)인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소속중심적(中心的)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를 유지(維持)하면서 부대내(部隊内)에 이미 형성(形成)되어 있는 비공식적(非公式的)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를 어떻게 활용(活用)하느냐가 실제(実際) 부대운영(部隊運営) 및 자발적(自発的)인 실천(実践)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즉, 지연이나 학벌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기수별 비공식집단(非公式集団)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이들의 의견(意見)이나 행동방향(行動方向)을 부대공식목표(部隊公式目標)에 흡수시킬 때 자연(自然)스러우면서도 자율적(自律的)인 근무체제(勤務体制) 및 원만한 상호관계(相互関係)가 형성(形成)된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적(非公式的)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를 활용(活用)키 위해 본인(本人)은 전부대원(全部隊員)에 대한 Sociogram(친밀관계(親密関係))을 작성(作成)하였다. 이는 각각(各各)의 비공식집단(非公式集団)에서 리더가 누구이고 배척당하는 장병(将兵)이 누구이며,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효과(效果)를 얻을 수 있는가를 판단(判断)케 해주며, 또한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반응이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자료(資料)가 되었다. 즉, 샅샅이 훑어보는 식의 순찰보다도 부대원(部隊員)의 전반적(全般的)인 여론이나 아주 하찮은 듯한 사항(事項)까지도 부대장(部隊長)이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공식집단(非公式集団)을 활성화(活性化)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공식목표(公式目標)에 동참(同参)시킬 수 있는 의사(意思)채널로 활용(活用)할 때 간접적(間接的)이고 무리가 가해지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效果)는 자발적(自発的)인 면(面)이나 일의 보람 또는 성과면(成果面)에서 훨씬 지대(至大)하였던 것이다. 특히 문제(問題)되고 있는 하사와 병, 영내사병과 방위병과의 마찰이나 헌병특기와 다른 특기와의 마찰을 이러한 다양한 의사(意思)채널 속에서 서로 이해(理解)하고 동질성(同質性)을 확보(確保)케 할 때 백번(百番)의 훈시(訓示)나 교육(教育)보다도 훨씬 원만하게 되었다.



### 다. 특별참모(特別參謀) 역할제고(役割提高)

여기서 특별참모(特別參謀)라 함은 군목(군법사, 군신부), 군의관, 정훈장교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참모(特別參謀)는 자칫 군기빠진 군인(軍人)의 표상(表象)이 되기 쉽고 부대내(部隊内)에 이질감(異質感)을 불러일으킬 가능성(可能性)도 없지 않다.

그러나 특별참모(特別參謀)를 부대(部隊)를 위해 긍정적(肯定的)으로 수용(受容)하는 방법(方法)이 무엇인가를 모색한다는 것은 더 큰 활력소(活力素)가 됨을 본인(本人)은 자각할 수가 있었다. 즉, 업무(業務)의 긴박감 속에서도 안심(安心)하고 안주(安住)할 수 있는 분위기 즉, 심리적(心理的) 안정감(安定感)을 제공(提供)하는 역할(役割)을 담당(担當)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삼국시대(三国時代) 소도와 같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자신(自身)을 위해 보호(保護)해주고, 격려해주며, 미소로 맞아줄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특히 영내사병(領内士兵)들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具体的)으로 군목사 및 정훈장교 순찰(월 3회(回))은 감독적 순찰이 아닌 격려적 순찰 및 위문순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장병(将兵)들과의 일체감(一体感)을 조성(造成)시키고, 장기(월 2 회) 및 수시 내무반 방문을 통하여 개인(個人)의 애로사항을 항상 상담(相談)하고, 인생(人生)의 조언자(助言者) 및 동참자(同参者)가 되어줌으로써 군대(軍隊)의 국민교육도장(国民教育道場)으로서의 역할(役割)과 함께 개인발전(個人発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 부대(部隊) 전반적(全般的)으로 규범적(規範的) 관계(関係)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역할(役割)을 담당(担當)케 한 것이다.

이로써 부대운영(部隊運営)의 강약(強弱)이 조화(調和)되었으며 화기에 찬 부대분위기를 조성(造成)하는 계기가 되었다.

### 라. 부대원상호간(部隊員相互間) 수평적(水平的) 의사소통체제(意思疏通体制) 확립(確立)

지금까지는 주로 상급자(上級者)와 하급자(下級者)와의 관계형성(関係形成)이라 할 수 있는데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상하관계(上下関係)가 부대내(部隊内)의 규범적(規範的) 관계조성(関係造成) 및 부대사기(部隊士気) 진작을 위한 뼈대라 할 수 있다면, 부대원(部隊員) 상호간(相互間)의 관계(関係)는 바로 피와 살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천적(実践的)인 부대단결력(部隊団結力)은 전우애(戦友愛) 즉, 부대원간(部隊員間)의 원만하고 밀접한 친밀감(親密感) 속에서 조성(造成)되는 것이며, 병영생활의 명랑화는 바로 이 관계(関係)에서 가능해진다고 본인(本人)은 확신(確信)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범사병(模範士兵)을 사병(士兵)들 자체내(自体内)에서 선발하는 자대규정(自隊規定)을 제정(制定) 실시(実施)하였다. 대대(大隊) 전영내사병(全領内士兵)이 모여서 뽑기 때문에 상호간(相互間)에 애로점 및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부서(部署)(소속) 상호간의 이해

심이 고취되었다. 특히 하사와 병장, 헌병(기지방어)특기와 타 특기와의 대화기회(対話機会)가 마련되고 서로 추천하는 과정(過程)에서 서로 별개(別個)의 집단(集団)이 아니라는 인식(認識)이 함양되었다.

다음으로 체육활동(体育活動)을 활성화(活性化)하였다. 다음 표(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동기 및 소속원에 가장 큰 비중(比重)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사진 1〉 모범사병 표창

〈표 3 - 3〉 친밀관계 형성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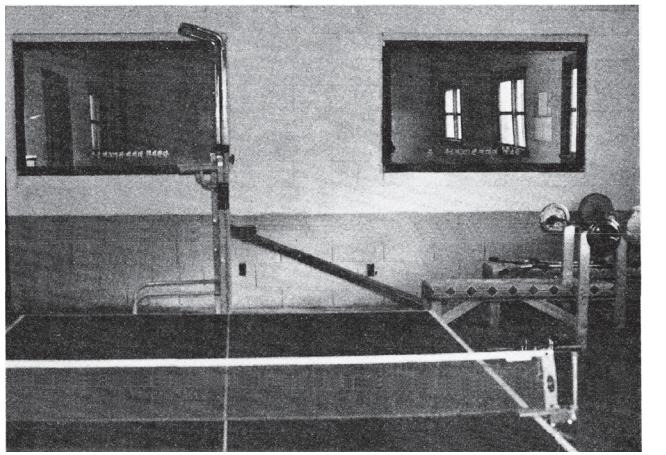
(문) 맘에 드는 동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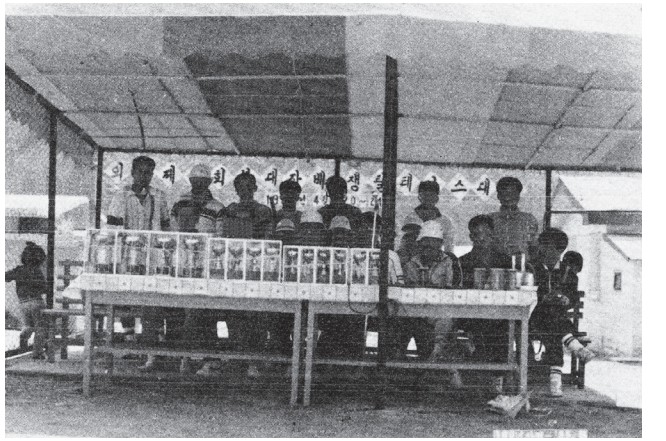
| 내 용 \ 구 분 | 장 교 | 하사관 | 병 |
|---|---|---|---|
| 같은 소속이다 | 90% | 64% | 72% |
| 군대 동기이다 | 90% | 69% | 83% |
| 학교 동창이다 | 43% | 33% | 35% |
| 같은 지역이다 | 50% | 37% | 44% |

고생을 한 동료(同僚)가 가장 가까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대원상호간(部隊員相互間)의 원만한 관계형성(関係形成)을 위해서는 같이 땀을 흘릴 수 있는 체육활동(体育活動)을 통한 관계형성(関係形成)의 활성화(活性化)가 중요(重要)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체육시설(体育施設)을 확충,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提供)하였다.







〈사진 3〉 특별활동(테니스대회)

즉, 탁구대, 종합체력단련기구, 농구코트, 배구코트, 족구장, 역기, 아령 등을 마련 자유사용(自由使用)케 24시간(時間) 개방(開放)함으로써 부대원(部隊員) 상호간(相互間) 관계형성(関係形成) 및 체력단련에 유용(有用)케 하였다. 다음으로 수시로 계급간(階級間) 체육대회(体育大会)(타부서(他部署)와의 친밀감 고취), 부서간(部署間) 체육대회(体育大会)(계급상하간(階級上下間)의 친밀감 고취), 생월자(生月者) 체육대회(体育大会) (부서간(部署間), 계급간(階級間) 친밀감 고취)를 개최하여 부서 간 및 계급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関係形成)을 도모하였다.

또한 월 3회 특별활동의 날을 제정(制定) 취미와 특기가 맞는 장병(将兵)들끼리 활동(活動)

케 함으로써 계급적(階級的) 고하(高下)나 부서간(部署間)의 차이(差異)를 초월 인간적(人間的) 접촉에 의한 관계형성기회(関係形成機会)를 마련 규범적(規範的) 관계형성(関係形成)에 노력(努力)하였다.

앞에서와 같은 부대원(部隊員) 상호간(相互間)의 관계형성(関係形成)은 공식적(公式的)인 행사(行事)보다는 자발적(自発的)인 활동(活動)이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하며, 그 행사(行事)가 군자체(軍自体)로는 별의미가 없더라도(장기자랑, 연극회, 가요제 등(等)) 부대원 상호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実感)할 수 있었다.

## 4. 맺는 말

우리는 흔히 혼연일체(渾然一體)된 단결력(団結力) 즉, 일체감(一体感)을 좋은 부대(部隊)의 표상(表象)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획일성(劃一性)에 빠질 가능성(可能性)이 있으며, 개인(個人)의 개성(個性)이나 인격(人格)을 무시하여 전체주의적(全体主義的) 일체감(一体感)을 유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다양성(多様性) 속에서의 조화(調和), 즉 각각(各各)의 인격(人格)이나 개성(個性)이 무시되지 않으면서 공동(共同)의 목표(目標)를 위해 협조(協助)하며, 자발적(自発的) 참여(參與)하는 발전(発展)된 단결력(団結力)을 발휘케 하는 것이 실제(実際) 한 집단(集団)을 지휘(指揮)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하다는 것을 본인(本人)은 실감(実感)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성(劃一性)에 의한 강(強)한 명령(命令)보다는 스스로 자각케 하는 교육(教育)이 중요(重要)하였으며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대원(部隊員)이 어떻게 인식(認識)하고 반응(反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決定)해야 하는 자기수양(自己修養)이 무척이나 요구(要求)되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斉家治国平天下)"

너무도 익히 들어온 말이다. 자율적(自律的)이고 발전(発展)하는 부대지휘(部隊指揮)를 위해서는 제일차적(第一次的)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으며, 자신(自身)을 통제(統制)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람직한 부대지휘(部隊指揮)는 가능(可能)해진 것이다. 역시 한 집단(集団)을 지휘(指揮)한다는 것은 자기자신(自己自身)을 지휘(指揮)하는 것에서 출발(出発), 남을 이해하고 이에 동참(同参)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최선(最善)을 다하는 극히 어려운 과정(過程)임을 실감(実感)하였다.

**자발적인 교육참여**
**정병강군 초석된다.**



# 2000년(年)을 위(爲)한 프랑스 방위계획(防衛計劃)과 전망(展望)

공군대령(空軍大領) 김 윤 암(金允岩)
〈국제정치학박사(國際政治學博士) 국방대학원(國防大學院)〉

－목 차(目 次)－

1. 서언(序言)
2. 국방정책(国防政策)과 군사전략(軍事戰略)
3. 방위계획(防衛計劃)의 내용(內容)
4. 2000년(年)을 위한 현대화(現代化)의 제언(提言)과 전망(展望)
5. 결론(結論)
주(註)

## 1. 서언(序言)

다양(多様)한 위협(威脅)과 세계도처(世界到処)에서 긴장(緊張)을 더해가는 경제위기(経済危機)로 특징(特徵)지어질 수 있는 국제환경(国際環境) 속에서, 「프랑스」는 국가(国家)의 안보(安保)를 공고히 하고 독립(独立)을 유지(維持)하며 국제사회(国際社会)에서의 의무(義務)를 다하기 위한 수단(手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4반세기(半世紀) 이상(以上)에 걸쳐 「프랑스」는 신뢰(信賴)할 수 있는 독자적(独自的) 방법(方法)으로 억제력(抑制力)을 형성(形成)해 왔다. 방위계획법(防衛計劃法)은 전반적(全般的)인 억제력(抑制力)의 원칙(原則)을 재확인(再確認)하였으며, 핵무기(核武器)와 재래식(在來式) 무기(武器)를 증강(增強)시켰다. 이 법(法)은 핵무기증강우선(核武器增強優先)을 인정(認定)하고 있고 재래식(在來式) 무기(武器)의 현대화(現代化)와 재정비(再整備)를 규정(規定)하고 있다. 금세기말(今世紀末)까지 통상군(通常軍)은 화력(火力)을 증가(增加)·집중(集中)시킬 수 있는 보다 기동적(機動的)이고 다목적용(多目的用)으로 전개(展開)될 것이다. 긴급행동군(緊急行動軍)(Rapid Action Force) 의 창설(創設)은 이러한 계획(計劃)의 일부(一部)이다. 긴급행동군(緊急行動軍)은 가장 빠른 시간내(時間內)에 구주(欧洲) 또는 구주이외(欧洲以外) 여타지역(余他地域)에서 시간(時間)과 장소(場所)를 잘 선택(選択)하여 대규모(大規模)의 재래식군(在來式軍)을 전개(展開)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事実)은 정치적(政治的)인 영향력(影響力)을 보다 더 큰 행동방(행동력(行動力))을 나타내게 하며 「프랑스」 자유(自由)의 지역(地域)을 더욱 증대(増大)시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政府)는 1984년(年)에서 1988년(年)까지의 국방계획(国防計劃)을 승인(承認)해 줄 법규(法規)를 의회(議会)에 제출(提出)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규(法規)는 「프랑스」의 국방정책(国防政策)과 자원(資源)에 대한 오랜 동안의 연구결과(研究結果)로서, 장차 「프랑스」의 방위(防衛)를 위한 준비(準備)와 선택수단(選択手段)으로서 제시(提示)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국방(国防)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努力)하고 최우선(最優先)으로 취급(取扱)해야 한다는 것은 기꺼이 「프랑스」의 독립(独立)을 보장(保障)하려는 국민의지(国民意志) 총화(総和)의 표시(表示)인 것 이다. 이렇게 신장될 2000년(年)을 향(向)한 「프랑스」의 핵무기(核武器) 현대화(現代化)와 그 전망(展望)을 고찰(考察)하고자 한다.

## 2. 국방정책(國防政策)과 군사전략(軍事戰略)

### 가. 국방정책기조(國防政策基調)

「프랑스」의 국방정책(国防政策)은 궁극적으로 국가(国家)의 독립보지(独立保持)와 세계평화(世界平和)에 기여(寄与)하기 위하여 전쟁(戰争)을 억제(抑制)하는 것을 기조(基調)로 하고 있다.



군사외교적(軍事外交的)인 측면(側面)에서 볼 때 그 목표(目標)를 첫째로 냉전(冷戰)에서 협상체제(協商体制)를 지지(支持)하면서 동(東)·서간(西間)의 긴장(緊張)을 완화(緩和)하는 것이다. 둘째로 제삼세계(第三世界)의 중요성(重要性) 증대(増大)와 「아프리카」의 구식민지(旧植民地)와 협력강화(協力強化)를 위한 남(南)·북간(北間)의 협력억제(協力抑制)를 원칙적(原則的)으로 구축(構築)한다. 세째로 구주공동시장(欧洲共同市場)을 최대(最大)로 이용(利用)하여 동(東)·서간(西間)의 구주통합(欧洲統合)의 새로운 이상(理想)으로 구주(欧洲)를 재형성(再形成)한다.

현사회당(現社会党)의 정책(政策)은 1981년(年) 5월(月) 10일(日) 사회당(社会党)의 「프랑소와 미떼랑」(Fransois Mitterrand)이 대통령(大統領)에 선출(選出)된 이후(以後)에도 정책(政策)의 기조(基調)에 있어서 거의 변동(変動)이 없다. 이 점은 1981년(年) 9월(月) 14일(日), 국방대학원(国防大学院)에서 「모루와」(Moroy) 수상(首相)이 "국방기조연설(国防基調演説)"에서 밝힌 바를 통해 알 수 있다.

- 전략적(戰略的)인 핵억제력(核抑制力)은 미국(美国)의 핵(核)우산을 재인식(再認識)하고 있다.
- 동맹국가(同盟国家)의 유대관계(紐帶関係)를 충실(充実)히 한다.
- 자유진영(自由陣営)의 지향(指向)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드골」의 국방(国防)·외교노선(外交路線)을 견지(堅持)하며, 소련(蘇联)을 위시한 동구권(東欧圈)은 물론, 모든 국가(国家)와 우호관계(友好関係)를 유지(維持)하고, 그 방법(方法)에서도 "집단안보체제(集団安保体制)"와 "쌍무협정(雙務協定)"에 의한 각개국가(各個国家)와의 우호관계(友好関係)를 유지(維持)하고 있다.

표면적(表面的)으로는 가상적(仮想敵)이 없다고 공언(公言)하나, "「프랑스」의 정책(政策)은 중립주의(中立主義)가 아니다. 「프랑스」에 대한 침략(侵略)은 적(敵)이 「프랑스」의 국토(国土)에 침입(侵入)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힘으로써 적(敵)이 소련(蘇联)과 동구권(東欧圈)임을 분명(分明)히 하고 있다.

정책(政策)의 기조(基調)는 한마디로 "양극화(両極化)된 미(美)·소(蘇)의 개념(概念)을 배격(排撃)하고 의사결정(意思決定)의 중심(中心)을 다극화(多極化)함으로써 양초강대국(両超強大国)의 독점(独占)을 막아 「프랑스」의 독립(独立), 서구(西欧)의 자율화(自律化)를 추구(追求)하는 것이다."라고 표현(表現)될 수 있다.

「프랑스」의 현(現) 국방개념(国防概念)은 1958년(年) 10월(月) 4일(日) 공포(公布)된 헌법(憲法) 및 1951년(年) 1월(月) 7일(日) 공포(公布)된 "국방(国防)의 일반조직법(一般組織法)"(법령(法令) 제(第)5914호(号))에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하고 있다.

국방(国防)은 하시(何時), 여하한 상황(状況), 여하한 형태(形態)의 공격(攻撃)으로부터 국토(国土)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국민(国民)의 생명보호(生命保護)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目的)

으로 한다(헌법(憲法) 제(第)7조(條)). 또한 "국방(国防)은 조약동맹(條約同盟), 국제협약(国際協約)의 존중(尊重)을 유지(維持)한다."(헌법(憲法) 제(第)11조(條)).

이러한 국방(国防)의 기본개념(基本概念)에 따라 "예방(予防)과 억제(抑制)에 기초(基礎)를 둔 「프랑스」의 국방정책(国防政策)은 (1) 상시성(常時性), (2)통일성(統一性), (3) 보편성(普遍性), (4) 분권(分権)의 4대원칙(大原則)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략적(概略的)으로 설명(説明)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시성(常時性) : 국방(国防)은 전쟁발발후(戦争勃発後) 시작(始作)되는 것이 아니며, 평상시(平常時)부터 각종(各種) 잠재능력(潜在能力)을 최대(最大)의 상태(状態)로 유지(維持)해야 하며,

(2) 통일성(統一性) : 대통령(大統領)을 정점(頂点)으로 하여 군방위(軍防衛), 민방위(民防衛), 경제방위(経済防衛)와 각종(各種) 구성요소(構成要素)가 단일목적(単一目的)을 위해 통합(統合)되고, 상호보완(相互補完)되어야 하며,

(3) 보편성(普遍性) : 국방(国防)은 어느 일부(一部) 부서(部署)만의 책임(責任)이 아니며, 모든 국민(国民)과 국가기관(国家機関)이 범국민적(汎国民的)으로 국토(国土)의 방위(防衛)에 적극(積極) 참여(参与)해야 하며,

(4) 분권(分権) : 적(敵)의 기습공격(奇襲攻撃)으로 인(因)하여 야기(惹起)되는 지역적(地域的) 독립상태(独立状態)에 대비(対備), 각급민방위(各級民防衛), 군방위(軍防衛) 단위(単位)는 분권화(分権化)하여 자기(自己)의 임무(任務)를 독자적(独自的)으로 수행(遂行)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보유(保有)해야 한다는 원칙(原則)이다.

## 나. 군사전략(軍事戦略)의 개념(概念)

「프랑스」의 전략개념(戦略概念)은 전략핵군(戦略核軍)에 의지(依支)하며, 동군(同軍)의 파괴능력(破壊能力)이 적(敵)의 공격(攻撃)의 의지(意志)를 단념(断念)하는데 충분(充分)하여야 하며, 평화시(平和時) 적(敵)의 침략의욕(侵略意慾)을 사전(事前)에 저지(沮止)시킴으로써 전쟁(戦争)을 예방(予防)하는 억제전략(抑制戦略)을 기본(基本)으로 하며, 전쟁발발시(戦争勃発時)는 적군(敵軍)을 최대(最大)한 국경지역(国境地域)에서 저지 섬멸하는 3단계(段階) 방위전략(防衛戦略)이다.

(1) 억제전략(抑制戦略) : 가상적(仮想敵)에 대해 가공(可恐)할 핵보복능력(核報復能力)을 보유(保有)함으로써 적(敵)의 침략기도(侵略企図)를 사전(事前)에 억제(抑制)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전략(戦略)을 보유(保有)하고 있다.

(2) 국경지역요격전략(国境地域邀撃戦略) : 억제전략(抑制戦略)이 실패(失敗)하여 전쟁(戦争)이 발발(勃発)하였을 때는 국경지역(国境地域)에서 적(敵)을 격멸(撃滅)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전술핵무기(戦術核武器)로 장비(装備)된 육(陸)·해(海)·공군(空軍)을 보유(保有)하고 있다.



(3) 후력경계(後力警戒) 및 저항전략(抵抗戦略) : 적군(敵軍)이 「프랑스」 국토내(国土内)에 침입(侵入)할 경우(境遇), 각(各) 지역(地域) 독자적(独自的)으로 또는 기동군(機動軍)과 연합(联合)하여 요격저항전투(邀撃抵抗戦闘)를 실시(実施)하며 이를 위(為)해 예비군(予備軍)을 보유(保有)하고 있다. 다음은 핵전략(核戦略)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략(戦略)의 기조(基調)

「프랑스」의 전쟁억제수단(戦争抑制手段)의 기본(基本)은 전략핵군(戦略核軍)이며 표적(標的)의 수(数)는 200개(個)이며, 핵(核)의 총위력(総威力)은 약(約) 80MT이며, 이중 85%가 핵잠수함(核潜水艦)으로부터 발사(発射)된다. 또한 인명(人命)의 살상능력(殺傷能力)은 약(約) 2,000만명(万名)으로 추산(推算)하고 있다.

현재(現在) 「프랑스」와 소련(蘇联) 핵력(核力)의 비례(比例)는 1 : 15,000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핵전략(核戦略)의 기조(基調)는 최소한(最小限)의 핵(核)으로 대량(大量)의 핵(核)을 중화(中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意味)에서 전(前) 합참의장(合参議長)인 「메리」(Mery) 장군(将軍)은 "우리들의 핵전략군(核戦略軍)(F.N.S.)1)은 소련(蘇联)의 축소판(縮小版)도 아니고 미국(美国)의 부속물(附属物)도 결코 아니다."2)라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의 「미사일」이 공격(攻撃) 가능(可能)한 표적(標的)들이 「모스크바」 이외(以外)에도 6개(個)의 도시(都市)를 겨냥할 수 있는 핵력(核力)의 신빙성(信憑性)이 있는 것으로 판단(判断)된다.

### (2) 전략이론(戦略理論)

「프랑스」의 제이론(諸理論)을 다음의 4가지 이론(理論)으로 요약(要約)할 수 있다.

첫째가 「나토」의 복귀의 이론(理論)인데 이것은 전쟁(戦争)의 자동개입(自動介入)이라는 단점(短点)이 있다.

둘째로 절대성역화(絶対聖域化)의 이론(理論)으로 "All or Nothing"의 개념(概念)이다. 「갈루와」(Gallois) 장군(将軍)은 핵무장(核武装)을 강화(強化)하여 적대국(敵対国)이 「프랑스」 영토(領土)의 여하한 부분(部分)도 침입(侵入)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判断)할 수 있을 정도(程度)의 핵억제력(核抑制力)을 보유(保有)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한다.

적(敵)이 공격(攻撃)할 경우(境遇) 즉각(即刻)으로 핵(核)의 수단(手段)에 의해 보복(報復)하고(All 의 개념(概念)), 그렇지 않을 경우(境遇)는 비전투상태(非戦闘状態)로 전쟁행위(戦争行為)가 존재(存在)하지 않는다(Nothing의 개념(概念)). 따라서 재래식(在来式) 군대(軍隊)의 감축(減縮)을 의미(意味)한다. 이 전략이론(戦略理論)은 제한(制限)된 재래식(在来式) 공격(攻撃)을 고려(考慮)하지 않고 있다.

세째로 저항이론(抵抗理論)으로서 「브로쓸레」(Brossollet) 중령(中領)에 의(依)하여 주장(主張)된 것이다. 「델기」 국경(国境)으로부터 내지(内地) 300km까지의 국경지역(国境地域)에 군대(軍隊)를 소집단(小集団)으로 분산(分散), 직접전투(直接戦闘)를 피(避)하고 적(敵)을 포

위(包囲) 공격(攻撃), 통신두절(通信杜絶), 전차파괴(戦車破壊)를 간접적(間接的)으로 자행(恣行)한다. 이러한 이론(理論)은 군사력균형(軍事力均衡)의 격차가 심하게 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개입(外部介入)을 동반(同伴)한 절대성역화이론(絶対聖域化理論)은 항공기(航空機)와 군함(軍艦)을 보유(保有)한 병력(兵力)50,000명(名)의 기동개입군(機動介入軍)과 함께 핵군사력(核軍事力)의 강화(強化)에 중점(重点)을 두고 있다. 이는 재래식(在來式) 군대(軍隊)의 부존재(不存在)를 의미(意味)한다.

### (3) 종합전략(綜合戰略)

현(現) 「프랑스」의 전략기본이념(戦略基本理念)은 상기(上記) 제전략(諸戦略)을 종합(綜合)하여 1976년(年) 「메리」 장군(将軍)이 발표(発表)한 이론(理論)으로 요약(要約)되며 그 내용(内容)은 다음과 같다.

O 「프랑스」는 이러한 절대성역화(絶対聖域化) 개념(概念)에서 진일보(進一歩)하여, 서독(西独)과 지중해지역(地中海地域)도 「프랑스」 안보(安保)의 준성역지대(準聖域地帯)로 간주하는 확대성역개념(拡大聖域概念)을 적용(適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군(軍)을 동(東)·서독(西独) 국경(国境)에 배치(配置)하는 "전진방위전략(前進防衛戦略)" 개념(概念)에 동의(同意)하는 태도(態度)를 취하고 있다.

O 뿐만 아니라, 그간(間) 핵무기편중정책(核武器偏重政策)으로 인(因)해 낙후된 재래식(在來式) 무기(武器)의 재정비(再整備)에도 주력(主力)할 것을 강조(強調)하고 있어, 「프랑스」가 「드골」 시대(時代)의 핵위주전략개념(核為主戦略概念)에 큰 융통성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이와 같이 「프랑스」가 그 성역(聖域)을 「나토」 방위지역(防衛地域)까지 확대적용(拡大適用)키로 전략(戦略)을 일부수정(一部修正)하였다고는 하나, 대(対) 「나토」 정책(政策)에 있어서는 여전히 독립성(独立性)을 견지(堅持)하고 있으며 종합적(綜合的)인 전략(戦略)이 현재(現在) 미래(未來)의 「프랑스」의 기본전략(基本戦略)이 될 것이다.

## 3. 방위계획내용(防衛計劃內容) (1984～'88)

1984년(年)에서 1988년(年)까지의 방위계획법(防衛計劃法)은 군사목표(軍事目標)를 달성(達成)하고 군(軍)의 수요(需要)를 충족(充足)시킬 수 있는 적절(適切)한 자원(資源)을 고려(考慮)하여 작성(作成)되었다.

따라서 방위(防衛)를 위한 총(総) 재정규모(財政規模)는 다음과 같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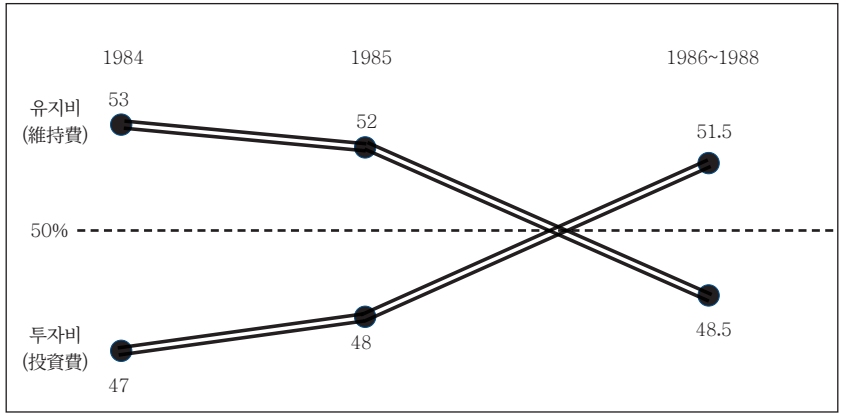
(경상가격(経常価格) : 백만(百万) 프랑)

| 1984 | 1985 | 1986~1988 | 계 (計) |
|---|---|---|---|
| 142,100 | 151,500 | 536,400 | 830,000 |



다음은 투자면(投資面)에서 고찰(考察)하면, 경비(経費)에 비하여 직책(職責)이 더 많아지게 됨에 따라 장비지출(装備支出)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신중히 고려(考慮)되었다. 이는 국방비중(国防費中) 장비구입비(装備購入費)와 경비(経費)가 점(占)하는 비율(比率)을 나타내는 다음 도표(図表)에서 명백(明白)히 나타나 있다.4)

다음은 핵무기(核武器)에 대한 특별예산(特別予算)으로는 「프랑스」 국민(国民)에게 명백(明白)하고 믿을 수 있는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고 분류(分類)하고자 하는 열망(熱望)에서 핵억제력(核抑制力)을 유지(維持)하기 위해 배정(配定)된 예산(予算)이 별도로 제시(提示)되고 있다. 장비비용(装備費用)의 핵분담(核分擔)은 135억 「프랑」으로서 31.68%를 점유하게 된다.5)




핵시대(核時代)에 있어서의 핵무기(核武器)는 모든 자유진영(自由陣営)의 자유(自由)를 보장(保障)하고 임의(任意)로 정책(政策)을 수행(遂行)할수 있는 수단(手段)을 제공(提供)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방위정책(防衛政策)의 중요(重要)한 수단(手段)으로 형성(形成)되어 있다. 일정수준(水準) 신뢰(信賴)할 수 있는 억제력(抑制力)을 형성(形成)하고 적(敵)의 음모(陰謀)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形態)의 군사적(軍事的)인 위협(威脅)을 예측(予測)하고 이에 대응(対応)하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 (1)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의 신뢰성(信賴性) 유지(維持)

「프랑스」 핵전략(核戦略)은 중급국가(中級国家)로 하여금 초강대국(超強大国)에 대응(対応)할 수 있게 해주는 억제력(抑制力)에 그 기초(基礎)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이익(国家利益)을 침해(侵害)하는 잠재적(潜在的)인 침략자(侵略者)들의 위협(威脅)을 파괴(破壊)하기 위한 적절(適切)한 수단(手段)을 강구하려 한다. 「프랑스」의 핵전략(核戦略)은 국가(国家)의 안전(安全)을 보장(保障)하는데 있다. 여하한 조건하(條件下)에서 공격(攻撃)할 수 있는 충

분(充分)한 군사력(軍事力)을 유지(維持)해야 하지만, 「프랑스」는 군비경쟁(軍備競爭)의 위험(危險)과 핵무기(核武器) 과잉확보(過剩確保)에 몰두할 의사(意思)는 갖고 있지 않다.

핵무기(核武器)에 대한 신뢰성(信賴性)은 작전상(作戰上)의 안전(安全)과 침투력(浸透力) 및 파괴력(破壞力)에 그 기초(基礎)를 두고 있다. 핵무기(核武器)의 구성품(構成品)이 더욱 보강(補強)되고 성능(性能)이 향상(向上)되어 신뢰성(信賴性)도 증가(增加)되었다. 기술(技術)의 발달(発達)과 지속적(持続的)인 현대화계획(現代化計劃)에 따라 그 신뢰성은 더욱 증가되었다. 방위계획법(防衛計劃法)은 현대화(現代化)를 위한 계획이다.

전략해양군(戰略海洋軍)의 여섯번째 핵잠수함(核潛水艦)이 1985년도(年度)에 취역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핵잠수함(核潛水艦)은 16개(個)의 다탄두(多彈頭) M 4 「미사일」로 무장(武裝)될 것이다. 방위계획법(防衛計劃法)에서 핵잠수함(核潛水艦)이 1986년(年)에서 1988년(年) 사이에 새로운 세대(世代)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予測)하고 있다. 이 핵잠수함(核潛水艦)은 1994년(年) 취역할 것이다. 이 잠수함(潛水艦)은 수중잠수력(水中潛水力)을 증가(增加)시키고 다탄두핵(多彈頭核) 「미사일」을 더욱 개선(改善)시킬 것이 확실(確実)하다. 전략핵군(戰略核軍)의 개발계획(開発計劃)도 채택(採択)되었다.

1987년(年)에 18대(台)의 「미라지」 IV가 개량(改良)될 것이며 원거리(遠距離)에서 발사(発射)할 수 있는 중거리(中距離) 공대지(空対地) 「미사일」이 장착(装着)될 것이다. 또한 동시(同時)에 11 대(台)의 C-135 공중급유기(空中給油機)에 새 「엔진」이 장착완료될 것이며, 1996년(年)에는 「미라지」 IV에 SXT 「미사일」이 장착(装着)될 것이다.

핵무기(核武器)에 의(依)해서나 재래식(在來式) 무기(武器)에 의(依)한 공격(攻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훌륭한 통신망(通信網) 구축(構築)을 충족(充足)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이 강구(講究)될 것이며 1988년(年)부터 보강(補強)된 형태(形態)의 공중통신장비(空中通信装備)가 가동(可動)될 것이다.

#### (2)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 : 정립(定立)된 개념(概念)의 사용(使用)

「프랑스」는 사활적(死活的) 국가이익(国家利益)을 침해(侵害)하는 적(敵)의 위협(威脅)에 대한 억제력(抑制力)에 기여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를 보유(保有)해야 한다. 전술핵무기운용(戰術核武器運用)에 대한 의존(依存)은 작전(作戰)을 지속(持続)할 수 있도록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를 사용(使用)하기 전(前)에 최후(最後)의 경고(警告)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토」에 의(依)해 인식(認識)된 유연반응(柔軟反応)은 서구(西欧)에서 전쟁(戰爭)의 수락(受諾)을 유도(誘導)할 것이며, 전략(戰略) 및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의 결합(結合)은 핵전쟁(核戰爭)의 모든 가능성(可能性)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억제력(抑制力)에 대한 국가적(国家的) 개념(概念)에 있어서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는 기존(既存)의 장착 형태(形態)는 무시하더라도 초강력야포(超強力野砲)의 형태(形態)로서는 간주될 수 없다.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의 경우에 있어서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로 낮추어 사용(使用)하는 결정(決定)은 가장 최고(最高)의 권력층(権力層)에 의(依)해서 결정(決定)되는 것이다.

방위계획법(防衛計劃法)에는 최상(最上)의 군사적(軍事的) 효과(効果)를 유지(維持)하기 위해서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를 현대화(現代化)하고 다양화(多様化)하는 것을 포함(包含)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요소(航空要素)는 1988년(年)부터 「미라지」 2000N기(機)에 중거리공대지(中距離空対地) 유도탄(誘導弾)을 장착함으로써 현대화(現代化)될 것이다. 「슈뻬르·에땅다르」와 항공모함(航空母艦)도 이와 같은 유도탄(誘導弾)의 장착(装着)으로 개량(改良)될 것이다. 1992년(年)부터 현재(現在) 「뻴뤼똥」(Pluton)으로 장착(装着)되어 있는 「아드」(Hades) 체제(体制)로 무장될 것이다(1년(年)에 1연대(联隊)씩). 「아드」 발사(発射)는 정치적(政治的)인 의사결정(意思決定)과 가까운 방위참모장(防衛参謀長)에 의(依)해 통제(統制)되는 핵(核)의 일부분(一部分)으로 배비(配備)될 것이다. 중성자탄개발(中性子弾開発)에 대한 작업(作業)의 필요성(必要性)은 계속될 것이며, 방위계획법(防衛計劃法)은 중성자탄(中性子弾) 생산(生産)을 계획(計劃)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결정(決定)을 내릴 가능성(可能性)은 남아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핵군비경쟁(核軍備競爭)에 참가(参加)하는 것을 거부(拒否)하고 있으며 핵충분성이론(核充分性理論)의 신뢰도(信賴度)에 의존(依存)하고 있다. 전략(戰略) 및 전술핵수단(戰術核手段)의 현대화(現代化), 방어체제(防禦体制)의 공고화 및 계속적인 연구(研究)·개발(開発)은 「프랑스」 억제력(抑制力)의 신빙성(信憑性)과 비취약성(非脆弱性)을 유지(維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3. 2000년(年)을 위한 현대화(現代化)의 제언(提言)과 전망(展望)

### 가. 질적(質的)인 현대화(現代化)

핵잠수함(核潛水艦)의 비취약성(非脆弱性)을 증가(增加)시키려면 기술(技術)의 혁신(革新)과 연구분야(研究分野)에서 박차를 가(加)하고 다음의 중요한 제요소(諸要素)를 고려(考慮)해야 한다.

#### (1) 위치파악(位置把握)의 불확실성(不確實性)

핵잠수함(核潛水艦)의 주요이점(主要利点)은 자기(自己)의 위치(位置)를 드러내지 않고 적(敵)을 공격(攻撃)할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相対方)이 아측(我側)의 위치(位置)를 탐지(探知)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핵잠수함(核潛水艦)의 위치(位置)는 소음추적(騒音追跡)의 방법(方法)을 통(通)하여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方法)이 가장 긴요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研究)의 방향(方向)은 수중(水中)을 통과(通過)하는 동안 가장 적은 소음을 내도록 최신형(最新型)의 구조(構造)로서 선체(船体)의 형(型)을 바꾸어 개조(改造)하는데 있다.

보다 성능(性能)이 좋은 항해법(航海法)과 통신(通信)의 체제(体制)로 잠수함(潛水艦)이 수면(水面)으로 나타나지 않고도 수중(水中)에서 자기(自己) 위치파악(位置把握)의 불확실성(不確実性)을 계속 증가시키는데 경주하고 있다. 적(敵)에게 위치파악(位置把握)의 불확실성(不確

実性)을 제공(提供)하기 위하여 보다 성능(性能)이 좋고 위치불명(位置不明)을 증대(增大)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대(世代)의 추진체(推進体)의 원자로로 대체(代替)하여야 한다.

### (2) 탐색(探索)

소련(蘇联)의 최신기술(最新技術)은 공개(公開)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美国)과 마찬가지로 소련(蘇联)도 선박(船舶)에 따라다니는 「플루트」(Flute)와 「르모르끄」(Remorque)의 보조선(補助船)에 의(依)하여 보다 정확(正確)한 탐지(探知)를 하는 연구(研究) 「팀」을 갖고 있다. 이 분야(分野)에서 「프랑스」는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소련(蘇联)으로부터 구입(購入)한 유전탐색연구용(油田探索研究用) 「플루트」 체제(体制)를 「프랑스」에 맞도록 만들어 사용(使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내(数年內)에 이룩해야 하고 연구(研究)할 주요분야(主要分野)는 다음과 같다.

- 표적(標的)에서 최저주파(最低周波)의 전파(伝播)
- 수중(水中)에서의 실험(実験)
- 선체(船体)의 반자기화(反磁気化)와 자기화(磁気化)
- 유체동력학(流体動力学)(Hydrodynamique).

### (3) 항해법(航海法)

핵잠수함(核潜水艦)은 항해(航海)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하여 보다 수심(水深)이 깊은 대양(大洋)에 위치(位置)할 필요(必要)가 있다.

또한 잠수함(潜水艦)의 정확(正確)한 위치(位置)를 잘 파악(把握)하고 있어야만 필요시(必要時) 적(敵)에게 「미사일」의 공격(攻撃)을 정확(正確)히 지시(指示)할 수 있다. 핵잠수함(核潜水艦)은 자기(自己)가 부여받은 적(敵)의 목표지역(目標地域)을 언제 어느 곳에서든 발사(発射)할 수 있게끔 사전점검(事前点検) 및 계산(計算)을 하여 유지(維持)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미사일」의 발사(発射)를 완전(完全)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적절한 체제(体制)를 설치(設置)할 필요(必要)가 있으며 이러한 체제(体制)는 사정거리(射程距離)를 증가(增加)시키고 원형공산오차(圓形公算誤差)를 줄이는데 효과적(效果的)이다.

### (4) 통신수단(通信手段)

핵잠수함(核潜水艦)에 보내는 국가전쟁지휘(国家戦争指揮)의 통신(通信)은 표적(標的)의 불투명(不透明)과 고주파(高周波)와 장파(長波)를 보내려는 어려움이 지금까지 문제(問題)로 남아 있다. 여하튼 여러 전문가(專門家)들이 논(論)한 바에 의(依)하면 핵잠수함(核潜水艦)의 통신(通信)은 핵(核)「미사일」 발사시(発射時) 전자파의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강화(強化)되어야 하고 또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이외(以外)에도 충분(充分)한 응신(応信)을 주기 위하여 통신인공위성(通信人工衛星)을 소유(所有)하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 (5) 자위(自衛)

핵잠수함(核潜水艦)은 그들 자신(自身)을 방위(防衛)할 수 있어야 한다. 최선(最善)의 방위(防衛)는 발생음(発生音)의 방지(防止)와 도피탈출속도(逃避脫出速度)와 특히 잠수속도(潜水速度)에 의존(依存)하고 있다. 최후(最後)의 방법(方法)은 4개의 지뢰발사용(地雷発射用) 무기(武器)를 활용(活用)하는데 최선(最善)을 다하고 이 무기(武器)의 사용속도(使用速度)를 증가(增加)시켜야 한다.

**전략(戰略) 및 전술무기(戰術武器)의 바람직한 질적(質的) 개선(改善)6)**

| 무기 종류 | 항 목 | 해 결 방 안(解 決 方 案) |
|---|---|---|
| 전략 무기 (戰略 武器) | • 표적(標的)의 비취약성(非脆弱性) | ◎ 핵잠수함(核潜水艦)<br>• 위치파악 불명<br>• 명중정도(命中精度)<br>• 항해(航海)<br>• 사정거리(射程距離) |
| | • 무기(武器)의 다양화(多様化) | ◎ 이동식(移動式) 미사일<br>• 지대지(地対地) 이동식(移動式) 탄도탄(弾道弾)<br>• 다수(多数)의 순항(巡航)미사일 |
| | • 침투력(浸透力) | ◎ 이동식(移動式) 탄두(弾頭)와 레이다 표면(表面)에 방해할 수 있는 견고성(堅固性)으로 지상(地上)에로의 침투(浸透). |
| | • 전략(戰略) | ◎ 다탄두(多弾頭) 개별목표(個別目標) 재진입수단(再進入手段)(MIRV) 또는 기동식(機動式) 재진입수단(再進入手段)(MARV) 탄두(弾頭)의 다양성(多様性)을 가진 대경제지역(対経済地域)과 대정치행정중심지(対政治行政中心地)로 확대(拡大)된 대도시전략(対都市戰略). |
| 전술 무기 (戰術 武器) | • 진전된 위력(威力)의 증대(增大) | ◎ 적(敵)의 원하는 표적(標的) 깊숙이 도달(到達)하기 위하여 보다 더 장거리(長距離)의 사정거리(射程距離) 연장(延長).<br>◎ Hades와 공대지(空対地) 중거리(中距離)미사일의 20~300kt의 위력(威力), 방사능의 효과(効果)는 적고 지상(地上)으로의 침투력(浸透力)의 증대(增大). |
| | • 운반체(運搬体)와 탄두 적재량 | ◎ 기동적(機動的)이고 견고성(堅固性)이 있는 탄두(弾頭) |
| | • 통신수단 (通信手段) | ◎ 핵폭발(核爆発) 시(時) 충격(衝撃)에 대비(対備)한 통신장비(通信装備)를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다양(多様)하고 강화(強化)된 체제(体制). |

끝으로 핵잠수함(核潜水艦)의 정비(整備)의 신속성과 실제적(実際的)인 장비(装備)의 교환(交換)이 핵잠수함(核潜水艦) 가동중(稼動中), 수중(水中)에서도 가능(可能)하여야 하며 또 그 신빙성(信憑性)을 증가(増加)시켜야 한다.

## 나. 1985년(年)～2000년간(年間) 양적(量的)인 면(面)에서 현대화(現代化)

「프랑스」의 핵잠수함(核潜水艦)의 척수(隻数)를 증가(増加)시킴으로써 동시(同時)에 양적(量的)인 현대화(現代化)를 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대화계획(現代化計劃)은 1985년(年)에서 1991년(年)까지, 1992년(年)～2000년(年)까지의 두 기간으로 구분(区分)하여 실시(実施)할 예정이다.

### (1) 1985～1991년(年)까지의 제안(提案)

기술적(技術的)인 산업능력(産業能力)의 계획(計劃)에 관(関)해서 요약(要約)하면,

• 「앵플렉시블」 핵잠수함(核潜水艦)의 출항(出航)과 「또낭」의 개조(改造)에 필요(必要)한 기간(期間)을 단축(短縮)함.

• 2척(隻)의 핵잠수함(核潜水艦)의 건조(建造)는 「세르부르그」(Cherbourg)의 조선소(造船所)에서 맡아서 하고 공격잠수함(攻撃潜水艦)의 건조(建造)는 민간해양조선소(民間海洋造船所)에 그 임무(任務)를 부여함.

따라서 「프랑스」는 1992년(年)에 8척(隻)의 핵잠수함(核潜水艦)을 배비(配備)할 것이며, 그 중(中) 6척(隻)은 가동가능(稼動可能)할 것이며, 그 中 4척(隻)은 대양(大洋)에서 초계작전(哨戒作戦)에 투입(投入)되어 「프랑스」 국가(国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확고(確固)히 할 것이다. 1985년(年)의 상황(状況)에 따라 사용가능(使用可能)한 핵전력(核戦力)은 1991년(年)에 들어서면 2배(倍) 이상(以上)이 되고 핵탄두수(核弾頭数)는 약(約) 4배(倍)인 약(約)400개가 될 것이다.

### (2) 1992～2000년(年)까지의 제안(提案)

16기(基)의 「미사일」을 장비한 새로운 세대(世代)의 핵잠수함(核潜水艦) 3척(隻)의 건조계획(建造計劃)은 1992～2000년(年) 사이 매(毎) 2년(年)마다 1척(隻)의 진수(進水) 비율(比率)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 계획(計劃)은 같은 기간(期間)에 신잠수함(新潜水艦) 2척(隻)과 나머지의 「르두따볼」을 개조(改造)하여 M-4 「미사일」또는 개량(改良) M-4 무기체계(武器体系)를 장착(装着)할 것이다. 이 잠수함의 선체(船体)는 양호(良好)하며 1992년(年)이 되면 20년(年)의 연륜을 갖게 된다. 과학자(科学者)들은 M-4 「미사일」을 장착하여 앞으로 10년간(年間)은 아무 지장없이 임무수행(任務遂行)할 것이라고 평(評)하고 있다.7)

금세기말(今世紀末) 「프랑스」는 10척(隻) 또는 11척(隻)의 핵잠수함(核潜水艦)을 배비(配備)할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대양(大洋)에는 고정적(固定的)으로 5 내지 6척(隻)의 잠수함(潜水艦)이 확보(確保)될 것이며, 작전능력(作戦能力)은 적(敵) 표적(標的)에까지 분리(分離), 유도(誘導)될 수 있는 500개(個) 내지 600개(個)의 핵탄두(核弾頭)로서 보다 높은 수준(水準)의 신뢰성(信頼性)이 이루어질 것이다.8)

다음은 「알비옹」 고원지대(高原地帯)의 지대지(地対地) 탄도탄(弾道弾)에 관하여 약간 언급하기로 한다. 「미설 드브레」(Michel Debre)는 핵억제력(核抑制力)의 삼지주(三支柱)에 대하여 언급(言及)한 바, 우선적으로 현대화(現代化)해야 할 것은 해양전략군(海洋戦略軍)이며 그 이외(以外) 2개지주(個支柱)는 적당한 범위(範囲)에서 「프랑스」의 국방(国防)에 긴요하고 적절하게 개발(開発)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9)

1982년(年) 말(末)까지 지대지(地対地) 중거리(中距離) 탄도탄(弾道弾) S-2 「미사일」을 「메가톤」급(級) S-3 「미사일」로 대체(代替)했으며 이 새로운 「미사일」은 사정거리(射程距離)와 파괴력(破壊力)이 S-2 「미사일」보다 훨씬 우세하다. S-3 「미사일」 교체(交替)로 인하여 통신수단(通信手段)에 가장 중요한 기술개선(技術改善)의 이점(利点)을 가져올 것이다. S-2와 S-3 의 성능비교는 다음과 같다.

(1) 지대지(地対地) 「미사일」: S-2의 성능

• 무게 : 3.19「톤」

• 직경(直径) : 1.5m

• 높이 : 14.8m

• 추진력(推進力) : 1단계(段階)(55「톤」), 2단계(段階)(45「톤」)

• 항속시간(航続時間) : 1단계(76초)
2단계(50초)
• 사정거리(射程距離) : 3,000km
• 핵탄두위력(核弾頭威力) : 150kt
⑵ 지대지(地対地) 「미사일」 : S-3의 성능(性能)
• 무게 : 25.8 「톤」
• 직경 : 1.5m
• 높이 : 13.8m
• 추진력(推進力) : 1단계(段階)(55 「톤」), 2단계(段階)(32 「톤」)
• 항속시간(航続時間) : 1단계(72초), 2단계(52초)
• 사정거리(射程距離) : 3,000km이상(以上)
• 핵탄두위력(核弾頭威力) : 1 Mt(열핵폭탄)

마지막으로 삼지주(三支柱)의 하나인 항공전략요소(航空戦略要素)인 36대(台)의 「미라지」 IV 항공기(航空機)는 1985년(年)에 폐기 처분해야만 한다. 그러나 1992년(年)에서 1994년(年)까지에는 최신형(最新型)의 공대지(空対地) 「미사일」을 장착(装着)할 15대(台)의 「미라지」 IV 항공기(航空機)를 보유(保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단발 「엔진」인 60대(台)의 「미라지」 2000 항공기(航空機)를 제작(製作)하고 이 항공기(航空機)에 공대지(空対地) 「미사일」을 장착(装着)하여 전술공군사령부(戦術空軍司令部)에 배비(配備)하여 전술기임무(戦術機任務)를 수행(遂行)한다.

금세기(今世紀)의 마지막 10년간(年間)은 56대(台)의 쌍발 「엔진」, 복좌, 이중가치(二重価値)를 가진 보다 긴 사정거리(射程距離) 및 행동반경(行動半径)을 갖는 항공기(航空機)에 대한 연구(研究)·개발(開発) 및 제작(製作)을 할 계획(計劃)이다.

종합적(綜合的)으로 핵전력(核戦力)을 전망(展望)한다면, 「지스까르 데스뗑」(Giscard d' Estaing) 전(前) 「프랑스」 대통령(大統領)은 유일(唯一)한 궁극무기(窮極武器)에만 의존(依存)하는 전면전쟁(全面戦争)이냐 무저항(無抵抗)이냐 이 양자택일(両者択一)(All or Nothing) 전략(戦略)은 억제력(抑制力)의 신뢰성(信頼性)을 손상(損傷)시키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격(排撃)한 후(後) 다양(多様)한 분쟁형태(粉争形態)에 대처(対処)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手段)을 겸비함으로써 억제력(抑制力)의 신뢰성(信頼性)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금세기말(今世紀末) 「프랑스」가 1,088개(個)의 핵탄두(核弾頭)와 약(約) 180MT 의 핵위력(核威力)을 보유(保有)한다 해도 핵보유(核保有)의 중급국(中級国)으로서 전략적(戦略的)인 한계(限界)가 따르지만 독자적(独自的) 전략수행(戦略遂行)과 국가이익(国家利益)의 보장(保障)을 위한 비례억제력(比例抑制力)으로서는 충분(充分)하다.



2000년(年)의 전략(戦略) 및 전술무기(戦術武器)의 전망(展望)을 종합(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 무기 종류 | 무 기 체 계 (武 器 体 系) | 탄 두 류 (弾頭類) | 위 력 (威力) |
|---|---|---|---|
| 전략 무기 (戦略 武器) | • 6척(隻)의 핵잠수함(核潜水艦) | 600 | 100Mt |
| | • 18기(基)의 지대지(地対地) 미사일 | 18 | 18Mt |
| | • 3기(基)의 지대지(地対地) 미사일 | 20 | 3Mt |
| | • 700기(基)의 이동식(移動式) 지대지(地対地) 미사일 | 100(최소) | 15Mt |
| | • 50대(台)의 척발(隻発)엔진 항공기(航空機)의 공대지(空対地) 미사일 | 50<br>788 | 15Mt |
| | 소 계 (小 計) | 200 | 151Mt |
| 전술 무기 (戦術 武器) | • 100기(基) Hades | 100 | 8Mt |
| | • 100개의 공대지(空対地) 미사일 | 300 | 20Mt |
| | 소 계 (小 計) | 1,088 | 28Mt |
| 총 계 (総 計) | | | 179Mt |

자료 : 「프랑스」 국회보고자료 (1980)

## 5. 결론(結論)

국가안보(国家安保)를 공고(鞏固)히 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거의 30여년간(余年間)의 끊임없는 노력(努力)의 결과(結果)로서 독자적(独自的)인 핵능력(核能力)을 기본요소(基本要素)로 한 전략적(戦略的) 억제수단(抑制手段)으로 국가방위(国家防衛)에 임(臨)하고 있다. 오늘날 중급국중(中級国中) 핵보유국(核保有国)으로서 「프랑스」는 전략적(戦略的) 한계(限界)에도 불구(不拘)하고 꾸준히 핵개발을 한 것은 비핵보유국(非核保有国)들에게 핵보유국(核保有国)의 전환 가능성(可能性)을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전략적(戦略的) 동기(動機)와 그 진가(真価)가 전략적(戦略的) 한계(限界)보다는 더 크게 작용(作用)했으며, 특(特)히 군사(軍事) 및 경제적(経済的) 동기(動機)보다는 정치(政治)·심리적(心理的) 동기(動機)가 더욱 중요한 요인(要因)이 된다는 것을 의미(意味)한 것이다.

이상(以上)에서 소개(紹介)한 「프랑스」의 2000년대(年代)를 향(向)한 전략(戦略) 및 전술핵무기(戦術核武器)의 현대화(現代化) 및 그 전망(展望)을 참고(参考)로 하여 한반도(韓半島)의 중(中)·장기군사정책(長期軍事政策)의 수립(樹立)과 금후(今後) 한반도의 핵정책(核政策)을 연구(研究)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주 해(註 解) –

1) F.N.S. : Forces Nucleaires Strategiques의 약자(略字).

2) Tourrain Raymond, Rapport d'Information, No 1730 sur l'etat. la modernization des forces nucleaires frangaises, Assemblee Nationale, 1980, pp.201～202.

3) Ministere de la Defense service d'information et de relations publiques des armees, La programmation militaire(1984~1988), Dossier d'Information No 72, 1983. p.5.

4) ibid., p.6.

5) ibid.

6) Tourrain Raymond, op. cit., p.216.

7) Guy Lewrin, "L'avenir des forces nucleaires frangaiseo," Defense nationale, mai 1980.

8) Tourrain Raymond, op. cit., p.220.

9) Livre Blanc sur la defense nationale, Tome Ⅰ, Paris, Imprimerie du Cedogur,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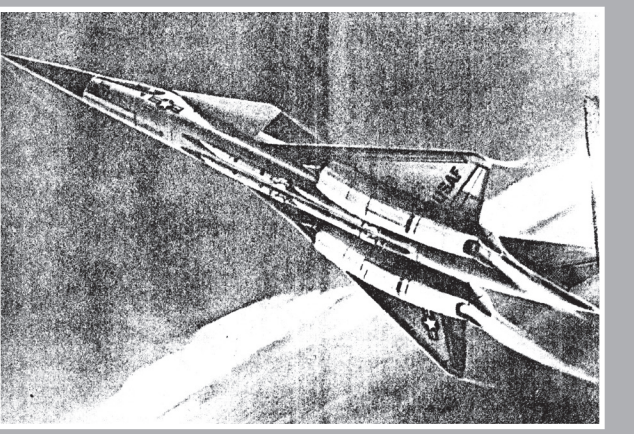
p.12.

**빈틈없는 영공방위**
**남북통일 앞당긴다.**



# 미국(美國)의 차기전투기(次期戰鬪機) 개발계획(開發計劃) (1)

이건순(李建淳) 역(訳)
〈공군본부(空軍本部)〉



– 목 차(目 次) –

1. 개요(槪要)
2. 기술기반(技術基盤)
3. 항공역학(航空力学) 기술적용(技術適用)
4. Avionics의 통합(統合)
5. 새로운 Engine
6. Digital Control
7. 전투(戰鬪) 자동화(自動化)
8. 조종석내(操縱席內)의 목표자료작도(目標資料作図)

## 1. 개요(概要)

미국(美国) 국방무기체계획득검토심의원회(国防武器体系獲得検討審議員会)(U. S. Defense Systems Acquisition Review Council : DSARC)는 지난 84년(年) 12월(月) 말(末) 미공군 차기전투기(次期戦闘機)(Advanced Tactica] Fighter : ATF) 개발계획(開発計劃)에 대(対)한 청취회(聴取会)를 가졌다.

그런데 미공군(美空軍)이 현용(現用) F-15의 후속기(後続機)로 개발(開発)하고 있는 이 ATF는 90년대(年代) 초(初) 실전배치(実戦配置)하여 2025년경(年頃)까지는 소련군(素煉軍)의 위협(威脅)에 대항(対抗)하여 일선기(一線機)로서의 취역(就役)이 가능(可能)할 것으로 미공군(美空軍)에서는 보고 있다.

소련은 최근(最近) 10~15년(年) 동안 급격(急激)히 군사력(軍事力)을 증강(増強)해 오고 있다. 특(特)히 군사기술면(軍事技術面)에서 미국(美国)과의 Gap을 크게 좁혀오고 있다. 소련은 지금까지 소형(小型), 소적재용량(小積載容量)의 방어주도형(防禦主導型) 전투기(戦闘機)를 생산(生産)해 왔으나 최근(最近)들어 국경(国境)을 훨씬 넘는 항공전력(航空戦力)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 전천후(全天候)

• 야간(夜間), 또한

목시거리(目視距離)를 넘는

공격력(攻撃力)을 구비(具備)하게 되었다.

미공군(美空軍)의 신예전투기(新鋭戦闘機)의 취역(就役)은 지난 1979년(年) F-16기(機)를 끝으로 후속기(後続機)를 내놓치 못하였는데 반(反)해, 소련은 신형전투기(新型戦闘機) 삼종(三種)을 취역(就役)시키고 있다.

우선 Su-24 Fencer기(機)는 전천후(全天候), 저공공격능력(低空攻撃能力)을 갖고 있어 NATO역내(域内) 깊숙이 공격(攻撃)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現在) Afghanistan전선(戦線)에 실전배치(実戦配置)되어 있는 Su-25 Frogfoot 대지공격기(対地攻撃機)는 그의 뛰어난 공중근접작전지원능력(空中近接作戦支援能力)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은 또한 MiG-31 Foxhound 전투기(戦闘機)를 실전배치(実戦配置)하고 있다. 이는 종래(従來)의 MiG-25 Foxbat기(機)를 대폭(大幅) 개량(改良)한 것인데 이 MiG-31기(機)의 탑재(搭載) Radar의 유효거리(有効距離)는 미국(美国)의 F-15 Eagle기(機)것 보다도 멀리 작용(作用)한다.

소련은 지금 또 다른 두 종류(種類)의 고정교(高精巧) 전투기(戦闘機)를 개발중(開発中)에 있다. 그 하나는

• MiG-29 Fulcrum으로써 이는 미국(美国)의 F-18 Hornet기(機)와 그 성능(性能)이 비슷한 것이다.





• 또 하나는 Su-27 Flanker기(機)로써 이는 미국(美国)의 F-15 Eagle기(機)와 그 성능(性能)이 맞먹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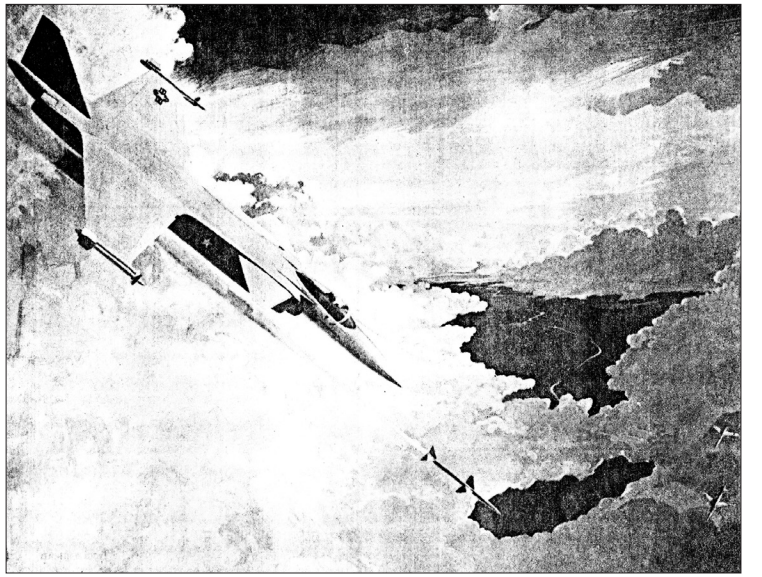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 미국(美国) 사람들은 이 소련의 두 신예기(新鋭機)의 성능(性能)을 최소평가(最小評価)하는 오류(誤謬)를 범(犯)하고 있는 듯 하다.

소련은 지금 24시간(時間) 가동(稼動) 항공전력배양(航空戦力培養)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군사교리(軍事教理)나 훈련상황(訓練状況)에 잘 반영(反映)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状況)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強度)를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실전배치(実戦配置)되고 있는 장비성능(装備性能)도 더욱 더 향상(向上)되고 있다.

미국전투기(美国戦闘機)들은 적(敵)의 목표(目標)들이 언제까지나 어둠과 악천후하(悪天候下)에 성역(聖域) 속에서 안주(安住)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현재(現在) 미군기(美軍機)들은 구주지역(欧洲地域)에서 구주(欧洲) 특유(特有)의 기상조건(気象条件) 때문에 하루 평균(平均) 4 1/2 시간(時間) 밖에 가동(稼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実情)에 있다.

차기전투기(次期戦闘機)(ATF) 개발계획(開発計劃)은 현재(現在) 미공군(美空軍)의 전술전력증강(戦術戦力増強) 우선순위(優先順位) 목록중(目錄中) 제(第)7호(号) 품목(品目)으로 되어 있다.

• 제(第)1호(号) 품목(品目)으로서는 Martin Marietta사(社)가 개발추진중(開発推進中)에



〈McDonnell Douglas사(社)가 제안(提案)하고 있는 ATF안(案).
특(特)히 기동성(機動性)을 강조(強調)하고 있다.〉

있는 “LANTIRN”(Low- Altitude Navigation and Targeting Infra-Red for Night) 야간항법(夜間航法) / 공격체계(攻擊体系)이다.

• 제(第)2(号) Mc Donnell Douglas 사(社)의 F-15E Dual-Role Figher가 올라 있다.

지난 ’83년(年) 9월(月) 7개(個) 저명(著名) 항공제작사(航空製作社)가 차기전투기(次期戰鬪機)(ATF) 의 개념설계(概念設計) 계약(契約)을 체결(締結)하였는데 용역비(用役費)는 각(各) 사당(社当) 100만불(万弗)이다

이 계약(契約)에 참여(参与)하고 있는 Boeing, General Dynamics, Gruman, Lockheed, McDonnell Douglas, Northrop 및 Rockwell International의 7개사(個社)들은 그들의 개념설계안(概念設計案)을 금년(今年) 초(初) 제출(提出)한 바 있다.

다음 단계(段階)는 지난 84년(年) 12월(月) 중순경(中旬頃) 미국방무기체계획득심의위원회(美国防武器体系獲得審議委員会)(Defense Acquisition Review Council)의 개최(開催)이다.

ATF 개발예산책정업무(開発予算策定業務)가 순조(順調)롭게 이루어 질 경우 ’85년(年) 초(初)에 제안요구서(提案要求書)(Request for Proposals)가 관련항공사(関联航空社) 앞으로 발송(発送)하게 될 예정(予定)이다.

’85년(年) 중반중(中盤中) ATF의 성능시범(性能示範)/확인제안서(確認提案書)가 각사(各社)로 제출(提出)하게 되면 이를 검토(檢討)하여 ’85년(年) 말(末) 경(頃)에 2～3사(社)로 압축(圧縮) 선정(選定)하게 될 것이다.

본격개발업무(本格開発業務)는 ’88년경(年頃)부터 개시(開始)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1 개사(個社)(또는 1개(個) Team)가 선정(選定) 계약(契約)하게 될 것이다.

초(初) 비행(飛行)은 ’90년대(年代) 초(初)로 잡고 있다.

ATF 개발소요예산(開発所要予算)은 :

• ’89년(年) 말(末)까지 수행(遂行)될 ATF 성능시범(性能示範) / 확인업무(確認業務)에 12억불(億弗),

• 본격개발계획(本格開発計劃)이 완료(完了)되기 까지 ATF 개발(開発) 총소요(総所要)는 50억불(億弗) 이상(以上)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994년(年) 추정불화가(推定弗貨価)).

ATF는 최신기술(最新技術)의 도입(導入)으로

• Long Range,

• Large Flight Envelope(넓은 비행영역(飛行領域))

• 고속(高速)

• 높은 무기발사율(武器発射率)

• 최소한(最小限)의 지상지원병력(地上支援兵力)

으로 가동(稼動)될 수 있는 전술기(戰術機)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

• 현용(現用) F-15기(機)에 비(比)해 Range가 50～100% 크고





• 적(敵)의 활주로(滑走路) 공격(攻撃)으로 짧은 거리(距離)에서 이(離)·착륙(着陸)이 가능(可能)하며

• 동시(同時) 목시거리(目視距離) 너머의 다목표공격(多目標攻撃)의 가능(可能)

• 공중(空中) 및 지상(地上)의 높은 방어작전(防禦作戰) 환경하(環境下)에서도 높은 생존성(生存性)을 가지며

• Pilot는 1명(名)으로 제한(制限)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F-15기(機) 72대(台) 편성(編成)의 1개(個) 비행단(飛行団)을 운용(運用)하는데에는 최소한(最小限) 6대(台)의 C-141 수송기분(輸送機分)의 시험장비(試験装備) 등(等) 지원장비(支援装備)가 필요(必要)하다. 또한 이들 장비(装備)들의 Spares까지 포함(包含)시킨다면 그 지원물량(支援物量)은 더욱 증대(増大)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취역(就役)하게 될 ATF의 경우는 항공기(航空機)의 작동(作動) 및 전투정비소요(戰闘整備所要)를 최소한(最小限)으로 유지(維持)될 수 있도록 항공기구조(航空機構造)를 단순화(単純化)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第)1차세계대전후(次世界大戰後)의 전투기(戰闘機)들의 Cockpit 내(内)에는 10～15개(個)의 Controls 및 Instruments를 갖고 있었던 것이 F-51기(機)에 와서는 이것이 35개(個)로 늘었고 오늘날의 F-15기(機)에 와서는 300個로 대폭증가(大幅増加)되고 있는데 이들은 각종(各種) 계기류(計器類), 신호음(信号音), 표시등(表示燈), 스위치, 조작용(操作用) 핸들 등(等) 다양(多様)하다.

최근(最近) 과학기술(科学技術)의 급격(急激)한 발전(発展)으로 전투기(戰闘機) 운용(運用)이 종래(従來)에 비(比)해 훨씬 편(便)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Pilots들로 하여금 몇 초(秒) 동안의 “숨죽이는” 결전순간(決戰瞬間) 동안 그의 목표물(目標物)과 위협(威脅)에 대(対)한 적절(適切)한 대응결정(対応決定)을 보다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차원(次元)높은 발전노력(発展努力)이 집중(集中)되어야 한다.

Avionics의 신뢰도(信賴度)는 Digital Microelectronics 기술(技術)의 연구개발(研究開発)로 더욱 향상(向上)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방성(美国防省)에서는 VHSIC(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기술개발(技術開発)을 강력(強力)히 추진중(推進中)에 있는데, 이에 따라 단일(単一) Chip내(内)에 종래(従來)보다 50 내지 100배(倍)나 더 많은 회로(回路)를 구성(構成)시킬 수 있다. VHSIC화(化) Avionics는 종래(従來)에 비(比)해 100분(分)의 1 정도(程度)의 적은 1C로 기능발휘(機能発揮)가 가능(可能)하게 되었다. 이는 보다 적은 회로판(回路板), 회선(回線)으로 족(足)할 뿐아니라 보다 높은 신뢰도(信賴度)를 가져다 주게 된다.

### • 신뢰성(信賴性)과 정비성(整備性) 치중(置重)

ATF는 현용(現用) 일선기(一線機)들에 비(比)해 더 많은 시간(時間)을 공중(空中)에서 활동(活動)할 수 있도록 개발초(開発初)부터 신뢰성(信賴性)과 정비성(整備性)에 높은 우선순위(優先順

位)를 두어 개발(開発)하게 된다. 또한 부분적(部分的)으로 기내(機內) Systems이 고장(故障)을 일으켜도 계획(計劃)된 임무비행(任務飛行)을 계속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개발(開発)될 것이다.

## 2. 기술기반(技術基盤)

차기전투기(次期戰鬪機)에 적용(適用)될 만한 기술(技術)에 대(対)한 개발평가(開発評価)는 이미 70년대(年代) 말(末)부터 시작(始作)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몇 대(台)의 실험기(実験機)가 비행(飛行)을 거듭하면서 항공역학(航空力学), 조종장치(操縦装置), 항공전자통합(航空電子統合) 등(等)의 선진기술연구(先進技術研究)를 진행(進行)시켜 왔다. 이들 신기술(新技術)들 중(中)에는 :

• YF-16기(機)의 CCV(Control-Configured Vehicle) 기술(技術), 1976～77년(年)

• HIMAT(High Maneuverity Advanced Technology) 고기동첨단기술원격조종실험기(高機動尖端技術遠隔操縦実験機) 1979～82년(年)

• Integrated Flight and Fire Control(IFFC : 조종(操縦)은 및 화력통제(火力統制) 통합체계(統合体系) F-15, 1981～82년(年)

• Advanced Fighter Technology Integration(AFTI), F-16, 1982년(年)

*188

• X-29 Forward Swept Wing Demonstator(전진익성능시범기(前進翼性能示範機)) 1984년(年) 시험개시(試験開始)

• Mission- Adaptive-Wing(임무적응가변(任務適応可変) Camber 익형(翼型)), F-111, 1985년(年) 시험예정(試験予定).

• F-15 STOL and Maneuver Technology Demonstrator, 1988 비행예정(飛行予定) 등(等)의 신기술(新技術)들이 이미 시험과정(試験過程)을 끝마쳤거나 또는 계획(計劃)되고 있다.

### • YF-16 CCV

General Dynamics사제(社製) YF-16시험기(試験機)는 Airintake에 Canard Control Surfaces를 부착(附着)한 특이(特異)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종래기(従來機)로서는 불가능(不可能)했던 특이(特異)한 비행(飛行)을 가능(可能)하게 하고 있다.

즉(即) 항공기(航空機)의 진로(進路)나 자세(姿勢) 조종(操縦)을 각각(各各) 별개(別個), 또는 동시(同時) 작동(作動)시킬 수 있어서

○ Bank없이 횡활(横滑)(Side Slip) 또는 선회가능(旋回可能)하며,

○ 비행자세(飛行姿勢) 변(変)함없이 상승(上昇), 강하비행(降下飛行) 가능(可能),

○ Flightpath 변(変)없이 기수(機首)를 상(上), 하(下), 좌(左), 우(右)로 향(向)하고 비행(飛行)할 수 있다.





### • HiMAT

Rockwell사제(社製)의 HiMAT 고기동(高機動) 성능시범기(性能示範機)는 고도(高度) 30,000ft, Mach 0.8기속(機速)으로 8g 지속선회기동(持続旋回機動)이 가능(可能)했는데 이것은 현용(現用) 일선기(一線機)의 거의 2배(倍)의 고기동성(高機動性)인 것이다.

이 HiMAT기(機)의 기동저항치(機動抵抗値)(Maneuver Drag)를 최소(最小)로 유지(維持)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Key Technology의 통합운용(統合運用)을 필요(必要)로 했다. 즉(即),

○ 주익(主翼) 가까이 부착(附着)된 Canard 구조(構造),

○ 복합재료제(複合材料製) 후퇴익(後退翼)으로써, 주익(主翼)에 작용(作用)하는 공력탄성학적(空力弾性学的)으로 Twist를 Control할 수 있게 구조(構造),

○ 박판형초임계성(薄板型超臨界性) 익형(翼型)(Thin Supercritical Aerofoils)

○ 경직성(硬直性) 정적안정(静的安定)을 완화(緩和)

O 추력(推力)과 Flight Control을 Digital Computer로 통합운용(統合運用)

등(等)의 신기술(新技術)이 활용(活用)되어 고기동성(高機動性)을 발휘(発揮)시키고 있다.

### • IFFCF-15

McDonnell Douglas사제(社製) F-15조종(操縦) 및 화력통제(火力統制) 통합운용(統合運用) 시범기(示範機)는

○ Optical Sensor Tracking Pod가 포착(捕捉)한 목표추적자료(目標追跡資料)를 Flight Control System에 공급(供給)하여 통합운용(統合運用)하게 함으로써 고속(高速)으로 기동(機動)하고 있는 목표기(目標機)를 Head-on Attack하는 등(等) 종래기(従來機)에서 볼 수 없었던 고도(高度)의 정교사격(精巧射撃)을 가능(可能)하게 하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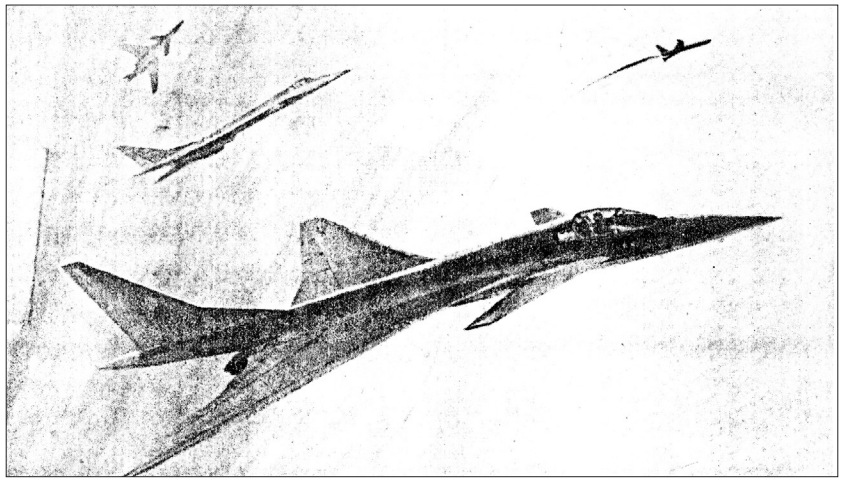
○ 1982년 8월(月)에 실시(実施)한 사격시범(射撃示範)에서 IFFC F-15기(機)는 PQM-102 초음속(超音速) 목표무인기(目標無人機)를 매우 어려운 대전자세(対戦姿勢)에서 성공리(成功裡)에 격추(撃墜)시킨 바 있다.

### • AFTI F-16

Advanced Fighter Technology Integration F-16기(機)는

○ YF-16 CCV 기(機)에서 이미 실험입증(実験立証)한 비행자세(飛行姿勢)와 비행경로(飛行経路)의 분리제어가능(分離制御可能)한 특성(特性)(제(第)1단계(段階) 실험(実験))을 활용(活用)하여

○ 무기(武器)의 자동발사기능(自動発射機能)을 보완(補完) 발전(発展)시키고 있다(제(第)2단계(段階) 실험(実験)). 여기에서 활용(活用)된 Key 기술(技術)들은 :



〈Grumman사(社) 제안(提案)의 "Supercruise" 개념기(槪念機) 가변(可変) Camber 주익(主翼)과 Vectroring Nozzle기술(技術)이 도입(導入)되고 있다.〉

○ 삼중여유성(三重余裕性)(Triplex-redundant)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 Helmet 장착(装着) 조준장치(照準装置), 음성지령(音声指令)(Voice Command)을 포함(包含)한 Multifunction Controls and Displays 등(等)의 새로운 Support기술(技術)들이 새로이 도입활용(導入活用)되고 있다.

### • X-29 전진익(前進翼) 기술(技術)

Grumman사제(社製) X -29전진익(前進翼) 기술시범기(技術示範機)는 종래(従來)까지의 전통적(伝統的) 설계방식(設計方式)이었던 후퇴익(後退翼) 형(型) 아닌 전진익형(前進翼型)의 새로운 설계(設計)가 가능(可能)한 것임을 입증(立証)하려는 것이 그 주(主)된 개발목적(開発目的)이다.

이 시범기(示範機)에 도입(導入)된 주요(主要) 신기술(新技術)은 :

○ 복합재료제(複合材料製)의 공력탄성학적(空力弾性学的)(Aeroelastic)으로 정교제작(精巧製作)된 주익(主翼) 구조(構造)로 되어 있어 주익(主翼)에 작용(作用)하는 비틀림(Twist)의 Control과 종래(従來)까지 전진익(前進翼) 이론(理論)에서 크게 제기(提起)되었던 천음속시(遷音速時)의 저항(抵抗)(Transonic Drag) 급증현상(急増現象)을 감소(減少)시킬 수 있었으며,

○ 주익(主翼)가까이 Canard 부착(附着)

○ 박형초임계익형(薄型超臨界翼型)(Thin Supercritical Aerofoils)

○ 경직성(硬直性) 정적안정(静的安定)의 완화(緩和)

○ Digital Flight Controls

○ 불연속성(不連続性) 가변(可変) 캠바

등(等)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技術)들이 도입(導入) 활용(活用)되고 있다.

○ 한편 이 X-29 시범기(示範機)는 지난 '84년(年) 12월(月) 14일(日) 첫 시험비행(試験飛行)을 성공리(成功裡)에 실시(実施)하였다.

### • F-15 STOL 시범기(示範機)

McDonnell Douglas사제(社製) F-15 STOL 시범기(示範機)는 적(敵)의 공격(攻撃)으로 파괴(破壞)된 1,500 ft 또는 그 이하(以下) 길이의 짧은 활주로상(滑走路上)에서 기존(既存)의 비행성능(飛行性能)이 손상(損傷)됨이 없이 작전가능(作戦可能)토록 개발(開発)하려는 것이다.

시범기(示範機)에 도입(導入)되는 신기술(新技術)로서는 :

○ 이차(二次) 사각형(四角形) Nozzle 기술도입(技術導入)으로

- 추력작용방향(推力作用方向)의 지향(指向)(Thrust Vectoring)이 가능(可能)할 뿐만 아니라,
- 역추진(逆推進)도 가능(可能)하며,
- 전투기동성(戦闘機動性)도 크게 향상(向上)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초도(初度) 작전배치(作戦配置)는 1988년경(年頃)으로 잡고 있다.

## 3. 새로운 항공역학기술(航空力學技術) 적용(適用)

차기전투기(次期戦闘機) 적용가능(適用可能)한 기술(技術) "Mission Adaptive Wing(MAW : 임무적응가변(任務適応可変) Camber 익형(翼型))"이 있다.

이 MAW 기술개발(技術開発)은 미공군(美空軍)이 추진(推進) 중(中)에 있는 AFTI(Advanced Fighter Technology Integration) F-16기(機)의 개발기술중(開発技術中)의 일부항목(一部項目)으로 포함(包含)되어 연구(研究)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Boeing사(社)에사는 지난 79년(年) 1,240만불(万弗)의 개발계약(開発契約)을 체결(締結), NASA보유(保有)의 F-111 천음속기술실험기(遷音速技術実験機)(Transonic Aircraft Technology Testbed: TACT) 를 활용(活用)하여 이 MAW 기술개발(技術開発)을 추진(推進)해 오고 있다.

Boeing사(社)에서는 F-lll TACT기(機)의 주익구조(主翼構造)를 대폭(大幅) 개조(改造)하였는데 :

○ Leading과 Trailing Edge를 연속적(連続的)으로 원활(圓滑)하게 변형(変形)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Glass-Fiber 외판(外板)을 사용(使用)함으로써 가능(可能)했고 주익내부골격구조(主翼內部骨格構造) 는 동력(動力) 구동(駆動)으로 가동(稼動)되는 Hinge로 익형변형(翼型変形)을 가능(可能)하게 하고 있다.

이 MAW기술(技術)로 연속(連続) 원활(圓滑)한 익형변형(翼型変形)을 가능(可能)하게 하여 비행임무별(飛行任務別) 최적공력효율(最適空力效率)을 내게 하여

○ 기동성(機動性)
○ Range
○ 승기감(乘機感)(Ride Quality)
○ 구조수명(構造寿命)

등(等)을 크게 향상(向上)시키게 될 것이다.

Boeing사(社)가 추진중(推進中)에 있는 세 가지 익형별(翼型別) 효과(效果)를 알아보기로 한다.

### • 순항비행(巡航飛行) 익형(翼型)(Cruise Camber)

이는 익형(翼型)이 최대(最大) 양항비(揚抗比)(Lift-to-Dragratio)를 내도록 자동(自動) Trim 조정(調整)된다. 그 결과(結果) 이 MAW은 F-111 TACT 초임계성익형(超臨界性翼型)일 때에 비(比)하여 약(約) 30%의 Range 증대효과(增大效果)가 기대(期待)되고 있다.

### • 기동성(機動性) 익형(翼型)(Maneuver Camber)

이는 기체구조강도(機体構造強度) 한계치(限界値)를 넘지 않는 고(高) 선회(旋回)가 가능(可能)한 익형(翼型)으로 변형(変形)하게 된다.

이로써 항공기(航空機)가 Peakg에 이르게 되면 주익양력(主翼揚力)이 주익내측(主翼內側)으로 천이(遷移)하게 하여 주익(主翼)에 가(加)해지는 기동부하치(機動負荷値)를 Control이 된다. 그 결과(結果) 3g 선회(旋回)의 경우 종래(従來) 익형시(翼型時) 보다 1/2g Load Facter의 증대효과(增大效果) 가 기대(期待)된다.

### • 기동성(機動性) 향상(向上)

기동성(機動性)의 향상(向上)으로 선회반응성(旋回反応性)이 개선(改善)되며 또한 주익양력발생량(主翼揚力発生量)이 증대(增大)되어 미익(尾翼)에 발생(発生)되는 하향항력부하치(下向抗力負荷値) 를 자동적(自動的)으로 상쇄(相殺)시킨다. 이리하여 순간선회율(瞬間旋回率)이 약(約) 20% 향상(向上)하게 된다.

이로써 돌풍(突風)에 따른 순간적(瞬間的) 악영향(悪影響)도 경감(軽減)하게 된다. 돌풍(突風)에 따른 주익양력발생치(主翼揚力発生値) 변동(変動)은 모두 주익(主翼) Camber 변형(変形)으로 자동적(自動的)으로 제거(除去)하게 된다. MAW는 종래방식(従來方式)의 주익구조시(主翼構造時)보다 고가(高価)한 것이 될 것이나 주익구조재(主翼構造材)에 대(対)한 무리(無理)한 부하치(負荷値) 조정(調整)으로 구조재(構造材)의 수명연한(寿命年限)이 연장(延長)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정비소요(整備所要)가 경감(軽減)하게 되어 Life Cycle Cost가 절감(節減)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MAW가 ATF에 적용(適用)될 때에는 전복합재료(全複合材料)로 제작(製作)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보다 몇 100kg의 중량경감효과(重量軽減效果) 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전(実戦)에 있어서 전자공학(電子工学)

중위 윤 종 수 역(訳)
〈공본기참부〉

이 글은 James P. Coyne (Senior Editer), *Electronics for the shooting War" Air Force 1985. June에서 발췌한 것임.

마르코니(Marconi)가 1897년(年) 무선통신체제(無線通信体制)를 발명한 직후, 무선신호(無線信号)를 방해하거나 기만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어서 전자전(電子戦)이 시작되었다.

영미해군(英美海軍)은 함대훈련(艦隊訓練)에 무선통신(無線通信)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전쟁(戦争)에서 무선통신(無線通信) 방해를 최초로 응용한 것은 1904년(年) 4월(月) 14일(日) 러일 전쟁(戦争)에서 일본(日本)이 Arthur항의 포격을 지시하기 위해 작은 초계선들에게 무선통신(無線通信)을 사용했을 때였다. 러시아 통신사(通信士)는 일본(日本)의 무선신호(無線信号)를 듣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의 "스파크 송신장치(Spark Transmitter)"를 사용하였다. 즉 전자대응수단(電子対応手段)(Electronic Countermeasure : ECM )이 탄생한 것이다.

그 결과 포격작전은 실패하였다.

제일차(第一次) 세계대전전(世界大戦前) 영국(英国)은 선박 및 항공기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향측정기를 개발했다. 전쟁 중 무선통신시설(無線通信施設)을 갖춘 항공기가 정찰 및 포격지점을 찾는데 이용되었으나, 독일(独逸)은 재빨리 같은 주파수를 발사함으로써, 영국(英国)의 통신(通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1916년(年) Somme전(戦)에서 영국(英国)은 항공기(航空機)에서 지상(地上)의 수신자(受信者)에게 보내는 Signal의 음높이나 톤을 변화시키는 Clapper Break(음성차단기)를 사용함으로써 전파(電波)방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전자역대응수단(電子逆対応手段)(Electronic Counter-Countermeasure : E-CCM)이 실현된 것이다.

이 전쟁(戦争) 후 많은 국가(国家)에서는 무선(無線) 조종 항공기(航空機)를 실험했다. 워싱턴DC에 있는 해군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 : NRL)에서는 무선조종을 하는데 사용되는 주파수 대(帯)를 계속적으로 교차시키면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찾아내는 장치를 개발했다. 일단 그 주파수가 식별되면 방해전파를 보낼 수도 있고 더욱 더 강력한 전파로 항공기(航空機)를 조종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계속 탐색하여 영상화(映像化)할 수 있는 최초의 차단수상기(Intercept Receiver)라고 여겨진다.





20C가 미처 되기도 전에 Heinrich Hertz는 금속관이 전자파를 반사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1904년(年) 5월(月) 독일(独逸) 과학자(科学者) Christian Hulsmeyer는 전기(電気)로 작동하는 벨을 이용하여 라인강을 통과하는 배의 방향을 알려주는 초기(初期) 단계(段階)의 레이다와 같은 장치를 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1930년대(年代) 미국(美国), 영국(英国), 불란서, 독일(独逸), 네덜란드, 일본(日本), 소련 등이 실용적(実用的)인 레이다를 개발할 때까지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1934년(年) NRL에서는 50마일 밖에서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으나 기술적(技術的) 문제(問題)로 계속적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는 동안 영국(英国)과 서독(西独)은 전쟁(戦争)의 위험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영국(英国)은 75마일에서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고 그러는 동안 제(第)이(二)차(次) 세계대전(世界大戦)이 발발하고 미국(美国)은 해안포(海岸砲)와 대공포(対空砲)를 유도하기 위한 레이다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영국(英国)은 대륙에서 접근하는 항공기(航空機)를 탐지하기 위해 레이다 사이트를 설치했다. 독일(独逸)도 또한 레이다를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양쪽의 경쟁으로 인해 레이다의 방해기술도 발전하였다. 예컨대 효과적인 Chaff가 개발되어 독일 공습시 연합군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Chaff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 전자공학(電子工學)의 중요성(重要性)

전자전(電子戦)은 제이차(第二次) 대전후(大戦後) 크게 부각되었다. TAC(전술공군사령부)의 「Electronic Combat Requirment」를 담당하고 있는 미공군(美空軍) 대령 David Gingery에 따르면 어느 국가(国家)라도 전자전(電子戦) 능력(能力)이 없이 공중전(空中戦)을 벌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한 TAC의 「Reconnaissance And Electronic Combat Operation」의 책임자인 Richard Moore 대령도 전자전(電子戦) 능력(能力)이 군사력(軍事力)의 효용성(効用性)과 생존(生存)에 결정적(決定的) 요인(要因)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동감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항공기 승무원은 적(敵)을 무력화(無力化), 제압하기 위한 전술전기에 있어서 EF-111, Compass Call, F-4 G Wild Weasel 등과 같은 TAC의 지원체제에 의존해야만 한다.

전자전(電子戦)의 위협의 인식과 거의 모든 전투상황(戦闘状況)에 전자전(電子戦) 무기(武器)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TAC는 훈련상항에서도 전자전(電子戦)을 강조한다. TAC의 지휘관(指揮官)들과 조종사들은 기지(基地)에서의 일상훈련(日常訓練)에서도 다음 3가지의 주요 훈련(訓練)을 통해 고도(高度) 전자시설(電子施設)을 이용한 훈련을 쌓고 있다. 즉 Red Flag, Green Flag, Blue Flag이 그것이다.

1. Red Flag은 Nebraska 주(州)의 Nellis 공군기지(空軍基地) 근처의 공대공(空対空), 공대지(空対地) 훈련장(訓練場)에서 일년(一年)에 여러번 실시된다. 실전(実戦)과 같은 시나리오를

이용해 조종사와 항공기는 아군(我軍)과 적군(敵軍)으로 나뉘어 공격임무와 공중전(空中戰)에 참여한다. 공격기는 적기(敵機)의 요격과 적의 SAM과 AAA(Antiaircraft Artillery)에 의해 공격받게 된다. 전자전(電子戰)은 각 시나리오에 반드시 포함된다. 항공기(航空機)는 격추되고 표적은 피폭(被爆)되며 그 결과들은 전자장치에 의해 채점된다.

2. Green Flag은 Nellis에서 시행되는 또 하나의 막대한 규모의 훈련이다. 여기서는 수천 Sorties의 비행에서 특별히 전자전(電子戰)이 강조된다. Red Flag의 경우보다 방해 수단과 전자(電子) 대응수단(対応手段)이 더욱 강력하다. 또한 Green Flag은 전자전(電子戰) 시스템의 작동과 적용방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Green Flag 훈련(訓練) 중(中) 전술(戰術) 조종사들은 Red Flag에서 보다 더 많은 횟수의 전자전(電子戰)시스템에 의한 방해를 받는다.

3. Blue Flag은 전시(戰時)에 작전(作戰)을 지휘할 결정권자(決定權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훈련병력(訓練兵力)이 동원되므로 단순한 CPX가 아니다. Blue Flag에서는 공중전투(空中戰鬪)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본부(本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意思決定) 과정(過程)을 중시하고 있다. Red Flag과 마찬가지로 전술작전(戰術作戰)에 중점을 두지만 전자전(電子戰) 훈련(訓練)이 이 시나리오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 전자전(電子戰)의 세 가지 과제(課題)

이들 훈련은 실전(実戰)에서 지휘관(指揮官)들이 전자전(電子戰) 수행상 반드시 세가지의 과제(課題)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는 적의 EOB(Electronic Order of Battle) ― 즉, 적의 레이다 기지, SAM, AAA기지, 기타 방어체제를 찾아 확인하는 일이다. 둘째는 공격전력이 목표(目標)를 효과적으로 강타할 수 있도록 적의 EOB 능력(能力)을 약화 또는 무력화(無力化)시키는 일이다. 세째는 적(敵)의 전자전(電子戰) 능력(能力)을 파괴하는 일이다.

전투(戰鬪)가 시작되기 전에 지휘관(指揮官)은 수많은 정찰원(源)을 통해 얻어낸 정보(情報)를 토대로 종합·제작한 적의 EOB위치를 담은 사진을 갖게 될 것이다. 정찰원(偵察源)에는 관측인공위성(観測人工衛星), RC-135(이것은 KC-135를 전자정보(電子情報)수집용으로 변형한 것), SR-71 Blackbird U-2 /TR-1 항공기(航空機) 등이 포함된다. KF-4와 같은 사진촬영을 항공기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대의 SAM 기지(基地)들은 거의 이동형이며 분산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사진으로는 그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지휘관(指揮官)은 공격군 구성시 공격구성군에 대한 전자적(電子的) 위협물을 발견, 방해, 확인하는 등의 임무를 띨 항공기를 포함시킨다. 여기서 모두 언급할 수는 없으나 전자전 조종사들이 이들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내외(内外)에 탑재된 수많은 장비가 있다. 적의 전자발사기(電子発射機)(Electronic Emitter)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는 항공기 표면에 설치된 수많은 안테나를 이용한다. 적(敵)의 전파발사가 아군(我軍) 안테나에 잡히





면 각 안테나에서 적(敵) 전파의 강도(強度)와 Modulation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안테나가 각각 서로 다른 지점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전파는 증폭기와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석에 방향정보(方向情報)로 나타난다. 만약 수신기가 보다 섬세한 것이라면 적(敵)의 전파발사기를 확인하여 Signal의 강도(強度)로 측정하고 그 Signal의 강도(強度)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기록된 강도(強度)와 비교하여 그 전파발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 특수(特殊) 감지장치(感知裝置)

최신의 위험감지장치(危険感知装置)(Warning Sensor)들 중의 하나는 RF-4C의 내부(内部)에 장치된 Litton AN/ALQ-125TEREC(Tactical Electronic Reconnaissance 전술(戰術) 전자정찰(電子偵察))이다. 이것은 전투지역(戰鬪地域)에서 신속하게 위협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은 완전 자동화되어 위험을 확인하고 그것의 도달방향과 지상(地上) 송신기(送信機)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Data Link에 의해 전술사령관(戰術司令官)에게 이 정보를 보낸다. 한편으로는 조종석에서 정보(情報)를 판독해서 무전(無電)으로 그 지역에 있는 타(他) 항공기(航空機)에 이 정보(情報)를 보낼 수도 있다.

Data Link의 강점(強点)은 다량(多量)의 정보(情報)를 음성송신(音声送信)보다 빨리 보낼 수 있고 전파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적(敵)의 위협이 많은 지역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TEREC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항공기내(航空機内)의 Magnetic Tape에 기록된다. F-4G "Wild Weasel"의 중요한 부분은 AN/APR-38 Raws(Radar Attack and Warning System)으로서 적(敵)의 위협에 대한 정보(情報)를 수신, 해석, 발신한다. 이러한 항공기(航空機) 내부(内部)에 장치된 시스템은 동시에 많은 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그것들은 위협의 유형, 범위, 방위 위협정도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위험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것을 파괴하는 임무를 F-4G 승무원에게는 더 할 나위없이 귀중한 것이다.

Litton AN/ALR-69 Radar Warning Receiver(RWR)은 F-16과 같은 전투기에 장착된 여러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이 디지탈(digital) 시스템은 공중(空中) 레이다와 SAM의 전파를 탐지·분석하여 조종사에게 그 방향(方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Chaff와 Flare와 같은 대응수단(対応手段)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AN/ALR-46에서 발전된 것인데 10년전(年前) 사용되었던 중요한 RWR이다. 이 시스템들은 월남전 당시 F-4D에 설치되었던 APS-107 장치들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장치에 추가하여 언급하자면 F-15와 EF-111과 같은 항공기에는 독자적인 특수 RWR을 보유하고 있다.

## 방해(妨害)와 기만기술(欺瞞技術)(Jamming and Deception).

일단 위협이 확인되면 그것을 무력화(無力化)시키거나 파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수많은 방해 및 기만장비가 발달되어왔다. 최근에는 축소화되어 예외지만 전만해

도 항공기 외부(外部)에 이 장치를 운반하고 다녀야 했다. 그 이유는 방해(妨害)와 기만(欺瞞)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動力)과 도달 범위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장비로만 발생가능하였고 그 큰 장비를 내부(內部)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항공기의 무장장착을 위한 외부장치와 Pod로 인해 Drag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추력이 감소하여 주어진 항속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적(敵)의 주파수를 찾아 강력한 전파를 발사하여 혼동시키는 “Noise”에 의한 방해 작업을 하거나 반사파의 주파수를 변조(変造)하여 실제로는 표적이 없는 곳에 표적이 있는 것으로 믿게끔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ECM Pod는 F―4에 탑재된 Westinghouse AN/ALQ-119인데 이것은 A-7, A-10, F-15, F-111에도 탑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중(二重) Mode의 Jamming. pod가 특징인데 이는 Noise에 의한 Jamming과 주파수 변조(変造)에 의한 Jamming에 모두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1970년(年)부터 사용되기 시작된 이래 여러 번 개조되어 왔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것을 “Smart Pod”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재(再)프로그래밍하여 여러 가지 상이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의 pod들은 어떤 특정한 위협에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었다.

Westinghouse도 AN/ALQ-131ECM pod를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가장 발전된 미공군(美空軍) 후 Jamming Pod 중의 하나이다. 디지탈컴퓨터 주위에 설치된 이중(二重)mode의 Jammer는 AN/AL Q-119의 경우보다 프로그래밍을 쉽게 다시 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장비는 레이다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적으로 이에 적합한 Jamming을 시작하도록 고안되었다.

Northrop AN/ALQ-135 Internal Countermeasure Set는 F-15를 위해 개발되었다. 이 장비는 항공기의 전술전자전조(戰術電子戰組)(Tactical Electronic Warfare Suite)의 일부로써 작동한다. 이 장비는 자동적으로 적(敵)의 레이다를 방해하고 Digital Computer는 적(敵)의 ECM 주파수를 분류해서 변동하는 적의 위협양상(様相)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 적진(敵陣) 침투(浸透) 지원(支援)

공격기(攻撃機)가 적진(敵陣) 깊숙이 침투할 때 지대공(地対空)과 공대지(空対地) 위협은 증가한다. 각종 무기(武器)가 ECM 과 SAM -Killer 항공기(航空機)에 대처하기 위해 도처에서 집결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状況)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기에 Tractor AN/ALE-40Countermeasure Dispenser System을 장착할 수 있다. 본래 F-4를 위해 개발된 이 장비는 F-16과 같은 신예 전투기(戰闘機)에도 장착할 수 있다、F-15와 같은 몇몇 전투기(戰闘機)에서는 이 시스템을 약간 변형시켜 내부(內部)에 장치해 놓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격(攻撃)미사일이 레이다의 조종을 받고 있을 때는 chaff를 사출(射出)하고 공격(攻撃) 미사일이 열추적(熱追跡)일 경우는 flare를 사출(射出)한 다. 좀더 발달된 시스템은 조종사가 그 시스템을 손으로 직접 조작할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위험에 대응하도록 조작해 놓을 수도 있다. 또한 동시에 레이다와 열(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도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이 시스템이 방출한 물체를 미사일이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적진(敵陣) 침투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特殊) 임무수행(任務遂行)을 위하여 제작된 항공기가 있다. E-3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AWACS)는 육지나 해상 저(低)·고공(高空)으로 침투하는 적(敵)의 공격군에 대해 조기경보(早期警報)를 제공하고 공중전(空中戰)에서 많은 항공기를 통제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직접 지원하는 항공기(航空機)로는 EC-130HCompass Call 항공기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적(敵)의 지휘통제능력(指揮統制能力)과 통신능력(通信能力)을 방해하는 강력한 안테나를 부착하고 있다. 이 항공기는 C-130Hercules를 변형한 것으로 훈련을 통하여 전파방해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것은 실전(実戰)에서 중요한 자산중(資産中)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적(敵)의 대공방어(対空防禦)를 제압하는 것은 EF-III A RAVEN으로서 이것은 전술적(戰術的)인 strike force를 지원하기 위하여 F-111을 특별히 개조시킨 것이다. 이 항공기의 우수성은 초음속(超音速)으로 적역공(敵域空)에 침투하거나 탈출하는 능력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RAVEN은 공격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전투지역 외곽(外廓)에서 원거리 전파방해기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항공기는 미해군(美海軍)의 ALQ-99Jamming System의 성능을 향상시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10개의 송신기(送信機), 더욱 성능이 신장된 컴퓨터, 더 많은 신축성과 Jamming의 자동화(自動化)등이 특징이다.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정보(情報)는 전자전 장교에 의한 조종석내(內)의 Key Board조작이나 소프트웨어의 변경으로 시스템내(內)에 입력될 수 있다.

EF-111A는 전투지역 밖에서 약 4시간(時間) 정도를 머무르면서 전파방해를 하여 적진 깊숙이 들어간 아군(我軍)의 공격진로를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적진(敵陣) 침투임무(浸透任務) 수행시 RAVE N은, 필요할 때 전자대응수단(電子対応手段)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격부대에 가담할 수도 있다. EF- 111 편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군(我軍) 공격부대의 이동을 적(敵)의 레이다로부터 숨겨주고 공격부대가 재급유(再給油), 재집결(再集結), 재공격(再攻撃)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Hunter- Killer의 임무(任務)를 수행하면서 공격부대(攻撃部隊)를 따라 침투(浸透)하는 기종(機種)으로 F-4G “WildWeasel”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적(敵)의 대공(対空)방어를 섬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F-105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F-4G(Wild Weasel)는 F-4E를 개조한 것으로 복좌(複座), 초음속(超音速), 장거리(長距離) 전폭기(戰爆機)이다. 비행기 앞부분에 설치된 20mm Gatling 기관 또는 더욱 정교한 전자장비로 교체되었고, 적의 SAM과 AAA기지(基地)를 찾아 폭파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

## 전자전(電子戰) 무기(武器)

전자전에 사용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주(主)된 것으로는 AGM-45 Strike와 AGM- 88A HARM이 있다. 최초로 Strike 유형(類型)이 사용된 것은 1965

년(年) 베트남에서였다. 그것은 적의 레이다 기지와 SAM기지를 공격하는데 사용된 주된 무기였다. 1965년(年)에서 1978년(年) 사이에 13,000개 이상이 미공군(美空軍)에 보급되었다. Strike 미사일은 적 레이다의 전파발사체에 자동적으로 유도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가까운 표적에 발사되었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당시 기술공학(技術工学) 수준(水準)이 미사일에 기억장치(記憶裝置)를 할 정도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유도되고 있는 도중에 적의 레이다 기지에서 전파 발신을 중지하게 되면 Strike의 유도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Texas Instruments AGM—88A HARM(High-Speed Antiradiation Missile)은 Skike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즉, 전파발사가 도중에 멈춘다 하더라도 목표물(目標物)에 끝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항공기와 그 미사일 자체에 설치된 디지탈 프로세서를 통해 광범위한 주파수대(帶)를 커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HARM은 미국의 Antiradiation 능력(能力)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미사일은 Wild Weasel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Antiradiation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미사일 중에서 AGM—65 Maverick은 레이다기지 공격용으로 매우 유용하다. 이것은 어떠한 점(点) 목표물(目標物)이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하나의 "Launch and Leave" 미사일이다. 조종석 내(內)의 TV 스크린에 목표물(目標物)이 확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조종사는 아무리 작은 표적이라도 확인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Maverick은 열발사(熱発射)(Heat Emission)에 의해 유도되고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므로 악천후하에서나 밤에 유효하다.

미공군(美空軍)은 전자전(電子戰)에 대한 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으나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즉 원거리(遠距離) 포착레이다. 통신망(通信網), 전투지역(戰鬪地域)에서의 전자능력(電子能力)등을 통합하여 단일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공군(美空軍)은 전자전분야에서의 진보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전자전(電子戰)은 미공군(美空軍) 전투능력(戰鬪能力)의 주(主)된 요소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전(電子戰) 능력(能力)은 증가되고 있는 위협과 보조를 같이 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적의 위협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한 전자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年)까지는 우리의 전략을 완벽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미공군(美空軍) 본부(本部) 전자전(電子戰) 부장(部長)(Deputy Director, Electronic Combat HQ, USAF)인 Richard P. Wallace 대령은 갈파하였다.



# 교통법규를 알자

편 집 실

- 이 자료는 공군본부 법무감실에서 제
- 공한 자료로서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
- 어 교통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교통법규를 준수하자는데 목적이 있음

## 1. 교통사고의 처치

### 가. 교통사고의 정의

**제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교통사고란 제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他人)의 물건(物件)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교통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시대의 요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자동차가 생활의 도구화함에 따라 운전만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소위 자가운전자가 대량 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국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82. 1. 1부터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 동법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다.

### 나. 처벌 내용

○ 대인사고 :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물사고 : 2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칙적으로 대인사고의 경우 동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대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74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다.

### 처벌의 특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합의) : 불처벌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 합의 간주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볼 10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란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을 말한다. 또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구체적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때 보험계약 등이 무효 또는 폐지되었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라. 특례의 예외 : 합의의 경우에도처벌

○ 치사

○ 사고 후 도망

○ 신호안전표지 위반

○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횡단금지 등 위반

○ 제한속도의 매시 20km 이상 초과운전

○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주취 또는 약물중독 운전

상기 예외 사유에 관하여 알아 보면

첫째, 피해자의 사망이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므로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또는 치료 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투 사망하더라도 동일하다.

둘째,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이다. 운전자가 운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관에게 지체없이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기타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





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였을 때에는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 의하여 피해자 사망의 경우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그외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되는 것이므로 이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신호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운전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경찰관 및 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또는 전투 경찰순경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하는 바, 이러한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과실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처벌된다.

넷째,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운전자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해야 할 것인바,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한편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 회전, 후진해서는 안 되는 바, 이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섯째,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자동차는 차종, 도로구역 및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지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므로 위와 같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불문하고 처벌된다.

여섯째,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또는 앞지르기 방법을 잘 못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운전자는 앞 차가 다른 제차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을 때, 앞차가 다른 제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교차로, 모퉁이, 경사로의 정상, 급경사의 내리막 터널내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의 경우에도 처벌된다.

일곱째, 건널목통과방법에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운전자는 궤도 건널목을 통과하려 할 때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안될 뿐 아니라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등의 표시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그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운전자의 건널목 통과방법에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된다.

여덟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

해하지 않아야 하는 바,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역시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아홉째, 무면허운전의 경우이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운전한 경우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당해 면허차량 이외의 차종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역시 무면허로 간주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열째, 주취 또는 약물 중독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주취의 한계는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 0.5밀리그램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 0.25밀리그램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음주량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청주의 경우 200밀리리터, 맥주는 1.4병, 위스키는 65밀리리터, 소주는 0.4홉 가량 음주한 후 5분에서 30분 이내의 상태를 말한다. 한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이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유를 검토하였다.

## 2.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위반 처리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운전자의 제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고, 동시에 군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 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먼저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은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6월 이하의 징역,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된다.

또한 건널목 통과시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되고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경우에도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신호위반, 차선위반, 속도위반, 진로양보의무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자 위반 등 기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게 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벌칙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나 통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을 받게 된다.

### 나. 군인사법상 징계처분



끝으로, 우리 군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는 교통질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군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군인사법상의 징계절차를 통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조국선진화의 기수로서 전 국민의 교통질서 의식의 체질화에 앞장서서 타의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도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말없이 지킨질서**
**이룩되는 신뢰사회**

# 컴퓨터와 SAGE 시스템

중령 정 한 철
〈공군본부〉

## 1. 컴퓨터 세대 구분

컴퓨터가 계산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마이크로 프로세서(Micro Processor)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에 따라 제1세대 컴퓨터로부터 현재 일본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는 지능을 가진 제5세대 컴퓨터까지 크게 5세대로 나누고 있다.

제1세대 컴퓨터에서는 진공관을 사용했으며, 1959년 트랜지스터의 발전에 따라 제2세대로 변화를 이루었고 직접회로(1C)의 개발에 따라 1964년부터는 제3세대로 접어들었으며 사실 이 때부터 IBM을 비롯 UNIVAC, HONEYWELL 등 많은 회사들이 컴퓨터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컴퓨터 대중화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겠다.

1979년 이후 직접회로 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제한된 단위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설계해 넣은 고밀도 직접회로(LSI)의 출현을 기점으로 제4세대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컴퓨터는 더욱 소형화되어져서 MINI 혹은 MICRO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후 더욱 인간지능에 가까운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논리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제5세대 컴퓨터에까지 이르고 있다.

## 2. 제1세대 컴퓨터를 사용했던 SAGE 시스템

2~3년 전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길 "이제 1세대 컴퓨터는 지구상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틀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1983년 12월 22일 미국 아리조나주 LUKE 공군기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SAGE(Semi-Automatic Ground Environment) 시스템 컴퓨터가 30년간 근무를 마치고 새 시대의 기술에 밀려 현역으로부터 은퇴를 했기 때문이다.

SAGE 시스템은 미국 최초의 자동화 방공체제로서 제1세대에 속하는 진공관을 사용한 컴퓨터를 이용한 방공체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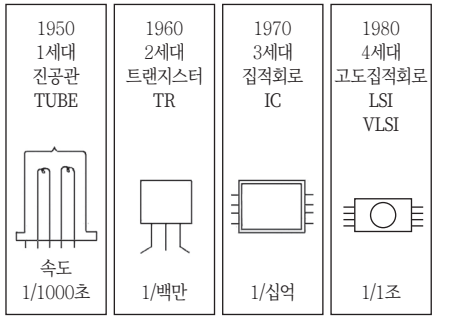




## 3. 제1세대 컴퓨터의 은퇴

SAGE 시스템에 이용되었던 컴퓨터는 무게가 420톤이나 나가는 거구이며 5만개의 진공관과 185온스의 금과, 5천온스의 은이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용되어졌다.

컴퓨터 기억소자 발달




이 컴퓨터를 유지 지원하는데 커다란 3층 건물이 다 소요되었으나 만약 비슷한 성능을 가진,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제4세대 컴퓨터로 대체를 한다면 그 전체 건물 중에 모퉁이 방 하나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는 소형화되어 졌으며 성능은 더욱 우수해졌다.

특히 제3세대 컴퓨터 이후부터 컴퓨터(Hardwward) 생산의 급격한 증가와 상대적인 가격의 저하에 따라 컴퓨터는 대중화되어 널리 쓰이게 되었으나 이미 진공관 방식을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공관식 컴퓨터는 아주 초기의 실험적인 컴퓨터라고 책에 적혀 있으며 실험실에서나 운용되었던 것처럼 알고 있다.

그러나 1983년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 귀환시 LUKE 미공군 기지에 있었던 얼마 전에 퇴역한 제1세대 컴퓨터 SAGE 시스템은 노장답게 중요한 한 몫을 하였다.

퇴역 후 SAGE 컴퓨터 중의 일부는 영화 제작소에 팔려 많은 우주항공주제 공상영화 및 TV에 등장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뉴욕 산업박물관에 현재 전시 중에 있다.

## 4. SAGE 탄생의 배경

SAGE 시스템은 많은 방공통제소 간에 상호 연결된 Network을 이용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모여지는 방공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AN/ FSQ-7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방공통제 및 지휘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전시해 줌과 동시에 적기에 대응할 방공무기(전투기 혹은 기타 지상 방공무기) 통제에 관한 적절한 우선순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데 SAGE 체제가 개발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은 아무 공중경고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진주만 기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까지도 방공체제 구축에는 관심이 적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그 시대에 유일하게 최초로 원자탄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9년 8월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폭격기의 발달에 따라 북극을 통한 소련 폭격기의 미국에 대한 소련의 핵공격 위협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그해 은밀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첫 회의에서 영공방위 방공체제를 위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몇년 후에 이루어질 SAGE(Semi - Automatic Environment) 체제의 원조가 되었던 것이다.

그 위원회의 이름은 방공체제 연구위원회라고 했으며 위원장이 MIT 교수인 Valley였기 때문에 또한 Valley 위원회라고도 불렀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8년 후에 SAGE 체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게 하였고 새로운 기구의 탄생과 업무의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다.

SAGE는 최초의 지휘통제 체제임과 동시에 MIT에서 개발한 디지탈컴퓨터(Whirlwind)가 핵심적인 주역이었다는 것이 유명하다.

밸리위원회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작은 레이다기지 건설과 함께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취급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자동체제를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공체제 장비에 대한 보완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측 및 통제 그리고 정보를 축적하는 기능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 수행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로부터의 제안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으며 첫째 단기정책으로 현상태를 분석한 후 기존 수동식인 방공체제의 개선 및 보완이 민간 사업체(Bell Laboratories 및 Western Electric)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륙방공체제 (Continental Air Defense System)이다.

둘째 장기정책으로 SAGE 체제의 개발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1951년 연구소(Lincoln Laboratory) 를 설립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MIT의 디지탈컴퓨터연구소의 컴퓨터 연구개발은 SAGE 체제의 구축에 혁신적인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하겠다.

## 5. 컴퓨터 기술의 발전(뒷받침)

이리하여 만들어진 Whirlwind는 최초의 즉시처리(Real Time) 통제 컴퓨터였으며 링컨연구소에서 이 컴퓨터에 더욱 관심을 두었던 사항은 신속한 처리기능과 높은 신뢰도로서 즉시처리 통제체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를 같이 하여 또 하나의 기술적인 혁신은 1950년 Random Access 주 기억장치의 개발로서 종래의 CRT(Cathode- Roy- Tube) 저장방법에 비해 기계속도가 2배로 증가되었고 예상되는 기계정비 시간도 하루 중 4시간으로부터 1주에 2시간으로 현격히 감소되었다.

사실 그 시대만 해도 초창기 컴퓨터시대로서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장이 적은 진공관을 만들어 컴퓨터의 고장률을 적게 하느냐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또 하나의 SAGE에 사용되어질 기술로서는 레이더 프로세서인데 이것은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레





이더빔이 타겟을 지날 때 타겟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빔의 정확한 중앙위치를 결정하는 장치이다.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TGT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각 부분별로 개발되어져 링컨연구소가 처음으로 만들어 낸 실험적인 체제가 CAP COD시스템이며 이 체제를 통해 항적추적 및 유도, 그리고 공중감시 및 무기통제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 시스템에 쓰여진 컴퓨터는 시분할(Time-Starr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스크린에 나타난 사항을 컴퓨터에 전달하기 위해서 Light Gun을 사용하였다.

CAP COD시 스템에서는 Whirlwind 컴퓨터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을 약간 더 발전시켜 SAGE 시스템에서는 FSQ- 7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FSQ- 7 컴퓨터는 링건연구소 및 IBM회사에 의해서 방공체제에 맞도록 설계되어 졌으며 또한, 최초의 이중컴퓨터 개념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이중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능을 가진 두 개의 컴퓨터로 구성하여 하나의 컴퓨터가 실제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하나는 대기하는 상태로서 훈련 및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그 임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 6. SAGE의 변화

첫번째 SAGE 지휘통제소는 1958년 7월 McGuire 공군기지에서 가동하기 시작했었고 1963년에는 전체적으로 확장 적용되었다.

총 23개의 지휘통제소와 3개의 Combat Center, 그리고 하나의 Programming Center가 건립되어졌다.

소련의 대륙간 유도탄의 발달에 따라 미국은 Strategic Air Command (SAC)에 위치해 있는 SAGE 컴퓨터의 취약적인 노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Super Combat Centers(SCCS)의 발전을 보게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AN/ FSQ-32 컴퓨터를 설치한 지하 지휘통제소인 것이다.

AN/ FSQ-32 컴퓨터는 종래 진공관식의 컴퓨터인 AN/ FSQ- 7 / 8 에서 더욱 진보된 트랜지스터 형의 컴퓨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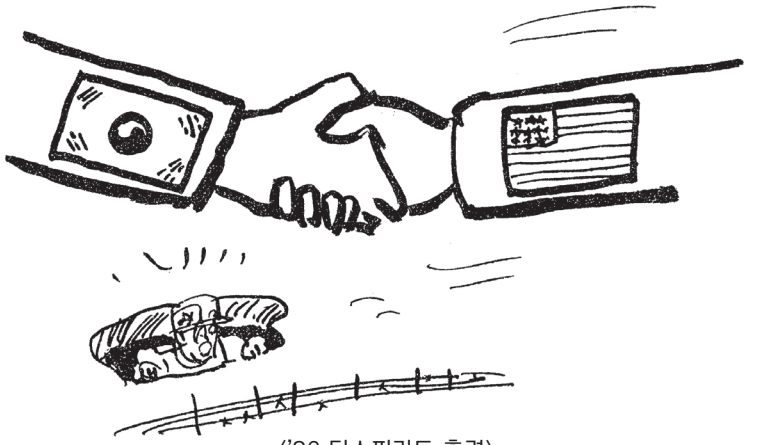
SCCS를 설립한 목적에는 만약의 경우에 SAGE 지휘통제소가 적의 공격으로 파괴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방공능력을 보유하는 데 있다.

SCCS에 적용된 체제로서는 Back-up Interceptor Control(BUIC) 체제인데 SAGE보다 규모는 적지만 자동정보를 레이다사이트 및 지휘통제소에 동시 제공하는 체제로서 경제적인 체제이다.

1983년 중순까지도 Luke Air Force Base 및 Ontario 등 6 개 SAGE 통제소들을 운영했었다.

즉 진공관식 컴퓨터(FSQ-7)가 20년 이상이나 운영되었으며 최근에는 FAA레이다와 새로운 Regional Operational Control Centers(ROCCS)에 자리를 양보하고 현역으로부터 퇴역을

□ 공군만평(空軍漫評) □



〈'86 팀스피리트 훈련〉

● 혈맹의 굳은 악수, 두더지는 설 땅 없다

하였다.

SAGE는 실제, 전쟁에 이용되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스템에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방공체제 발전에 기여한 공은 크다 하겠다.

참고문헌


1. John Wiley and Sons, I no. Wiley Series i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1967.

2. R. R. Everette, C. A. Zraket, and H. D. Benington SAGE A Data Processing System for Air Defense

3. Dimensions IBM Kingston February/ March 1984 "The Last Dinosaur" Shuts Down by Dennis Drogseth

4. SAGE Robert R. Everett, Editor Annals of the History of Computing Volume 5 Number 4 October 1983




# 세계(世界)의 국가(國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 민족의식의 영원한 찬가 -


준위(准尉) 윤 덕 현(尹德鉉)

〈제3639부대〉


### 1. 극장에서 국가를 연주하는 관습은 1745년 영국에서 유래

국가는 국호, 국화, 국기와 함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애국가가 연주되는 기회는 매우 다양하다.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공식행사, 외국 국가원수나 사절의 방문,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 학교, 관공서나 군대에서의 조회, 음악회장이나 영화관의 개막전, 라디오, TV방송의 시작과 끝,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 등 연주형태로 독창, 제창, 합창, 관악, 팡파르, 현악합주 등 여러 가지이다. 국가가 사용되는 기회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군주나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를 표시할 때이다. 주로 국가원수나 국왕이 참석하는 공식적 행사에서 국가가 연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극장이나 영화에서 국가를 연주하는 관습은 1745년 영국에서 토마스 안느의 편곡으로 된 『신이여 왕을 구하소서』가 드러리 레인에 있는 왕립극장에서 불려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BBC 방송이 런던에서부터 유럽 전역에 연합군의 국가를 계속 방송하여 수십만 유럽인들에게 기필코 자유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갖는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세기 말, 특히 중남미와 중부 유럽에서 나타난 민족의식의 성장은 막바로 국가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는 제임스 2세를 지지하던 무리가 등장하던 정치적 위기 동안에 만들어졌다. 18세기 말에 가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국가를 채택하였다.

중남미와 중부유럽에 이어 일본(1893), 자유중국(1929), 중공(1949)과 동유럽 국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신생독립국의 탄생과 함께 많은 숫자의 국가가 쏟아져 나왔다.

가사는 문학적 가치보다는 애국적 내용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주변국가와의 관계나 국내의 정치 변론에 따라 수정되기도 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왕이나 하이티의 장자끄 데살리네 같은 국민적 영웅을 찬양하는 경우, 온두라스나 미국처럼 국기를 노래하는 경우, 칠레나 필리핀, 남아연방, 리히덴슈타인, 룩셈부르크와 같이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 영국, 뉴질랜드, 가나, 헝가리와 같이 기도문의 성격을 띠는 경우, 프랑스의 "라 마르세이유"나 알바니아, 쿠바,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칼, 터키 등과 같이 무장, 용병, 입대를 요청하거나 독립을 위한 투쟁을 노래하는 경우, 모로코, 쿠웨이트, 카타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바티칸, 이라크와 같이 가사가 없고 연주곡만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전주를 동반하는 국가는 포르투칼, 인도네시아, 웨일즈, 이탈리아, 레바논,  그리고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같은 남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2. 작곡자가 미상인 영국의 "신이여 왕을 구하소서"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God Save the King/ Gueen)는 세계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국가이다. 이 노래의 작곡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인 채로 남아있다. 옥스퍼드 음악사전의 저자에 의하면 이 노래의 기원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나타났던 민요, 캐롤, 안티폰의 선율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선율의 단편들이 존 벌(John Bull) 의 건반악기곡(1619)이나 헨리 퍼셀이 1683년과 1696년에 각각 작곡한 두 개의 기악곡(두 개의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6번 중 라르고 악장, 하프시스코드를 위한 미누엣)에서 재현된다고 한다. 한편 헨리 퍼셀이 지은 돌림노래 '요크공의 귀환에 붙여'(1685)의 제2절 가사로 현재의 영국국가와 매우 흡사하다. 「물러설 줄 모르는 용사들에게 길을 비켜 주어라. 신에게 왕과 공작을 구해달라고(God Save the King) 대답했다. 여기서 점을 찍은 부분은 그 선율로 현재의 형태와 같은 음정관계를 나타낸다. 퍼셀의 어머니인 안느 부인이 찰스 버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노래가 극장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불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오린지 공이 영국해안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였다(1688~9년).

현재의 영국 국가가 최초로 인쇄되어 나타난 것은 '음악선곡집'(Thesau-rus Musicus, 크리잔더의 주장에 의하면 1744년에 출판됨)에서이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영국의 음악'(H-Armonica Anglicana)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이 노래는 1745년 왕위를 요구했던 제임스 2세의 손자 찰스에드워드가 영국에 도착했던 해에 인기 절정에 달했다. 때로는 이 노래의 작곡자가 륄리나 헨델이라는 주창과 최초의 인쇄본이 헨리 케리, 토마스 안느나 제임스 모스왈드의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다.

1945년부터 영국 해군의 암호는 '신이여 왕을 구하소서'(Long to reing Overus)였다. 1605년 11월 5일 영국 구교도들이 의회에 화약을 장치하여 이를 폭파하려던 음모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에 영국 국교에서 드리던 공식적 기도문은 현행국가의 2절 가사와 매우 비슷하다. '우리의 적들을 쫓아주시고..... 그들의 나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간계를 무너뜨리소서' 현재 남아있는 가사는 영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왕실에서 애송되던 명시들을 모아놓은 듯하다. 아마도 찰스 에드워드의 왕위요구, 제임스 2세의 망명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가사가 첨가되었을 것이다. 18세기 초 쟈코뱅당의 술잔에도 'God Save the King' 이라는 싯귀가 새겨져 있었다. 1919년 영국 추밀원에서 2절에 나오는 전투적인 가사(적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사악한 간계를 좌절시키소서')를 평화스러운 가사로 바꾸자는 의안이 통과된 적도 있다.

이 노래에 대한 초연기록은 드러리 레인과 코벤트 가든 극장에서 나타난다. 1745년 9월 존 코프가 이끄는 군대가 프레스 톤판스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 이 노래가 며칠 밤 동안 계속 연주되었다. 드러리 레인 극장용으로 편곡한 안느의 필사본(Eb 장조)이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엘가(1902)와 브리튼(1961)도 각각 합창용의 편곡을 남겼다.

영국 국가는 미국의 초기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그 밖의 독일의 독립 지방 국가에서 국가로 사용된 적이 있다. 아직도 리히텐시타인은 이 선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1813)와 피아노 변주곡(1803),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1829)에서도 이 익숙한 선율이 나온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실려있다(79장 " 피난처 있으니"). 영국의 애국가에 해당되는 '대영제국을 다스리라! (Rule Britanniai)는 제임스 통슨의 작사, 안느의 작곡으로 1740년 8월 1일 웨일즈 공 프레드릭의 정원에서 가면극 "알프레드"에서 초연된 노래이다.

## 3. 혁명당시 파리로 진격하는 의용군이 불렀던 "라 마르세이유"

프랑스의 "라 마르세이유"는 이미 그 유래가 약간 소개된 바 있다("객석" 1985년 4월 "혁명" 또는 사회운동과 음악). 당시 라인 주둔군 장교였던 루제드 리즐이 행진곡용으로 작곡한 이 노래는 낱장 악보로 인쇄되어 파리로 진격하는 마르세이유의 의용군 손으로 넘어갔다.

"마르세이유"를 부르며 '푹푹찌는 삼복더위와 싸우며 하루 18마일씩 진군한' 의용군에 의해 8월 10일 튈르리 궁은 함락되었으며 루이 14세와 마리 앙뜨와네뜨는 의사당으로 피신했다. 작곡자인 루제 드 리즐은 시인, 가수, 바이올린 주자로 꽤나 명성을 얻었던 아마추어 음악가였다. 정치체제가 바뀜에 따라 원래 왕당파였던 그의 지위도 상승과 하락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총각으로 지냈으나 단 한 명의 친척인 그의 조카가 나서서 "라 마르세이유"의 작곡자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켰디-.

1879년 이 노래가 프랑스의 정식 국가로 채택되었으며, 생전에 가난과 기근에 허덕여야 했던 작곡자를 기념하는 동상이 두 곳에서 세워졌다. 1915년 바스티유 함락기념일(7월 14일)에는 그의 유해가 앵발리드 기념관으로 옮겨졌다. 이로서 "라 마르세이유"는 성스러운 프랑스 인민연합을 상징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프랑스 제2제국 당시에는 이 노래 대신에 좀 덜「혁명적인」 노래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나폴레옹 3세의 어머니인 오텐스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시리아로 떠납시다」가 그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가 퇴위하자 막바로 「라 마르세이유」의 지위는 회복되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원래 「라인 주둔군을 위한 군가」였으나 마루세이유의 의용군에 의해 프랑스와 파리 전역에 퍼짐으로 해서 「마르세이유인들의 행진곡」(Marchede Marseilles)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간편하게 「라 마르세이유」로 바뀐 것이다.

「라 마르세이유」가 불려진 역사적 상황은 대체로 (1) 작곡자의 원래 의도에 의한 프랑스에 대한 애국적인 노래 (2) 1795년 5월 혁명 (3) 1830년 파리 노동자들에 의한 7월 왕국수립 (4) 그리이스, 헝가리, 러시아에서의 혁명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베를리오즈는 6월혁명 동안 거리에서 「라 마르세이유」를 외쳐 부르는 군중들을 지휘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당시 며칠 동안의 파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광란적인 삐라, 남자들의 열정, 비통에 잠긴 스위스 왕립 친위대의 모습, 파리의 주인들이 될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모습 …… 시작 부분에는 시끄러운 군중들이 부동자세로 기립했다. 2절이 끝나자 적막이 흘렀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너무나도 냉담한 이들의 태도에 화가나서 외쳤다. 제기랄 망할 놈들아! 노래를 부르란 말야! 그러자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다.

4, 5 천명의 사람들이 빽빽이 둘러싸여 거리로 나와 남여노소할 것 없이 싸우려는 열기로 가득찼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어떠했는지 상상해 보라 .… 그 전에 나는 관현악 합주와 2개의 합창단을 위해 「라 마르세이유」를 편곡하여 루제 드 리즐에게 헌정했다.

스와시에서 그는 내게 초대의 편지를 보내왔지만 불행하게도 가지 못했다. 마침 그때 내가 이탈리아로 떠나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파리로 돌아 왔을 때는 이미 그가 죽은 다음이었다.』

1836년 루제 드 리즐이 죽자 수많은 파리의 노동자들이 모자를 벗어들고 그의 장례 행렬을 뒤따랐다. 이처럼 「라 마르세이유」는 프랑스 아니 전 세계의 민중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 것이다.

1848년에 있었던 혁명에서는 콩스탕(A Constant)의 가사를 붙여 「민중 마르세유」가 불려졌다.

『프랑스의 전사들이여 무기를 들라/두번씩이나 속은 민중이여/무기를 내려 놓지 말아라/우리는 왕들을 쫓아내었을 뿐이다/만일 우리의 불행을 착취하는 자가/우리를 계속 압박할 때는/앞으로 나아가 사생결단을 내리자/우리 선조들의 후렴으로!』

「선조들의 성스러운 후렴」은 「라 마르세이유」의 후렴을 가리킨다.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정렬하라/앞으로, 앞으로!/더러운 우리의 피가 우리의 밭고랑에 흩뿌려지도다』

여기서 선율과 후렴의 가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가사의 표현방식으로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본다. 원래 형태의 「라 마르세이유」에서 고양된 감상성이, 노동자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잔인한 리얼리즘으로 바뀌었다.





『인간의 삶을 파먹는 이들 식인종의/튀어나온 배를 위해/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로서/쇠사슬에 묶여 죽는 것이 더 나은가?』

1871년의 파리 꼼뮌 혁명도 「라 마르세이유」로 시작되었다. 이때 불린 노래는 「파리꼼뮌의 마르세이유」로, 이 노래가 가졌던 원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니 부정하고 폭로했다.

『너희는 새로운 법률을 찬양하지 말라/민중들은 너희가 떠벌이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격식차린 문구도/의미없는 반말도 이제 그만해라』

이 노래의 후렴구는 노동자의 노래에서 즐겨 사용되던 가사로 끝난다.

◎ 「지배자를 없애버리면 백성이 빵을 먹으리」

이 노래는 여러 형태의 가사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각처의 노동운동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1848년~9년에 있었던 독일의 노동에서 그러했다. 1905년의 러시아 혁명에서는 어린이들까지 거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러시아에서는 이 노래가 가사 뿐만 아니라 선율의 변형도 겪는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농민의 마르세이유」, 「노동자의 마르세이유」가 그 예이다. 「국제공산당가」(Internationale)는 원래 불어로 된 가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박자구조는 「라 마르세이유」를 닮았다. 조국의 아들들이여 일어나가자가 아니라 "일어나라" 땅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여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프랑스 내에서도 일명 올빼미당, 백기당으로 불리는 반혁 왕당파에서도 「라 마르세이유」를 변형시켜 불렀다. 「라 마르세이유」가 갖는 혁명성은 이 노래의 첫 부분에서 나타나는 상행 4도의 연속진행 (솔-도-레-솔)에서 발견된다. 이 음정관계는 구노의 「파우스투」에 나오는 행진곡과 브라질, 가봉, 튀지니아, 바티칸 등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요소이다. 여기에 부점리듬이 주는 박진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혁명 노래가 그러하듯 「마르세이유=혁명」이라는 등식이 가져다주는 지시적 의미(Indices)는 이 노래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어떤 역동성이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 편집후기(編輯後記)

○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말했던 시인 셸리(Shelly)는 그 혹독한 산고(産苦) 속에서도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모(産母)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처럼, 대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인간의 겸손함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시(詩)로서 표현하고 있읍니다.

조국(祖国)을 선진국(先進国)의 대열에 기필코 올라서게 하려는 온 국민의 지혜가 한 골로 모이고 창조(創造)와 번영(繁榮)의 세기(世紀)를 맞으려는 진군(進軍)의 합창이 곳곳에서 메아리 치는 이 때 우리 장병도 모두 굳게 뭉쳐 주어진 과업완수(課業完遂)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봄은 저 만큼에서 손짓하고 있읍니다.

○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공군(空軍)」은 통권(通卷) 200호 발간(発刊)을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장병 여러분 자신이 꾸며가는 우리「공군(空軍)」에 더 많은 투고와 격려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공군(空軍)」은 시의적절한 내용과 참신한 모습으로 군발전(軍発展) 및 병영생활의 활력소(活力素)가 될 것임을 편집요원(編輯要員) 모두가 다짐합니다.

## 장병 투고(將兵 投稿) 환영

「공군(空軍)」은 공군(空軍) 유일의 장병교육(將兵教育) 및 교양지(教養誌)이며 장병 여러분 자신이 꾸미는 잡지입니다.

평소 병영생활과 자신의 일과(日課)를 통하여 느끼고,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여 보내주거나, 군발전(軍発展)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등을 모아 투고하면 소중한 여러분들의 옥고(玉稿)를 게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문예작품(文藝作品)도 물론 환영합니다.

## 투고요령(投稿要領)

- **매수(枚数)** :
  200자 원고지 20~40매 정도
  단, 논문(論文)은 제한 없음
- **마감일자** : 제한 없음
- **보내실곳**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정훈감실「공군」담당. (우편번호 151 - 01)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3,700

제목 : 공군지 198호

1986년 2 월 10 일 인 쇄
1986년 2 월 15 일 발 행

발 행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